

정여립 모반사건의 관련사료 검토

이 희 권*

〈목 차〉

I. 서언(序言)

III. 결어(結語)

II. 관련사료의 검토

I. 서언(序言)

선조(宣祖) 22년(1589) 10월 2일에 정여립(1546~1589)이 모반하였다는 황해도 관찰사 한준(韓準)의 고변(告變)이 있었으나 반신반의하던 조선 조정은 정여립이 자결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여립 모반사건을 부동의 역사적 사실로 확정, 공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되어 1,000여 명이 희생되었고, 전라도는 반역향이라는 오명을 안고 인재등용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아야만 하였다. 조선정부가 전력을 다하여 모반의 결정적 증거를 찾았지만 모반을 확증할 만한 비밀문서 한 건, 거사에 사용할 무기 한 점 찾아내지 못하였다.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사건이 이렇다 보니 사건을 보는 시각도 사람마다 달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여러 사료들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 관련 핵심사료들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교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해야만 정여립 모반사건의 실체 해명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괘일록(掛一錄)』, 『토역일기(討逆日記)』, 『동소만록(桐巢漫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동남소사(東南小史)』의 저작시기와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하자.

II. 관련사료의 검토

1.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실록』은 광해군 1년(1609) 7월에 편찬에 착수하여 8년(1616) 11월에 완성되었으니 광해군 초년의 대북(大北)정권에서 편찬한 것이다. 실록을 편찬하는데 있어 핵심 사료는, 정부 각 기관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년(年), 월(月), 일(日) 순으로 정리한 시정기(時政記)와 춘추관(春秋館) 사관(史官)들이 평소에 작성하여 비장(秘藏)하였던 사초(史草)였는데, 영사(領事) 기자헌(奇自獻), 감사(監事) 이항복(李恒福), 지사(知事) 이이첨(李爾瞻)·윤방(尹昉) 이하 17인, 동지사(同知事) 박건(朴建)·이수광(李睟光) 이하 24인, 편수관(編修官) 48인, 기주관(記注官) 김유(金瑬) 등 52인, 기사관(記事官) 81인¹⁾ 등 총 224명이 작성한 사초와 시정기(時政記)가 핵심 사료였음이 확인된다.

선조가 서거한 후 『선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실록청이

1) 『선조실록』부록 참조.

설치되고, 기자헌(奇自獻, 1562~1624)이 총재관이 되었으며²⁾, 도청(都廳), 낭청(郎廳) 12명이 임명되었고³⁾ 특별히 신흠(申欽, 1523~1597)이 부총재관에 추가로 임명되었다.⁴⁾ 이들 당상과 낭청은 각각 3방(房)으로 나누어, 각 방(房)에서 당상과 낭청이 정사(政事)기록을 살펴보고 긴요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올리면 도청, 낭청이 교열하여 중초(中草)를 만들고, 이를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교열하여 『선조실록』을 완성하였던 것이다.⁵⁾ 이처럼 『선조실록』은 총재관 기자헌, 부총재관 신흠과 도청 당상 10명, 도청 낭청 12명 등 24명의 사관이, 춘추관에서 정리한 시정기와 224명의 춘추관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를 핵심 사료로 하여 전례에 따라 협의를 통한 단계적 교열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던 정사(正史)였다. 『선조실록』의 개수를 주창하였던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관의 글을 남몰래 삭제하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편찬할 만큼 실록청의 구성이나 실록 편찬절차가 허술한 구조가 아니었다.

다만 임진왜란(1592) 이전의 사초를 춘추관과 승정원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관 조존성(趙存性)과 김선여(金善餘)·박정현(朴鼎賢)·임취정(任就正) 등이 왜란이 발발하자 모두 불태우고 도망하였던 까닭에, 이 시기의 실록 편찬에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다.⁶⁾ 때문에 사대부들의 문집 중 비명(碑銘)·소(疏)·차(劄)의 내용이 시정(時政)에 관계되어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집하고, 가장일기(家藏日記)들을 모두 바치게 하여 실록을 편찬하였던 것이어서, 그 내용이 소략하고 빈약한 측면이 있을 뿐이다.

2) 『광해군일기』, 1년 10월 계축.

3) 앞의 책, 2년 3월 기묘.

4) 앞의 책, 2년 7월 계축.

5) 『광해군일기』, 2년 3월 임오.

6) 위 책, 1년 10월 계축.

2.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선조실록』은 왜 수정해야 하였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소위 수정론자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채유후(蔡裕後, 1599~1660)가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고 쓴 권말(卷末)의 후기(後記)에서 ‘『선조실록』이 적신(敵臣)의 손에서 편찬되어, 은밀히 사관의 글을 삭제하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 제멋대로 속이고 비방하는 데 온 힘을 쏟아서, 그 비방이 끝내는 여러 신하로부터 조정에게까지 미쳤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하였고, 대제학 이식(李植, 1584~1647)은 인조 21년(1643)에 『선조실록』의 수정을 청하는 상소문에서,⁷⁾ ‘광해군 조정에서 간사하고 불충(不忠)한 사람들(姦孽)이 제멋대로 명령을 내려 기자헌을 총재로 삼고, 이이첨·박건 등으로 실록 찬수를 전담하게 하여 몰래 옛 기록을 없애고 스스로 거짓 글을 추가하여 옳고 그름(是非)과 명목과 실체(名實)가 모두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여 『선조실록』을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부정한 사서(史書)처럼 매도하고 있다.

다음은 인조 초년에 춘추관에서 『광해군일기』의 편찬을 위하여 실록청을 설치할 것을 주청(奏請)하는 내용인데, ‘시정기(時政記)를 수정하는 일은 이미 청(廳, 실록청)을 설치하였으나, 다만 생각하건대 광해군 16년 동안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에 붓을 잡았던 자들(광해군 조의 춘추관 사신들 - 필자)은 대부분 흉악한 역적의 당여(黨與)이므로, 그 손에서 나온 시정기는 거칠고 괴이(怪異)하여情理(情理)에 맞지 않아 규범(規範)을 이루지 못합니다.’⁸⁾ 하였다. 이와 같이 복인정권에서 편찬된 『선조실록』을 철저히 부정하는 자기부정적인 태도와 입장이 서인정권인 인조 초년의 춘추관 사관들의 이념적 시각이며 분위기였다.

7) 『선조수정실록』 채유후 후기 다음에 부록한 李植疏.

8) 『인조실록』, 2년 6월 신해.

이처럼 인조 초년의 소위 『선조실록』수정 작업은 대북정권과 대북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대북정권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편견을 가진 서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선조수정실록』이 찬수 되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에는 춘추관 사관들이 작성한 사초도 있을 수가 없었고, 일반적인 경우 국왕이 서거한 뒤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에 설립하였던 실록청도 기본적으로 설치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실록의 개수란 사실 혁명적 시대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실록의 개수를 위한 실록청 설치라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가 『선조실록』의 개수를 명하고 영의정 김유(金瑬)에게 이를 관장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이식(李植)이 전담하여 개수하였던 것이다. 『인조실록』19년 4월 신해조의 다음 두 기사가 이를 말해준다.

A) 지금 윤희를 받은 교지를 보건대,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최명길(崔鳴吉)의 헌의(獻議)로 인하여 이일(修史)을 전부 소신(小臣)에게 맡겨 집에서 편집토록(在家編集) 하였는데, ……… 감히 신(臣)과 같은 자가 홀로 담당하여 사사로이 저술할 수 있겠습니까?

B) 선조(先朝)의 실록이 너무도 무함(誣陷)을 당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나, 전례와 같이 사국(史局)을 설치한다면 시끄러운 사단이 야기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 더구나 이번에 의논하는 일은 여항(閭巷)의 문견(聞見)을 수습하여 사문(史文)의 소략함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기(史記)의 전례와는 본래 다르니 이식(李植)이 꼭 사양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위 A)는 대제학 이식(李植)이 인조에게 올린 차(筵)의 한 부분인데, 보는 바와 같이 이식에게 『선조수정실록』을 사실(私室)에서 저술하도록 허

락하고 있었는데, 이식이 이를 사양하는 내용이고, B)는 최명길(1586~1647)이 인종에게 아뢰는 내용으로서, 실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실록청을 설치할 수 없는 일이니, 이식(李植)으로 하여금 사실(私室)에서 찬수케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아뢰고 있다. 최명길의 이 주청은 인조의 윤허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선조수정실록』은 이식(李植)이 사실(私室)에서 편찬하게 되었는데, 『선조실록』수정 범례에 의하면, 이 때 먼저 강령(綱領)⁹⁾에 실린 것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시정기(時政記)와 승정원 주서(注書)의 일기, 가정에 보관돼 있는 통보(通報) 및 야사(野史), 잡기(雜記), 비기(碑記), 행장(行狀)을 찾아서 보충·정리하였던 것이다. 채유후(蔡裕後)의 후기(後記)에 따르면,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김유(金瑬)·이식(李植)·윤순지(尹順之)·이일상(李一相)·채유후(蔡裕後) 등 소수의 서인(西人) 일변인(一邊人)들이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선조 즉위년으로부터 선조 29년(1596)까지는 이식이, 선조 30년 이후는 채유후가 전담하여 수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선조수정실록』은 일변인(一邊人)들의 일방적·편파적 시각에 자료가 선택되고, 그들의 사관(史觀)에 여과되어 편찬되는 태생적(胎生的)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수정(修正)’이란 원래 잘못 기록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나라의 정사(正史)인 실록을 수정하는 작업이 사실(私室)에서 한 두 사람의 손에 이루어졌다면, 수정된 내용에 관계없이 공정성을 담보받을 정사(正史)로서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규의 실록 편찬 때처럼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를 작성하던 단계적 교열이나 협의과정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선조수정실록』은 그냥 믿어버릴 수만은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9) 실록을 개정하기 위해 서인들이 정한 취지·목적 따위를 요약하여 적은 것인 듯하다.

문제는 정여립 모반사건과 같은, 봉당 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록을 수정하거나 개수하는 일이 봉당정치 이후에 나타난 집권세력의 변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실록에서 실제로 확인된다. 『선조실록』에서 기축년 고변(告變) 이전의 정여립 기사(記事)는 ①이이(李珥)가 정여립을 천거하였으며,¹⁰⁾ ② 정여립이 경연에서 이이(李珥)를 공격하였다¹¹⁾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비하여, 『선조수정실록』에서는 ①정여립이 학문을 강론하는 것으로 행세하며 세상 사람들을 속였고¹²⁾ ②정여립이 학문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불길한 인물로 의심하였으며,¹³⁾ ③정여립이 경연에서 박순(朴淳)·이이(李珥)·성혼(成渾) 등 현인(賢人)들을 비방하고 배척하였으며,¹⁴⁾ ④심의겸이 정여립은 아비와 임금을 시해하는 일이라도 할 만한 위인이라고 지적하였다¹⁵⁾는 등 정여립이 능히 모반을 하고도 남을 위인임을 증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정여립을 악(惡)의 화신(化身)으로 꾸며놓고 있다는 점이다.

3. 『괘일록(掛日錄)』

『괘일록』의 저자는 저자가 누구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괘일록』이 이조민(李肇敏)의 저술이라는 것이 사실상 밝혀진 셈이다. 이조민의 생몰 연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서인 심의겸(沈義謙,

10) 『선조실록』, 16년 10월 경오.

11) 위 책, 18년 5월 무술.

12) 『선조수정실록』, 14년 3월 갑자.

13) 위 책, 17년 11월 계유.

14) 위 책, 18년 4월 임인.

15) 위 책, 18년 5월 신미.

1535~1587), 동인 김효원(金孝元, 1532~1590)과 가까운 친구였으니 저들과 비슷한 연대의 사람으로서 정여립과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불행히도 이조민은 외척 윤원형(尹元衡, ?~1565)의 협박에 못 이겨 윤원형의 첩 정난정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조민은 그것을 한스럽게 여기며 스스로 한평생을 폐인처럼 살고 벼슬에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동인·서인과 같은 봉당은 관심 밖의 것이었다.

『쾌일록』은 저자 이조민이 중종조(中宗朝) 이후의 정치·사회적 사건, 예컨대 신사무옥(辛巳誣獄, 1521), 정미벽서사건(丁未壁書事件, 1547), 동서분당(東西分黨, 1575), 정여립 모반사건(1589), 이몽학(李夢鶴)의 난(1596) 등 대부분 그가 살았던 시기에 발생하였던 정치·사회적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어떤 정치적 의도나 편견이 있지 아니하였다. 관직을 단념하고 초야에서 폐인처럼 살아가던 그에게 정치적 이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정여립 모반사건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정리된 것이었다. 그가 을사사화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장인 윤원형이 그의 일당인 이기(李芑, 1476~1552), 임백령(林百齡, ?~1546), 정순봉(鄭順朋, 1484~1548) 등과 을사사화를 일으켜 사람을 도륙(屠戮)하였던 죄과(罪過)를 논죄하고 있음에서도 그의 객관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정여립 모반사건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정여립의 모반이 정부에 보고되자 동인·서인을 막론하고 모두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는지, 이 사건에 대하여 그 당시 일반인들은 그 죄가 송한필(宋翰弼, 翼弼의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등,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적 평판이나, 그 사건에 대한 세인(世人)들의 일반적인 이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쾌일록』은 정여립 모반사건의 전모와 그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소중한 사료라고 판단된다.

4. 『토역일기(討逆日記)』

『토역일기』의 저자 민인백(閔仁伯, 1552~1626)은 서인 성혼(成渾, 1535~1598)의 문인으로서, 진안 현감으로 재직하던 중에, 정여립이 진안으로 도주하여 자결하였다고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과 역도들을 전주까지 압송하였던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2등에 책훈되고 일약 예조참의로 발탁된 인물이다. 이러한 저자의 대인관계나 경력으로 보아도, 또 역적을 토벌한 기간의 기록을 의미하는 『토역일기』라는 책명에서도, 이 책의 시각이나 내용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사실 민인백에게 있어 ‘토역’이란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토역일기』에서 민인백이 밝힌 내용에 그가 역적을 토벌한 기록은 없다. 민인백이 다만 자기가 신임하는 부하 두 사람을 시켜서 진안의 다북동에 숨어있던 정여립에게 지수를 권하였고, 이미 죽었거나 혼절(昏絶)한 역도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주로 압송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것마저도 고작 2, 3일에 종결된 사건이었으므로, 하나의 책으로 그 사실만을 엮어 내는 데에는 당초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인백에게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정여립이 모반할 위인임을 증명하고, 정여립이 도주하여 자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모반사건을 사실화하고 자신이 세운 공로를 과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정여립의 자결 장면은 묘사나 정황 설명이 너무 희화적(戲畵的)이고 자결로 규정하는 과정이 너무 과장되어 오히려 자결로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의 의도적 저술이라는 느낌이다.

5. 『동소만록(桐巢漫錄)』

1) 남하정(南夏正, 1678~1751)의 가계

저자 남하정의 자(字)는 시백(時伯)이고, 호는 동소(桐巢)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인데, 선초에 좌의정을 역임하였던 남지(南智)의 후예다. 증조부인 두화(斗華)는 사헌부 감찰을 지냈고, 조부 중유(重維, 1626~1701)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서, 이이와 성혼의 학문과 도덕이 조잡하고 공명하지 못하다고 평하고 저들의 문묘배향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¹⁶⁾ 남인계열의 인물들이었다. 아버지 수교(壽喬)는 생원으로서 젊어서 세상을 떴다.

남하정은 숙종 4년(1679)에 공주에서 태어나서, 비록 사대부 가문이지만 중앙 권력체계에서 이탈하여 있었던 데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여의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게다가 세도(世道)마저 어지러웠으므로 숙종 40년(1714)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대과 응시도, 벼슬에 오르는 것도 단념하고 경기도 진위현(振威縣, 평택군 진위면) 동천(桐泉)에 은거하면서 후진양성에 일생을 바쳤다. 그는 풍채가 장대하고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가 명백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공경하고 흠모하게 만들었다. 그는 평소의 품행과 지절(志節)이 확고하고 실행과 실천에 성실하였으며, 예악과 법도에 해박하고 논의가 공정하여 조선뿐만 아니라 천하에 훌륭한 분이였다.¹⁷⁾

2) 저술의 사회적 배경

남하정이 살던 17세기 말 이후의 조선의 정치사회는 서인들이 정권을 독점하던 시기였다. 숙종 20년(1694)의 갑술옥사로 민암(閔黯, 1636~

16) 『현종실록』, 4년 5월 정해.

17) 『동소만록』, 朴思正 跋.

1694)이 사사되고 권대운(權大運, 1629~1711)·목내선(睦來善, 1627~1704) 등이 유배되면서 남인이 실권하고, 남구만(南九萬, 1629~1711)·박세채(朴世采, 1631~1695) 등 소론이 집권한 이후 노론·소론이 교대로 정권을 장악하다가 영조 4년(1728)의 이인좌(李麟佐, ?~1728)의 난 이후로 노론의 일당전제(一黨專制)시대가 열렸던 것이다.

이렇게 17세기 말엽 이후 서인의 세력이 변성하여 대대로 정권을 잡으면서, 그 세력과 위세가 하늘을 태울 정도로 기세가 대단하였으므로, 한번 뒤바뀐 시비(是非)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으며, 한번 뒤바뀐 충역(忠逆)을 다시는 바꿀 수가 없었다. 축복해 주어야 할 사람을 해하고,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기들 하고싶은 대로 하니, 길을 잃은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한번 의기(義氣)를 분발할 수도, 소리를 한번 지르지도 못하고, 길고 짧은 것을 서로 비교하지도, 잘잘못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도 못하던 사회가 되어버렸다.¹⁸⁾ 남하정은 이러한 혼탁한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동천(桐泉)에 은거하였던 것이다.

그는 은거하는 동안 많은 문집들을 탐독하였고, 이를 통하여 동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이설(異說)들을 접하게 되었으며, 사건의 진실을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감상, 옛날에 들은 것들을 붓 가는 대로 정리하였던 것이다. 만록(漫錄)이라 붙인 책이름이 이를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집필의도가 어떤 특정의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나 혹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른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접한 자료들을 가장 객관적·실증적으로 정리한 것뿐이었다.

『동소만록』에는 고려 우왕 5년(1379)으로부터 조선왕조 영조 19년(1743)에 이르는 무려 360여 년간의 고사(故事)와 기이한 일들, 인물의 언

18) 『동소만록』, 朴思正 跋.

행과 공적 등을 분석·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여립 모반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송익필이 조작하고 정철이 완성하였다는 등 조선왕조의 국시(國是)에 반하는 충격적이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743년 무렵이었지만 이후 극비리에 보관되었고, 남하정이 죽은 뒤에는 그의 동생 남하행(南夏行)이 보관하다가 그가 죽기 직전인 1770년대 후반에 박사정(朴思正)에게 전하였고, 박사정이 언젠가 햇별을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3책이었던 원본을 2권으로 정리하고 발(跋)을 지은 것이 1779년의 일이었다. 그러고서도 또 140여년이 지나서 일제치하인 1922년에야 한정원(韓井源)이 다시 발(跋)을 지었고, 1925년에 이르서 비로소 김천희(金天熙)에 의해 발행되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3) 저술의 사료적 가치

『동소만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는 『동소만록』에 대한 세인(世人)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하정보다 약간 뒤늦은 시기를 살았던 박사정은 발(跋)에서 이 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동소만록』은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본받을 만한 고사(故事)와 멀고 가까운 곳의 기이(奇異)한 일들을 모두 수집하여 총괄하고, 중세(中世) 이래의 공경(公卿)·대부(大夫)·사(士)·필부(匹夫)에 이르기까지 선비로서 이름 있는 이들의 언행(言行)과 공적(功績), 현우(賢愚)와 사정(邪正)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자세히 분석하여 확실하게 분별하여 밝힘으로써, 포상(褒賞)할 것은 포상하고 징벌(懲罰)할 것은 징벌하는 엄정한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에 깊이 도달하였으니, 진실로 역사책이 아닌 역사책이다. 이이·성혼·윤증·송시열 등이 일변인(一邊人)의 존경을 받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고 있으나, 그들의 평생에 마음씀과 후세에 남

긴 말이나 글을 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였는데, 남하정이 저들의 생각과 속마음을 드러내어 책에 써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아! 이 같은 위대한 문장과 훌륭한 저서를 끝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으며 세상에 전할 수 없을 것인가! 그러나 세상에는 밝아지지 않는 밤이 없고, 항상 어두운 해와 달은 없듯이, 큰 의로움(大義)은 오랜 세월을 지내어도 끝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진실한 말(至言)은 가령 오랜 세월이 가로막혀도 믿게 되는 것이니, 소중하게 깊이 감춰 보관하여 두고 진실이 용납되는 나날을 기다린다 하였다.

이처럼 박사정은 『동소만록』을 대의(大義)요 지언(至言)이며, 춘추필법(春秋筆法)에 충실한 사서(史書)라고 칭송하였다. 이것은 그의 확신인 요 신념이었다. 때문에 그는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국시(國是)에 반(反)하는 내용이 담긴 『동소만록』의 발(跋)을 썼던 것이고, 이를 깊이 보관하는 일을 스스로 담당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발(跋)을 썼던 한정원(韓井源)은 『동소만록』이 그 말이 분명하고 증거가 없는 것이 없어서, 후생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세상을 일깨우기에 충분한데, 이 책이 오랜 세월 후에 없어져서, 후배와 후학들로 하여금 의혹을 분별하여 정도(正道)에 돌아가게 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이 책을 인출(印出)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책이 숭한 정치적 사건의 의혹을 밝혀서 바른 길을 알려줄 진실한 책인 까닭에, 후학들을 위해서 이 책을 간행한다는 최상의 평가였다.

이 밖에도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남하정의 도덕과 품행, 학문과 기예(技藝)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군자(君子)라서 내심(內心)에 존재하는 천성(天性)이 숭상하는 바를 소중히 여겼다’¹⁹⁾ 하였다. 여기서 군자는 남하정을 높여서 부른 것이며, 남하정이 천성(天性)의 숭상하는

19) 『동소만록』, 桐巢先生略傳, 「星湖先生曰 君子貴內存所性也」

바에 따라 행동하는 군자라는 증언이었다. 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남하정을 평가하기를, ‘선생의 사상(道)은 오직 정도(正道)만을 보전하고, 선생의 글은 오직 정직(道)만을 소중히 여긴다’²⁰⁾ 하였는데, 이것은 남하정이 정도(正道)와 정직(正直)만을 숭상하는 분이라는 찬사였다. 성호와 순암은 그 시기의 사회적 병폐를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하던, 개혁적 성향의 선각적·양심적 학자군(學者群)인 실학자들이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남하정과 『동소만록』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

혜환재(惠寬齋) 이용휴(李用休, 1708~1782)는 남하정을 존경한 나머지 그에게 ‘정(貞)’이라는 사적인 시호를 지어 올렸는데,²¹⁾ 의미심장하여 음미해볼 일이다. 『논어(論語)』 위영공(衛靈公)편에 「군자정이불량(君子貞而不諒)」이라는 글이 있다. 정(貞)은 바르되 완고(正而固)함을 의미하며, 량(諒)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진실을 단정(不擇是非 而必於信)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貞)을 시호로 정한 뜻은, 남하정이 정직하되 완고하여 하나 하나 시비를 가리지 않고는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인물임을 드러내어, 『동소만록』의 기사가 모두 후대들이 신임할 만한 기사라는 것을 선언하려는 것이었다.

하려(下廬) 황덕길(黃德吉, 1750~1827)은 말하기를, ‘내가 『동소만록』을 보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않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서 소홀하지도 않았으니, 사관(史官)으로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장점(三長)²²⁾을 갖추었다’²³⁾고 찬탄하여 마지않았다. 이용휴는 이익의 조카이자 실학자인 이가환(李家煥, 1742~1801)의 아버지로서 천문·지리 등

20) 위 책, 桐巢先生略傳, 「順菴先生曰 先生之道 惟正是保 先生之文 惟道是權」

21) 위 책, 桐巢先生略傳.

22)才智와 學問과 識見을 말한다.

23) 주 21)과 같음.

실학적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황덕길은 안정복을 사사(師事)하였으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학문 탐구에만 몰두하였던 정서상 실학자의 범주에 분류될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한 저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일도 많은 일이 아니다.

오늘의 연구자들 중에는 『동소만록』의 기축옥사가 사건 발발로부터 150여년이 지난 후대의 기술이라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평가절하하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남하정이 『동소만록』을 편술(編述)한 것이 1740년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두 16·7세기인들의 문집들을 사료로 수집·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기 말 이래의 모든 문집들을 섭렵하고 이를 총괄하여 정리하면서,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투시하는 혜안과 예리한 통찰력을 얻어 사건의 실체 파악에 확신을 가진 나머지, 누구보다도 과감한 필치로 사건이 날조되었음을 설화한 용기 있는 저술이라고 생각된다. 편술한 시기로만 말한다면 『동소만록』보다는 『연려실기술』이 더 후대의 저술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저자 이극익(李肯翊, 1736~1806)의 가문은 소론 가문이었다. 그의 종조부 이진유(李眞儒, 1669~1730)는 경종의 세제(世弟) 영조의 대리청정을 건의하였던 노론 4대신(김창집·이이명·이건명·조태채)을 탄핵하고 김일경(金一鏡, 1662~1724) 등과 함께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켜 노론을 숙청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광사(匡師, 1705~1777)는 영조 31년(1775)에 소론 일파의 역모사건에 연좌되어, 진도에 귀향 가서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때문에 이극익은 처음부터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였는데, 특별히 국사(國史)에 관심이 많아 사서(史書)를 섭

렵하고서 종래의 야사(野史)들이 너무 산만하고 체계를 잃은 데에 불만을 품고, 근세 조선 태조이래의 각 왕대의 주요 사건들을 기사본말체적 방식에 의거하여 『연려실기술』을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그가 『연려실기술의례』에서 밝혔던 것처럼, 동서분당 이후로 책을 편찬하는 이들이 한 편에 치우쳐, 하나의 기록에 대하여 험뜯고 칭찬하는 것이 서로 반대이었으므로, 이공익은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붙여 논평하지 않고, 모두 사실 그대로 수록하고 출처를 밝힘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였다.

일관되게 유지하는 객관적 서술이라는 바로 그 때문에, 저자 이공익이 소론 가문의 인물이고 기축옥사사건으로 본다면 20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대의 저술이지만,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는 사료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7. 『동남소사(東南小史)』

『동남소사』의 ‘동(東)’은 이발(李潑, 1544~1589)의 호인 동암(東巖)에서 따온 것이고, ‘남(南)’은 이길(李詰, 1547~1589)의 호인 남계(南溪)에서 따온 것이니, 『동남소사』는 곧 정여립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된 이발·이길 형제에 관한 일과 그들에게 관계가 있는 일들을 정리한 저술이다. 『동남소사』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제1권에서 제4권까지는 열수(洑水)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편집하였고, 제5권은 안세영(安世泳)이 편집하였으며, 제6권은 이발의 유문(遺文)으로 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장석영(張錫英, 1851~1929)은 그가 지은 『교간동소사서(校刊東小史序)』에서, 정약용이 (정여립 모반사건이 있는) 200년 후에 태어나서, 정부의 기록과 야사에 실려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

여 『동남소사』를 편집하였다고 하였다.²⁴⁾ 그런데 『여유당전서』에 실린 정약용 자신이 지은 『跋東南小史』²⁵⁾에 의하면, 『동남소사』 2권을 동복이 씨가에서 소장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사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사람(文獻家)이 이씨를 위하여 역사를 편수(編修)한 것이라 하였고, 조씨(?)에게 위탁되었던 부모를 여윈 아이에 관한 것을, 정약용 자신이 나처사(羅處士)의 구술(口述)을 받아 적은 것을 손수 편집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동남소사』 4권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동남소사』는 실학의 집대성자로서 평생을 폐정개혁의 일념으로 살았던 정약용이 편집한 저술이며, 을사조약의 파기(破棄)와 을사 5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청참오적소(請斬五賊疏)를 올렸던 독립운동가 정석영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동남소사』를 저술한 것은, 작당(作黨)하여 행악(行惡)하고 선류(善類)를 장해(戕害)하는 조선의 신하들로 하여금 경계할 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²⁶⁾이었다고 칭송한 저술이란 점만으로도, 믿을 만한 저술임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III. 결어(結語)

지금까지 필자 자신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료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하여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료를 동질(同質)의 사료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자나 편술자(編述者)의 가계와

24) 「洙水丁公 生二百年之後 哀輯朝家文字 及野乘所載 作東南小史」

25) 『여유당전서』, 詩文集, 跋.

26) 『校刊東南小史序』, 「竊謂此史之作 而東方之爲人臣 而黨惡而戕善者 亦足叻知誠也」

인품, 정치적 성향, 저술의 동기, 그리고 기술(記述)방법과 자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연구에 활용하는, 보다 신중한 연구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료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에 대하여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료들을 동질(同質)의 사료로 간주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사료를 대할 때 필요한 것은, 저자나 편술자(編述者)의 가계(家系)와 인품, 정치적 성향, 저술의 동기, 그리고 기술(記述)방법과 자세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료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연구에 활용하는 신중한 연구자세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생각을 염두해 두고 작성한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조실록』은 정여립사건에 관한 기술이 매우 소략하지만, 정규의 실록편찬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부정못할 선조조의 정사(正史)이다. 반면에 『선조수정실록』은 『선조실록』의 특정 내용을 부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명분하에 가위 혁명적으로 편찬한 또 하나의 선조조의 엄연한 정사다. 그리하여 정여립사건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변인(一邊人)들의 정치적 이해(利害)를 대변(代辯)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편찬 과정부터 정사(正史)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태생적(胎生的) 결점을 지니고 있다. 『패일록』은 균형감각을 유지한 매우 객관적인 저술이라고 생각되며, 『토역일기』는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사료적 가치를 논하기에 미흡한 저술이라 판단되고, 『연려실기술』은 균형감각을 유지한 객관적 편술로서 그 사료적 가치는 높다고 생각된다.

『동소만록』에 대하여는 그간, 정여립사건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한참 뒤진 후대의 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논자들이 그 사료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어왔지만, 우리들이 주저없이 사료로서 인용하는

『연려실기술』보다 앞선 시기의 편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명심할 일은 『동소만록』이 16, 17세기 자료들을 수집·편술한 것이지 창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설사 정여립사건에 대한 시각이나 이해가 『선조수정실록』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측면이 발견된다 해도, 적어도 이것은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의 사회 저변에 엄연히 존재하였던 하나의 시각이며 이해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들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료가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가를, 어떤 사료라야 그 사건의 정확한 설명이 가능한 가를 탐구하는 자세 일 뿐이다.

鄭汝立의 생애와 사상

— 반주자학적 성향을 중심으로

최영성*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대동사상(大同思想)과
후천세계(後天世界) |
| II. 정여립의 위인(爲人)과
생애 | V. 맺음말 : 정여립의 재평가를
위하여 |
| III. 반주자학적 학문성향 | |

I. 머리말

[1] 정여립(鄭汝立)은 왕조시대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의 『반역열전』에 실릴 인물이다. 본디 『반역열전』을 둔 것은 후세 사람들을 징계(懲戒)하는 데 그 의도가 있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는 그들을 통해 역사상 그 시대의 건전성과 퇴폐성, 시대의 문제점 등을 엿볼 수 있다. 『반역열전』에 실린 인물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하여 반역자로 낙인은 찍혔지만, 사실 한 시대를 고민하고 민중의 고통을 아파했던 이들이 다수였다.

* 국립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한국철학).

일제강점기 때 민족사학자 호암(湖巖)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역사상의 반역아(叛逆兒)』라는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은 『반역열전』을 통해 우리 역사를 새롭게 보고자 한 것이다. 집필 의도에 대해 “선생의 사관은 일관하여 내우(內憂)에서 반역적인 데서 혁명적인 정신을 고취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는 유악한 역사로 개도(改塗)된 것을 강건한 민족사로 바로잡으며, ……”¹⁾ 운운한 학자도 있지만, 문일평은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어난 진정한 의미의 반역아일수록 그를 통해 사회의 병폐와의 결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반역자들을 연구하면 그 시대와 사회를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그대로 한국사 창조의 일대 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1880~1936)는 『조선상고사』(원제는 조선사)에서 정여립을 높이 평가하였다. 소책자에서 7회나 언급할 정도로 관심을 보인 바 있는데, 문일평의 글은 『조선상고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다.²⁾

올해는 기축옥사 칠주갑(七周甲)이 되는 해이다. 정여립의 사상에 대해 조명해 달라는 관측(館側)의 부촉(咐囑)을 받고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인지 너무도 막막하였다. 난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자료난이다. 기축옥사에 관한 자료는 보기에 따라 넘칠 정도로 많다. 정파에 따라 상반된 시각에서 기술된 것이어서 어려움은 가중된다. 이에 비해 정여립 자신에 관한 자료 — 특히 그의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그가 평소 입버릇처럼 남긴 말이라고 전해지는 편언(片言) 몇 가지가 고작이다. 둘째는 신채호가 정여립을 혁명적 선각자로 규정한 이래 너무 앞서간 과대평가가 필자에게는 커다란 벽으로 다가왔다. 정여립의 역모사건이 그 실상에서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

1) 홍이섭, 『한국사의 방법』, 탐구당, 1968, 333쪽.

2) 『조선상고사』는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으며, 광복 후 단행본 소책자로 간행되었다.

고, 정여립에 대한 후세인의 평가 역시 실정(實情)을 넘어서 과도한 것이 연구의 난점이라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³⁾

정여립에 대한 현대적 평가는 1930년대에 이미 내려졌고 사실상 재평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여류(餘流)가 오늘날까지 온존하고 있다. 현재적 시점에서 정여립의 사상에 대한 평가가 과대한 것이냐의 여부가 새삼 문제가 된다면, 이는 그 동안의 연구가 기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왜냐하면, 많은 연구가 집적된 뒤에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신채호와 그의 아류에 속하는 논설, 특히 민중주의 역사관을 가진 논설들은 정여립의 언설이 갖는 전후의 맥락을 잘라버리고 논리적 비약을 예사로 하며, 정여립 사상의 진보성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현란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현대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정여립에 대한 논의가 너무도 어지럽다.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상반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과대평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정여립 본래의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시대적 산물이다. 우리가 세습군주제를 비판하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탕론(湯論)』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다산 정치사상의 선구를 정여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탕론』이 나온 19세기와 정여립의 시대는 3백년 정도의 거리가 있다. 다산보다 3백 년 전에 외부세계의 영향을 일절 받지 않고 일개인의 사색과 고민만으로 『탕론』의 수준을 훨씬 앞서는 정치사상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정여립의 역모사건이 조작된 것이냐의 여부 등은 기축옥사 당시부터

3) 洪起文(1903~1992)은 『申丹齋 학설의 비판』에서 “단재는 暢達健快한 동시 多情에 달리는 문장의 소유자”라고 하였다. 『홍기문 조선문화론 選集』, 현대실학사, 1997, 178쪽.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내려온 논안(論案)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그런데 기축옥사 당시 우의정이었던 정언신(鄭彦信)이 ‘만무반리(萬無叛理)’라 하였듯이, 이 옥사가 정치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나아가 당쟁적 관점에서 조작되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보는 주장에 공감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기축옥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임을 밝혀 당시 죽은 분들의 원억(冤抑)을 풀어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철학 전공자로서 정여립 사상의 성격과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에 국한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저간에 나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평가를 의식하여 철저하게 문헌 중심의 고증적 방법에 입각하여 살피려 한다. 이 소론(小論)이 앞으로 정여립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데 일조가 된다면 망외(望外)의 보람이라 하겠다.

[2] 정여립과 관련된 자료는 기축옥사에 관한 것이 대다수일 뿐, 정작 그 개인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초(供草) 또는 추국안(推鞠案) 같은 것이 있을리 없다. 기축옥사의 광풍은 조선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옥사가 얼마나 참혹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여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⁴⁾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알거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문을 받고 숨진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정여립 성명 석자를 입에 올리거나 문서로 남기는 것 자체가 금기시될 정도였으니, 정여립에 우호적인 내용이나 그가 남긴 문자, 남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남아서 전할 리 만무하다.

4) 기축옥사는 조선조 최대의 옥사다. 옥사에 연루되어 고문으로 죽거나 사형당한 사람이 1천명 이상이라고 한다. 4대사화(四大士禍) 당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고 한다. 옥사 당시 상상을 초월한 갖은 고문이 행해졌고 날조된 유언비어에 희생된 사람들도 많았다. 죽은 사람을 보면 이름 높은 학자로부터 이름 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정여립의 생애와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는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기사와 그 기사의 원본 구실을 한 은봉(隱峯)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은봉전서(隱峯全書)』 권5, 「기축기사(己丑記事)」가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대동야승(大東野乘)』이나 『패림(稗林)』 등에 실려 전하는 야사류(野史類)의 사료들은 ‘옥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들이다. 돌이켜 볼 때, 『선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등에 보관된 국가 공식 사료가 불에 탄 뒤 개인이 편찬한 일기류 등의 저술이나 민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시 모아 편찬한 것이며,⁵⁾ 『선조수정실록』⁶⁾은 인조반정 뒤 서인 집권시에 당파적 시각에서 기록된 것이므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안방준의 『기축기사』는 『선조수정실록』의 기사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선조수정실록』의 편찬을 주도한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안방준과 서한을 통해 실록 편찬과 관련한 내용을 묻고 옥사의 전말을 글로 서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을 보면, 안방준의 ‘기축기사’가 실록의 기사로 채택되었으리라는 심증을 굳게 한다.⁷⁾ 이처럼 두 자료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지만, 다른 자료가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자료들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에 나오는 몇

5) 『선조실록』을 보면 정여립의 역모 기사는 선조 22년(1589), 10월 7일(辛巳)에 “의금부 도사가 정여립이 도주했다고 보고하다”라는 것과 동 10월 27일(辛丑)에 “역적 정여립이 伏誅되었다 하여 權停禮로부터 축하를 받은 뒤에 百官에게 加資하고 죄인에게 사면을 행하였다”는 것 정도이다. 따라서 『실록』 기사의 보완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6) 인조 19년(1641) 대제학 李植의 상소로 수정을 결의하고 이식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수정하게 하였다. 그 뒤 우여곡절을 겪다가 효종 8년(1657) 9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인조반정으로 복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인으로 지목된 이이·성혼·朴淳·鄭澈 등 서인계와 남인 柳成龍에 대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꾸며 비방한 사실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7) 안방준의 『은봉전서』 권3, 『答李澤堂植』에 실린 이식의 서한과 問目을 보면 실록 편찬에 중요한 내용들을 낱낱이 물었는데, 기록옥사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안방준의 『기축기사』도 이식의 청에 따라 서술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동 『答李澤堂植』, 『答李汝固問目』 참조.

줄에 불과한 정여립의 어록(語錄)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제한적으로 이용하여 한다.

II. 정여립의 위인(爲人)과 생애

정여립은 전주가 낳은 비운의 사상가이다. 그의 죽은 시체는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능지처참 당하였다. 그의 부모와 자식들도 교수형에 처해졌다. 정여립에 대한 선조의 증오는 유별났다. 그의 집터는 못(池)으로 변했고 동래정씨(東萊鄭氏) 일가는 전주에서 쫓겨나 전국으로 흩어졌다.⁸⁾ 후대에 만들어진 족보에도 정여립의 이름은 올라 있지 않다. 공사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여립 석 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정적(鄭賊)’이라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죽은 뒤에까지도 이처럼 혹독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여립(1546~1589)의 자는 인백(仁伯), 또는 대보(大輔)이다. 명종 1년(1546)에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에서 동래정씨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첨정(僉正), 경상도 청도군수를 지낸 희증(希曾)⁹⁾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 찬(纘)¹⁰⁾의 손녀였다. 조부 세완(世玩)은 등과(登科)를 하지 못한 채 유학(幼學)으로 지냈던 것 같으며, 증조부 극량(克良)¹¹⁾은 진사, 고조부 준(俊)은 서반의 수의부위(修義副尉, 종8

8) 선조실록, 22년 12월 26일 己亥條에는, 전주 정여립 조부 이상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족속들은 탄 고을에서 살도록 한 전교가 실려 있다.

9)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정희증의 자는 宗道이다. 중종 38년(1543) 진사시에 급제한 뒤, 명종 8년(1553) 별시문과 병과 제14위로 급제하여 첨정을 지냈다고 한다.

10)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박찬은 성종 14년(1483) 식년문과에서 생원시 제3등 33위로 급제하였고, 이후 무관직으로 修義副尉(종8품)을 지냈다 한다.

11)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정극량의 자는 子美이다. 연산군 7년(1501) 식년문과에서 진사시 제2등 제9위로 급제하였다 한다.

품)를 지냈다. 이를 보면 현달(顯達)한 집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의 몸에 무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이 주목된다.

정여립의 선대는 아버지 때까지 대대로 전주 동문 밖¹²⁾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정여립이 금구(金溝)에 장가들어 그곳에서 살게 됨으로써 사실상 금구 사람이 되었다. 후일 정여립의 집은 ‘금구 정수찬택’으로 불렸다.

정여립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사뭇 부정적인 내용만 전할 뿐이다. 승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 역사상 가장 죄질이 나쁜 역적’이다보니 그렇게 꾸밈 수밖에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러한 기록의 이면 세계를 추리한다면 정여립의 사람 됨됨이를 다르게 그려볼 수도 있음직하다.

정여립을 잉태할 적에 그 아버지가 고려 때 무신의 난을 일으킨 정충부(鄭仲夫)의 꿈을 꾸었다고 하며, 또 출산한 날 밤에도 정충부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웃 사람이 득남을 축하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정여립은 장성하면서 체구가 장중하고 성격이 괴팍하고 잔인하였다고 한다. 나이 겨우 7~8세에 여러 아이들과 놀면서 까치 새끼를 부리에서 발톱까지 칼로 토막을 내 죽인 적이 있고, 또 이 사실을 그의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어린 여종을 찔러 죽이고도 말씨가 태연할 정도로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비상아(非常兒)’라 하기도 하고, 또 ‘악장군(惡將軍)’이 나왔다고도 말하였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여립을 역신(逆臣) 정충부의 후신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정여립은 15~6세 때 부친의 임지를 따라다닐 적에도 항상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익산현감(益山縣監)으로 있을 때 관청의 일을 제멋대로 처리하여, 아전들이 여립의 아버지보다 여립의

12) 안방준의 『기축기사』에서는 ‘남문 밖’이라고 하였다.

말을 더 따를 정도였으며, 그 아버지 역시 제지하지 못하고 혀를 차며 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다 한다. 이것은 그가 발신(發身)하기 이전부터 상당히 이재(吏才)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실로, 그가 역적이 아니었다면 달리 서술되었을직하다.

또 한 예로 정여립이 금구현에 사는 애복(愛福)이라는 수절 과부가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녀가 미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현령을 통해 그의 부모와 형제에게 강요, 마침내 첩으로 취하였다. 제자들은 그 일이 예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감히 간(諫)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거친 성격에 카리스마가 상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충명이 발월(發越)했던 정여립은 22세 때인 명종 22년(1567)에 소과에 급제, 진사가 된 뒤 선조 3년(1570) 식년시에 을과 제2위로 대과에 급제하였다. 과거에 급제한 뒤 바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독서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어 성균관의 학유(學諭), 예조좌랑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선조 17년(1584) 1월 홍문관 수찬(정6품)이 되었다. 그 뒤 경연에 참여하였고, 정개청(鄭介淸) 등과 함께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에서 일하기도 했다.¹³⁾ 정개청은 후일 정여립에게 보낸 편지에서 “도를 보는 것이 높고 밝기로는 이 세상에 존형(尊兄) 한 사람뿐이다”고 칭송하였다 한다.¹⁴⁾

『선조수정실록』을 보면, “정여립은 일세를 하찮게 보아 그의 안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경전(經傳)을 거짚 꾸미고 의리를 속여, 논변이 바람이 날 정도로 짹싸서 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다 믿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사람됨과 언변과 처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13) 이 사실은 『대동야승』에 실린 「己丑錄(續)」에 보인다. “鄭介淸, 校正廳從仕之時, 適與汝立公座同校, 僅十餘日, 而即歸林下, 豈有親厚交密之意也.”; 선조 18년(1585) 1월 校正廳을 설치하고 『經書訓解』를 교정하였다. 당시 경술로 이름난 선비였던 崔永慶·洪晩全·韓百謙·정개청 등을 校正郎으로 삼았다.

14) 『은봉전서』 권5, 33b, 「기축기사」, “且其書曰：見道高明, 當世惟尊兄一人而已.”

일개 6품직의 말단 벼슬아치가 조정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 왕통(王通)¹⁵⁾이라 일컬어지고, 자주 바람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사실은 일단 그의 재주와 인간관계가 비범했음을 짐작케 한다.

정여립은 ‘독서를 넓게 한 사람’으로 당대에 많은 사람의 평가를 받았다. 당시 여러 사람들의 평을 종합하면, 이구동성으로 정여립의 박학다재를 칭찬하였음을 볼 수 있다. 과거에 오른 뒤에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떨쳐버리길라도 하듯 정여립은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과 두루 사귀었다. 이것은 그가 조정에서 널리 알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종유(從遊)한 사람 중에는 율곡 이이와 우계(牛溪) 성혼(成渾) 같은 거유(鉅儒)가 있었다. 정여립은 자주 율·우의 문하에 왕래하였다. 정여립 자신도 율·우의 문인으로 자임하였고 남들도 율·우의 문인으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한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여립은 총명하고 재치가 있었으며 변설(辨說)을 잘 하였다. 오로지 박학과 종리(綜理 : 종합 정리)에 힘썼는데, 특히 『시경(詩經)』의 훈고(訓詁)와 물명(物名)의 통해(通解)를 가지고 자부하였다. 성혼과 이이 두 사람이 불시에 만나고, 간혹 그와 함께 평론하고 증명(評證)하였다. 그가 박식하게 변증(辨證)하는 것을 좋아하여 조정에 천거, 이름이 알려지게 하였는데, 드디어 이발(李潑) 등과 교분을 맺었다. 성혼의 문인 신응구(申應渠)·오윤겸(吳允謙) 등은 한가할 때 같이 지내면서 정여립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는 그 마음 씀이 불측함을 논하여 데면데면 대하였으나 역시 사문(師門)에서 감히 칭찬을 하거나 헐뜯지는 못하였다.

이이는 끝내 그 사람됨을 깨닫지 못하였다.

15) 중국 수나라 때의 학자. 자는 仲淹, 시호는 文中子이다. 經學에 밝아 儒家로 자처하여 강학을 자기소임으로 삼았다. 河汾에 살며 가르쳤는데 수업 받는 자가 1천여 인에 달하여 인재가 성대히 배출되니 당시에 ‘河汾門下’라 일컬었다 한다.

선조 16년(1583) 이조판서에 임명된 이이는 임금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하는 자리에서 정여립을 등용하도록 추천하였다. 이이가 “정여립은 학문이 넓고 재주가 있습니다. 비록 남을 업신여기는 병통이 있기는 하지만 대현(大賢) 이하로서야 전혀 병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의망(擬望)을 하여도 낙점을 앉으시니 혹여 무슨 참간(讒間)의 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이에 선조가 “여립을 칭찬하는 사람도 없지만 혈뜬 자도 없으니 시험 삼아 써본 뒤에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¹⁶⁾

정여립은 조정에 있을 때 풍파를 몰고 다녔던 것 같다. 조사(朝士) 가운데 그의 거친 기질과 호세를 부리며 남을 침탈하는 것을 미워하여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정여립은 이들을 탄핵하거나 임금 앞에서 혈뜬어 작은 고을의 원님이나 말단 관직에도 있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보복을 하였다고 한다.¹⁷⁾ 율·우의 문인들은 그의 좋지 못한 성행(性行)을 알면서도 스승에게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할 뿐이었는데, 조헌(趙憲)의 경우는 좀 남달랐던 것 같다. 조헌은 그가 이이를 배반하고 경박한 무리들과 간궤(姦諂)한 행동을 한다고 하여, 정여립을 말할 적마다 필시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 하였다. 조헌이 불원간 왜적이 침입할 것이라고 극론(極論)하다가 함경도 길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어나 선견지명이 있다 하여 이내 풀려났다고 한다.

『실록』 등을 보면, 이이가 정여립을 인정하고 조정에 추천한 이유가 ‘박학다재’에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이는 인재를 천거할 때 학문적 바탕도 중시하지만 경제적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그의 『경연일기』 등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이이는 정여립의 경제적 역량 내지 개혁적 성향을 높이

16) 『선조수정실록』, 16년 癸未, 10월 22일 庚午條.

17) 『선조수정실록』, 22년 己丑, 10월 1일 乙亥條.

평가하였을 것이고 그 때문에 추천했을 것으로 추측했음직하다. 단, 개혁의 방향과 정도, 질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정여립은 역신(逆臣)이고, 이이와 성혼은 한 때나마 정여립을 칭허(稱許)하고 적극 추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와의 교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해명에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이 앞장섰다. 그들은 기축옥사가 서인 측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동인 측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우회적인 방법으로나마 율곡·우계가 정여립을 추천한데 대해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선조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들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선조수정실록』에서 기축옥사 관련 기사의 대본이 되다시피 한 안방준의 「기축기사」 역시 안방준이 서인이었고 율곡과 우계의 문인이었던 관계로 서인 측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율·우의 문인들은 기축옥사 관련 기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율곡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면서까지 정여립과의 관련성을 애써 희석시키려 하였고, 그를 추천한 이유가 단지 박학다재함에 있었음을 강변하려 했다. 그러나 정여립과 율곡 이이 사이의 관계로 보아 정여립의 개혁사상이 이이로부터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여립은 선조 17년(1584) 4월, 자신을 조정에 천거한 율곡 이이를 배반했다는 탄핵을 받고 선조의 진노를 샀다. 율곡의 문인 서익(徐益)은 정여립이 경연에서 율곡을 비방, 배척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소하여 정여립을 비판하면서, 정여립은 사실상 이이의 문하생이나 다름없고, 이이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올랐는데, 그런 은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율곡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보낸 편지에서 “공자는 다 익은 감이라면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이다. 반쯤 익었다면 장차 다 익지 않겠는가. 율곡은 진실로 성인(聖人)이다”고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¹⁸⁾ 이어 이이의 조카 경진(景震)이 상소하여, 정여립이 동인의 돌격장

으로 율곡을 비판한 것을 공격하고, 일찍이 정여립이 이이에게 심복(心服)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밝혔다. 이에 선조는 그를 반복무상(反覆無常)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고 “오늘의 형서(邢恕)”¹⁹⁾라고 하였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김시양(金時讓, 1581~1643)의 『부계문기(涪溪聞記)』에서도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적신(賊臣) 정여립은 두루 보고 잘 기억하여 경전을 관통하였다. 논의는 높고 격렬하여 의논이 과격하며 드높아 바람처럼 잼쌌다(蹕厲風發). 율곡이 당시에 추앙받는 것을 보고 몸을 바쳐 섬겨 제자의 예를 행하였다. ‘공자는 이미 익은 감이고, 율곡은 아직 익지 않은 감’이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율곡은 그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널리 칭찬하여 드디어 높은 벼슬에 오르고 명성이 매우 높았다. 율곡이 죽은 뒤에 여립은 당시의 논의가 점점 변하는 것을 보고는, 드디어 그를 배반하고 이발(李潑) 형제에게 아첨해 붙었다. 하루는 주상께서 “이이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여립이 이이의 단점을 여지없이 말하니, 주상이 매우 미워하여 “여립은 지금의 형서이다”라고 하였다.

선조의 눈 밖에 난 것을 감지한 정여립은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는 낙향한 뒤 지금의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동곡 마을 모악산의 지맥인 제비산 아래 터를 잡고 살았다.²⁰⁾ 미륵신앙의 본거지인 금산사(金山寺)는 그 부근에 있었다.

정여립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관직에서 떠났다. 그의 최종 관직은 6품

18) 『선조실록』, 18년 乙酉, 5월 28일 戊戌條.

19) 중국 북송 때 사람. 본래 程子를 師事하다가 배반하고 司馬光의 문객이 되었다가, 다시 사마광을 무함하고 章惇에 붙었으며 또 장돈을 배반하였다. 뒷날 ‘배반의 대명사’가 되었다.

20) 현재 증산교 본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직인 홍문관 수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골에 묻혀 있음에도 정여립의 명성과 영향력은 높아만 갔다. 멀리서 수많은 선비들이 찾아오고 인근 고을의 관리들도 예방하곤 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문객(門客)들이 끊이지 않았다. 문인 제자들의 발자취도 줄을 이었다. 그의 조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이것이 그를 불온시해온 반대 측에게 현실에 불만을 품고 거사를 계획한 것으로 비쳐졌고, 그의 자살과 함께 역모는 사실로 굳어졌다.

정여립은 김제에서 진안(鎭安)에 있는 죽도(竹島)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죽도는 ‘산속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지형지세가 꼭 특이한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 ‘죽도서당(竹島書堂)’을 짓고 제자를 모아 학문을 강론하면서, 무예를 가르치고 6백여 명 규모의 무사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였다. ‘죽도선생’이라는 별칭은 이 시기에 얻은 것이었다. 선조 20년(1587) 2월, 전라도 손죽도(損竹島)에 왜적(倭賊)이 쳐들어와(丁亥倭變) 당시 열읍(列邑)에 군마(軍馬)를 조달해 달라고 청할 때, 전주부윤 남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대동계 계원을 출동시켜 왜구를 소탕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지방관의 요청으로 왜구를 격퇴하는데 대동계 계원이 공개적으로 참여했다면 대동계는 사실상 널리 알려진 친교 모임이자 민간 방위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록』에 의하면,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한 것은 “국가에 장차 임진왜변(壬辰倭變)이 있을 것을 알고 때를 타고 갑자기 일어나려 하였다” 한다.²¹⁾ 이는 그가 모반 거병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말하려는 것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왜구의 침략, 더 나아가 왜란과 같은 국가적 변란에 대비하려는 뜻이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겠다. 그는 대동계를 조직한 뒤 매달 15일에 사회(射會)를 여는 등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 그 뒤 대동계의 조직은 황해도 안악(安岳)의 변숭복(邊崇福)·박연령(朴延齡), 해주(海

21) 『선조수정실록』, 22년 己丑, 10월 1일 乙亥條 참조.

州)의 지함두(池涵斗), 운봉(雲峯)의 승려 의연(義衍) 등 기인(奇人)과 모사(謀士)의 세력이 합세,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대동계 조직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역모를 꾀하다가 선조 22년(1589)에 거사가 사전에 탄로 나고 조정에서 체포령을 내리자, 정여립은 죽도로 도망쳐 그곳에서 자결했다고 되어 있다.²²⁾ 그러나 이미 공개된 조직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740년대에 나온 당쟁사 관련 사서인 남하정(南夏正)의 『동소만록(桐巢漫錄)』에서는 “조정에서 내려온 선전관(宣傳官)과 진안현감 민인백(閔仁伯)이 정여립을 죽이고는 자살로 위장했다”고 기술하였다. 동인 측의 시각을 반영한 이 책에서는 서인 측이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만들어 정여립을 죽이고 역모를 꾀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하였다.

III. 반주자학적 학문 성향

주자학은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의리사상이라든지 정통론, 이단비판 등은 주자학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정여립의 아언(雅言)을 보면 그는 주자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당시에 이미 반주자학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학도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²³⁾

22) 당시 진안현감 閔仁伯의 『苔泉集』, 『討逆日記』에 討逆과 관련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23) 『선조수정실록』, 22년 己丑, 10월 1일 乙亥條, “常語學徒云: 『溫公通鑑, 以魏紀年, 是直筆, 朱子非之. 大賢所見各異, 吾所未解也. 天下公物, 豈有定主. 堯舜禹相傳, 非聖人乎』. 又曰: 『不事二君, 乃王蠋一時臨死之言, 非聖賢通論也. 柳下惠曰, 何事非君, 孟子勸齊梁行王道, 二子非聖賢乎』”

『은봉전서』 권5, 「기축기사」는 표현상의 차이가 약간 있다.

“每與人言, 必曰: 『司馬公資治通鑑, 以魏紀年, 真是直筆, 而朱子非之. 大賢所見, 非後生所敢知也. 天下公物, 豈有定主. 堯舜禹相傳, 堯舜非聖人乎』 又曰: 『不事二君, 乃王蠋一時臨死之言, 非聖賢通論也. 柳下惠何事非君, 柳下惠 非聖之和者乎.”

(A) ① 사마온공(司馬溫公：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위(魏)를 기년(紀年)을 삼았다. 이것이 직필(直筆)인데 주자(朱子)가 그것을 그르게 여겼다.²⁴⁾ 대현(大賢)의 소견이 각각 다른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② 천하는 공공의 물건[公物]이거늘 어찌 정해진 주인이 있겠는가. 요(堯)임금, 순(舜)임금, 우(禹)임금은 (임금의 자리를) 서로 전수하였으니 성인이 아니던가.

(B) ③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왕촉(王蠋)²⁵⁾이 한때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지 성현(聖賢)의 통론(通論)은 아니다. ④ 유하혜(柳下惠)²⁶⁾는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라 하였고, 맹자(孟子)는 제선왕(齊宣王)과 양혜왕(梁惠王)에게 왕도(王道)를 행하도록 권하였는데, 유하혜와 맹자는 성현이 아니던가.

위에 소개한 정여립의 말은 본래 두 가지이다. 그런데 저간에 연구자들은 (A)에서 “천하는 공물이거늘 어찌 정해진 주인이 있겠는가” 운운한 것과 또 (B)에서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는가” 운운한 것을 앞의 말에 부속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 ①은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에 와서 완성된 정통론(正統論)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 ②는 왕위세습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인물위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방식의 합리성을 주장한 것이자 혁명을 인정하는 사고로 파악하였다. ③은 군신상설(君臣綱常說)을 부정한 것, ④는 ③과 표리를 이루는 것이자 평화적 정권 교체의 당위로 이해하였다.

孟子勸齊・梁行王道，孟子非聖之臣者乎。”

24) 사마광은 중국의 史書 중 편년체의 대표로 꼽히는 『자치통감』 294권을 편찬하였다. 그는 三國 曹魏를 後漢을 잇는 정통왕조로 인정하여 『魏紀』로 썼다.

25) 중국 전국시대 齊나라의 충신. 화읍(畫邑) 사람. 연나라가 제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연나라 대장 악의(樂毅)가 그의 명성을 듣고 부르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너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기』 권82, 「田單列傳」 참조.

26) 기록에 따라 柳下惠 또는 伊尹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말의 앞뒤 맥락을 잘라 ①②③④로 나누면 단장취사(斷章取捨)한 것이 되어, 본래의 입언(立言)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만다.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천양지차로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위에 제시한 것처럼 (A)와 (B)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아야만 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각주에 실은 원문에서는 ‘우왈(又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두 문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 제시문을 보면 혁명적 사고는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정여립이 ‘학도’들에게 강론하면서 한 말이라는 점, 또 그의 제자들이 “전성(前聖)이 말하지 못한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한 점, 또 정여립이 아닌 정개청의 글에 들어 있었던 말이라는 증언 등으로 미루어,²⁷⁾ 주자학적 명분론 내지 경학 체계를 반대하고 자가류(自家流)의 새로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학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보인 것은 그가 일찍이 경서교정청에서 교정 업무를 볼 정도로 경학에 뛰어났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수정실록』과 『기축기사』에 보이는 기록을 좀 더 보기로 한다.

정여립의 언론의 패역(悖逆)함이 이와 같았지만 문도들은 “이전의 성인이 미처 말하지 못한 뜻을 확장한 것이다”고 칭찬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를 어기거나 뜻을 달리하는 자가 있으면 곧 내쳐 욕을 보였다. 그래서 문하생들이 마음속으로는 그의 그림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다른

27) 閔仁伯에 의하면, 이러한 말들은 본디 정개청의 『排節義論』에 들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오로지 정여립이 지은 것이라고 여겼다 한다. 『苔泉集』 권 2, 27b-28a, 『討逆日記』, “鄭介淸, 谷城人也. 門地不甚蟬聯, 而早得學問之名. 其造詣淺深, 俱未之知, 而後生嗜學者, 多從之遊. 與汝立最親厚. 嘗著排節義論一篇, 其中有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是王蠅偶發之言, 非聖人通論也. 伊尹曰, 何事非君, 何使非民, 此乃聖人通論. 時人以爲此論專爲鄭賊作也. 以此杖殞. 余常以爲汝立朝鮮之反賊, 介淸萬古之逆臣也.”

말이 없었다. (『선조수정실록』)

정여립의 이와 같은 논의는 매우 많은데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며 따랐다. 심지어 그의 제자 조유직(趙惟直)과 신여성(辛汝成) 같은 해괴한 무리들은 가는 곳마다 과장해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의 논의는 실로 고금의 선유들이 일찍이 말하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다. (『기축기사』)

이를 보면, 정여립의 경전 해석에 창견(創見)이 많았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정여립의 확신 또한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정여립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에 쾌감을 느꼈고 그의 설을 교조적으로 받들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가 종래의 경학 체계, 즉 관학(官學)인 주자학의 체계를 부정하고 원시유학의 이념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대의명분만을 중시하는 학풍으로는 세상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축한이 아닌 위나라를 삼국의 정통으로 보았던 사마광의 필법을 직필이라고 한 것은 주자학의 명분론을 무너뜨리는 반주자학적 발상이다. 본디 정통론은 오행(五行)의 순환에 따라 왕조가 교체된다는 오행설과 왕조가 동시에 여러 개 있어도 천하에는 오직 하나의 정통왕조만이 존재한다는 춘추대일통(春秋大一統) 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국 사학사에서 정통왕조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에서 이루어졌다. 진수는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촉(蜀)을 윤통(閏統: 비정통)으로 보아 후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동진(東晉) 때 습착치(習鑿齒)는 『한진춘추(漢晉春秋)』를 지어 진수의 관점에 반대하고 축한을 정통으로 보았다. 진수는 진(晉)나라 사람이고, 진나라는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운 왕조인 만큼, 진나라의 정통을 위나라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뒷날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았다. 그 자신은

“이를 높이기 위해 저를 낮추거나, 정통과 윤통을 구별한 것이 아니다”, “소열제(昭烈帝)가 황제였던 촉한 왕조는 비록 중산정왕(中山靖王: 한나라 章帝의 아들)²⁸⁾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그 계통이 오래되어 진정한 후예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 한(漢) 왕조가 남긴 정통을 잇게 할 수 없었다”고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지만, 주자가 살았던 남송 시기 이후로 의리론적 명분론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사마광 비판의 선봉에 선 사람이 주자이다. 주자는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하여, 촉한의 소열제(劉備)를 후한 헌제(獻帝)의 뒤를 이어 한나라 유통(遺統)을 이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주자의 역사관은 이후 역대 왕조에 계승되어 촉한을 정통으로 보는 역사관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마광의 위정통론은 명분론을 초월하여 당시의 실질적 지배,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한 비교적 공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개 역사를 집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왕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적 차원의 공리(公利)와 공익(公益)은 곧 의(義)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정통론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촉한과 남송은 정치적으로 흡사한 측면이 있다. 위나라의 조비(曹丕)가 한나라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위(魏)왕조가 정식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조조(曹操)와 경쟁을 하였던 촉(蜀)의 유비(劉備)는 조비가 헌제에게 강압적으로 선위(禪位)를 요구한 만큼 사실상 찬탈(篡奪)이라고 하면서, 혈연적으로 같은 유씨인 자신이 한(漢)의 정통을 계승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황제라 일컬었다.

유비의 혈통 중심의 정통론은, 여진족인 금나라가 북송을 멸망시키고 중원(中原)을 차지한 처지에서 북송의 혈통을 계승한 남송이 정통이라는 혈연 중심의 정통론을 편 주자의 논리와 흡사하였다. 그러나 남송이 중국

28) 120명의 아들을 둔 것으로 유명하다. 多子王이다.

에서 정통을 주장할 근거는 별로 없었다.²⁹⁾ 남송 정통론은 당시의 현실적인 국제질서를 외면한 것으로 공정한 의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³⁰⁾ 혈연 중심의 정통론은 주자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그는 『자치통감강목』에서 축한의 유비에게 정통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후세 중국이나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주자학이 지도이념이 된 이후로는 조비가 선양을 받은 것은 잘못이고, 유비가 후한의 정통을 이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가 조비에게 선양한 절차와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유씨가 계속해서 천하의 주인이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여립이 “천하는 공공의 물건이거늘 어찌 정해진 주인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요·순의 선양 사실을 들고, 위나라가 한황실의 선양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출범시켰으므로 정통왕조로 인정하였던 것이다.³¹⁾ 그리고 위나라를 정통으로 본 것을 직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여립이 주자학적 명분론을 비판한 것은 조선 유학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형해화(形骸化)한 숭명배청론과 북벌론이 한 시대의 국시(國是)가 되어 허다한 모순을 빚어냈던 조선 후기 사상계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선구적인 사상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겠다.

다음, (B)의 내용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초점은 국가와 인민에 대한 책임의식에 있다. “누구를 섬기면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은 역대 반역자들 가운데 간혹 이 말을 내걸고 선동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본래 그런 차

29) 중국에서 정통 왕조의 기준으로 ① 전국을 통일할 것, ② 이전 왕조로부터 선양을 받을 것, ③ 바른 정치룰 할 것, 혹은 오행론의 相生說이나 相剋說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부합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30) 주자의 명분론적 정통론은 특히 청나라 때 王夫之·章學誠 같은 학자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讀通鑑論』, 『文史通義』 참조.

31) 南塘 韓元震도 정여립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天下公物也. 唐傳之虞, 虞傳之夏, 夏失之而殷得之, 殷失之而周得之.”(『남당집』 권19, 10b, 『答姜養直論同異攷 丙辰九月』)

원의 말은 아니었다. 『맹자』를 보면 이 말을 한 이윤(伊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윤이 말하기를 “누구를 섬기면 임금의 아들이 아니며 누구를 부리면 백성이 아니라”라 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도 나아갔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도 나아가 정치에 참여했다. …… 이윤은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가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처럼 생각하였으며, 천하의 중대한 책임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³²⁾

군주의 자질이나 능력, 도의 실현 여부 등 여러 조건을 따진 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하로써 자신의 책임을 삼았던 사람이 이윤이었다. 현실사회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 소명의식의 발로이다. 이윤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은 소절(小節)이요 국가와 인민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대절(大節)로 여겼다.

맹자는 양나라 혜왕(惠王)이 참주(僭主)였고, 제나라 선왕(宣王)이 패주(霸主)의 후예였음에도 그들을 찾아가 왕도정치를 설하였다.³³⁾ 양혜왕이 참주이므로 맹자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³⁴⁾ 그러나 맹자가 그들에게 유세(遊說)한 것은 오직 ‘왕도’ 두 글자를

32) 『맹자』, 『萬章』 下, “伊尹曰：何事非君，何使非民。治亦進，亂亦進。…… 思天下之民，匹夫匹婦，有不與被堯舜之澤者，若己推而內之溝中，其自任以天下之重也。”

33) 『맹자』, 『梁惠王』 上, “齊宣王問曰：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孟子對曰：仲尼之道，無道桓文之事者。是以，後世無傳焉。臣未之聞也，無以則王乎。曰德何如，則可以王矣。曰保民而王，莫之能禦也。”；朱子註 “齊宣王，姓田氏，名辟疆，諸侯僭稱王也。齊桓公，晉文公，皆霸諸侯者。”

34) 그 예를 梅月堂 金時習(1435~1493)에게서 볼 수 있다. 『율곡전서』 권14, 25b-26a, 『金時習傳』, “金守溫知館事，以孟子見梁惠王論，試太學諸儒。有上舍生見時習于三角山曰：乖崖好劇，孟子見梁惠王，豈合論題。時習笑曰：非此老，不出此題。乃走筆成篇曰，生員爲自製者，試瞞此老。上舍生如其言。守溫讀未終，遽問曰：悅卿住京山何寺，上舍生不能隱，其見知如此。其論大略，以爲梁惠僭王，孟子不當見云。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일찍이 율곡 이이는 다음과 같이 변명한 바 있다.

맹자가 양나라에서는 경(卿)이 되지 않았고, 제나라에서는 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마음대로 두루 예방할 수 있었다. …… 아침에는 제나라에서 신하 노릇을 하고 저녁에는 양나라에서 신하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의리는 천지의 강상이니 어찌 성인의 처지에서 이를 소홀히 하겠는가.

…… 만약 “성현은 백성들의 교화를 짊어져서 중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중인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어도 성현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도리를 해쳐서 신하된 이의 불충의 길을 크게 열어놓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리에 대해 마땅히 선현의 의론이 있을 터인데 나는 아직 이를 보지 못하고, 다만 의리로써 미루어 본다면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을 뿐이다.³⁵⁾

그러나 ‘불사이군(不事二君)’이 본래 성현이 말한 일반적이고 공통된 도리가 아니고, 후대에 나온 것임에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후대로 가면서 왕축의 말은 성현의 말 이상의 도리로 고착되었고,³⁶⁾ 명분론이 유달리 강했던 조선에서는 불변의 강상으로 인식되었다. 정여립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지나치게 의리론과 대의명분에 집착하여 현실사회를 등지고 산야(山野)에 숨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

정여립이 말한 ‘하사비군(何事非君)’이란 말을 불온한 반체제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여립을 대역죄인으로 몰기 위해 그처럼

今逸不收.”

35) 『율곡전서』 권10, 42a-42b, 『答成浩原』, “孟子於梁不爲卿, 於齊不受祿, 故可以歷聘而自在也. …… 朝臣齊而暮臣梁, 則決不可也. …… 若曰 聖賢負生民之託, 與衆人不同, 衆人不可事二君, 而聖賢事二君, 則甚害理, 大啓爲臣不忠之路矣. 此等義理, 合有先賢議論, 而愚未之見, 但以義理推之, 不過如此耳.”

36) 洪聖民, 『拙翁集』 권7, 26b-27a, 『書王燭紀後』, “忠臣不事二君, 此語一出, 日月乎天地, 雷霆乎宇宙, 天下之爲君臣者定. 自齊以後, 革命易世之變, 歷千祀不絕, 而人臣之不辱其身者, 必舉王大夫之言以守之, 怯之者亦不能兵之.”

해석한 것을 답습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정여립이 고성(古聖)의 유지(遺旨)를 발명(發明)하려는 목적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종래의 주자학적 풍토 속에서 이윤이 말한 ‘하사비군’이란 말이 일대 금기어(禁忌語)가 되다시피 했음에 비추어 본다면, 그를 불온시 했던 인물들에게 하나의 발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하사비군’이란 말이 혁명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었음은, 서인계 학자로 정여립과 반대당에 속했던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상소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정개청이 정여립과 산사(山寺)에서 자주 만나 의론한 일이 있었다. 정여립이 “고금에 오직 이윤이 성인 가운데 통달한 분이다. ‘누구를 섬긴들 임금의 아님이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말은 아주 살아 움직이는 자리이니 후생이 가장 본받아야 될 만한 것이다”라고 말하자, 정개청은 “선비는 마땅히 인의중정(仁義中正)을 마음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니, 절의가 일변(一邊)으로 떨어져 동한 말엽에 나라가 망한 것이 이 때문이다”고 하였다.³⁷⁾

전라도 사람들이 정개청의 사당을 세우고자 할 때 이것을 반대하고, 정개청이 지난날 정여립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진술하는 가운데 나온 말인 만큼, 사실상 반대파의 증언을 통해 정여립의 무고함이 증명된다고 하겠다. 위의 증언의 취지는 출처진퇴(出處進退)의 기준을 성현의 ‘중용’의 도리에 두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여립과 정개청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정개청은 후한시대 지식인들이 소보(巢父)·허유(許由)의 절의만을 사모하였고, 진송(晉宋) 대에는

37) 『靜觀齋集』 권4, 13a-13b, 『論鄭介清書院事疏』, “介清數與汝立, 會議於山寺. 汝立曰, 古今惟伊尹爲聖之通者, 何事非君何使非民之語, 十分活動, 在後生最可法. 介清曰, 士當以仁義中正, 根於心, 節義落於一邊, 東漢之末亡國, 是也.”

노자·장자를 숭상, 청담(淸談) 쪽으로 흘러 결국 나라가 망하는데 이르렀다고 비판하면서, 은자(隱者)들의 지나친 출세간적(出世間的) 태도가 빚어낸 여폐(餘弊)를 경계하기 위해 세칭 『절의청담설(節義淸談說)』을 지었던 것이다.³⁸⁾ 서인 측에서는 이를 ‘절의를 배척한 글’(排節義說)이라 하여 두고두고 비난을 퍼부었지만, 정개칭의 서투른 글솜씨에서 비롯된 오해였음은 서인 안방준도 지적한 바였다.³⁹⁾

정여립이 ‘하사비군’ 운운한 것이 결코 불온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반대당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는 ‘출처진퇴’만을 앞세우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책임의식은 뒷전으로 돌리는 편협한 산림(山林) 학자들을 겨냥한 것으로,⁴⁰⁾ 그의 강한 현실참여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文)’을 중시한 조선사회에서 ‘육예(六藝)’를 구실로 ‘무(武)’까지 갖추었던 정여립의 학문 경향도 반주자학의 범주 속에 넣어 이해할 수 있음직하다.

정여립은 대동계를 조직하고 매월 15일에 일제히 한 곳에 모여 과녁에 활을 쏘기도 하고 표적에 활을 쏘기도 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활쏘기는 육예(六藝)⁴¹⁾의 하나이니 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 그 무리들은 서로 (정여립을) 칭송하면서 “우리 동방에 선유들이 많았지만 단지 예학을 할 뿐이었고, 활 쏘는 기예는 이제야 처음으로

38) 『困齋愚得錄』 권1, 38b, 「東漢晉宋所尙不同說」 참조.

39) 『은봉전서』 권5, 32b, 『기축기사』, “정개칭이 글 하나를 지어 후한 때의 절의와 쫓나라 때의 청담의 폐단을 논했는데, 製述에 능숙치 못하여 그 말을 구사한 것이 도리어 절의를 배척한 것이 되었다.”

40) 율곡 역시 일찍이 許曄이 “閔箕가 卿相 자리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지만, 지리산이나 청량산에 은거한다면 일대의 존경이 남달랐을 것이다”고 한 말을 소개하고, 山林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율곡전서』 권28, 25b, 『경연일기(一)』 참조.

41) 禮·樂·射·御·書·數.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⁴²⁾

정여립은 예학 일변도의 학문 풍토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⁴³⁾ 예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분열의 폐단이 있듯이(禮勝則離), 그는 예교(禮敎)가 극성하여 당화(黨禍)가 일어날 것을 미리 짐작하였던 듯하다. 또 예학이 승하면 학계가 의리론 명분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그의 선견지명을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여립은 공화제(共和制)를 외친 사람이 아니다. 공화제는 군주제의 상대적 개념이다. 정여립은 결코 군주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정치사상은 ‘군주제’의 범위 밖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군신강상설(君臣綱常說)이라든지 군주세습제⁴⁴⁾를 타파하고, 나아가 역성혁명을 주장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⁴⁵⁾

정여립은 4백 년 전에 군신강상설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지만, 이를 민약론(民約論)을 저작한 ‘루소’와 동등(同等)되는 역사적 인물이라 할 수 없음은, 당시에 다소간 정설(鄭說)에 영향을 입은 인계(鈎稷)나 양반살육계(兩班殺戮稷 : 무력폭동단체-필자주) 등의 전광일섬(電光一閃)의 거동(舉動)이 없지는 않으나, 마침내 루소 이후의 파도장황(波濤壯闊)한 프랑스혁명에는 비길 수 없는 까닭이라.⁴⁶⁾

42) 『은봉전서』 권5, 3a-3b, 『기축기사』, “汝立與全州金溝泰仁隣邑, 諸武士及公私賤人通上下作契, 名之曰大同契. 每月十五日, 齊會一處, 或射的, 或射侯, 爭其勝負曰: 射於六藝, 不可廢也. …… 其徒相與稱贊曰: 吾東方先儒多矣, 只以禮學而已, 至於射藝, 則今始有之.”

43) 그가 예교 중심의 학풍을 비판한 데에는 豪逸한 그의 성품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44) ‘세습군주제’를 군주제에 중점이 있고 ‘군주세습제’는 세습제에 중점이 있다.

45) 신채호는 “鄭竹島 선생은 ‘民重君輕’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입으며 ……”운운하였다. 『조선상고문화사』; 『개정판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형설출판사, 1995, 373쪽.

46) 신채호, 위의 책, 32쪽.

신채호는 ‘역사의 개조’를 말하면서, 사회 체제가 이미 정착된 국면에 서는 개인이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예로 정여립의 경우를 들었다.

정여립이 “충신은 이군(二君)을 불사(不事)하며 열너는 이부(二夫)를 불경(不更)한다”의 유가(儒家) 윤리관을 일필(一筆)로 말살하여, “인민에 해되는 군(君)은 시(弑)함도 가하고, 행의(行義) 부족한 부(夫)는 거(去)함도 가하다”하며, “천의(天意) 인심(人心)이 이미 주실(周室)에 거(去)하였는데 존주(尊周)가 무엇이며, 인중(人衆)과 토지가 벌써 조조(曹操)와 사마(司馬)에게 돌아갔는데 구구일우(區區一隅) 유현덕(劉玄德)의 정통(正統)이 다 무엇이나”하는 공구(孔丘)·주희(朱熹)의 역사필법(歷史筆法)을 반대하니, 그 제자 신극성(辛克成) 등은 “이는 참 전성(前聖)의 미발(未發)한 말씀이라”하고, 재상과 학자들도 그 재기(才氣)와 학식에 경도(傾倒)하는 이가 많았으나, 세종대왕의 삼강오륜의 부식(扶植)이 벌써 터를 잡고, 퇴계선생의 존군모성(尊君慕聖)의 주의가 이미 집을 지어 전사회가 안돈(安頓)된 지 오래이니, 이같은 돌비적(突飛的) 혁명적 학자를 용납하리오. 그러므로 애매한 일지(一紙)의 고변장(告變狀)에 신수(身首)가 이처(異處)하고 전가(全家)가 구허(丘墟)하니, 평생 저술이 모두 화장(火葬)에 들어감이니,⁴⁷⁾

단재 특유의 격월(激越)한 논조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제라도 바로잡혀야 될 줄로 안다.

정여립의 반주자학적 학문 성향 내지 정치사상은 성리학적 명분주의를 초월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이 성리학적 명분론, 의리론에 함몰된 조선사회에서 쉽게 수용될 수 없었으므로, 불온한 인물로 비쳐졌던 것이고, 마침내 역모의 혐의

47) 신채호, 위의 책, 71-72쪽.

를 받아 사지(死地)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탁오(卓吾) 이지(李贄, 1527~1602)나 조선의 교산(蛟山) 허균(許筠, 1569~1618)을 연상하게 한다.⁴⁸⁾

IV. 大同思想과 後天世界

정여립은 전주·금구·태인 등지의 여러 무사와 공사(公私)의 천인까지 상하를 통하여 계를 만들고 ‘대동계(大同稷)’라 하였다 한다. 대동계란 『예기』 『예운(禮運)』 편에 나오는 대동사회를 회구하여 붙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대동’이란 말은 ‘모두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용례가 많고, 실제로 대동제(大同祭)·대동보(大同譜)·대동법(大同法)·대동단결(大同團結)·대동소이(大同小異) 등 ‘대동’이란 말이 들어간 단어가 적지 않은 만큼, ‘대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계를 조직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동사상을 거론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여립이 민중들에게 대동사상을 설파하였다거나 진안의 죽도가 대동사상의 전파 기지였다는 등등의 설은 문헌상으로 증거가 없고 단지 추연(推衍)한 것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폈던 정여립의 아언(雅言)은, 원시유가의 전통으로 돌아가 선양(禪讓)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도(公道)를 부각시킨 것이며, 또 군신간의 진정한 의리와 분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본 것이므로 대동사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예기』 『예운』 편에

48) 허균은 양명좌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학자로 꼽힌다. 조선 학계에서 인간의 情慾을 긍정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일찍이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요, 윤기를 분별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이 성인보다 높으니, 성인의 예교는 어길지언정, 천품의 본성은 감히 위배할 수 없다”(李植, 『澤堂集』, 別集 권15, 4a~4b, 「示兒代筆」)고 하였다 한다. ‘조선의 이탁오’라 할 만하다.

나오는 대동의 세계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대도(大道)가 행하는 세상에서는 온 천하를 공공(公共)의 것으로 여겨,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다스리게 하고, 교육으로 신의(信義)를 강습(講習)케 하여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화목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어버이만 친애하지 않고 남의 노인도 친애하며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들도 사랑한다. 노인들에게는 안심하고 삶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젊은이들은 나라에서 등용하며, 어린 이들은 잘 성장하게 하고, 홀아비·홀어미, 아비 없는 고아들, 자식 없는 고독한 노인, 병든 이와 장애자들 모두 나라에서 부양하도록 하며, 남자는 직업이 있고 여자는 시집갈 곳이 있게 한다. 경제적 재화를 개발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미워하지만 그것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력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남을 중상 모략이 일어나지 않으며 강도와 절도,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적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밖의 대문을 닫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동’이라 한다.⁴⁹⁾

대동의 세계는 소강(小康)의 세계와 대비되므로, 소강의 세계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

지금의 세상은 대도는 이미 없어지고 천하를 사шат집[私家]으로 생각하여, 각자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며 자기의 자녀만을 사랑한다. 재화와 인력은 자기만을 위하여 바친다. 천자와 제후는 세습하는 것을 상례로 하며, 성곽과 구지(溝池)를 견고하게 하여 스스로 지킨다. 예의를

49) 『예기』, 『禮運』, “孔子曰：大道之行也，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而有志焉。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

기강으로 내세워 그것으로써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바로잡으며 부자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형제를 화목하게 하며, 부부 사이를 화합하게 한다. 제도를 베풀어 전리(田里)를 세우며 용맹함과 지혜 있음을 현명하다 하고, 공은 자기를 위한 일에 이용한다. 간사한 피가 이 때문에 일어나고 전벌(戰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우왕·탕왕·문왕·무왕·성왕·주공은 이 예의를 써서 세상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다. 이 여섯 사람의 군자들은 예를 삼가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의를 밝히고, 신(信)을 이루며, 허물 있는 것을 드러내어 밝히고, 인(仁)을 법칙으로 하며 검양의 도를 강설(講說)하여 백성들에게 떳떳한 법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떳떳한 법칙에 좇지 않은 자가 있으면 집권자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를 ‘재앙’으로 여긴다. 이러한 세상을 소강(小康 : 조금 평안한 세상)이라고 한다.

사실 소강의 세계를 잘 읽어야 대동의 세계가 보인다. 대동세계의 핵심은 ‘천하위공(天下爲公)’에 있다. 즉, 천하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집단)의 것이 아니고 ‘만인의 공유’라는 천하공물(天下公物) 의식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정여립이 그렸던 이상세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대동세계는 고금을 통해 선유(先儒)들이 그렸던 가장 바람직한 이상경(理想境)이었다. 대동사상에 대해서는 정통 유가사상이 아니라 도가적 요소가 내포된, 또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판하는 학자들이 역대로 적지 않았다. 대체로 중국 전국시대 말기 진한(秦漢) 교체기에 자유(子游)의 문인들이 공자의 말인 양 가탁하여 꾸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유들 중에도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대동사상은 현대적으로 볼 때 자유와 민주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요소와 함께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들어 있다. 그러기에 현대 중국에서 손문(孫文)이나 장개석(蔣介石)이 대동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혁명의 최고 이상으로 삼았으며, 모택동(毛澤東) 역시 대동사상을 자신의 신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켜 농민 대중을 혁명사

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이다.⁵⁰⁾

우리나라 선유 중에서 율곡 이이는 자신의 주저(主著) 가운데 하나인 『성학집요(聖學輯要)』 『위정 제사하(爲政第四下)』, <위정공효장 제십(爲政功效章第十)>의 맨 첫머리에서 ‘대동사상’을 인용하고 이것의 구현을 회구하였다. 우리 역사상 대동사상을 학문적으로 크게 부각시킨 사람은 사실상 율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학집요』 자체가 선성(先聖)과 선유의 언설을 모아 엮은 것이므로, 특별히 자신의 논지를 펴지는 않았지만, 대동사상과 관련하여 일대 표장(表章)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정여립의 대동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를 본다면 정여립이 대동사상을 이상으로 하였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비중을 둘 것은 없다. 다만 그가 대동계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실현하려 했다는 데서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대동계원들은 신분과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반상(班常)에 따른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하층민으로 천대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재능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길삼봉(吉三峯)과 같이 무술에 뛰어난 인물이라든지 의연(義衍)·도잠(道潛)·설청(雪淸) 등 승려의 부류, 지함두⁵¹⁾ 등 도가자류(道家者流), 그밖에 잡류(雜流)로 불리던 수많은 기사(奇士)와 술사(術士) 등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정여립과 교유하거나 따랐다. 조선시대에 ‘계’라는 이름의 각종 모임이 많았지만 신분의 장벽을 무너뜨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반상은 물론 적서(嫡庶)까지도 엄격히 차별했던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대동계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규합체 또는 사적 야망을 달성

50) 류승국, 『한국사상의 연원과 역사적 전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560-561쪽 참조.

51) 늘 黃冠道服 차림이었고,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物外高士로 대접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이른바 道家者流로 보인다. 안방준, 『은봉전서』 권5, 4b, 『기축기사』 참조.

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데서 ‘천하위공’이라는 대동사상을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초(前哨)의 구실을 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 『예운』 편에서 이상세계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였지만, 그 뿌리가 되는 ‘대도’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여립이 보는 ‘대도’는 특정 사상이나 종교,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대도’ 자체가 절대적 진리, 즉 지도(至道)로서 상대적 의미의 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유학을 전공한 유학자였지만 불가의 승려들이나 도가자류와 친하였으며, 나아가 풍수지리, 도참설 같은 잡술에도 능통하였다. 그에게서 사상적 종교적 경계란 따로 없었으니, 이것 역시 ‘대동’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동의 세계는 이상세계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이다. 선천·후천은 본디 『주역』에서 나온 말이다. 선·후천이 바뀌는 우주의 대변혁을 우주 운행의 도수(度數)로써 추리하는 내용이 역리(易理)에 들어 있다. 그런데 후천세계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세 민족종교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대개 1860년대 동학(東學)이 창시된 이래 여러 민족종교(신종교)가 등장하였는데, 여기서는 다가올 미래세계를 후천 또는 후천세계란 용어로 표현하였다. 인류의 역사를 둘로 갈라 지난 세상을 선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후천이라고 한다. 선천세계는 각종 모순과 폐단, 대립과 갈등이 점철된 어두운 세상인 반면, 후천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밝은 세상이고 온갖 종류의 차별과 대립이 사라지고 절대 평등이 구현된 지상낙원이다. 상극(相剋)이 아닌 상생(相生)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후천세계이다.

후천세계란 말은 근세에 쓰였지만 그런 개념과 의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유교·불교·도교에서 그리던 이상향이 그것이다. 유교에서의 대동세계, 불교에서의 미륵불의 융화세계(龍華世界), 도교에서의 화서국(華胥國)⁵²⁾은 하나로 통한다. 이상세계에 대한 회구와 염원이 간절하

면 할수록 현세를 부정하고 판국을 뒤바꾸려는 역동성과 혁명성을 띠게 되는데, 역사상으로 이상세계를 구현할 구세주(messiah)를 표방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은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지만 실패한 사람은 역적으로 단죄되었다. 2세기 말 중국에서 일어난 황건적(黃巾賊)의 난은 도교의 전신인 태평도(太平道)가 주도한 것으로, 농민들이 머리에 누런 수건을 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당시 태평도의 창시자 장각(張角)은 “창천(蒼天)은 이미 죽었으니 황천(黃天)이 마땅히 서야 한다. 때는 갑자년으로 천하가 크게 길하다”고 선전하면서 농민들에게 후천 세계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말 궁예(弓裔)가 미륵불을 자칭하면서, 용화세계 구현을 기치로 내걸고 후고구려(泰封)를 건국했던 일이 있었다.⁵³⁾

정여립이 그리던 이상세계에는 유교의 대동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불교의 용화세계, 도교의 화서국, 더 나아가 『정감록(鄭鑑錄)』에서 말하는 ‘정진인(鄭眞人)의 나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그가 서실을 짓고 무사를 단련시켰던 진안의 죽도는 사실 『열자』에서 말하는 화서국이요 『홍길동전』에서의 율도국이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여립은 미륵신앙의 고장인 전주권(全州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김제의 금산사가 정여립의 정신적 고향이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금산사 권역은 미륵신앙의 근원지로서 후천세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하였다. 전주 지역에 근거를 둔 견훤의 후백제 역시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근세의 갑오농민전쟁, 강증산(姜甌山)의 해원상생사상(解冤相生思想), 모악산(母岳山)을 중심으로 한 풍수지리사상 등이 모두 이상세

52) 『列子』『黃帝』편의 ‘華胥之夢’ 고사에서 나온 말. 중국 전설상의 임금인 黃帝가 꿈에서 화서라는 나라에 갔던 데서 유래한다. 화서국은 無爲自然의 태평한 나라로, 이해타산이나 애증, 지배와 복종 등이 없는 이상향을 말한다.

53) 『삼국사기』 권50, 『弓裔傳』 참조.

계, 후천세계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서 나왔던 것이다. 후천세계를 표방하지 않은 종교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정여립은 잡술에 두루 통하여 감여(堪輿 : 풍수지리)와 성기(星紀) 등에 관한 서적을 중국에서 사다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강설(講說)하였다고 한다.⁵⁴⁾ 그가 단순한 유학자가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정감록』과 같은 민간의 예언서를 이끌어,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을 위로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선조수정실록』과 『기축기사』 등에 의하면, 일찍이 정여립은 지함두와 중 의연·도잠·설청 등과 함께 황해도에 가서 구월산(九月山) 등 여러 산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충청도에 들러 계룡산(鷄龍山)을 구경하고 어느 버려진 암자에서 시 한 수를 지어 벽에 붙였다고 한다.

客行南國遍 남녘 지방 두루 다니다가
 鷄岳眼初明 계룡산에 이르러 눈이 번쩍 뜨이네.
 躍馬驚鞭勢 뛰는 말이 채찍에 놀란 형세요.
 回龍顧祖形 용이 빙 돌아 조산(祖山)을 돌아보는 형국이라.
 蔥蔥佳氣合 푸릇푸릇 가기(佳氣)가 모였고.
 藹藹瑞雲生 뭉게뭉게 서운(瑞雲)이 피어오르네.
 戊己開亨運 **무·기(戊己) 양년에 좋은 운수 열릴 것이니**
 何難致太平 **태평세월 이룩하기 무엇이 어려우랴.**

‘무·기 양년’, ‘태평세월’ 운운한 데서 후천개벽의 시기와 염원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 이보다 1백년 가량 앞서 “목자(木子)가 망하고 전읍(奠邑)이 흥한다”는 『정감록』의 비기(秘記)가 민간에 떠돌아 다녔는데, 정여립이 이것을 옥판(玉板)에 새긴 뒤 중 의연을 시켜 지리산 석굴에 감추게 한 뒤, 산

54) 『선조수정실록』, 22년 10월 1일 乙亥條.

구경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대기도 하였다. 그때 변승복·박연령 등이 이것을 보고 정여립을 시대 운기에 맞추어 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한다. 재래의 기록에서는 이 『정감록』 관련 예화(例話)를 정여립의 모반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였다. 그밖에 정여립 측에서 각종 비기(秘記)를 이끌어 정여립이 장차 군사를 일으키고 마침내 왕이 될 것이라는 참언(讖言)을 고의로 퍼트렸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의 시각이다. 어디까지나 승자에 의한 기록인 만큼 상당 부분이 부풀려졌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이러한 예화를 통해 정여립이 후천세계를 회구했고, 여기에는 가학(苛虐)과 질곡(桎梏)에 시달리는 민중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가 강하였다고 보려는 것이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래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온 대표적인 예언서이다. 여러 감결류(鑑訣類)와 비결서(秘訣書)가 집성된 것으로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동안 다양한 이본(異本)이 생겼다. 학계에서는 대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책으로 엮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감록’에서 기약했던 ‘정진인의 나라’는 결국 후천세계로 귀결된다.

V. 맺음말 : 정여립의 재평가를 위하여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정여립으로 말미암아 호남의 사습(士習)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호남의 풍속이 진취(進取)하기를 좋아하고 거취(去就)를 가볍게 여기므로 사자(士子)가 더러움에 오염되어 풍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 당론(黨論)이 나뉘고 사유(師儒)가 무함당한 뒤로부터 선비의 습속이 방달(放達)을 숭상하여 학문을 강론하는 자가 적어졌다.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난 뒤 학사(學士)와 대부들이 억울하게 화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후진의 제생(諸生)도 유학으로 이름 삼기를 부끄럽게 여겨 기평(議

貶)을 피하였다. 그래서 풍속이 크게 무너졌으니 이는 모두 정여립이 역적절한 빌미였던 것이다.

택당 이식 역시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따르면서 “호남의 풍속이 천박하고 경솔하여 본래 유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정여립이 패한 뒤에 사람들이 효시로 삼았으니, 호남의 학자가 이때 없어졌다”고 하였다.⁵⁵⁾ 이러한 시각에 대해 이견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는지 결과적으로 정여립 사건 이래 호남에서 인재다운 인재가 배출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씨왕조의 관향이 전주임에도 이씨조의 후예들은 자신의 출자(出自)를 부인이라도 하듯 호남을 반역향(叛逆鄉)으로 몰았고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않았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정여립의 이상은 산산이 부서지고 호남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정여립에 대해 “그는 4백 년 전에 군신강상설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신채호가 내린 평가에는 과대한 측면이 있다. 정여립이 남긴 아언(雅言)과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정여립은 당시 조선왕조의 지도이념 내지 국시가 되었던 주자학과 그 학문 풍토, 정치 풍토를 비판하고 배척했던 학자였다. 정여립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늘 했다는 말은 죽은 정여립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사지로 몰아넣기 위한 조작적인 성격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학계 일부에서는 정여립 및 기축옥사와 관련하여 다른 것은 다 부인하고 조작이라 하면서도 정여립이 늘 했다는 말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였다. 정여립이 ‘미완의 혁명가’ 또는 ‘혁명적 사고를 가진 인물’로 비친 데에는 그의 아언 때문만은 아니다. 정여립이 자신이 한 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혁명을 준비했다는 점이 결부되어 것처럼 과대 포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반사건은

55) 『택당별집』 권15, 7a-7b, 「示兒代筆」 참조.

조작이라고 부인하면서 그가 평소에 한 말은 존중하여 ‘혁명적’ 운운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정여립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시유학의 이념을 천명한 것이라든지, 유학의 이념을 새롭게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여립의 언설이 과대평가된 것은, 그것이 당시 여느 학자들과 달리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 간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여립이 박식하고 말솜씨가 좋아 논변에 능하였음은 율곡 이이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가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았다면, 독창적인 경전 주해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즉, ‘새로운 것과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好新奇] 학자’ 정도로 평가되거나, 더 나아가 사문난적(斯文亂賊)의 일컬음이 있었던 윤휴(尹鑄)나 박세당(朴世堂)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경전 주해의 선구자, 반주자학(탈주자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그가 대동사상, 대동세계를 추구했던 학자라는 점에서 원시유학의 이념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세 중국에서 홍수전(洪秀全, 1814~1864)이 기독교의 평등사상과 유교의 대동사상을 결합시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킨 것이라든지, 강유위(康有爲, 1850~1927)가 대동사상을 근간으로 『대동서(大同書)』를 지어 중국을 개혁하려 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정여립은 대동세계, 나아가 후천세계에 대한 이념이 강하였으며 이것을 일부 실천에 옮긴 측면이 있다. 어느 면에서는 유가의 본래 정신에 투철했던 학자였다고도 할 수 있다. 유가의 본래 정신, 즉 원리로의 회귀는 흔히 개혁의 기치로 제시되기도 하였다.⁵⁶⁾ 이것은 사상사에서 흔히 드러나는 사실이기도 하다.

정여립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임에 분명하다. 다만 혁명가 운운하는

56) 『論語集註』, 『八佾』, <射不主皮> 注, “楊氏曰：聖人言古之道，所以正今之失。”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주의자’, ‘인민 주권론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해석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다. 그는 결코 16세기라는 시대를 뛰어넘어 군주제를 부정할 정도로 극단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았다. 다만 후천세계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았던 것 같다. 후천세계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후천과 그 시기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같지 않지만, 후천개벽 또는 후천세계에 대한 정여립의 기대가 다른 사람보다 앞섰던 데서 그의 사상적 진보성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를 반주자학자 내지 ‘시대의 이단아(異端兒)’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그를 신비화시키는 것은 학문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를 거역한 정여립의 사상은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던 주자학적 정치사상과 지배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정통 성리학자, 주자학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비쳐졌고, 또 그의 일련의 행위는 질서와 혐오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시대를 앞선 진보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의리사상, 정통론,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주자학적 지배 체제에 저항했던 그의 사상은 주자학적 지배 질서의 한계와 폐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광채를 더하였다. 명분보다 실질을 중시했던 정여립의 사상이 조선 후기 사상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면 사상사·정치사의 지형도가 달라졌을 것이라 믿는다.

정여립의 진보적인 사상은 가깝게는 허균에 와서 다시 한 번 재점화된다. 울도국의 이상향을 그리며 각종 개혁적 사상을 토해냈던 허균의 사상은 20여 년 앞서 살았던 정여립의 사상에서 도인(導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시대를 거역한 허균 역시 정여립과 같은 길을 걸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한편 정여립의 사건 이후, 근세의 동학농민전쟁(1894), 증산교·원불교 등 후천세계를 부르짖는 민족종교가 모두 전라도, 특히 전주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여립의 대동사상으로부터

비롯된 사상적 변혁의 에너지가 농축되어 동학혁명으로 분출하였으며, 한편으로 조선 중엽 이래 억눌린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후천세계를 희구하는 개혁적 성향은 전라도의 기풍을 이루었고, 이것은 근대의 광주학생운동, 광주민주화운동에까지 연면히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여립의 사상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안방준, 『은봉전서』

『國朝文科榜目』

『단재 신채호 전집』 전3권, 형설출판사, 1995.

신정일, 『지위진 이름 정여립』(조선사회사 총서 6), 가람기획, 2006.

김용덕, 『정여립 연구』, 한국학보, 제2권 3호, 일지사, 1986.

신복룡, 『정여립의 생애와 사상』, 한국정치학회, 1997.

배동수, 『정여립 연구』, 책과 공간, 2000.

정여립 옥사의 실상과 그 영향*

이 희 환**

〈목 차〉

I. 서론

II. 정여립 역모의 실상

III. 정여립 옥사의 영향

IV. 결론

I. 서론

선조 초에는 명종대의 윤원형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기묘사화나 을사사화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적 쇄신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관료들의 이해 관계 상충으로 관료계가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 동서 분당 후 그 갈등이 심화되어 봉당이 세분화되었고 심지어는 상대 봉당을 제거하려는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정여립 옥사(鄭汝立 獄事)이다. 이 옥사에 대해서

* 이 글은 ‘정여립 사건과 기축옥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필자의 「선조대 정여립 옥사와 정철」 『대동사학』 4, 2005를 요약하거나 수정 보완했지만, 그 요지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정여립의 모반을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¹⁾ 날조되었다는 견해로²⁾ 양분되어 있다. 모반을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민인백이 저술한 『討逆日記』의 정여립 자살설을 비롯하여 관련자의 자백, 대동계 및 도참설 등을 근거로 한다. 날조되었다는 측은 정여립의 거주지가 아닌 황해도에서 고변이 있었다는 점과 노비로 전락될 처지였던 송익필 형제의 술수, 정여립 도피의 실상 등을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것은 관련 자료가 적어 동일한 사료를 달리 해석하면서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말한 양측 주장의 주된 근거인 황해도에서 있었던 고변이나 송익필 형제의 처신 및 대동사상·대동계에 대하여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날조라고 주장한 측에서 간과하거나 약술했던 『討逆日記』의 내용, 관련자들의 자백이나 공초의 신빙성, 도참설 등을 비롯하여 역모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점을 확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여립 관련 자료도 적지만 그 대부분이 역모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신원과 관련된 것 뿐이다. 역모를 부정하는 사료는 거의 없다. 정여립을 옹호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화를 자초하기보다는 인멸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결정적인 사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현존 사료를 고찰하면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당시의 정황을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과 사료를 꼼꼼히 검토하다보면 그 날조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옥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는데 그러한 점도 고찰할 것이다.

-
- 1) 우인수, 「정여립 역모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역사교육논집』 2, 1988.
배동수, 『정여립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 2) 이희권, 「정여립 모반사건에 대한 고찰」, 『창작과 비평』 10-3, 1975.
이희권, 『역사로 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2001.
김용덕, 「정여립 연구」, 『한국학보』 4, 1976.

II. 정여립 역모의 실상

선조 5년의 김효원의 전랑 문제를 계기로 분열된 동인과 서인은 선조 16년 이이에 대한 탄핵으로 촉발된 계미삼찬(癸未三譴)으로 그 갈등이 심화되었다. 동인과 서인의 화합을 조정하려고 했던 이이의 시비문제로 송응개 등이 유배되고 유생까지 당론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그 갈등이 계속되어 선조 17년 이후 5~6년 동안 실세하였던 서인 측에서는 이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바로 선조 22년 황해도 관찰사 한준의 고변으로 시작된 정여립 역모 사건이었다. 고변의 과정을 보면 송한필이 황해도의 어리석은 백성을 피어 정여립을 찾아가 보게 했다던가, 재령군수 박충간이 안악군수 이축에게 달려가 여립의 역적 음모가 드러났다고 하였지만 이축은 이를 어렵게 여겼다는 것이다. 신천군수 한응인 역시 그 기미를 알고 취한 척 하면서 박충간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박충간은 이축·한응인을 공갈 협박하여 황해감사 한준에게 보고하여 장계를 올렸다.

송한필은 황해도로 도망가 살면서 성명을 고쳐 조생원이라 했고, 밤낮으로 동인을 원망했다는 것이다.³⁾ 그의 형은 선조대 8대 문장가로 칭송되며 이이·성혼·정철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익필이다. 송익필은 서인의 모든 모의에 참여했으며 서인의 논의(論議)를 주도하였다.⁴⁾ 송익필의 부친 사려는 송린과 안관후의 비(婢) 감정의 소생으로 노예였다. 그가 바로 조광조를 지지하다가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우의정 안당(안관후의 조카)의 아들 안처겸이 모의했다는 중종 16년의 신사고변으로 첨지(僉知)에 올랐던 송사려이다. 그러나 명종 21년에 안처겸의 동생 안처근의 열자 안

3) 『연려실기술』 14, 선조조 고사본말, 기축년 정여립의 옥사.

4) 『동소만록』 1 『대동패림』, 국학자료원, 1991, 562쪽.

『선조실록』 25, 24년 10월 계축 : 『선조신록』 23, 22년 12월 기축.

『선조수정실록』 18, 17년 2월 무신.

윤이 송사련의 고변이 무고였음을 밝혀, 그 아들 송익필 형제를 다시 안씨의 노복으로 만들었다. 다시 노비가 된 그들 형제는 정철·이산해의 도움을 받아 황해도 지방으로 도망가⁵⁾ 성명을 바꾸고 훈장을 하면서 정여립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폐시키는 등 동인을 복수하려고 했다.⁶⁾ 그들 형제가 조정에 원망이 쌓여 반드시 일을 내고야 말 것이라는 선조의 전교까지 있었던 것을⁷⁾ 보면, 그들의 동인에 대한 원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전주에서 살고 있던 정여립이 역모했다는 고변이 전라도가 아닌 황해도에서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거주한 곳에서 극도로 비밀리에 역모를 꾀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데 황해도에서 고변이 있었다. 주지하듯이 황해도 지방은 이이가 살던 곳이어서 그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그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⁸⁾ 황해도가 이이의 영향력이 큰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이와 절친한 송익필 형제가 그 곳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정여립이 적대적인 서인의 영향력이 큰 곳에서 역모를 꾀할 수 없다. 황해도 관찰사 한준이 역모에 가담했다고 보낸 자들을 친히 국문한 선조도 여립이 비록 모반했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몽매한 자들과 같이 역모 할 수 있느냐고 했던⁹⁾ 것도 믿지 못해서 한 말이었다.

재령군수 박충간의 태도 역시 의문이다. 역모가 드러났다면 급히 조정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악군수 이축에게 달려가 고변을 상의하였다. 심지어 박충간은 한응인의 명성을 빌려 조정에서 믿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응인은 술을 핑계로 거부하였다. 한응인의 명성을 빌려야만 할 정도로 그 일이 허점투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응인이 술 취한 척하면서 두어

5) 『선조수정실록』 23, 12년 12월 갑술.

6) 「조야신평」 1 『조선당쟁관계자료집』 1, 여강출판사, 1983, 안윤수록송익필사.

7) 『선조수정실록』 23, 22년 12월 갑술.

8) 『선조수정실록』 19, 18년 4월 임인.

9) 「패일록」 『패립』, 18쪽.

차례나 거부했던 것이다. 이처럼 박충간이 경각도 지체할 수 없는 역모를 보고하지 않고 안악·신천군수와 상의했다. 또 명사를 동원하여 조정에 서 믿게 하기 위해 공갈 협박하여 연명으로 고변하려 했고,¹⁰⁾ 황해감사까지 동원했던 점 등 고변의 정황이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고변이 조정에 보고되었을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임진왜란으로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고 『선조실록(宣祖實錄)』도 소략하지만, 조정에서 역모를 의심하였던 것이다. 정여립의 생질 이진길이 고변 7일 후에야 사직되었다.¹¹⁾ 하옥되었지만 7일 간이나 검열직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고변을 조정에서 믿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였다.

그러나 판돈령부사 정철의 비밀 차자(笱子)로 급변하게 된다.¹²⁾ 비밀 차자 직후 독포어사(督捕御史)가 교체되고 황해도에서 잡혀온 죄인들도 처형되었다. 정여립의 아들 정옥남도 처형되었다. 곧 이어 정여립의 복주를 고묘(告廟)하여¹³⁾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고묘 다음날 생원 양천희의 상소가 있게 된다. 그 후 수 백 명의 인사가 죽임을 당하였다. 정여립의 죽음과 고묘는 고변 사건의 종결이 아니었다.

우선 정여립의 자살 여부를 보기로 하자. 역모를 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고, 끝까지 싸우다 타살될 수도 있다. 그 반대로 역모가 날조되었지만 반증해도 소용없는 상황이라면 편안히 죽으려고 자살할 수 있다. 또 어차피 역적으로 몰린 이상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싸우다 타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타살 여부가 실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역모설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타살되었다는 「동소만록(桐巢漫

10) 김용덕은 정여립의 제자를 자처하는 안악 교생 조구의 고발로 이축이 중심이 되어 고변하였다고 하나 전후를 종합해보면 송익필이 조구를 시켜서 박충간에 게 제보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김용덕, 앞의 논문, 59쪽).

11) 『선조실록』 23, 22년 10월 계미.

12) 『선조실록』 23, 22년 10월 을유.

13) 『선조실록』 23, 22년 10월 신축.

錄)』의 기록이 시기적으로도 후대의 기록이므로 신빙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포하려고 했던 진안 현감 민인백의 『토역일기(討逆日記)』를 중시하고 있다.¹⁴⁾

자결을 주장하는 학자는 그 죽은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서술한 『討逆日記』를 날조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가 타살되었다면 그의 아들 옥남을 살려두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¹⁵⁾ 그런데 『討逆日記』의 저자 민인백은 성혼의 문인으로 정여립을 항상 조선의 반적(反賊)이라고 생각했으며,¹⁶⁾ 옥사 1년 전에 정여립의 집을 정탐했다.¹⁷⁾ 정탐은 피정탐자의 잘못을 들

14) 우인수, 앞의 논문, 78쪽.

배동수, 앞의 논문, 107~108쪽.

15) 우인수, 앞의 논문, 80쪽.

16) 『토역일기』, 28쪽. 민인백이 ‘정여립과 정개청을 항상 반적과 역신으로 생각했다’고 한 기록을 민인백의 옥사 후의 인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옥사 후에는 당연히 반적이었는데 굳이 그러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더구나 항상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했으니, 민인백이 옥사 전부터 그렇게 인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 『토역일기』, 30쪽. 민인백이 정여립을 직접 본 적은 두 번이다. 즉 선조가 정여립을 직접 만나 대화한 적이 있다고 하문하였다. 이에 민인백은 옥사 1년 전인 선조 21년 무자년 가을 전주 근처인 동곡의 정여립 집에서, 그리고 옥사가 일어난 기축년 3월 병조좌랑 정여립이 진안 죽도의 서당에 가려고 진안현에 들렀을 때라고 했다(『토역일기』, 30쪽 참조). 그런데 기축년에 만났다는 기록은 사실과 다르다. 정여립이 그 때 병조좌랑이 아니었는데도 병조좌랑으로서 병조의 노비를 대동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인백이 선조 21년 가을에 정여립의 집에 갔던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선조가 스승을 비판한 북송의 형서에 정여립을 비유했던 것은 선조 18년의 일이다(『선조실록』 19권, 18년 6월 신유). 이 일로 정여립은 전주에 낙향했다. 그리고 민인백의 진안현감 재임시기는 선조 21년 7월부터 정여립 옥사가 진행되던 선조 22년 10월 예조참의로 승진되어 진안을 떠날 때까지였다. 한편 수령이 선비들이나 전직 관료들을 찾아보는 관습도 당쟁이 격화된 후에는 당색이 다르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선조 21년 무렵에는 서인이 실세하여 동인에 대한 공격이 심했다. 이미 선조 19년부터 정언신 정여립 이발 등에 대한 서인의 공격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인데다 민인백이 정여립을 찾아간 것은 그가 진안현감으로 부임하는 길에 인사차 방문한 것이 아니다. 부임한 지 3~4개월 후에 일부러 찾아 갔다. 동인 서인의 대립이 격화된 후였으므로 부임하는 길목에 살고 있는 인사에게 들려 인사

취내거나 유도하여 일을 꾸미려는 예비 단계이다. 숙종대 우의정 김석주에 의한 경신환국, 김익훈 김환의 임술고변 혹은 경종대 김일경의 임인옥사 등이 정탐으로 날조되었다. 민인백이 진안현감에 임명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고변 1년 전 정여립을 반적이라 칭하고 그 집을 정탐했다. 그러한 민인백의 『討逆日記』의 내용을 과연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자결 현장 기록도 의심할 수 있다. 해가 진 후 산 속에서, 정여립이 은밀히 주고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죽은 상황 역시 산 속에서 해가 저 감쌌는데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칼을 뺏어 찔렀다’, ‘목을 늘어뜨려 칼을 받았다’는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¹⁸⁾ 그의 자결을 믿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¹⁹⁾

정여립이 아들 옥남을 살려 둔 것도 자살 증거가 될 수 없다. 민인백의 기록에도 ‘옥남이 좌측에 칼에 찔렸다’고 했다. 정여립의 칼에 찔려 혼절했다가 4경이 넘어서 깨어났는데 일부러 살려 두었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타살 자살의 문제보다 정여립의 피신 여부가 더 문제가 된다. 정여립 유인의 사명을 띠고 변승복이 파견되었는데, 그는 황해도에서 4일 동안 달려가 전주에서 정여립을 만나 죽도로 유인하였다는 것이다.²⁰⁾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인책이 아니었다면 하필 자신의 별장이 있는 죽도

했던 관행을 무시하면서 정여립을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옥사 1년 전인 선조 21년에 민인백이 정여립의 집에 들렀다는 것은 인사차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탐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8) 이회권, 앞의 책, 46~48쪽.

19) 한편 정여립이 최후를 맞이했던 곳이 민인백의 기록처럼 고산 근처의 다복동이 아니라 정여립의 별장이 있던 죽도 앞산이라는 전언도 있다. 필자는 그 전언에 따라 그곳을 답사한 적이 있다. 산 중턱에 2~3명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잡혀 죽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자결을 의심할 수 있는 전언임은 분명하다.

20) 김용덕은 그 근거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김용덕, 앞의 논문, 43~47쪽).

로 피신할 수 있을까. 피신한 일을 역모의 중요한 단서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별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죽임을 목격한 옥남이 순순히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²¹⁾ 설득력이 없다. 불순한 의도의 국문에서 수촌(手寸), 자복(自服)은 믿을 수 없다. 심한 고문으로 죽음에 처할 상황에서는 자포자기 상태이며 고문으로 죽은 예도 흔한 일이다. 자포자기 상태나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수촌 자복 결안을 신뢰하기 어렵다. 더구나 겁 많은 17세의 어린 나이였는데 고문당하다 죽은 옥남의 자복 내용을 믿을 수는 없다.

이발의 동생 이길과 정여립의 조카 이진길의 자백 내용 혹은 참설을 정여립 역모의 근거라고 했다.²²⁾ 송익필 형제의 동인에 대한 원한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부연하면 송익필이 옥사를 날조하였고 정철·성혼이 이를 완성하였으며,²³⁾ 조현이 올린 상소문도 모두 송익필 형제의 사주에 의한 것이며,²⁴⁾ 동인을 무차별 공격했던 정암수 등을 사주한 자는 정철이고 상소문을 써 준 자는 송익필이었다고²⁵⁾ 하였다. 더구나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까지 송익필의 개입을 암시하고 있다.²⁶⁾

이발의 동생 이길과 정여립의 조카 이진길의 자백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낙안 교생 선흥복이 정철의 사주를 받은 금부도사의 유인으로 이발·이길·백유양 등을 연루시켜 죽였는데, 선흥복을 사형에 처하

21) 우인수, 앞의 논문, 80쪽.

22) 배동수, 앞의 논문, 94~98쪽과 103쪽.

우인수, 앞의 논문, 80~83쪽.

23) 「동소만록」 1 『대동패립』, 562쪽.

24) 『선조수정실록』 23, 22년 12월 갑술.

25) 「기축록」 하 『조선당쟁관계자료집』 3, 여강출판사, 1983, 기축 동 광주진사 정암수 등 무함 사료소. 이 「기축록」은 『패립』에 「기축옥안」으로 수록되어 있어一名 ‘기축옥안’으로도 불리었다. 그러나 두 기록은 약간의 첨삭이 있다.

26) 『선조수정실록』 23, 22년 12월 갑술.

려 하니, 그가 “이발·이길 등을 끌어들이면 살려 주겠다더니 어찌 도리어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였다.²⁷⁾ 정여립의 또 다른 조카 정집도 많은 인사를 끌어들여 죽이게 했지만 그가 처형될 때 “많은 관료를 끌어들이면 살려 주겠다더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이길과 이진길의 자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길이 상경하는 도중 금구에서 여립을 만나 며칠을 머물었는데, 전송할 때 여립이 붓에 술을 적서 수상한 말을 소반에 썼다는 것이다. 이에 이길이 놀라 길을 재촉하다 은진현에 들러 호위를 요청하여 민병(民兵)의 호위를 받아 상경했지만, 고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불문에 부쳤다는 것이다.²⁹⁾

고변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을 엄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관련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상세히 보고해야만 한다. 이길과 정여립이 금구에서 만난 날짜도 기록마다 상이하다. 민인백의 『토역일기(討逆日記)』는 9월이고 「아아록(我我錄)」은 8월이다.³⁰⁾ 그들 날짜도 고변보다 1~2개월 전이었으므로 고변 이후여서 불문에 부쳤다는 기록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 이길이 호위를 받으면서 상경하자 무장한 장사를 시켜 뒤쫓게 했다면 역모가 발각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당연히 서둘러 거사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기색이 없었다.³¹⁾ 그러므로 이길이 고변 뒤의 일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불문에 붙이다가 자백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을 믿을 수 없다. 그 기록 자체도 신빙성이 없으며 이길이 그의 형 이발을 비롯하여 노모 자식 조카 등 모든 가족과 같이 고문으로 장사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자복 내용도 역모의 입증 자료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27) 『선조실록』 23, 22년 12월 을유.

28) 「동소만록」 1 『대동패립』, 555쪽.

29) 『선조수정실록』 23, 22년 10월 을해.

30) 「아아록」 『패립』, 용문문답, 7쪽 및 「토역일기」, 27쪽.

31) 이희권, 앞의 책, 54~55쪽.

기(李箕)·이광수(李光秀)·승 성희(僧 性熙)·박연령(朴延齡) 등 공모자들이 혐의 내용을 자복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³²⁾ 그러나 자복했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결안이나 자복을 그대로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설도 역모설을 방증해 주는 단서가 아니다. 정여립의 탄생 설화나 전주 남문 밖의 왕기지설(王氣之說) 혹은 목자전읍흥설(木子奠邑興說) 등의 참설도³³⁾ 그 역모를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역대의 참설이 이때에도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여립에 관련된 참설은 그가 죽은 뒤에 서술된 것이다. 이는 역모를 설득력 있게 하려는 측에서 만들었겠지만 이를 부정하면 역모를 옹호하는 것이므로 사실처럼 굳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또 구체적인 거사 계획도 없었다. “역적이 발각될 당시 군기가 반드시 있었을 터인데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는 선조의 질문에, “병기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전라감사 이광의 말³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반의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는 병장기 한 점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³⁵⁾

정여립 사건의 관련자는 모두 신원되었으나 동인의 일부인 복인 정권이었던 광해군대에도 정여립의 역모가 부인되지 않았으며,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국조보감(國朝寶鑑)』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³⁶⁾ 점도 문제가 있다. 관련자들의 신원은 바로 그 역모설이

32) 「토역일기」, 17~18쪽.

배동수, 앞의 논문, 104쪽.

33) 「진감」 『조선당쟁관계자료집』 2, 기축옥사, 401쪽.

34) 『선조수정실록』 24, 23년 3월 임인.

35) 국문 당한 자들의 공초에 정여립이 경인년이 크게 길하다면서 경인년 정월 군사들을 전주에 집결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기와 군량을 사용하며 또 관아를 약탈해서 쓰기도 하고, 전라 감사 수령을 죽인다는 등 거사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토역일기」, 18쪽).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거사 계획이 있었는데도 병장기 한 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여립의 신원이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역적을 옹호하다가 혹 자신에게 미칠 화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모반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 또 그 모반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멸문의 화를 무릅쓰면서 이미 죽은 정여립을 옹호할 수는 없다. 오히려 혐의를 벗기 위하여 더 심하게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순리적이다.³⁷⁾ 이 때문에 복인 정권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관찬 사서인 『선조실록(宣祖實錄)』 등에서 역모설이 사실처럼 기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나열한 몇 가지 예라든가 뒤에서 논하려는 대동계나 군주세습제 부정 등을 통하여 역모설은 추론일 뿐이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이처럼 고변 정황이 의문으로 점철되어 있다.

정여립이 역모했다는 고변에 대하여 당시 조정에서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우상 정언신이 고변한 자를 목베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한 것이다.³⁸⁾ 그러나 고변 9일 후 판돈령부사 정철이 송익필·성혼의 권유를 받아 비밀 차자를 올린 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그 5일 후 정여립은 시신이 되었으며, 그 10여 일 후 그 역모를 종묘에 고하고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정철의 사주를 받은 전라도 생원 양천회가 상소하여 우상 정언신, 이조참판 정언지 형제를 비롯하여 이발·이길·백유양 등이 정여립과 관련있다는 점을 상론하였다.³⁹⁾ 이어 정언신 후임의 위관이었던 우의

36) 배동수, 앞의 논문, 100~104쪽.

37) 趙綱이 지은 정언신의 비문에 정언신이 정여립을 역적으로 규정하였던(『東萊鄭氏 賴庵公派譜』, 1981, 217~227쪽) 점도 그러한 類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정언신은 정여립과 9촌 숙질간인데다 평소 여립을 비난한 적이 없었다. 고변이 있을 때에도 그를 옹호하면서 고변자의 처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상 정언신이 고변한 자를 목베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조정 신료 누구도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선조실록』 24, 23년 5월 기미).

38) 『선조실록』 24, 23년 5월 기미.

39) 『선조실록』 23, 22년 10월 임인.

정 정철을 비롯하여 이조참판 성훈, 대사헌 최황, 헌납 백유함 등 서인이 다수 임용되었으며, 백유함의 탄핵으로 양사가 체직되었다.⁴⁰⁾ 새로이 임명된 양사의 탄핵이나 고문으로 인한 조작된 공초에 의해 피화자가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탄핵과 고문으로 장사자가 계속 발생한 것은 정철에게 그 원인이 있다.⁴¹⁾ 또 앞에서 언급했던 양천회·정집·선홍복·정암수 등이 정철의 사주를 받았다. 위관 정철이 옥사를 확대하였던 많은 예가 있지만 이발·최영경 등의 예만 보기로 하자. 이발은 선조 6년에 알성문과 장원급제로 그 문명을 날려 부제학까지 역임하였고, 동생 이길 역시 선조 10년 별시에 급제하여 촉망을 받았다. 이발 형제는 아버지인 전주부윤 이중호를 따라 전주에 간 후 정여립과 교분이 있어 그를 대간이 되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다.⁴²⁾ 이로 인해 정여립의 옥사에 연루되어 귀양에 처해졌다. 그러나 정철의 사주를 받은 선홍복의 초사에 그들 이름이 나와 다시 국문을 당하다 죽었으며, 그의 형 이급, 82세의 노모와 10살의 아들 명철, 이발의 아우인 현감 이길과 그 아들 만생·순생까지 화를 당했다. 그러나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이는 끝까지 승복하지 않다가 장사했다.⁴³⁾

40) 『선조실록』 23, 22년 11월 임자 을묘.

41) 정철은 어려서부터 매형인 계림군을 따라 궁중을 출입하였는데, 10살 때 을사 사화에 연루되어 형과 매형이 처형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였으니 권력의 비정함이라든가 권력의 맛을 일찍부터 알았을 것이다.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야망 역시 그의 마음에 항상 잠재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정철의 비밀 차자 후 며칠 만에 정여립이 죽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하겠지만, 그가 우의정으로 위관이 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42) 「기축옥안」, 80쪽 및 『기축기사』, 21~23쪽.

43) 『선조실록』 23, 22년 12월 을유; 『선조수정실록』 25, 24년 5월 을축; 「패일록」 22, 27쪽. 이발과 정철의 거주지였던 남평(현 나주시 남평읍)과 창평(현 담양군 창평면)이나 그 인근의 광주 지방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이발의 학덕을 정철보다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정철이 이발을 옥사에 연루시켰다고 한다.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옥사로 죽임을 당했던 정개청이 선조 21년 곡성 현감 재직시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정철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고

한편 조식의 문인 최영경은 ‘길삼봉이 상장(上將), 정여립이 차장(次將)’으로 고변서에 지목된 그 길삼봉이다. 길삼봉은 원래 실체가 없는 가공 인물이었다. 그래서 나이, 체형, 성(姓), 신분 등 말하는 사람마다 달랐으나, 정철의 사주를 받은 진사 양천경, 강현, 홍천경 등의 상소 때문에 최영경으로 낙착되었다.⁴⁴⁾ 그 전 최영경에 대한 음모라 하여 중지되었던 국문이 홍천경의 상소 후 재개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또 석방하였다. 그러나 석방한 다음날 사간원에서, 최영경이 여립과 편지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공초하지 않았고 또 상종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국문을 청하였다.⁴⁵⁾ 그리하여 그 발설자인 경상도 도사 허은을 추궁하니 지난해 경상도 감사 김수한테 들었다고 하였다. 당시 병조판서였던 김수를 문초하니 그는 도사 강경희에게 들었고, 강경희는 진주판관 홍정서, 홍정서는 진주품관 정홍조에게 들었다고 하여, 정홍조를 국문하였으나 그는 이를 부인하였다. 최영경 역시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면서 여립과의 상종설을 부인했지만 그의 동생 최여경과 같이 고문으로 장사했다.⁴⁶⁾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길삼봉이나 정여립과의 상종에 앞서 정철과의 원

심지어 그 집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니(『기축록』하, 안중묵소), 정철을 낮게 평가했던 인사들도 있었던 것 같다. 주지하듯이 연산군대 이후 사회를 피해 낙향한 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낙향한 지방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을사사화시 화를 당한 부친을 따라 전라도에 왔던 그가 서울 출신인데도 대우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반감을 시사하고 있다. 인종이 죽자 대운 윤임이 정철의 매형 계림군 유를 추대하려고 했다는 윤원형의 모함을 받아 계림군은 효시되었고 정철의 부 鄭惟沉은 강원도로 유배되었다. 정유침은 1551년(명종 6년) 특사되었으나 서울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철이 15살 때 창평으로 이주하였다. 창평에는 마침 정유침의 형이 남원부사였을 때 정철의 조부 묘지를 잡아놓았으므로, 정철은 부친 정유침과 같이 그 밑에 움막을 짓고 시묘살이 하는 것처럼 숨어살다가 김윤제의 문하가 되어 그 곳(창평면 해곡리 열그실)에서 문화 유씨와 결혼 정착하였다.

44) 『선조수정실록』 24, 23년 6월 신미 ; 『기축록』 상, 경인년 강해의 상소.

45) 『선조수정실록』 24, 23년 6월 신미.

46) 상동.

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이에 대해서 옛 성인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한 적이 있었다.⁴⁷⁾ 그리하여 서인의 반감을 있었던데다 평소 정철을 무상한 소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었다.⁴⁸⁾

그 외에도 전 전라도사 조대중과 그의 형제 자질, 전 장령 유몽정, 전 곡성현감 정개청 등 수많은 인사가 장살되었으며,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사망자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확대된 정여립 옥사를 사화로까지 보았으며 성혼 등 서인 측도 이를 일부 인정하였다.⁵⁰⁾

한편 옥사와 연루된 자들의 대부분이 국문을 당하다 죽었다. 즉, 결안이 작성되기 전에 죽었다. 결안마저 작성되지 않은 채 죽음을 당한 자가 대부분이었다면 그 진위 규명보다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우의정 정언신 형제까지 죽었다. 또 좌랑 김빙은 어려서부터 안질이 있었는데 여립이 죽은 날 우연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그 죽음을 애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장살되었을 정도였다.⁵¹⁾

III. 정여립 옥사의 영향

왜 정여립을 표적으로 했는가 하는 점과 더불어 그 옥사의 영향을 보기로 하자. 동인에게 패한 서인이 집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했고, 그 계기로 이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였다. 주지하듯이 정여립은 백유양 노수신 등 당대 석학들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한때 이이·성혼·송한필 등의 극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축(蜀)을 정통으로 보는 주자와 달리 사마온공의 『자치통감(資治

47) 「기축록」 상, 수우당선생 최공 행장.

48) 「기축록」 상, 최지평전.

49) 「동소만록」 1 『대동패립』, 599쪽.

50) 김용덕, 앞의 논문, 64~66쪽.

51) 「기축기사」 『패립』, 43쪽.

通鑑』처럼 위(魏)를 정통으로 보았다. 또 요(堯)·순(舜)·우(禹)를 극찬하며 천하는 공공지물(公共之物)이라면서 군주세습제를 부정하기도 하였다. 불사이군(不事二君) 역시 왕축이 한 때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며 성현의 일반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했다.⁵²⁾ 주지하듯이 이 무렵은 서경덕·조식·이이·이황·기대승 등 당대의 석학들이 다양한 유학적 논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며 논쟁을 벌인 시기였다. 성리학이 난숙기를 맞이하였으므로 정여립의 그러한 주장은 흠이 아니라 학문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 공사천예(公私賤隸)까지 포함한 대동계를 조직하여 매월 15일에 활쏘기를 했다. 그의 대동사상은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도(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천하를 공공지물(公共之物)로 여겼으며, 현자를 군주로 뽑고 능자(能者)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쳤다. 환과고독과 폐질자도 잘 부양된다. 도적이나 난적이 없어 대문을 닫을 필요도 없으니, 이런 상태를 대동이라고 한다”고 한 것처럼 고대 이상사회의 사상이다. 그 ‘대동’이란 용어는 이 무렵에 널리 사용되었다. 이이의 사대동(私大同)이나 김육의 대동법을 비롯하여 전라도 영광 지방의 마을 공동체나 친족 간에 결속을 도모하기 구립대동계(鳩林大同契, 1565), 장암대동계(場岩大同契, 1667), 학산은곡대동계(鶴山隱谷大同契, 1650)⁵³⁾ 등 계 명칭에도 그 용례가 있었던 것이다. 정여립 옥사 전후에 그 용례가 있었다면 대동이란 용어가 당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상사회의 대동사상을 실천하려고 공사천예까지 아우르는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쏘기를 했다는 것은 그 무렵의 학문 풍

52) 「진감」 『조선당쟁관계자료집』 2, 기축옥사, 400쪽; 『선조수정실록』 23, 22년 10월 을해.

53) 이해준, 「조선후기 영암지방 동계의 성립 배경과 성격」 『전남사학』 2, 1988, 103~114쪽.

조나 사회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 성가를 높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송익필·송한필 형제 역시 노비의 신분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이·성혼·정철 등 당대의 고위 관직자들과 벗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조선 후기와 달리 학문 중시의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조광조 역시 천예(賤隸) 갓바치를 스승으로 삼았던 일이 있다. 그러한 조광조가 신원 복권되어 추앙되던 시기였으니 천예들과 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흠이 아니었다. 활쏘기도 선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그 대동계로 인하여 선조 20년의 정해왜변 때 전주 부윤 남언경을 도와 왜군을 격퇴하였으니, 정여립의 대동사상은 칭송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정여립은 이이가 죽은 후 선조 18년에 이이를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라고 공격하다가 선조로부터 중국의 형서(邢恕)와 같은 반복무상한 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⁵⁴⁾ 스승을 비판한 일은 당시 관습상 용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⁵⁵⁾ 이러한 점과 그의 대동사상, 대동계를 비롯하여 주자와 다른 견해 등이 확대 해석되어 그를 혐오했던 서인의 표적으로 작용하였다. 동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회로 이용된 것이다. 그의 행위와 사상이 역모와 연결되어 서인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점은 옥사가 있기 전부터 조헌의 상소에서 나타나고 있다.⁵⁶⁾ 백유양·이발·이길·정여

54) 「훈정편록」 5, 앞의 책, 98~99쪽.

55) 정여립은 이이보다 10년 연하이다. 사제관계와 나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여립이 이이의 제자라는 말은 과장된 면도 있는 듯하다. 「기축기사」 1쪽에는 정여립이 이이·성혼과 종유하며 사우로 칭했다. 「훈정편록」 5, 『조선당쟁관계자료집』 2, 여강출판사, 1988, 97쪽의 이이의 조카 이경진의 상소문에서, 정여립이 선조 16년 11월 이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이를 尊兄이라 칭했다. 이처럼 정여립이 이이를 존형이나 사우로 칭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희권, 앞의 책, 69쪽 참조).

56) 『선조실록』 20, 19년 10월 신사 ; 『선조실록』 22, 21년 1월 무자, 21년 4월 병진 ; 『선조수정실록』 23, 22년 4월 정축.

립·정언신·정언지 등 동인을 계속 공격하였으며, 여립이 반드시 역적질 할 것이라면서 여립의 향리를 미행하여 그 동정을 기찰하기까지 하였다.⁵⁷⁾ 옥사가 있기 전부터 서인은 동인을 공격하였고 정여립은 이미 역적으로 단정되었다.

그 얼마 후 그는 역적으로 확인되었고 관련된 자들이 화를 입었다. 그 후손 역시 수백 년 동안 명예를 잃어져야 했다. 그러나 화를 당했던 자나 그 후손에게 끼친 폐해가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정여립 옥사는 당쟁을 세습시킨 요인이 되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당사자나 후손은 가해자들과 그 후손들을 적대시하였다. 그러한 것은 시일이 경과하면서 더 깊어져 시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이었다. 물론 예외적이긴 하나 당색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즉 기묘사화로 화를 당했던 우의정 안당의 후손인 남인 안극효가 이재의 문인이 되어 노론으로 바뀌었다. 학문 때문이었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진주목사까지 역임하였으나 남인이 적대시하였고, 노론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학문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봉당간의 숙원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여립 옥사는 봉당의 세습과 당쟁의 격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옥사 후 사상의 다양성이 제한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옥사 무렵 서경덕·조식·이황·기대승 등을 비롯하여 이항·김인후 등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들에 비견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유교연원록(儒敎淵源錄)』, 『유학연원록(儒學淵源錄)』으로 불리는 많은 책이 있다. 이들 책자의 세부적인 부분은 후학이나 후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편찬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기

57) 이희권, 앞의 책, 80쪽.

도 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실질적 연원은 대부분 명종~선조대의 학자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 새로운 계보나 학통이 거의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여립이 주자와 다른 견해를 표명했고, 이이를 비난하다 사류들로부터 배척받았으며, 그 후 고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역적이 되었다. 이후 선대의 학자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었다. 당쟁이 세습·격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했다. 그 예로 윤휴·박세당 등이 사소한 부분에서 주자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다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신득구 역시 송시열의 후손 송병선의 부탁으로 『근사록(近思錄)』을 교정보면서 이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 일로 그는 사문난적으로 몰려 노론 인사들에 의해 성토되고 집까지 불태워지자 자살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자 성리학의 절대화 현상의 원인이 예론, 중화사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옥사 후 당쟁이 세습되고 학통과도 연결되어 더욱 격화되었으므로 학문적인 면에서도 선학들과 다른 견해를 주장할 수 없는 분위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상의 다양성이 위축되었던 한 원인이 정여립 옥사로부터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봉당기 상대 봉당을 꺾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수많은 음모 정탐과 살육의 선례가 되었다. 선조대 세자를 둘러싼 암투나 광해군대의 살육을 비롯하여 숙종~경종대 수많은 음모가 있었다. 이들 모두 권력 장악의 한 방법이었는데 그 선례가 정여립 옥사였다.⁵⁸⁾ 그 옥사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몇몇 인사의 신원에 그쳐버린 결과 그러한 일이 계속 자행되었다.

이 옥사의 영향으로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상대 봉당에 강경했던 인사들이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후손 역시 조선 후기 명족으로 대우받았다. 이 옥사를 확대하였던 정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인

58) 숙종대 경신환국, 갑술환국시 김석주, 김춘택의 행위가 정여립 옥사에서 전수된 것이라 했다(『동소만록』 상, 앞의 책, 555쪽).

에서 차지하는 그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에 그 자손은 일급 양반으로 대우 받았다. 정철의 후손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라도는 물론 전국의 명문 가문들이 영광으로 여겼다. 지탄받아야 할 자가 숭앙의 대상이 되어 온갖 영광을 누린 것이다. 수많은 인사를 죽인 자나 후손이 당쟁의 와중에서 집권 봉당과 결부되어 오히려 숭앙되었다.

한편 이 옥사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선조 24년의 세자 책봉 문제로 파출된 정철의 논죄 과정에서 동인이 남인, 북인의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었다. 물론 이들의 분당 조짐은 옥사 이전 정여립이 전랑이 되고자 할 때 이를 지지했던 이발과 반대했던 유성룡이 다투었을 때부터다. 그 때 이경중이 정여립의 사람됨이 나쁘다고 하여 정인홍으로부터 탄핵받은 적이 있었다. 정여립 옥사 후 유성룡은 이경중이 선견이 있었다고 해서 그를 탄핵했던 정인홍이 파직되었다.⁵⁹⁾ 즉, 역모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남인 유성룡 일파는 김성일·우성전 등 이황의 문인이 많았고, 북인 이발의 일파는 정여립·최영경·정인홍 등 서경덕 조식의 문인이 많았다. 이들 중 정여립 옥사로 많은 화를 당했으나 살아남은 북인은 정철과 서인의 처벌에 강경하였고, 옥사시 구원해주지 않았던 유성룡 등을 원망하여 그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므로 이 옥사는 동인 분열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여립 옥사로 인해 호남지방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잠시 보기로 하자. 호남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호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문과 급제자와 당상관 진출 현황을 예로 들고 있다.⁶⁰⁾ 문과 급제자 지역별 분포를 보면 15~16세기의 경우 서울 53.2%, 경상 14.9%, 전라 10.8%, 경기 6.2%, 충청 5.9%, 강원 3.5%, 황해

59) 『연려실기술』 18, 선조조 고사본말, 동서남북론의 분열.

60) 배동수, 앞의 논문, 154~184쪽.

이희권, 앞의 책, 110~117쪽.

2.8%, 평안 1.6%, 함경 1.1%였는데, 17~19세기에는 서울 42.5%, 경상 12.8%, 평안 11.4%, 충청 10.7%, 전라 7.8%, 경기 7.5%, 함경 2.5% 등으로 전라도의 비율이 정여립 옥사 전의 3위에서 그 후 5위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문과 급제자의 당상관 진출 상황도 태조~선조대의 서울 42.9%, 경상 13.7%, 전라 9.6%, 충청 3.1%, 강원 1.9%, 경기 1.7%였다. 광해~정조대에는 서울 59.9%, 충청 10.2%, 경상 8.6%, 전라 5.6%, 경기 5.0%, 강원 2.0%, 평안 0.9% 등이었다. 정여립 옥사 전의 전라도의 비율이 3위였는데 그 후 4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과 급제자 비율 역시 조선 후기가 주로 서인 즉, 노·소론의 정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청도의 약진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당상관의 진출 현황도 조선 후기 서울 집중 현상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인척 관계 등에서 서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방 출신의 당상관 비율을 조사하여 보면 위의 비율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한 고려 없이 단순 비교한 위의 비율에서도 조선 후기 당상관에 오른 자는 조선 전기와 비교하여 서울 출신은 17% 증가했지만, 경상도는 5.1% 전라도는 4%나 감소되었다. 이처럼 정여립 옥사 후 전라도가 다른 지방과 차이가 없다. 이 현상은 조선 후기 서울 집중 현상을 비롯한 당쟁, 가문 등의 상상의 풍조, 평안도 유생에 대한 위열 등의 다른 측면에서 규명해야 한다. 조선 후기 경상·전라도 출신의 정승을 보아도 경상도는 고종대의 유후조 1명이며, 전라도는 숙종~경종대의 이상진·유상운·유봉휘 등 3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정여립 모반의 고변은 그가 살고 있던 전라도가 아니라 황해도에서 있었다. 황해도는 서인 세력이 우세하였고, 또 동인에 의해 노비 신분으로

전략하여 그 곳에 숨어살던 송익필 형제의 술수의 결과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모가 아니라 동인을 패퇴시키려고, 송익필·정철 등의 음모에 의한 허위 자백과 공초로 수많은 인사가 화를 당한 옥사요 사화였다.

음모와 날조로 시작된 이 옥사는 정철의 사주를 받은 양천회의 상소, 정집의 초사, 낙안 유생 선흥복의 초사, 정암수의 상소 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또 연루자의 대부분은 고문으로 결안이 작성되기 전에 죽임을 당했다. 그 진위의 규명보다는 정적이나 원한이 있는 자를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이 옥사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산으로 남겼다. 당쟁이 세습되고 사상의 다양성이 제한 받았으며, 동인의 남북인 분열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 상대 봉당을 꺾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음모 정탐과 살육의 선례가 되기도 하였으며, 상대 봉당을 궤멸시켰던 인사들이나 그 후손이 집권당과 결부되어 숭앙되기도 하였다.

끝으로 이 옥사를 ‘정여립 옥사’로 명명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정여립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가 불식되기를 바라면서 본고를 마치려고 한다. 정여립을 반주자학적 인물, 혁명가적인 사상가, 공화주의자 등으로 칭한 다든가 혹은 그의 사상을 후천개벽이나 미륵사상과 연결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호남사림의 동향

이 동 희*

〈목 차〉

I. 머리말

III. 향촌사회의 동·서인 갈등

II. 호남사림의 관직진출

IV. 맺음말

I. 머리말

16세기에 향촌지배세력인 사림(士林)은 중앙의 집정세력인 훈신(勳臣)들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중앙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호남사림(湖南士林)들도 사림등용책에 힘입어 중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16세기 ‘인재의 부고(府庫)’라 불릴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중앙에서 활약하면서, 정국운영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갔다.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謀叛事件)은 이러한 때에 발발하였다. 이 사건은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전주(全州) 출신의 동인(東人) 정여립이 ‘대동계(大同契)’라는 무사집단을 조직하여 임진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왜란 3년전인 선조 22년(1589) 모역을 도모했다는 것으로 그 해가 기축년 이어서 기축옥사(己丑獄事)라고도 한다. 기축옥은 옥사가 만연되면서 3년여에 걸쳐 동인 1,000여명이 희생된, 선조 8년 동서분당 후 최대의 사건이었다. 전라도는 이 모반사건의 중심 무대였으므로, 동인층의 많은 호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가 하면 동인과 서인이 섞여 있던 전라도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었다.

전라도 지역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당대의 한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지역인재들의 중앙진출이 억제되는 등 전라도에 대한 차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¹⁾ 그런데 또 이와 다르게 이 모반사건이 호남출신의 인재 등용을 제한하는 지역차대를 불러왔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²⁾ 정여립 사건

1) 정여립모반사건으로 인한 호남차대를 논한 글로는 다음의 논고들이 있다. 이희권, 「전라도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그 뿌리」, 『전북학연구』 1(전라북도, 1997) 및 『정여립이여, 그대 정말 모반자였나!』(신아출판사, 2006); 배동수, 「정여립 연구-정치사적 의미와 사상을 중심으로-」(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9); 신복룡, 「정여립의 생애와 사상 호남 phobia를 읽는 한 도구로서」, 『한국정치학회보』 33-1, 한국정치학회, 1999). 필자도 이런 시각에서 「정여립모반사건 이후 호남사람의 쇠락과 분열」(『우리문화』, 2000)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이글을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양만정은 식년시 문과에 급제한 지방출신의 21%가 호남사람이며, 또 기축옥사 후 전주출신 李尙眞, 나주출신 柳尙運·柳鳳輝父子 정승이 나오고 여러 명의 판서급 이상의 고위관료이 호남에서 나왔는데 이 수가 비록 적으나 영남에는 왜란후 한 사람의 정승도 나오지 않은 사실과 비교하면 정여립모반사건으로 호남의 인재등용이 막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양만정, 「조선시대의 호남출신 문과급제자에 대한 고찰」, 『전라문화연구』 11, 1999, 24~25쪽). 김재영도 정여립 옥사로 화를 당한 자들의 후예들이 고위직에 진출한 사례를 비롯해 호남사람들의 고위직 진출 사례들을 들어, 기축옥사로 호남인 인재등용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김재영, 「정여립 정치사상의 재정립」, 『정치·정보 연구』 3권 1호, 2000, 127~128쪽 및 132쪽). 즉 조선후기 관직의 서울집중에 따른 지방 홀대, 당색과 가문에 따른 인사 등은 있었지만, 기축옥으로 호남을 특별히 차대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으로 전라도가 반역향이 되어 차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축옥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실체가 묘연한 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기축옥사로 인한 호남 차대 여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호남사림의 형편을 단선적으로 접근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여립 모반사건이후 호남사림의 관직진출과, 기축옥사 후 향촌사회내 동인과 서인의 대립과 갈등에 대해 살펴, 정여립 모반사건이 호남사림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 조선후기 전라도지방의 사회동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II. 호남사림의 관직 진출

호남사림들은 16세기 인재의 부고(府庫)라고 칭해질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다.³⁾ 그러기에 박세채(朴世采)는 임억령(林億

3) 16세기 호남사림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李海濬, 「朝鮮朝 湖南士類의 動向과 研究課題」 『전남사학』 창간호, 전남사학회, 1987.

_____, 「己卯士禍와 16세기 전반의 湖南學派」 『傳統과 現實』 2, 高峰學術院(光州), 1992.

_____, 「朝鮮 中期의 湖南士林과 林億齡」 『石川 임억령의 문학과 사상』, 광주광역시 ·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6.

趙浚來, 「16세기 湖南士林의 형성과 士林精神」 『금호문화』 50, 금호문화재단, 1989.

_____, 「壬亂 湖南義兵에 관한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1.

_____, 「士禍期 호남사림의 學脈과 金宏弼의 道學思想」 『동양학』 25,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5.

高英津, 「16세기 湖南士林의 활동과 학문」 『南冥學研究』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_____, 『호남사림의 학맥과 사상』, 해안, 2007.

潘允洪, 「湖南士林論一巧」 『전통문화연구』 4, 조선대 전통문화연구소, 1996.

金宇基, 「16세기 湖南士林의 중앙정계 진출과 활동」 『李樹健교수정년기념 한국

齡)의 묘표(墓表)를 쓰면서 ‘호남에서 많은 명현일사(名賢逸士)가 배출되었는데, 증중에서 명종대가 그 절정이었다’고 하였으며, 홍석주(洪奭周)도 『양곡집(陽谷集)』 중간서(重刊序)에서 ‘호남은 인재의 연수(淵藪)로 특히 조선중엽에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고 하였다.⁴⁾

호남사람의 중앙정계 진출은 증중 초기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명종대 이후 급격히 늘어나 선조대 주요 요직을 차지하였다.⁵⁾ 그리하여, 1573년(선조 6) 박순(朴淳)이 좌의정, 노수신(盧守愼)이⁶⁾ 우의정, 유희춘(柳希春)이 대사헌이 되어 신진사류들이 구신(舊臣)들을 물리치고 세력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듯이, 16세기 호남사람은 정국운영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⁷⁾ 효종대 비변사에서 지방 인재들을 발탁할 것을 아뢰면서 “선조대 조정에 등용된 자들의 반수가 호남과 영남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그런 사실을 잘 대변해 준다.⁸⁾

그러나 1589년(선조 22) 정여립 모반사건 직후 호남사람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선조 30년 왕과 대신들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좌의정 김응남(金應南)이, “전라도 사대부들은 현저한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유념하소서.”라고⁹⁾ 한데서 그런 상황이 감지된다. 선조 29년

중세사논총』, 이수건교수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간행위원회, 대명문화인쇄소, 2000.

4) “湖之南 蓋多名賢逸士 至我中明之際最盛”(『國朝人物考』 33, 林億齡墓表) ; “湖南於我東爲才雋之淵藪 當國朝中葉于彬彬”(『陽谷集』 重刊序) ; 이해준, 「기묘사회와 16세기 전반의 호남학과」, 142~143쪽 ; 조원래, 「16세기 호남사람의 형성과 사립정신」 및 「임난 호남의병에 관한 연구」, 24쪽~38쪽.

5) 김우기, 앞 논문, 372~385쪽 및 402쪽.

6) 노수신은 상주출신으로 호남에 재지적 기반은 없지만 19년간 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김인후·정개청 등 호남사람들과 교유하였다. 박순은 나주출신, 유희춘은 해남출신이다.

7) 고영진, 앞 책, 33쪽 ; 김우기, 앞 논문, 372~385쪽.

8) 『효종실록』, 효종 원년 5월 19일(신미).

우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임금에게, “전라도는 임진년의 병란 이후로 국가에 공이 많거니와, 양반 중에서 근왕(勤王)한 자는 다 호남 사람입니다. 또 호남이 원망하는데도 나라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성색(聲色)의 차이 없이 호남 사람을 필히 거두어 써야 하겠습니까.”라고¹⁰⁾ 하였지만, 실재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조대 호남사람의 등용 제한은 다음과 같은 선조의 교서(敎書)에서 보듯이 정여립 모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또 생각하니, 逆變 이후에 도내의 걸출한 인물들을 오랫동안 뽑아 쓰지 아니하여 그윽한 난초가 산 골짜기에 향기를 혼자 지니고, 아름다운 옥이 荊山에 광채를 감추게 되었으니, 오늘날 사방에서 인물을 불러들여 일을 같이 해야 하는 본의가 아니므로 순찰사로 하여금 인재를 찾아서 기록하여 아뢰어 등용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니, 너희 선비와 백성들은 잘 헤아리도록 하라. (趙慶男, 『亂中雜錄』, 정유년 2월 22일)

이 교서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그해 2월 선조가 전라도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해 내린 것으로, 여기에서 선조는 정여립 모반사건 후 그 모역의 산실로 여겨졌던 전라도지방의 인사들을 발탁하여 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조는 앞으로 호남사람들을 적극 발탁하여 쓰겠다고 전라도 사람들을 달래고 있다.

그렇지만 호남사람의 등용과 관련한 선조의 그러한 교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교서를 내렸던 그해 11월, 정언(正言) 이이첨(李爾瞻)의 계(啓)는 이런 사실을 말해준다.

…근년 이래 (전라)도내의 士人이 전혀 등용되지 않아서 인심의 의

9) 『선조실록』, 선조 30년 1월 23일(갑인).

10) 『선조실록』, 선조 29년 11월 17일(기유).

혹과 사기의 추락을 불러 일으킨 것이 많습니다. 넓은 호남의 천리 땅은 본디 인재의 府庫인데, 이처럼 나랏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충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저번에 下書하신 것에 따라 선발하여 수용하라는 뜻으로 하유하였고 또 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인재가 있는대로 開錄하도록 이미 계하하셨는데, 끝내 형식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으니, 너무도 미편합니다. 이미 결정한 公事대로 본도의 인재를 재간에 따라 錄用하고 도내의 수령도 더러 전보시켜서 위로하고 진작시키는 조치를 취하소서...(『선조실록』, 선조 30년 11월 2일 기축)

즉 이이첨은 근년 이래 전라도의 사류들이 전혀 등용되지 않아 호남의 사심(士心)이 흉흉하고 사기가 떨어졌다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호남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왜란으로 조선이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전라도 사람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또 왜란 중 전라도 사람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전라도만이 보존되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물적 자원이 전라도에서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인한 호남사림들의 등용 제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호남사림의 등용 문제는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최명길(1586~1647)이, “호남의 선비들이 기축년(1589) 이후 조정으로부터 제일 배척을 받아서, 벼슬길에 나아간 자는 빈번히 탄핵을 받고, 과거를 보려는 자는 대부분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여, 성년의 나이에 상투를 틀고 글을 읽기 시작하여 흰머리가 될 때까지 벼슬길이 막혀 등용되지 않았다.”라고¹¹⁾ 한 것은 그가 활동하던 인조대에도 호남사림의 등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면 호남사림들의 관직 진출율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문과급제

11) “大抵湖南士子 自己丑以後 最爲朝廷之所擯斥 入仕者輒遭彈劾 赴科者例被停舉 結髮讀書 皓首禁錮”(『遲川集』 8) ; 이희권, 앞 책, 87쪽.

율을 통해 알아보자. <표 1>은 조선시대 전체 문과급제자 14,620명 중에서 11,747명(80.3%)의 거주지를 조사하여 각 도별로 시기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¹²⁾

<표 1> 조선시대 각도별 문과급제자 추이

세기 도별	15C	16C 전	16C 후	17C 전	17C 후	18C 전	18C 후	19C 전	19C 후	계
서울	347	419	517	634	685	917	520	608	748	5,395
	42.68	52.44	61.92	53.28	48.45	53.16	33.68	41.62	36.99	45.93
경기	58	52	48	32	103	114	244	133	241	1,025
	7.13	6.51	5.75	2.69	7.58	6.61	15.80	9.10	11.92	8.73
충청	58	55	50	128	132	217	214	152	217	1,223
	7.13	6.88	5.99	10.76	9.72	12.58	13.86	10.40	10.73	10.41
경상	177	137	97	201	176	180	156	205	225	1,554
	21.77	17.15	11.62	16.89	12.96	10.43	10.10	14.03	11.13	13.14
전라	97	96	84	99	110	114	111	80	130	921
	11.93	12.02	10.06	8.32	8.10	6.61	7.19	5.48	6.43	7.84
황해	19	11	10	13	16	17	12	9	43	150
	2.34	1.38	1.20	1.09	1.18	0.99	0.78	0.62	2.13	1.28
강원	38	13	7	42	45	34	42	35	30	286
	4.67	1.63	0.84	3.53	3.31	1.97	2.72	2.40	1.48	2.43
함경	5	9	9	15	22	26	40	30	56	212
	0.62	1.13	1.08	1.26	1.62	1.51	2.59	2.05	2.77	1.80
평안	14	7	13	26	69	106	205	209	332	981
	1.72	0.88	1.56	2.18	5.08	6.14	13.28	14.31	16.42	8.35
계	813	799	835	1,190	1,358	1,725	1,544	1,461	2,022	11,747
	6.92	6.80	7.11	10.13	11.56	14.68	13.14	12.44	17.21	100.0

*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국학자료원, 2004), 102쪽 <표9>에서 인용.

- 12) 이원명,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국학자료원, 2004), 102쪽 <표9>. 이 거주지 데이터는 이원명이 분석한 것으로, 송준호와 Wagner가 평생 작업해 놓은 『補註 文科榜目』CD Rom(동방미디어, 2002) 및 <Wagner · 宋 Project>를 토대로 조사한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조선시대 『문과방목』에는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문과급제자들의 명단이 실려 있으나, 영조대 전에는 거주지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급제자들에 관한 조사가 더 진행됨으로써 해서 이 데이터는 유용성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에 문과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 서울로 5,395명(45.9%), 2위가 경상도로 1,554명(13.1%), 3위가 충청도로 1,223명(10.4%), 4위가 경기도로 1,025명(8.7%), 5위가 평안도로 981명(8.4%), 6위가 전라도로 921명(7.8%)를 점하고 있다.¹³⁾ 문과자들의 출신지가 더 밝혀지게 되면 이 순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도가 충청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전체를 놓고 볼 때 전라도가 충청도 보다 적은 문과자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과급제자의 출신지를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르다. 서울은 모든 세기에 걸쳐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를 내고 있으므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들을 비교하면 15세기에는 경상도가 가장 많아 177명(21.8%)이고, 그 다음이 전라도로 97명(11.9%)이며, 그 뒤를 이어 충청도가 58명(7.1%)이다. 이 순위는 16세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15, 16세기에 걸쳐 전라도는 경상도 보다는 적지만, 충청도 보다 많은 문과자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7세기 전반에 들어와서 경상도 201명(16.9%), 충청도 128명(10.8%), 전라도 99명(8.3%)순으로 문과자가 나와 충청도가 전라도를 앞지르고 있다. 18세기 전반에 와서는 충청도가 217명으로 경상도 180명보다 많은 문과자를 냈으며, 전라도는 114명으로 충청도와 거의 배차이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니 18세기 후반에 가서는 서울, 경기도, 충청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문과자를 배출하여 전라도출신들의 문과점유율이 6위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15, 16세기 경상도에 이어 많은 문과자를 냈던 전라도는 17세기

13) 원창애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중 9,030명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전라도출신의 문과급제 점유율이 6위로 조사되어 있다. 다만 경기도가 평안도 보다 조금 많게 나타나 있다. 즉 서울 3,969명(44%), 경상 1,127명(12.5%), 충청 879명(9.7%), 평안 874명(9.7%), 경기 767명(8.5%), 전라 751명(8.3%)이다. (元昌愛, 『朝鮮時代 文科及第者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140쪽 <표 1>)

에 이르러 충청도에 그 자리를 내주었으며,¹⁴⁾ 18세기에는 급기야 6위로 전락하여 조선말까지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¹⁵⁾ 이러한 전라도출신 문과자 추이는 경상도가 충청도에 밀려 18세기 잠시 주춤하였으나, 19세기에 다시 올라선 경우와도 다른 양상이다.

한편, 생원진사시의 지역별 합격률을 비교해 보아도 문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마시 합격자가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서는 서울,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순인데,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16세기까지는 경상, 전라, 충청 순이고, 전라도와 충청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다가 17세기 전반에는 삼도가 엇비슷해졌고, 17세기 후반에는 충청도가 전라도를 앞섰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전라도가 경기도보다 적은 사마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¹⁶⁾ 전라도는 17세기에 들어와 문과도 그렇고 사마시도 합격률이 퇴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관직에 나아간 후 고위직 진출에서 호남사림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도당록(都堂錄)을 통해 살펴보자. 도당록은 홍문관원 후보들을 선정한 홍문관원의 모집단(母集團)인데,¹⁷⁾ 이는 정치실권과 지배이념을 주도

14) 원창애가 조선시대 문과자 8,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17세기에 이르러 충청도가 전라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원창애, 앞 논문, 153쪽 <표 2>)

15) 송준호가 『문과방목』에 나타난 영조 1년(1725)에서 고종 13년(1876) 사이 문과 급제자들의 거주지를 분석한 것도, 서울, 평안, 경상, 충청, 경기, 전라도 순으로 전라도출신의 문과 점유율이 6번째로 나타나 있다.(송준호, 「이조시대의 전라도 —그 정치 및 사회적 지위」, 『李朝時代의 全羅道』, 전북대 박물관, 1971, 7쪽) 한편 차장섭은 정조대에서 고종대까지를 『문과방목』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전라도출신 문과 점유율은 서울, 평안, 경상, 경기, 충청도에 이어 6번째로 나타나 있다.(車長燮, 『조선후기별열연구』, 일조각, 1997, 124쪽)

16)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집문당, 1998, 204쪽, <표 5-13>.

17) 홍문관에서 문과자들을 대상으로 홍문관원 후보명부 弘文錄을 만들고, 이 홍문록을 이조에 넘기면 이조낭관에 의해 吏曹錄이 작성되고, 이 이조록을 바탕으로三公 및 의정부 東西壁(찬성, 참찬), 이조당상, 대제학이 都堂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도당록을 작성하였다.(車長燮, 『조선후기별열연구』, 일조각, 1997, 156~

하는 집단이 문신당하관 가운데서 가문과 학행을 고려하여 다시 뽑은 집단으로 당상관으로 나가는 통로였다. 그래서 도당록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머리가 깨지게 싸울 정도로 치열하였다.¹⁸⁾

이러한 도당록에 든 사람들의 거주지를 보면, 정조에서 철종 연간까지 서울 687명(75.8%), 경기 80명(8.8%), 경상 62명(6.8%), 충청 43명(4.7%), 강원 20명(2.2%), 전라 12명(1.3%) 순이다. 호남사람으로 도당록에 든 사람이 12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은 곧, 적어도 이 기간 동안 고위직 진출에서 호남사람들이 상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¹⁹⁾ 같은 시기 문과자 대비 도당록 입록자 비율을 보아도, 서울 65.9%, 강원 30.8%, 경기 27.6%, 충청 17.4%, 경상 15.4%, 전라도 6.6% 순이다.²⁰⁾ 전라도 출신 문과급제자의 6.6%정도만이 도당록에 이름을 올렸던 것이다.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도²¹⁾ 그의 저서 『이재난고(頤齋亂藁)』 1770년(영조 46) 기록에서 당시 호남출신으로 홍문록에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한 바 있다.²²⁾

157쪽)

18)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上(청년사, 1990) 153쪽.

19) 이희권은 전북출신 문과자들의 관직진출 정도를 분석하여 기축옥사 전에는 총 260명의 관직진출자 중 35.7%가 당상관에 올랐는데, 기축옥사 후에는 182명의 관직진출자 중에서 15.3%만이 당상관에 올랐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전라도인에 대한 부당한 차대가 행해졌다고 하였다.(이희권, 앞 논문, 189쪽) 배동수는 문과 급제자로 당상관에 진입한 자들 3,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라도가 선조대까지는 서울 경상에 이어 3위로 149명에 9.6%를 차지하였으나, 광해군이후에는 95명에 5.6%로 서울 충청 경상에 이어 4위로 밀려 났다고 하였다.(배동수, 앞 논문, 181쪽 <표IV-9>)

20)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158~159쪽.

21) 이재 황윤석은 고창(홍덕) 출신으로 순창의 申景濬(1712~1781), 장흥의 魏伯珪(1727~1798)와 함께 흔히 호남의 3대실학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22) 『이재난고』 15, 경인년(1770, 영조 46) 6월 17일 ; 배우성, 「18세기 지방 지식인 황윤석과 지방 의식」(『한국사연구』 135, 2006), 47쪽.

1747년(영조 23) 호남양전사 원경하(元景夏)가 호남사회를 목도하고 호남인재들을 등용해 줄 것을 요구한 다음과 같은 상소는 이러한 조선후기 쇠락했던 전라도의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

신이 호남의 형편에 대하여 그욕이 愚見이 있어 감히 이를 덧붙여 진달합니다. … 신이 改量 때문에 羅州·靈巖 간을 왕래할 때 綽楔이 井里에서 흔히 서로 바라보이므로, 말을 멈추고 물어 보았더니, 충신의 집이 아니면 효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방문했는데 지금은 모두 쇠퇴하여 庶民으로 변하였으며, 故家의 流風·遺韻은 다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남은 예로부터 화려한 지방으로 일컬어졌는데, 수십 년 동안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고기잡고 농사짓는 즐거움에 편안하지 못하고 헤어져 유랑하여 흠어졌으며, 옛날의 높고 큰 정자는 무너져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옛 사람들이, “園囿의 興廢로써 洛陽의 盛衰를 안다.”고 하였는데, 신 역시 정자가 무너진 것을 보고 호남의 쓸쓸함을 슬퍼합니다.

아! 奇大升·金麟厚의 깊은 학문과 고상한 식견, 金千鑑·高敬命의 純忠·大節, 李後白·朴祥의 문장과 雅望, 鄭忠信의 공적, 金德齡의 용기, 林亨秀·林悌의 豪氣는 모두 호남 사람들이었는데, 인물의 성쇠가古今이 같지 않으니, 이것이 신이 배회하며 감개하는 까닭이며, 聖朝를 위해 길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孔子가 말하기를, “十室의 고을에는 반드시 충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일개 道를 搜訪한다면 “인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들은 바로는 간혹 文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고, 간혹 行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감히 그 사람의 성명을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 (『영조실록』, 영조 23년 10월 2일 기미)

물론 여기에는 일정한 과장이 있을 수 있다. 또 그의 말대로 몇 십년 동안 흉년이 들어 호남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18세기 전반 당시의 전라도가 예전과 달리 관직 진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충분히

인지된다.

그러면 호남사람들의 문과 점유율이 17세기 이후 퇴조하고, 고위직 진출이 저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은 경향분리(京鄕分離)에 따른 관직의 서울 집중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²³⁾ 따라서 서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지방인 충청도와 경상도보다 호남사람들의 진출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16세기만 해도 호남사람들이 영남사람들과 함께 문과진출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17세기 이후 호서사람 보다 관직 진출이 저조하게 된 이유는 관직의 서울 집중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그랬을 때 주목되는 것이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서인집권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 시기가 율곡 이이에 이어 서인의 맹주가 된 충청도 연산(連山)의 김장생(1548~1631)이 활약한 시기라는 사실이다. 이어 17세기 후반은 김장생의 뒤를 이은 노론의 영수, 충청도 회덕출신 송시열(1607~1689), 송준길(1606~1672) 등이 활약하였다. 17세기 중엽이후 서울경기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서인과, 경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남인 체제로 구도가 짜여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국운영은 17세기 후반 서인의 우세속에 서인과 남인이 주도권을 주고받았고, 18·19세기에는 노론에 의한 일당전제정치가 이어졌다. 그리하여 호서사람은 17세기 이후 정국주도세력의 하나로 자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정국운영 구도하에서 호남사람은 점차 주도권을 상실해 핵심정치세력화에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호남사람의 중앙진출이 하락하는 현상이 빚어졌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호남사람이 17세기 이후 증광시와 별시에서 충청도에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의 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²⁴⁾

23) 이제 황윤석은 인조반정후 반정공신들이 후손의 현달을 위하여 도성 안쪽 사람들만을 청현직에 발탁하였고, 다른 관직들조차 도성 이내 30리 거리에 있는 수십여 별열 가문 출신 중에서 임용했다고 하였다.(『이재난고』 15, 경인년(1770, 영조 46) 6월 17일 ; 배우성, 앞 논문, 45쪽).

24) 원창에는 문과를 식년시, 증광시, 별시로 나누어 분석하여, 전라도가 식년시에

문제는 16세기 정국의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던 호남사림이 17세기에 들어와 왜 그 위상을 상실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풀고자 할 때, 주목되는 것이 1589년의 정여립 모반사건이다. 이 모반 사건은 동서분당후 최대의 사건으로 그 직후인 17세기에 이전과 달리 호남사림들의 중앙진출이 내리막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곧 이 사건이 전라도 출신들의 인재 등용에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준다. 즉 기축옥사로 호남사림들의 등용이 억제되었으며, 그 결과 호남사림은 핵심세력화에 실패하여, 이후 호남사림들은 중앙과 더욱 멀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⁵⁾ 결국 정여립모반사건은 중앙정계에서의 호남사림의 쇠락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축옥사는 전라도 지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제 황윤석의 지방의식도 주목된다. 이제는 경향분리가 심화되는 것과 함께 삼남에서조차 현저한 차이가 벌어져 특히 청원직 진출에 충청도가 가장 활발하고, 영남은 쇠퇴했으며, 호남은 가장 쇠퇴했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호남 선비들이 정치적 변란에 사람들이 모여 관련된 것을 문제 삼는 견해가 있는데, 영남과 충청도 같은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그럼에도 충청도와 경상도가 전라도와 처지가 다른 것

서는 경기도와 충청도보다 문과점유율이 앞서나, 증광시와 별시에서 17세기 이후 경기도와 충청도보다 점유율이 낮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 호남사림들이 조선초기부터 영남사림 다음으로 꾸준히 세력을 유지하였지만, 핵심정치 세력화하지 못하므로 해서 17세기 이후로는 기호사림에게 밀리게 되었다고 하였다.(원창애, 앞 논문, 153~155쪽)

- 25) 김우기는 기축옥사를 향촌 주도권을 둘러싼 호남사림 내부의 대립인 동시에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서 세력을 확대해 가는 동인에 대한 서인의 반발이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정철을 중심으로 하는 서인이 이김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지만 동인계열의 호남사림이 몰락함으로써 중앙정계에서의 호남사림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17세기 이후 호남사림이 近畿 출신의 서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였다.(김우기, 앞 논문, 401쪽)

은 호서사람은 서울에 집을 두고 1년에 반은 서울에서 지내므로 서울사람처럼 우대받고, 영남은 남인명문가들이 있어서 풍기(風氣)가 강하기 때문에 서울의 인사담당자들이 이들을 가볍게 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았다.²⁶⁾ 그는 1768년 조정에 몸담고 있는 조엄(趙巖)에게서 ‘조정에서 호남 선비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²⁷⁾ 호남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은 호남의 학문과 민심에 대한 편견이 작용해서라고 보았다.²⁸⁾

당시 위정자들이 모역과 관련해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그것이 호남인의 등용을 막는 장애물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호남에 대한 편견에 정여립 모반 사건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물론 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정여립사건만이 아니라 모역에 대한 고려시대 이래 전라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도 있었을 것이다. 전라도에 대한 오래된 편견에 정여립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호남인의 등용을 막았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앙정부가 전라도를 바라볼 때 조선말까지도 정여립 모역사건을 떨쳐버리지 못했음은 이 사건 후 전라감사에 전라도 출신을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읽어 볼 수 있다.²⁹⁾

그러면 호남사람들의 중앙진출이 어려워지고, 국정운영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상실함에 따라 향촌사회의 사풍(士風)은 어떻게 되었을까? 중앙진출이 여의치 않음으로 해서 호남의 사풍이 타격을 받고 침체되는 결과를 불러왔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조선말 황현

26) 『이재난고』 15, 경인년(1770, 영조 46) 6월 17일 ; 배우성, 앞 논문, 46~47쪽.

27) 『이재난고』 11, 무자년(1768, 영조 44) 8월 6일 ; 배우성, 앞 논문, 45쪽.

28) 『이재난고』 4, 갑신년(1764, 영조 40) 8월 16일 ; 배우성, 앞 논문, 38~39쪽.

29) 이동희, 「조선시대 전라감사의 출신과 임용실태」(『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 2008), 54~55쪽. 조선시대 12명의 전라감사가 전라도출신인데, 선조 6년(1573) 이증호가 전라감사에 임용된 이후에는 전라도출신 전라감사가 임용되지 않았다.

은 호남에 대해 “인재가 들끓고 절개와 의리로 이름 높았던 곳(전라도)이 변하여 비루한 시골로 전락하였고, 차츰 괴상한 곳으로 변해 버리자, 온 나라에서 이곳을 대우하기를 대개 송도(松都)와 서북지방처럼 하였다. 재주가 뛰어난 인재들의 진출이 막혀 벼슬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³⁰⁾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선후기의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조선말의 무너져 가는 향촌사회를 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경기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지방들이 일반적인 처지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호남사람이 중앙정계에서 쇠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촌사회에서의 사풍은 비록 예전같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학풍을 유지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문과에서 호남사람이 17세기 이후에도 증광시 별시와 달리 정규시험인 식년시에서만은 조선말까지 충청도를 앞지르면서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³¹⁾ 이것은 그만큼 호남사회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사풍을 유지해 왔던 반증이 아닌가 한다. 즉 식년시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은 곧 사풍의 퇴락으로 문과 점유율이 17세기 이후 낮아지기도 했겠지만, 그 보다는 경향분리, 호남에 대한 편견 등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남 성리학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16세기에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

30) 황현지음, 김종익옮김, 『번역 오하기문』(역사비평사, 1994), 63쪽

31) 원창애, 앞 논문, 153~155쪽. 총 8,931명의 시험별 거주지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식년시의 경우 삼남의 급제자수는 다음과 같다. 15세기 경상 41명, 전라 21명, 충청 11명 / 16세기 경상 85명, 전라 75명, 충청 38명 / 17세기 경상 108명, 전라 78명, 충청 63명 / 18세기 경상 175명, 전라 124명, 충청 113명 / 19세기 경상 237명, 전라 134명, 충청 100명. 양만정은 호남태생이거나 호남에서 살았던 인물들을 호남출신으로 보아 호남출신 문과자를 총 1,269명이라 하여 전체의 8.7%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중 식년시 급제자가 731명, 별시급제자(증광시 포함 비정규시험)가 538명이라고 하였으며, 그랬을 때 식년시 급제자의 경우 호남출신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출신 식년시 급제자의 21%를 차지한다고 하여 호남차별은 없었다고 하였다.

던 호남사람이 17, 18세기 독자적인 단일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 부화 되었다가 19세기에 들어와 독자적인 연원을 가진 학파(노사 기정진 학파, 간재 전우학파)의 형성을 통해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한다.³²⁾ 만약 그러하다면 17, 18세기 호남 성리학이 비록 그 전만 못하더라도 학풍을 이어왔기에 19세기 조선성리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17, 18세기에도 그 이전보다는 못해도 서인(노론) 계통의 학맥뿐만 아니라 윤선도 등 남인계통과 양득중(梁得中)·임상덕(林象德) 등 소론계통의 학맥을 중심으로 호남사상계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연구가 주목된다.³³⁾

결국 정여립 모반사건이 발단이 되어 호남사람의 등용이 억제되고 중앙의 핵심정치세력화에 실패하여 호남의 정치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또 그 여파로 향촌사회의 사풍도 이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그렇지만 학맥이 끊기고 사풍이 크게 퇴락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III. 향촌사회의 동·서인 갈등

조선전기 중앙에 진출한 호남사람들은 대부분 신왕조 개창후 정치적 파동기에 절의를 고집했거나 건국기의 정쟁에 연루되어,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사대부가문의 후예들이었다. 여기에 김광필이 무오사화 때 순천에 유배되어 4년간 문인들을 양성하다 사사(賜死)되었고, 기묘사화기를 즈음해서는 조광조가 능주에 유배되어 한달만에 사사되면서 호남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명종대에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학문적 성격에 따라 학파

32) 박학래, 「19세기 湖南 性理學의 전개와 특징 - 蘆沙 奇正鎭과 蘆沙學派를 중심으로-」(『국학연구』 9, 한국국학진흥원, 2006).

33) 박석무, 「17~8세기 湖南儒學의 傳統」(『韓國漢文學研究』 21, 1998).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호남사림은 크게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조 8년(1575) 중앙정계가 동서로 분당되면서 송순계열은 서인으로, 서경덕계열은 동인으로 자리하였다. 당시 송순계열의 중심 인물은 정철·고경명·김천일·이후백 등이었으며, 서경덕계열의 중심 인물은 이발·이길 형제와 정개청 등이었다.³⁴⁾

정여립의 모반사건(己丑獄)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야기되었지만,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는 전라도 향촌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가져왔다. 물론 이전에도 양세력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들간에 향촌주도권을 놓고 어느 지역에 서나 있을 수 있는 향전이였다. 하지만 기축옥이 발발하면서 양세력의 대립은 양상을 달리하였다. 서인의 영수 정철의 라이벌격인 동인의 영수 이발 가문은 그 형제뿐 아니라 3대가 몰살되었으며, 정개청은 유배되었다가 배소에서 죽는 등 처참한 지경에 처하였다.

이 대립은 기축옥이 서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향촌의 주도권을 정철계열이 장악하였고, 또 임진왜란시 호남의병의 주축인 고경명·고종후·고인후·김천일·최경회·변사정·양산도 등이 서인 정철계열이어서 그 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서경덕계는 관군인 이순신, 이복남 부대에 참여하였다.³⁵⁾ 그리하여 향촌주도권 싸움은 정철계열의 승리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비록 정철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17세기 이후 호남지역이 모두 서인에 의해서 지배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윤선도를 비롯한 해남의 해남윤씨, 나사침을 비롯한 나주의 나주나씨 등은 명맥을 유지해 서인과 대립하였다. 갈등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기축옥에서의 혈전으로 인해 그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이전보다 치열한 대립양상을 빚었다. 향촌사회내에서 동인과 서인간에 양보

34) 고영진, 앞 책, 33~34쪽.

35) 조원래, 「임난 호남의병에 관한 연구」, 38~62쪽.

할 수 없는 치열한 다툼을 대를 물려가면서 지속되었던 것이다.

기축옥 이후 이러한 호남의 심각한 분열양상에 대해, 광해군대 장령 배대유(裵大維)·이정원(李挺元)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신들이 삼가 호남 한 도를 살펴보니, 기축년의 변란을 겪은 뒤로 鄭澈의 도당으로서 士論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엇치락뒤치락 알력을 부려 사사로이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큰 싸움판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풍습이 날로 무너져 그 해독이 공으로 사로 파급되고 있으니, 그 화는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지극한 원통이 풀리지 않고 공론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대저 호남은 국가의 府庫인데 인심과 士風이 이렇게까지 혼란해졌으니 밝은 세상의 불행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해군일기』 6년 2월 10일 임진)

기축옥사후 동인과 서인의 다툼이 극심해져서 전라도의 인심과 사풍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개청을 제향한 자선서원(紫山書院)의 치폐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개청(鄭介淸, 1529~1590)은 한미한 가문의 후예로 60세에 곡성현감을 지낸 것이 최고의 직이었지만 그의 세력은 대단했다. 이는 호남사람으로 기축옥에 정개청을 존숭(尊崇)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자가 50여인, 귀양간 자가 20여인, 금고자 400인이었다는 데서도 시사된다.³⁶⁾ 정개청 사후 광해군 8년 그를 봉사하는 자선서원을 전라도 무안에 세웠다. 이후 당쟁의 진전과 결부되어 서원의 치폐가 반복되었다. 서인정권하에서 인조 2년 김장생이 서원을 훼손할 것을 주장하였고, 효종 8년 마침내 송준길·민정중의 주장에 따라 훼손되었다. 효종 9년 남인 윤선도 등이 복립을 주장하여 서인과 남인이 심각하게 대립하였으며, 숙종 3년 남인정권하에서 우의정 허목 등의 복립 청원이 받아들여져 1차 훼손된지

36) 許穆, 『眉叟記言』 56, 「愚得錄書」; 南夏正, 『棟巢漫錄』 1.

20년만에 복립되었다. 그러다가 숙종 6년 경신대출척으로 서인이 득세하면서 전라감사 임규의 청에 의해 2차 훼손되었다가,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설치되었다. 이후 숙종 20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면서 숙종 28년 3차 훼손되었다.³⁷⁾

향촌세력과 중앙의 봉당세력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작용하면서 그 대립양상이 더 극심해졌던 것이다. 물론 서원의 치폐(置廢)를 놓고 벌어진 향전은 호남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남인의 텃밭인 안동에서 야기된 서인의 영수 김상헌 서원건립 시비같은 경우도 그러한 향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론정권하에서 소수의 노론계 내지 노론 동조자들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기존의 주도세력인 남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데서 비롯되어, 중앙의 노론정권이 남인 일색이라 해도 과연 이 아닌 안동에 자파세력을 부식하여 영남에서의 세력확장을 꾀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소론측 입장이 부딪쳐 확대된 것으로 호남의 자산서원 치폐문제와는 차원이 달랐다.³⁸⁾

한편 현종말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한 후, 숙종 3년(1677) 남인 집권하에서 죽은지 근 백년이 지난 정철의 관직을 삭탈하라는 남인들의 상소가 전라도 순창의 양몽거(楊夢擧)를 소두로 27개군의 유생 422명이 연명하여 2차례에 걸쳐 올려지기도 하였다.³⁹⁾ 두 번 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37) 金東洙, 「16-17世紀 湖南士林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 -특히 鄭介淸의 門人集團과 紫山書院의 置廢事件을 중심으로 하여-」, 『歷史學研究』 7, 전남대, 1977), 71~91쪽.

38) 김상헌서원 건립시비에 대해서는, 鄭萬祚, 「英祖 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蕩平下 老・少論 분쟁의 一端」 『朝鮮時代 書院研究』(집문당, 1997) 참조.

39) 양몽거(1643~1712)는 본관 南原이며, 淳昌郡 赤城面 愚溪里 출신으로 1669년 27세의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는 400여명 연서 상소의 우두머리를 할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다. 그의 집안은 이후 몰락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이 상소만은 후손들이 간수해 왔다고 한다. 현재 상소 원본은 행방이 묘연한데 이 소의 원문, 여기에 참여하여 연서한 인원수, 연서한 남원양씨 명단 등

고 하여 숙종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죽은 지 백여년이 지난 정철의 관작을 추탈하라는 상소를 400명이 넘는 남인들이 연서하여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기축옥으로 인한 사람들간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고, 또 그 갈등이 후대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준다. 이 두차례에 걸친 소는 『숙종실록』에서도 확인된다.⁴⁰⁾

이후 숙종 6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했다가,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재집권한 후인 숙종 17년에 전라도에서 정무서(鄭武瑞)를 소두(疏頭)로 정철(鄭澈)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다시 상소하였다. 『숙종실록』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호남 사람 정무서(鄭武瑞) 등이 상소하여, 고(故) 상신(相臣) 정철(鄭澈)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기를 청하였다. 그 말은 다 정사년에 양몽거(楊夢舉)가 이미 아뢰는 말인데, 경신년의 류경서(柳景瑞)의 소어(疏語)에 대변(對辨)하는 것이라 청하였다. 끝에 또 고(故) 참의(參議) 안방준(安邦俊)의 사당을 헐 것을 청하였다. 안방준은 선정(先正) 성혼(成渾)의 문인으로 일찍이 저술한 것이 있는데, 기축년 옥사의 전말을 매우 상세히 적었으므로, 특별히 미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숙종은 “발본색원한다는 말은 매우 명쾌하나, 추삭(追削)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하여 거부하였으나, 며칠 뒤에 이현일(李玄逸)이 입대(入對)하여 힘껏 청하자 이를 운허하였다.⁴¹⁾

기축옥사 후 전라도 향촌사회의 이같은 갈등과 대립은 결국 대내적으

은 전해져 오고 있다.(楊萬鼎, 『南原楊氏世蹟輯要』, 1973, 138~147쪽) 다만 소를 올린 400 여명의 명단은 이 책에 실려 있지 않다. 양만정선생이 이 소를 복사하여 집에 두었다고 하는데, 이 상소 사본이 나오면 소를 올린 당시 남인 400 여명의 명단을 찾을 수 있어 당시 호남의 남인 세력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숙종실록』, 숙종 3년 2월 18일(을축).

41) 『숙종실록』, 숙종 17년 11월 22일(임신).

로 향촌사회를 피폐시켰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정철 집안과 이발 집안은 서로 간에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이발의 집안에서 칼질을 할 때 ‘철철철’ 한다 하니 기축옥사로 인한 양가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가를 엿볼 수 있다. 지금도 정철 집안과 이발 집안은 한자리에 같이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IV. 맺음말

16세기 호남사림은 중앙정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5, 16세기 서울과 영남에 이어 호남은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하였지만, 선조 22년(1589) 전주출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난 직후 17세기에 이르러 충청도에 밀리기 시작하여 조선말에 이르기까지 회복하지 못하였다. 기축옥사 후 호남사림의 고위직 진출 또한 저조하였다. 이렇게 호남사림이 중앙정계에서 쇠락한 것은 조선후기 국정운영의 핵심세력으로 자리하지 못한 데에 큰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6세기에 주도적 위치에 있던 호남사림이 이후 핵심세력화에 실패한 것은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호남 인재들의 등용이 억제되고 고위직 진출에 차대를 받은 결과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기축옥사는 중앙정계에서 호남사림이 쇠락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호남사림은 기축옥사로 등용이 억제되고 고위직 진출에 차대를 받아 중앙정계의 핵심세력화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남사림들은 중앙정계로부터 더욱 멀어졌던 것이다.

한편 동인과 서인이 혼재해 있던 향촌사회는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대를 물려가면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다. 봉당정치 하에서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봉당간의 다툼이 야기되었지만, 호남에서의 갈등은 기축옥사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 더욱더 극심한 향전(鄕戰)이 지속되었다. 예컨대 기축옥사로 희생된 정개청을 모신 자산서원이 중앙의

정치세력과 연계되어 치폐가 반복되었고, 정철 사후 100 여년이 흐른 후 임에도 그의 관직을 삭탈하라는 상소가 남원의 양몽거를 비롯한 남인 400 여명의 연서로 올려졌다. 이처럼 정여립 모반사건은 16세기 정국의 주도적 위치에 있던 호남사림의 중앙진출을 막고 향촌사회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전라도 지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기축옥사로 인해 호남사림의 학맥이 단절되고, 관직진출에 큰 장애가 될 정도로 학문적 분위기가 위축된 것은 아니었다. 기축옥사 후 호남의 사풍(士風)이 이전만 못하고 쇠락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관직진출에 저애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17세기 이후 전라도의 문과급제 점유율이 충청도에 밀리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부정기 시험인 증광시와 별시에서 충청도가 앞서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에서는 전라도가 조선말까지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남사림의 등용을 막은 것은 사풍의 퇴락보다는 경향분리에 따른 지방 홀대, 모역 등으로 인한 호남에 대한 편견이 주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호남 사림은 정여립사건과 이로 인한 호남차대에도 불구하고 학맥과 사풍을 이어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기축옥사 후 호남학맥이 어떻게 전승되어 가고, 학풍이 어떻게 자리해 가는지 등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또 호남에서 동인이 우세를 보이다가 기축옥사 후 서인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기축옥사 후에도 동인의 세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인과 서인 세력의 분포에 대해서도 살펴볼지 못하였다. 향후 기축옥사 후 호남사림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차대여부에서 벗어나 이런 면들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⁴²⁾

42) 그런 점에서 박석무의 「17~8세기 湖南儒學의 傳統」 논고가 주목된다.

정여립과 기축옥사의 발자취

신 정 일*

〈목 차〉

- | | |
|-------------------------|---------------------------|
| I. 진안 죽도 | VII. 대동사상 |
| II. 아 ! 천반산 | VIII. 대동계를 조직했던 제비산자락 |
| III. 쌍용사와 용마 전설 | IX. 구월산과 개태사에 남겨진 정여립의 흔적 |
| IV. 정여립이 터를 잡았던 제비산 | X. 정여립의 출생지인 월암리 |
| V. 정여립이 천일 기도를 올렸다는 제비산 | XI. 기축옥사가 남긴 것 |
| VI. 대동계의 실체 | XII. 결론 |

I. 진안 죽도

서울에서 낙향한 정여립은 죽도에 서실을 지어놓고 호마저 죽도 선생이라 짓고는 그곳에서 심신을 단련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유원지로 변해버린 죽도는 지금은 용담댐이라는 거대한 담수호가 들어서 있다. 정여립이 살았던 전주에서 죽도로 가려면 모래재를 넘어야 하는데 옛사람들은 수풀만 무성한 곱티재로 다녔다. 기축옥사가 조선에

*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문화사학자

피바람을 몰고 와서 스치고 지나간 3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금산·진산·진안을 넘어 전주성으로 들이치던 왜군과 김제 군수 정담이 거느린 조선군이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던 곳이 고평재였다. 그러나 정담을 비롯한 조선군사들은 고평싸움에서 중과부적으로 왜군에게 밀려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굽이굽이 한 서린 열두 굽이의 모래재도 세월의 뒤안길에서는 예외없이 밀려버리고 말았다. 1996년 무주에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길에 밀려 한 칸으로 물러났은 것이다. 공기에 쫓겨 급조된 그 길을 넘을라치면 방호벽마다 자동차들이 부딪친 선연한 흔적이 남아있어 항상 조마조마하다. 어쨌든 전주에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넘으면 진안군 부귀면에 접어든다. 당시 정여립을 토벌했던 민인백은 『토역일기』에서 정여립이 자결한 장소를 다복동이라고 기술하였다. 전주-진안간 4차선 국도변에 위치한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는 민인백의 『토역일기』에 묘사된 바대로 산에는 절벽이 있고, 숲이 많았으며 전면에는 작은 개천이 있어, 가뭄에 물이 마르는 도랑이었다. 그러나 세 가구쯤이 남아 있는 이 마을에 정여립에 대한 것은 그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길은 진안으로 이어진다.

여정은 진안읍과 상전을 거쳐 용담댐 위에 새로 생긴 죽도교를 지나서 마침내 죽도에 접어든다. 물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수동리인 이곳의 금강은 양양하고 물빛은 푸르다. 아침엔 물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밤이면 그 맑은 물빛에 달그림자가 어른거리며 눈이 내리면 눈이 부시게 흰 눈꽃이 피는 심심산골 이곳 죽도에는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가 얹히고 설켜 있고 이곳에서 목이 메인 물길은 황해바다로 더디게 더디게 흐른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안성천과 장수천이 합류하면서 섬으로 변한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죽도에 이르면 강은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용담·금산

으로 흐는데, 천반산(天盤山) 기슭을 휘감으며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죽도를 이곳 사람들은 대섬이라 부른다. 겨울에도 푸른 산죽이 많아 이름조차 대섬인, 이 섬 아닌 섬 죽도 앞에는 말잔등처럼 천반산(640미터)이 우뚝 솟아 있다. 여름철에는 죽도 근처 금강물에서 지천으로 잡히는 쏘가리며 다슬기며 메기 등의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해 먹기 위해 전주·대전 사람들까지 줄을 이었던 죽도 유원지도 용담댐에 사라져버려서 지금은 사람 구경조차 어렵다.

옛 이름일 터인 수동마을을 지나면 칼처럼 서 있는 바위 사이를 헤집고 작은 폭포가 나타난다. 병풍처럼 보여서 병풍바위라고 했던 것을, 개간 붐이 한창이던 70년대에 가막리로 돌아가는 물길을 돌려 논을 만들기 위해 폭파해 버림으로써 이암폭포라는 폭포가 되어버렸고, 그 물길이 폭포가 되어 흐르다가 다시 옛날처럼 천반산자락을 휘감으며 흐르게 된 것이다. 상류에서 바라보면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보이지만 들어가는 쪽에서는 상류 쪽이 보이지 않아 이곳 역시 섬 아닌 섬으로 요새 중의 요새이다.

훗날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숨어 지냈던 경기도 이천의 양산과 흡사한 구조이다. 수 없이 많은 피난처를 알고 있었던 해월 최시형은 혹 앞선 시대의 홍길동과 정여립에게서 그러한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닐까?

한 그루 새 푸른 소나무가 외롭게 서 있는 절벽 아래로 폭포가 흐른다. 나라 안에 제일이라는 하회마을을 감싸고 도는 물도리동이나 내성천변에 펼쳐진 의성포 물도리동에는 못 미치지만 완벽하게 물이 휘감아 도는 죽도가 한사람의 욕심에 의해 폭포 아닌 폭포로 변형되어 버렸다가 용담댐이 완공된 뒤로 옛 물길로 물이 흐르면서 폭포의 역할을 잊어버렸다.

20여 년 전만 해도 이곳 소리실 마을에는 여덟 가구가 살았었고 가막분교 죽도분실이 있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흐르는 금강의 물소리만큼이나 낭랑했었다는데, 지금은 용담댐에 수몰되고 민가 몇 채가 들어서

있을 뿐이다.

이곳 죽도에 1589년 10월 정여립이 그의 일행들과 더불어 먼저 왔고, 그 뒤를 이어 그를 쫓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그때도 조선의 산들은 단풍빛이 고왔을 것이고, 물살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푸르고 맑았을 것이며 사람들은 제각각 제 나름의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하늘은 비를 머금은 뭉게구름이 떼를 지어 모여들고 유독 이곳 죽도의 천반산을 향하여 칠흠 같은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II. 아 ! 천반산

진안읍 가막리에서 다리를 건너 천반산 쪽으로 향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정월 초사흘 날에 당산제를 지냈다는 당산터가 남아 있지만 당산은 허물어지고 우거진 느티나무 숲만 무성하다. 길은 묵치, 또는 먹재라는 재 넘어가는 길로 뻗어있다. 한시절 중석광산이 있어서 호황을 누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폐광으로 길은 그저 임도처럼 어설프고 천반산 산행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초입은 희미하지만 올라갈수록 산길은 뚜렷하다.

능선에서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좌측으로 난 능선 길을 십여분 걸었을까, 십여명은 너끈히 앉을 마당처럼 생긴 바위가 나타난다. 그 바위에서면 멀리 북쪽으로 덕유산, 남덕유산, 그리고 육십령, 장안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눈금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장안산, 덕태산 지나 마이산으로 이어지는 호남 금남정맥이 눈 안에 가득 찬다. 그리고 다시 눈을 돌리면 운장산 자락 지나 구봉의 연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산 위가 소반과 같이 납작하다 하여 이름 붙은 산, 천반산 아래에서 남쪽 장수에서 흘러내려온 장개천과 동쪽 무주 덕유산에서 시작되는 구랑천이, 파(巴)자형으로 굽이쳐 흐르는 중간 지점에서 몸을 합하여 금강으

로 태어난다.

이곳 천반산 기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땅에는 천반(天盤), 지반(地盤), 인반(人盤)의 명당(明堂) 자리가 있는데 이 산은 천반에 해당하는 명당이 있다 하여 천반산으로 이름지었다고 한다. 신기마을에 사는 김진대씨의 말에 의하면 그가 이곳에 이사를 왔던 십여 년 전만 해도 오천 여 평은 될 듯 싶은 평지가 펼쳐진 이곳에 세 가구쯤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잡목만 무성하고 군데 군데 돌보는 사람 없는 듯 싶은 무덤이 남아 가을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다시 길을 나와 능선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면 동향 쪽에서 내려온 물길은 그 맑은 물속을 속속들이 보여주며 흐르고 있다. 떨어진 낙엽들이 비단처럼 깔린 길로 십오분 쯤 따라가면 뿔바위에 닿는다. 가을 천반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곳에 와서 보면 알 것이다. 붓끝으로 한 점 획을 그은 것처럼 강물은 이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단풍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곳 죽도에 1592년 정여립이 왔었고 그가 의문사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동인계의 기록이긴 하지만 비교적 공정한 입장을 취한 『동소만록(桐巢漫錄)』에 “정여립이 진안 죽도로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놀러갔는데 선전관과 진안현감이 죽인 후 자결한 것으로 했다”라는 설이 실려 있는데, 변승복이 정여립을 유인한 것이라면 이 기사는 조리가 맞다. 집에서 죽이면 흔적이 남게 되므로 그를 유인한 것이고, 아울러 ‘역옥(逆獄)’을 확대 구성할 수 있는 증거로 서신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동소만록』의 저자 남하정(南夏正)은 영조 때의 사람인 만큼 동인계에서 전승되던 설을 기술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동야언(海東野言)』에 따르면 현감 민인백이 관군을 거느리고 정여립의 뒤를 쫓아와서 그가 바위 사이에 있는 것을 보고 생포하려고 하자, 정여립이 먼저 변승복을 칼로 찍어 즉사시킨 후 아들 옥남도 쳐서 쓰러뜨리고 칼을 땅에 꽂고 스스로 목을 찢어 자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자세로 자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관군의 포위로 사세를 짐작한 정여립이 변승복의 함정에 빠져 속은 것을 깨닫고 변승복을 먼저 죽인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천반산에 정여립 장군이 서있고, 부귀산에는 관군이 서 있어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와 함께 송판서 굴에서 정여립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약 15미터쯤 되는 이 바위와 20미터 거리로 마주보고 있는 뿔 바위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정여립 장군이 훌쩍훌쩍 뛰어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다시 연평리 쪽으로 몸을 돌리면 금강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오고 이곳에서 30미터쯤 바위 사이로 비탈진 길을 내려가면 천반산의 명물 송판서굴이 나타난다. 바위굴 2개가 15미터쯤의 거리를 두고 서북쪽을 향하여 쌍굴을 형성하고 있는 이 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로서 큰 굴의 길이가 7미터쯤 되고 작은 굴은 5미터쯤 되며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쉴 만한 넓이다. 이 굴의 중간쯤의 바위틈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끊이지 않고 흐르는 약수라고 전해지는 한 줄기 물길이가 있다.

이 굴 이름의 유래가 된 인물인 송 판서는 호는 보신이며 아호는 퇴휴제로서 연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송판서 굴이라고 전해오는 이 굴은 그 뒤 정여립이 대동계원들을 거느리고 병마를 훈련하던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진안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십 여년 전 이 천반산 아래 죽도 근처에서 정여립과 그의 일파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솔과 화살촉이 발견되었다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지름이 6미터쯤 되는 거대한 돌솔이었는데, 솔이 어찌나 크던지 솔전 난간으로 젊은 장정들이 뛰어다녔다고 하며, 화살 축 한 개로 낫을 다섯 개나 만들고도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발굴된 돌솔은 어찌다가 물속으로 다시 묻혀버리고 말았고, 당시 돌솔을 실제로 보았다는 노인네들은 언젠가 그 돌솔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

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정여립이 서울에서 낙향하여 전주 지역에서 활동한 시절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죽도에 건물을 지어놓고 훈련 시에 그 무기를 썼었다는 그것 역시 불운했던 혁명가 정여립에 대해 품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애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신화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여립이 썼던 무기를 주었다거나 그 당시 기와장이 발견되었다거나 하고 안쓰런 이야기를 흘린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은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시간 속에 자꾸 어두워지고, 그가 최후를 맞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곳저곳에 눈길을 보내본다.

우리는 안다. 역사 속에서 반란을 꾀했거나 반란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의 말로를. 그들뿐인가. 그들의 주변 사람들, 가족, 선조들까지도 3대가 멸족당하고 모든 행적들이 부정적으로 각색되었으며, 얼마나 처참하게 잊혀지고 사라져버렸던가를... 그런 역사의 지난한 소용돌이를 일찌감치 알아차린 시인 고은은 다음과 같은 시 한편을 남겼다.

일자 한 자 늘어놓겠습니다. / 무식이 배짱입니다. / 성리학 주리노선은 천지 음양귀천 상하 계급 노선입니다. / 그런데 좌파 주기철학은 일체 만물 평등 노선입니다. / 바로 이 화담, 율곡 주기론을 이어 정여립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 허균의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 앞장 선 천하평등 노선을 강화합니다. / 주자는 다 익은 감이고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이고 / 또 누구는 솟제 땡감이라고 원조파 은사 / 그리고 선배따위 닥치는 대로 평가합니다. / 그는 동인계입니다. 정철과 대결하다가 / 그 높의 늪같은 권세 때려치우고 낙향해 버립니다. / 천하는 공공한 물건이지 어디 정한 주인이 있는가 / 어허 위태한지고 이 말은 곧 존왕주의 주자학을 마구 거역함이 아닌가 될 말인가 / 어디 그 뿐인가 / 민민에 해되는 임금은 살함도 가하고 / 인의가 부족한 사대부 거함도 가하다 / 이런 칼 휘둘러 치듯하는 우렁찬 말 듣고 / 오쫑쫑한 재상 도학자들 한꺼번에 크게 감동키도 했습니다. / 그는 대동계 세워 양반, 상민, 사천노비

할 것 없이 / 상놈이 양반더러 / 먹쇠가 마님더러 야 자 해도 되는 / 대
동계 세워 / 문무쌍권의 공부시키니 / 때마침 왜구 침노하고 갯가 나가
서 다 격퇴했습니다. / 임진왜란은 이미 그때부터입니다 / 그 이전 신라
고려때부터입니다. / 호남 전역 해서 전역, / 대동계 식구 늘어나서 임진
왜란 전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 한데, 이 민족자결주의 세력 늘어나
자 / 조정의 정철은 대동계 일당과 선비 1천여 명을 검거합니다. / 천하
대역죄 먹여 홍살문턱 닳았습니다. / 정여립은 막판에 진안(鎭安) 죽도
(竹島)에서 아들하고 자결한 것이 아니라 서인 관헌 암살패에 의해 처
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 3백년 뒤에나 5백년 뒤에나 그 이름이 알려 줄
뿐이라고 / 이것이 전민족의 항성(恒性)을 묻고 변성(變性)만 키우는 짓
거리라고 / 한탄하는 단재의 말마따나. -高銀의 「만인보(萬人譜)」

III. 쌍용사와 용마 전설

김제시 금산면 원평에서 금산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쌍용사라는 팻말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쌍룡리 용암(龍岩)마을이다. 용암마을은 한
마리의 용이 아홉 번 용트림을 한 형세라고도 하고 아홉 성인이 태어날
산이라고도 하는 구성(九城)산의 꼬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뒤쪽
쌍용사에서 200미터쯤 올라간 곳에 정여립의 조상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
진다. 이곳은 이른바 오공(지네)의 혈로서 군왕지지 대명당, 일명 소쿠리
명당이라 하여, 기축옥사 당시 조정에서 제비산이나 정여립이 태어난 파
쏘처럼 숯불로 혈맥을 끊고 묘소까지 파헤쳤다고 한다.

얼마 전에 주지스님과 함께 올라간 그곳은 잡목이 자옥하게 우거져 있
었고, 김제 사람의 것이라는 무덤이 있었지만 몇 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
은 듯 풀숲만 무성한 채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시 갔던 길을 내려
오면 잘 정리된 묘역이 나타난다. 김옥진 주지스님이 조상들의 묘역을 조
성한 곳이라는데, 맨 위쪽 할아버지 내외가 잠든 무덤 앞에는 금방이라도
뛰어갈 듯한 토끼 한 쌍이 세워져 있고, 부모님 내외가 잠든 무덤 앞에는

뿔이 그럴싸한 노루 한 쌍이 세워져 있었다. 어떤 연유로 토끼와 노루를 묘역에 세웠느냐는 물음에, 주지스님은 토끼는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좋아하셔서 세웠고, 노루는 이곳의 지명이 노루목재였기 때문에 세웠다고 했다. 일제시대 당시 일본인들이 풍수지리적으로 길지인 이곳의 혈맥을 끊기 위해 길을 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주지스님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메워서 다시 재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세찬 바람이 휘몰아치는 노루목재의 무덤가에 고개 숙인 채 앉아서 역사라는 이름의 시간 여행을 떠났다.

정여립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월 상달의 이때쯤에는 동래 정씨들의 시제 행렬이 불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뚜벅뚜벅 어둠의 사신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곳을 찾아왔을 것이고, 그 후 수백년의 세월 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꽃이 피어나고 그러한 날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노루목재에서 조금 내려가면 대나무숲이 있고 대나무숲 바로 아래엔 동래 정씨의 신위를 모셨던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스님의 말로 용의 아구지(입)였다고 얘기하는 사당은 남김없이 부서져버리고, 지금 그 자리엔 쌍용사의 대웅전이 세워져 있다. 태고종의 절인 쌍용사는 절안을 가득 채운 탑이며 석불이 만물상 같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져 있는 넓은 들 한가운데에 정여립의 용마(龍馬)가 묻힌 것으로 전해지는 무덤 하나가 있다. 나는 논배미 가운데 외롭게 우뚝 솟은 용마무덤을 바라보고, 쌍용사에 접어들어 쌍용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용마에 관련된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정여립이 제비산에서 천일기도를 마친 후 용암마을의 용바위 아래에서 용마를 얻었다지, 그러던 어느날이었디아? 정여립이 용마를 타고 활을 쏘아 용마와 화살이 누가 빠른가 시합을 했다지, 그러던 하루는

용마가 화살을 쫓아 달리다가 그 화살의 진행방향을 놓친 듯 찾지 못했다지. 정여립이 대노한 나머지 말에서 내려 장검으로 용마의 목을 쳐 버렸디야. 그 순간 화살이 뒤에서 날아와 용마의 궁둥이에 박혀 버렸어. 용마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정여립이 용마의 시체를 선산 앞들에 묻었고, 그 뒤부터 용마무덤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지.”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이곳 노인들은 정여립을 모반자가 아니라 문무를 겸한 신화적 영웅으로 생각한다. 답사 길에 함께했던 주강현 선생은 “우리 사회의 마(馬)문화는 일반적으로 용이 꿈꿨던 것이 간발의 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하는데, 정여립의 용마에 관한 전설 역시 정여립의 진보적인 사상이 시기상조였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물론 이 용마 무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여러 곳에도 이러한 전설이 남아 있지만 유독 쌍용리 마을의 용마무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들판 한가운데 불끈 솟아 있는 이 말 무덤은 20여 년 전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그 들판을 경지정리하면서 용마가 묻혀 있는 무덤자리를 없애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연유인지 그 해 가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주지스님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들려주었다.

“그해 가실 농사가 잘 되었어, 나락이 누렇게 익어갔지. 그런데 웬걸. 하루 밤새에 그 넓은 논 바닥에 나락이 다 까실아져버렸어 용마가 그 넓은 논 바닥을 휘젓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내가 주인인 경상도 사람에게 그 논배미를 사서 용마무덤을 다시 만들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지. 그해부터 농사가 잘 되더라고.”

지금도 김옥진 주지스님은 정월 대보름 날이면 정여립이 타고 다녔던 용마를 위해 여물을 썰고 콩을 담그고 잡곡밥을 지어 용마무덤에 가서 제

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이 쌍용사의 절마당에 서면 부처의 나라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만날 수가 있다. 아미타불 · 약사여래 · 미륵부처 · 보현보살들이 용왕신과 대왕지조땅 · 당산신이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왕신들과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고, 칠성탑 · 천제탑과 산신각이 다섯 개의 석등 불빛과 더불어 몸을 녹이고 있다.

IV. 정여립이 터를 잡았던 제비산

쌍용사에서 나와 금산사로 가는 길목에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금평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서면 출렁거리는 물결 너머로 풍수지리상 명혈 중의 명혈인 제비산(270미터)이 선명하게 보인다.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보면 제비산은 위대한 어머니의 산이라는 이름의 모악산을 배경으로 여성의 성기인 클리토리스처럼 솟아 있다. 푸른 금평못 아래로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가 물결치듯 퍼져 나가고 멀리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였던 고부의 두승산이 한폭의 수채화처럼 보이는 이곳에 벼슬에서 물러난 정여립이 집터를 마련하였다. 정여립이 이곳을 집터로 삼은 이유는 본가인 전주와 처가인 봉남면 봉서동(鳳棲洞)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여립이 제비산(帝妃山) 즉, 임금의 아내라는 뜻을 지닌 명산에 거처를 잡았다는 것 자체, 주자학적 절의론이 판을 치는 세상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풍수지리학자인 최창조 선생은 <땅의 눈물, 땅의 희망>에서 “땅이 순하면 그 사람이 순하고, 산천이 거역의 자세를 취하면 그곳에 사는 그 주민도 그를 닮는 것이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이다”고 하였다. 그 땅이 순하지 않아서 그랬던지 그가 살았던 집터는 지금은 밭으로 변해 있다. 그러

나 그 옛적에 집터였음직하게 그럴듯한 축대가 남아 있고 밭에는 조선 중기의 기와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이화 선생은 “기축옥사 후 당시 조정에서는 이곳 제비산 밑 정여립의 옛 집터와 전주 남문 밖 그가 태어났던 생가터의 땅을 파헤치고 숯불로 혈맥을 끊어 버렸다. 그 후 조선왕조가 망할 때까지 역모의 땅인 이곳에 건물이 들어선 일이 없으므로 문제의 기와조각은 정여립의 유적이라고 할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집터에 앉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와조각을 어루만지며, 넘실대는 금평못과 100여 년 전 강증산이라는 한 사내가 살았던 구릿골의 옛 집터를 바라다보가 제비산을 올려다 보면 치마처럼 보이는 바위가 바로 치마바위다.

V. 정여립이 천일 기도를 올렸다는 제비산

늦은 가을 내가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에는 바람이 몹시 불었다. 이이화 선생이 머물며 글을 썼던 작은 방을 지나 월명암 뒤로 난 산길을 따라 200미터쯤 올라가면, 자그마한 산신각 뒤편에 가파른 절벽으로 된 치마바위가 버티고 서 있다. 서둘러 올라온 나는 뒤편에 오르는 일행들에게 헛기침으로 먼저 도착했음을 알리고 산 아래 자락을 내려다 보았다.

금평 저수지의 물결들이 마치 바닷가의 물결처럼 거세게 출렁거리는 풍경 속으로 빛바랜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청둥오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솟털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산신각의 네 귀퉁이에 매달린 풍경들이 읊씨년스런 울음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치마바위 곳곳에는 촛농들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하얀 손수건처럼 흔들리는 억새 꽃은 마치 “지상의 모든 것들은 헛것이다 헛것이다”라며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의 정성으로 놓여졌을 메론맛의 캔디를

집어 같이 온 일행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여립이 삼년 간 천일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지는 치마바위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 치마바위에서는 월명암 주지스님의 주도로, 매년 한 차례 하늘에 올리는 제사 즉 천제(天祭)를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祈禱)를 올린다고 한다.

이렇듯 이 제비산 일대는 진표율사의 미륵신앙이 활짝 꽃피었던 곳이고, 정여립의 대동사상이 준비되었던 곳이며, 원평 접주 김덕명이 미완의 혁명을 모의했던 곳이다. 특히 손화중의 무장포와 더불어 동학 세력이 가장 활발하였던 원평은, 동학 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뿌리 뽑힌 이 땅의 민중들이 증산 강일순의 화엄적 후천개벽사상을 찾아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어쩌면 강일순도 진표율사의 미륵신앙과 정여립의 대동사상 그리고 “사람이 한울이다”라는 동학사상의 맥을 잇기 위해 이곳 제비산 자락으로 와서 그의 사상을 펼쳤는지 모른다.

언젠가 정여립의 사상과 흔적을 찾아가는 답사 길에서 모악향토문화연구회의 최순식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정여립에 대한 신화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여립은 올곧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평 일대에서는 지금도 입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너 정여립 알지?” 하고 묻는데, 이는 정여립처럼 바른말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조의 말이란단다. 그 말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린다고 한다. 또한 마을에서 시비가 엇갈리는 사건이 발생하면 “정여립이 데려다가 물어봐야 쓰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여립의 판단력이 뛰어났다는 뜻이란단다. 그리고 금산면 선동리에 있는 상두산(575미터) 정상에 견훤이 축성하였다는 석성(石城)이 있는데, 성 둘레가 4킬로미터쯤 되는 이곳에서 정여립이 부하들과 함께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무술을 연마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한편 동래 정씨의 후손인 정영목 씨는 정여립과 그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정여립의 누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어느 날 정여립의 누님은 금산의 꼬깔봉이라는 산 전체를 집을

이을 때 쓰는 나래로 묶어 머리에 이기로 하고 정여립은 용마를 타고서 김제 황산에까지 다녀오기로 하고 내기를 했었는데 그 결말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설에는 누님과 또 다른 내기에서 지게 되자, 그 누님을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평 일대에서는 정여립을 모반자가 아니라 문무겸전의 신화적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어쩌면 정여립은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앙드레 말로의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인물인지도 모른다.

VI. 대동계의 실제

그렇다면 정여립이 조직했던 대동계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지러운 나라 여건 속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 앞일을 헤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정여립은, 우선 자기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차별체제에 도전하고 평등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전주·태인·금구 등 인근 읍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이나 반상귀천·남녀의 신분적 차별이 없는 대동계를 만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였는데, 정여립이 조직했던 대동계는 무엇인가?

정여립이 꿈꾸었던 이상사회와 그가 조직한 ‘대동계’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대동계’가 모반을 위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실의에 차 있던 정여립이 불만을 달래며 불평 많은 시골 무사나 선비 그리고 천한 종들과 어울려서 활쏘기를 겨루며 술 마시고 놀던 향촌의 친목계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본래의 대동계는 원래 주나라 시대에 어질고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향사례(鄉射禮)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한 집단이었다.

「주례」에 의하면 향사례는 지역 단위인 주(州)에서 정월 중 길일을 택해 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조선 성종 대에는 사림파가 유향소 복립운동을 추진하면서 그곳에서 시행해야 할 의례로 추천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향사례는 지방의 결속과 자치를 위한 방편이었고 지역 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정여립은 그 당시 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지역자치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대동계를 조직하였을 것이다. 곧 대동계는 그가 꿈꾸었던 대동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정여립이 조직했던 대동계는 그 당시 마을의 자치를 맡았던 대다수의 계와 달리 반, 상, 노가 모두 계원이 되었다는 점과 조직의 범위가 군현의 경계를 뛰어넘어 광역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활쏘기에 치중된 점이 다른 계들과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대동계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되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계’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영암 월출산 자락의 구림 대동계가 그러하고, 장흥 방촌의 향촌계 및 지역마다 성행하는 여러 계들이 정여립의 대동계의 명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동해 두타산 밑의 그 너른 무릉반석에 새겨진 수 많은 계 이름들을 보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갑계나 과거에 붙은 사람끼리 계를 부어 어렵게 사는 동문(同門)을 돕는 동문계,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합동시첩(合同試帖)을 남기는 풍류계(風流契)와 동짓날 마을 할머니들 버선을 지어드리고는 버선계 등 지역 사람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향촌계들이 성행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VII. 대동사상

대동(大同)의 출전(出典)은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이며, 대동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대동소이(大同小異)·대동단결(大同團結)·태평성

세(太平盛世)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중에서 태평성세라는 의미의 어원은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에 최초로 보이는 이상사회로써의 ‘대동(大同)’이다. 이때의 동(同)은 사람들이 ‘장막 안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평(平)과 화(和)를 뜻하며, 대동사회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즉 ‘천하는 가문의 사물(私物)이 아니고 만민의 공물(公物)’이라는 뜻이다. 『예기』는 중국 최초의 문헌학자인 유향(劉向, BC 77~6)이, 후한 초에 전국시대로부터 후한 말까지 백가들이 예경에 관해 쓴 131편의 글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그 후 이것을 대덕(戴德)이 85편으로 대성(戴聖)이 49편으로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예기』는 소대 『예기』다. 그리고 『예기』 가운데 대동과 소강(小康)을 기록한 「예운편」의 필자에 대해서는 자유(子遊) 문인설(門人說), 순자(荀子, BC 313~238) 문인설, 전국 말이나 진한 때 어느 유학자의 글이라는 설 등 확실한 정설이 없지만 ‘천하에 남이런 없다(天下無人)’ ‘백성이 주권자(百姓爲主)’라는 공화민주 사상을 주장한 묵자의 사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예기』에 실린 대동세계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대도가 행해지니 천하가 만민의 것이 되고 어질고 유능한 자가 선출됨으로써 모두가 신의를 중히 여기고 화목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모두가 한 가족 같이 사랑하였다. 그럼으로써 늙은이는 수명을 다하고 젊은이는 재능을 다하고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며 홀아비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 병자들도 모두 편히 부양받게 되었다. 또한 남자는 모두 직분이 있고 여자들은 모두 시집을 갈 수 있었다. 재물을 땅에 버리는 낭비를 싫어하지만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소유하지 않으며, 노동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나 반드시 자기만을 위하지 않는다. 이처럼 풍습이 순화되어 간혹한 모의가 통하지 않으니 변란이 일어나지 않고, 도둑질과 약탈이 없으니 대문을 닫지 않고 살았다. 이것을 일러 ‘대동’이라 말한다.

이렇듯 『예기』에서는 역사가 대동사회에서 소강사회로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의 지배이념도 대도(大道)에서 예(禮)로 변천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대동사회란 ‘대도’가 행해지는 사회이므로 대도와 예의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도란 무엇인가? 원래 묵가(墨家)들이 지향한 이상사회의 표상은 겸애(兼愛)를 이념으로 하는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공동체적 평등사회였으며, 공자가 지향한 이상사회의 표상은 주(周)나라 문(文)·무(武)·주공(周公)의 예로 다스리는 봉건적 신분사회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소강사회는 봉건 예치사회이므로 유가들이 지향하는 사회가 분명하며, 대동사회는 공동체적 평등사회이므로 묵가들이 지향하는 천하무인(天下無人)의 안생(安生)사회가 분명하다. 따라서 소강사회의 예는 공자가 말하는 주례(主禮)이며 대동사회의 대도는 묵자가 말한 상동(尙同)과 겸애가 분명하고, 따라서 묵자의 “현명한 자를 선출하였다”와 관련이 있다. 묵자의 <겸애편> 상(上)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성인이란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아야만 이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곧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의사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으니 병이 생기면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된 까닭을 알지 못하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로 아니겠는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난 까닭을 알아야만 비로소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면 곧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묵자의 말은 다시 이어진다.

“일찍이 살펴보건대, 혼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

지 않는 데에서 일어난다. 신하나 자식이 그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도리가 어긋나는 것을 하는 것이 이른바, 혼란이다. 자기의 자기 자식은 살아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를 해치면서 자식을 이롭게 한다거나, 아우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형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형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신하가 자신은 사랑하면서도 임금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임금을 해치면서 자신을 이롭게 한다거나 하면 이곳이 이른바 환란인 것이다.”

『예기』 이후 이런 뜻을 기록한 사람은 순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진(秦)의 여불위(呂不偉, ?~BC235)였다. 이때는 대동사상 즉 상동(尙同: 대동을 숭상함)과 겸애(兼愛: 공동체적 사랑)를 주장하는 묵가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던 때다. 당시 3천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을 식객으로 거느릴 정도로 가장 큰 금융업자였던 여불위는 유가·묵가·명가·법가들을 모아 『여씨춘추(呂氏春秋)』를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대동이란 천지만물이 일심동체라는 뜻이며,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만인의 것이며, 그리고 군주의 세움은 대중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불위의 사상은 진시황과 충돌하여 급기야 죽임을 당한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서이며, 민본주의적 정치이념을 담고 있는 서경에는 “내가 크게 의심나는 일이 있을 적에는 먼저 내 마음에 물어보고 경사(卿士)에게 물어보고 서인(庶人)에게 물어보고 복서(卜筮)에 물어보고 물어서 다 좋다고 하면 이것을 대동이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무사한 것을 대동이라고 개념 지은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동은 착취의 반대, 재산의 공유, 모든 사람의 노동, 천하의 공기를 목표로 삼는 것 즉 네 가지의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동이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대동강이 된 대동강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 물이 모여서 흐르므로 대동강이 되었다.”는 대동강 건너에 대동문이 만들어 졌으며, 대동곳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에서 정월에

서 행하던 마을곳의 하나였다.

중종실록에는 “옛부터 유사들은 대동접이라는 것이 있어 제술한 글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하였다.”라는 글이 실려 있고, 평양지에 “매식년 5월에서 6월까지 보름간 십여 명 쯤이 모여 서로 제술한 글을 문답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말 조선에서 대동계를 조직하여 ‘천하위공’의 대동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전주의 정여립이었다. 그는 평소에 “인간의 본성은 요·순과 걸·척이 다르지 않으며 시정잡배도 학습을 하면 우임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유교의 이단자인 순자를 자주 들먹였다. 심지어 “하늘의 뜻인 인심이 이미 주를 버렸는데 존주(尊周)는 무엇인가?”라고 공언하며 공자의 기본강령인 ‘복례(復禮)’를 거부했고, 육예를 한다는 구실로 무술을 단련하였다. 그 뒤 정여립은 ‘천하는 가문의 것(天下僞家)’이라는 봉건 소강사회의 강령과 대립되는 ‘천하는 공물’이라는 대동사회의 기본강령을 내세우고 호남 일대를 중심으로 대동계를 조직,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던 중에 진안의 죽도에서 의문사하고 만다. 특히 정여립은 “……씨 뿌리고 거두지도 않거늘 어찌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며, 사냥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대의 뜰에 걸려있는 큰 짐승이 보이는가. 저 군자여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시경에 통달했었다고 한다.

VIII. 대동계를 조직했던 제비산자락

서울에서 낙향한 정여립이 조직한 대동계원들은 매달 보름(十五)날 한 번씩 회합하여 글도 배우고 활쏘기, 말 타는 법, 칼과 창 쓰는 법도 배웠다. 사람은 글만 배워도 안 되며 무술도 알아야 한다고 하여, 매월 모임 때 여러 사람이 편을 갈라서 활 쏘기 시합을 하여 무술을 연마하였던 것

이다. 이때 정여립의 본가에서는 주육과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한다.

불교의 경전 『유마경(維摩經)』에 나오는 “밥에 평등할 때 법도 평등하다”는 말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부근의 잘 사는 사람들도 정여립이 조력을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유성룡이 술취하였던 것처럼 정여립은 멀리서 조정까지 움직일 만큼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죽도 선생이라고 하면 부근의 어린 아이들까지 한푼 두푼 기부할 정도였으며, 재산이 많은 한 과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그들은 전부터 정여립이 비범한 인물인 줄 알았었고 또 어수선했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정여립의 청탁이 가기만 하면 곡식과 돈, 그 밖의 각종 물자를 바리바리 실어서 보내주었다. 조정남(趙慶男, 1570~1641)은 난중잡록에서 정여립을 평하기를 “정여립은 전주 사람으로 명망이 일찍부터 드러나 세상을 뒤덮었다. 그는 조정에서 물러나와 집에 있으면서 고매(高邁)하고 자중(自重)하는 체하여 관직을 사퇴하고 받지 않았으며, 나라에서 불러도 가지 않았다. 사림(士林)에서는 달려가서 한 번이라도 그를 만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였다.

정여립이 남긴 유일한 어록, 곧 “사마광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유비의 촉을 정통으로 보지 않고 위를 정통으로 삼아 기년한 것은 참으로 직필(直筆)이다.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리오. 요·순·우가 임금 자리를 서로 전한 것이 성인이 아닌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고 왕축이 말한 것은 죽을 때 일시적으로 한 말일 뿐 성현의 통론은 아니다”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정여립은 군주 왕위의 세습을 부인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성인인 요·순·우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당대의 현자에게 왕위를 계승케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천하의 제위(帝位)가 혈연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이어져야 한다고 정여립은 믿었다.

둘째, 정여립은 충군사상을 부인했다. 임금과 신하가 절대적 충성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군신의 주종관계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일종의 민주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 22년 정여립의 학문의 깊이 역시 선조 39년(1606) 10월 오익창(吳益昌)이 올린 상소문에 의하면 “당당한 성명의 조정에 감히 임금의 자리를 넘겨다보는 궤를 낸 것이 이 역적보다 더 심함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바야흐로 그 이름을 도둑질하던 초두에 학문을 가탁하고 박학과 변론으로 꾸려나가 성명지학을 고담준론 하고 도의를 강론하여 온 세상을 속이니,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번 보는 것으로서 다행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여 정여립의 학문적 명성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부윤이었던 남언경 또한 당파가 달랐음에도 “정공(鄭公)은 학문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재주도 다른 사람이 가히 따르지 못할 바이다.” 하며 주자(朱子)에 비기기도 하였으며, 정개청은 18살이나 나이가 적은 정여립에게 보낸 글 가운데 “도(道)를 높고 밝게 봄이 당세의 오직 존형(尊兄)뿐이라” 하였다. 이발 역시 정여립을 당시 “제일인물”이라 하였고, 이이도 “호남에서 학문하는 사람 중 정여립이 최고”라고 하였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동계원들 뿐만이 아니라 호남의 지식인들이 정여립의 집에 모여 들었고, 또한 그들은 정여립의 집에서 책도 읽고 무술을 연마할 수 있었다.

정여립은 그 시대의 스승이었다. 사서오경은 물론이고 글로 적은 것이라면 무엇을 갖다 대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 어떤 경우에도 희미한 법이 없고 불을 보듯 명쾌하게 설명하였다. 정여립은 이 무렵 대동계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적자라도 학문과 예법만 숭상할 줄 알았지 육예(六藝-육경을 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례에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육예라 하였다)를 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제 내가 육예를 가르쳐주겠다.”

이것만 보아도 정여립이 그 당시를 풍미하던 성리학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여립에 대한 칭송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여기저기서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특히 대동계에는 신분의 제한이 없었고, 상민이나 종이나 중·사당·광대·점쟁이·풍수·무당 할 것 없이 별별 계층의 인물들이 다 들어있었다. 정여립은 능란한 말솜씨와 의젓하고 늠름한 태도로 가르쳤으므로 누구나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 또한 그들 중에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자기 혼자서 해결 못할 일이 있으면 힘써 도와주기도 하여 그들의 인심을 한손에 쥐었다.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여 전주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선조 20년 전라도 해안 지방 손죽도(현 여천군 삼산면)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쳐들어왔던 왜구가 이 해에는 더 큰 규모로 쳐들어와 홍양 녹아보(興陽 鹿兒堡)를 습격하였고, 그 싸움에서 보장 이대원(李大元)이 죽었다. 정부에서는 좌우방어사로 변협(邊協)과 신립(申陞)을 보내 적을 막게 하고, 전라 감사에게 영을 내려 도내 각 부군의 병정을 모조리 동원하여 왜구를 방어케 하였다. 그때 전주 부윤 남언경이 정여립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정여립은 주저하지 않고 대동계를 동원하였는데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587년(선조20) 왜변에 열읍(列邑)이 군사를 징발하였는데 전주 부윤 남언경이 푹푹치 못하여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립을 청하여 군대를 나누게 하였더니, 여립이 사양하지 않고 담당하여 한 번

호령하는 사이에 군병이 모였는데, 부서를 나누어 징발하는 데 하루가 안 되어 마무리 지었다. 여립은 대동계에 들어 있는 친밀한 무사를 장령으로 썼다. 적이 물러가고 군사를 해산하자 여립이 장령(將領)에게 말하기를, “훗날 혹시 변고가 있으면 너희들은 각각 부하들을 거느리고 일시에 와서 기다리라” 하고 군부 한 벌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축옥사가 일어난 후 남언경이 하옥되어 국문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다면, 그의 대동계는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갖춘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기축옥사 때 정여립의 역모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여 군사를 조련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보다 실천적인 대처 방법일 수도 있고, 당시의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시국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X. 구월산과 개태사에 남겨진 정여립의 흔적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 무렵 정여립은 승려였던 의연·도잠·설창 등과 함께 황해도 지역을 포함한 나라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전해지는데, 구월산은 일명 아사달산(阿斯達山)이라고 해서 국조 단군(檀君)이 말년을 보냈다는 전설이 있고 그에 따른 사당이 있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서 큰일을 도모하기에 알맞은 고장이었다. 특히 산세가 깊숙하였기 때문에 30여 년 전에는 임궽정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곳이기도 하다. 구월산을 답사한 정여립은 계룡산 자락을 지나다가 허물어져가는 옛 절을 발견하였는데, 그 절이 바로 개태사였다. 후백제의 견훤이 죽은 후 왕건이 그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창건했다는 설도 있고, 후백제로부터 항복받은 지점에 세웠다는 설도 있는 개태사는 그 후 『정감록』

에 장차 정씨가 도읍할 길지라는 말이 떠돌았던 절이다. 그 절의 벽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었다.

남쪽 나라에 오래 놀던 길손이
계룡산에 이르러 눈이 더욱 밝아졌다
채찍 소리에 놀란 말이 뛰어오르는 형상이고
산 주룽이 둘러 내려오다 조산을 돌아다보는 형국이다
아름다운 기운은 충충하게 모였고
상서로운 구름은 애애하게 뜨더라
무자 기축년에 형통한 운수가 열릴 터이니
태평한 세상이 되기 무엇이 어려우리

이를 보고 돌아온 정여립이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사람들은 이상한 글이라고 가웃거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나뉜다. 예컨대 정여립 자신이 지은 글을 일부러 절의 벽에 써 놓은 것이라거나, 서인측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해낸 것이라는 설 등이다. 이 글은 일종의 참언을 이용한 예언으로써 풍수지리에 따른 계룡산의 위치에 무자년과 기축년이라는 시간적 예언을 결합한 것으로, 기축년에 태평성대가 열릴 운수가 있다는 말이다. 정황으로 보면 서인측의 조작설이 가장 유력하며,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 또한 그러하다. 만약 서인측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후한 말 ‘태평도인’을 자처하며 황건적의 난을 일으킨 장각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 밖에도 별별 이상한 글귀와 참설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향간에 수없이 유포되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살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어지럽지만 곧이어 난리가 일어나고 성인이 나와 곤궁에 빠진 민중들을 구해줄 것이다.”는 이야기였다.

X. 정여립의 출생지인 월암리

정여립은 전주 사람이고 남문 밖 또는 동문 밖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전주에 대한 특별한 고찰이 없었던 시절 이 말을 들은 나는 무작정 전주 남문 밖의 남문시장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닌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숯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조선 선조 때의 정여립이란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쯤이나고 물어볼 만한 용기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행여 전주천 건너 완산칠봉 기슭이 아닐 까도 생각해보고, 한벽루 근처 교동의 퇴락해가는 기와집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젖기도 했다.

정여립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전주 남문 밖의 정확한 행정구역 명칭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전북 전주시 색장동의 파소봉 아래 파쏘라고 한다. <한국지명총람>에는 “파쏘 : 웃대건네와 아랫대건네 사이에 있는 소, 정여립의 집터를 파서 만들었다고 함.”이라고 실려 있고, 그래서 그런지 파쏘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보인다. 아랫대건네와 웃대건네 사이에 있는 모퉁이는 파쏘 모퉁이이고 파소 동쪽에 있는 산은 파소봉이며, 파소 북쪽에 있는 들은 파소들이다. 하지만 다른 설에는 김제시 금산면 제비산 자락 동곡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로는 전주 교동 근처라고도 하며 파소 부근에는 정여립이 다닌 서당이 있었다고도 한다. 파소봉은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커다란 바위에 덮혀 있다. 여러 사람의 증언과 한글학회에서 나온 『한국지명총람』을 토대로 그 터를 확인한 나는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아갔었다.

어느새 파소봉이 눈 앞에 다가와 있고 월암(月岩)이라고 쓰여진 오래된 다리가 나타났다. 그 다리 위로는 만경강 상류의 푸른 물줄기를 바라보며 전라선 열차가 지나간다. 길이 225미터의 ‘신리’라는 이름을 가진 기차 굴을 미처 못간 곳에 자리 잡은 월암다리 아래에는 몇 십 년 전만 해도 파쏘라는 못이 있었다. 정여립은 그 못이 있던 자리에서 태어났다고도 하

고 그곳에 있던 서당을 다녔다고도 한다.

이곳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는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이 뚝리기 전인 조선후기만 해도 삼례에서 통영으로 가는 통영별로가 지나는 큰 길이었다. 그런 연유로 정여립의 집터 근처인 파쏘모랭이의 바위벽에는 임기를 마친 뒤 떠날 때 세워주는 지방 관리들의 송덕비가 여러 개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정여립이 태어난 생가 터는 정여립이 기축옥사(己丑獄死)때 죽은 뒤 수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집터는 숯불로 지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파헤쳐졌으며 인공의 못이 만들어졌다 하여 파쏘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진동규 시인은 “댁 건너 대수리를 잡습니다.”라는 시에서 파쏘를 이렇게 노래했다.

“살던 집은 텃자리까지 파버렸습니다. 그 이웃까지 뒤집어 파서 앞내 끌어 휘돌아 가게 하였습니다. 깊고 깊은 소를 만들어버렸지만 그때 그 집 주인이 반역했다고, 그래서 전주천 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북으로 흐른다고 소문내고 그런 속셈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댁건너 마을 사람들은 상죽음(上竹陰) 하죽음(下竹陰)하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선비들의 죽음 그 때죽음을, 서방바우 각시바우, 애기바우, 그 피울음을, 상댁건너 하댁건너 점잖던 자기 마을 이름 위에 불려 보기도 해보지만, 어떻게 변명 말씀 한번 엄두를 못 내고 죽어 지내왔습니다.

그 집 뒷산 월암에 달이 뜨면 댁 건너 사람들은 월암 아래 소에 들어 대수리를 잡는답니다. 관솔불들을 밝히고, 주춧돌 기둥뿌리 향아리 깨진 것, 뭐 그 집주인 뱃속까지 빨아먹고 자란 대수리들을 잡는답니다. 일삼아 잡아내고 그런 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나라에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나 살고 있던 그 땅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게 해서는 안 되었다. 행여 고삐 풀린 망아지라도 염소라도, 아니 병아리라도 뜯어먹으면 역모를 한

다는 것이었다.

해마다 그곳에선 사람들이 빠져 죽었고, 기축옥사 때 죽음 당했다는 뜻인지 건너편 마을들 이름은 상죽음리 하죽음리라고 부르고 있다. 한자로 야 대나무 죽(竹)에 그늘 음(陰)이니 대 그늘이다. 그래서 ‘웃대건네’, 아랫대건네로 부르지만, 아무래도 그 말은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죽음리라고 불렀던지, 자동차 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결국 마을에서는 마을 이름을 바꿔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부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부남(府南)리로 개명을 해줬다.

기축옥사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달을 맞는 바위라는 뜻으로 월암(月巖)으로 불리었을 자그마한 산 이름이 7~80년대에는 부르기도 섬쫓았던 파쏘가 아닌 파쏘봉이 되었고, 파쏘봉 앞에 펼쳐진 들판은 파쏘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파쏘도 이곳에 기찻길이 새로 놓이면서 메워졌고 그 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400여 년 전에 살았던 정여립이라는 사내의 신화 같은 이야기만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 한 가지가 사건 발생 후에 정여립이 이 곳을 거쳐 도망을 갈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아들의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으며, 또 정여립의 누님이 아직 때가 아님을 말하였지만 어떤 도시는 정여립의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글을 새겨 수없이 떠내려 보내 파쏘에 걸려 있었다고도 한다.

XI. 기축옥사가 남긴 것

정여립 그 이름만 나와도 애써 숨기려 했던, 그 사건만 나와도 가슴이 움추러들었던, 몇백 년을 뛰어넘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는 이해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채, 그 진실은 짙은 안개 속에 묻힌 채 떠돌고 있다.

정여립은 암울했던 조선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대동사상을 기치로 내

걸었었다. 그러나 그의 선구적 사상인 ‘천하공물설’과 ‘대동사상’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허균의 변혁사상인 호민론(豪民論: 세력 있는 백성)으로 이어졌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민중뿐이다. 민중은 물이나 불 또는 호랑이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다”로 시작되는 호민론은 한 사회와 나라의 여러 모순과 부조리, 부패 세력을 없애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그때 잠자는 민중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바로 호민이라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다시 정조 때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탕무혁명론(湯武革命論)’으로 이어졌다. “다섯 집이 이웃이 되니 다섯 집에서 대표자를 추대하면 그 다섯 집이 대표자가 되고, 다섯 집씩 모여 마을이 되며, 다섯 마을이 모여 현이 되며, 마을에서 대표자를 추대하면 현의 대표가 함께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고 하며, 군주를 간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탕무혁명론의 취지는 근대적 민주사상과 같은 것으로 이것 역시 민중 사상의 중심이 된 정감록적 변혁사상과 같이 정여립의 정치사상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여립의 저항의식은 당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으로 승화될 만한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축옥사 이후 호남지역은 서북지역처럼 차별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현상은 수많은 민란으로 이어져 마침내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되었다.

XII. 결론

지금도 제대로 재조명되지 않고 수많은 설로만 남아 있는 기축옥사의 유적들은 실로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출생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록과 정황으로 보아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의 파쏘봉 아래를 정여

립의 집터로 추정할 수 있고, 그가 대동계를 조직했던 지점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제비산 자락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정여립이 의문사한 곳은 죽도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 어느 지점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적 관점에서 그가 죽은 곳도 유추해 낼 수밖에 없다. 개태사는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절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정여립이 자주 오고 갔다는 구월산은 북한에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첫번째 그가 대동계를 조직했던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는 대동사상 교육관을 건립하여 대동이 사라진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와 대동정신을 함양하면 좋을 것이고, 그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에는 그의 생가를 복원하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세우면 좋을 것이고, 세번째, 진안 죽도에는 죽도 서실과 현대적 교육관을 지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죽도가 가장 잘 조망되는 곳에 죽도정을 지어 그날의 역사를 유추해보며 금강 유역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라남도 장성이 명종 때의 순 도적인 홍길동을 주제로 여러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에서 정여립에 대한 재조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20년 만에 돌아오는 기축년, 이때까지 역사스페셜과 전주방송의 특집 프로그램인 <기축옥사와 정여립의 역사 재조명> 그리고 필자가 쓴 『조선을 뒤흔든 최대 역모사건』을 비롯 몇 권의 역사사와 소설이 쓰여졌을 뿐이다.

기축옥사로 인해 죽은 사람이 1천 명에 달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기축옥사의 전 과정을 지켜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이 미증유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겪고 나서 지은 『운암잡록(雲巖雜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처음에 임금이 그를 체포하러 가는 도사(都事)에게 밀교(密敎)를 내

려, 여립의 집에 간직되어 있는 편지들을 압수하여 대궐 내에 들이게 하였다. 그래서 무릇 여립과 평소에 친근하게 지내어 편지를 주고받은 자는 다 연루(連累)를 면치 못하게 되어 사류(士類)가 죄를 얻게 된 자가 많았다. 그 중에 고문(拷問)을 받고 죽은 자는 전 대사간(大司諫) 이발(李潑). 이발의 아우 응교(應敎) 이길(李洁). 이발의 형 전 별좌(別座) 이급(李汲). 병조참지(兵曹參知) 백유양(白惟讓). 유양의 아들 생원 백진민(白振民). 전도사(前都事) 조대중(曹大中). 전 남원부사(前南原府使) 유몽정(柳夢井). 전 찰방(前察訪) 이황중(李黃鍾). 전 감역(監役) 최여경(崔餘慶). 선비 윤기신(尹起莘). 정여립의 생질 이진길(李震吉). 기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이발과 백유양의 집안이 가장 혹독하게 화를 입었다. 그리고 연루(連累)되어 귀양간 자는 우의정 정언신(鄭彦信). 안동부사 김우옹(金宇顙). 직제학(直提學) 홍종록(洪宗祿). 지평 신식(申湜)과 정숙남(鄭叔男). 선비 정개청(鄭介淸)이요. 옥에 갇혀 병이 나서 죽은 자는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이었다. 옥사(獄事)는 덩굴처럼 얽히고 뻗어나서 3년을 지내도 끝장이 나지 않아 죽은 자가 몇 천 명이었다.”

이러한 여여가지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단재 신채호는 『단재전집』에서 “정죽도(여립)선생은 민중군경(民重君經)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입으니……”라거나 “400여년전에 군신강상론(君臣綱常論)을 타파하려한 동양의 위인”이라 하며 정여립을 높이 평가하였다.

전라남도 장성에서는 명종 시대의 도적 홍길동을 주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만 못한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성대하게 펼치고 있다. 그런데 기축옥사의 진원지인 전라북도와 전주, 김제, 완주, 진안에서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가로 평가받을 정여립과 기축옥사에 대한 어떤 행사도 펼치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정여립과 기축옥사의 재조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그에 상응한 여러 형태의 재조명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주, 전주인, 전주정신

장 명 수*

〈목 차〉

- | | |
|----------------|------------------|
| I. 전주정신은 있었는가? | IV. 전주정신의 형성과정 |
| II. 각국의 국민정신 | V. 결론 - 전주정신의 진수 |
| III. 한국인의 정신 | |

I. 전주정신은 있었는가?

사람에게는 사고나 감정을 다스리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정신이 똑 바르면 모든 일의 진행이 올바르게 맺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일이 어그러 지게 된다. 정신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이나 지역, 국가에 도 있어 왔다.

학교와 같은 집단의 경우 건학이념에 알맞은 학교 정신을 교훈으로 내 걸고 면학에 힘쓰게 한다. 사회의 민간단체에서도 단체정신을 내세워 단 결을 도모하기도 한다. 지역 단위로 볼 때도 각 지역 마다 대표되는 지역 정신이 있어 발전의 신봉(信奉)으로 삼기도 하였다.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군대 집단의 군인 정신은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애국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군인정신은 국방력을 좌우하는 기본일 뿐 아니라 국가 정신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국가인 경우 국민은 국가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가 정신이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면하게 흘러왔다. 국가정신이 잘 지켜질 때는 흥하지만 잘못 지켜지면 망할 수도 있어 흥망성쇠의 근원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런 경과로 볼 때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국에도 국민정신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인 전라도에는 전라정신이 있었고 전주에도 전주정신이 있어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민정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집어 내기가 힘들다. 하물며 전라인 정신은 무엇이며 전주정신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금방 나오질 않는 현실이다.

하지만 집약이 안되어서 그렇지 생활 속에 분명히 한국과 전라도와 전주 정신이 있어 왔다.

한국인의 정신에 대해서는 규명되고 확립되어 온 몇 가지 보편적 정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라도나 전주 정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다. 막연하지만 실마리는 있기 마련이어서 차제에 전주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부를 해 보려고 한다.

전주 정신에 대한 기존의 여러 설들을 집약하고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전주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각국의 국민정신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정신과 한국인의 정신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공통정신이 있다.

선진국일수록 합리적이고 본받아야 할 정신이 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신은 그 나라의 풍토에서 생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적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딴 나라가 본받아도 손색이 없는 정신도 있다.

맨 먼저 합리주의 근대 국가를 일찍 건국한 유럽과 신생국가 미국, 이 후 일본 등의 국민정신을 고찰하려고 한다.

1. 유럽의 기사도 정신

서유럽, 중세의 봉건 제도의 꽃이라 불린 기사들 사이에 성립한 규범의 식 또는 행동양식에서 기사도정신이 있어왔다. 봉건제도 전성기인 11세기에 발생하여 12~13세기에 꽃피우고 14~15세기에 퇴색해갔다.

기사도의 덕목은 용기·성실·명예·예의·경건·겸양·약자보호 등이었다. 이 덕목은 유럽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고 십자군 운동에 이바지 하였다. 근세에 와서는 유럽의 정의 사회와 자본주의 성숙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기사도는 지금도 유럽인의 정신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신사도도 기사도에서 유래하였거니와 영국이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세계를 지배할 때 국가 경영을 뒷받침한 것이 신사도정신(젠틀맨십)이었다.

2. 미국의 개척정신

신대륙 발견 이후 미국은 유럽 이민들이 동부를 먼저 개척하고 워싱턴, 뉴욕 등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 후 서부의 황무지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진취적인 행동 등을 미국의 개척정신이라 하고 있다.

미지의 땅을 개척하는 역센 정신을 프런티어 정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퓨리터니즘과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의 2대 요소가 되어 미국의 국가

적 특성과 국민성을 만들어 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또 한번 뉴 프런티어 정신을 불러일으켜 미국의 발전에 기여 하였다. 개척정신이야 말로 미국을 건국하였고 강대국을 만들었으며 세계 경영을 하는 일대 원천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의 야마도 다마시(大和魂)

일본이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부르짖으며 명치유신을 단행하였다. 서양적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였고 국민정신을 계발 형성하여야만 했다. 그것이 야마도 다마시였다. 야마도는 일본의 옛 땅 이름이었고 민족 고유한 정신을 야마도 다마시라 하였다.

야마도 다마시란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정신이다. 무사도에서는 다이묘(영주)에게 충성을 다하였으나 명치유신 이후에 충성심은 천황으로 전환하였고 청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야마도 다마시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 갔다.

무엇이던 하면 된다는 야마도 정신은 점차 군국주의로 흘렀고 무모한 2차 대전을 일으키어 나라가 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패전 후 야마도 다마시를 다시 불러 세워 오늘의 부유한 일본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III. 한국인의 정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에 고유 정신이 있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단일민족이 살아오고 잇단 외적의 침입이 거듭하는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정의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민족정신은 분명히 있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 한국정신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이다라고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회자 거론되었던 국민정신을 차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고시대의 홍익정신, 신라시대의 화랑정신, 고려시대의 불교정신, 거란과 여진의 격퇴정신, 대몽항쟁정신,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동학농민혁명정신, 일제강점기의 3·1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가장 보편 타당성이 있는 국민정신을 주관적으로 추출한다면 홍익정신, 화랑정신, 선비정신으로 압축할 수 있다.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홍익정신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이 탄생되면서 한국의 건국이념을 제정한 바가 있었다. 바로 홍익정신이였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면서 헌법과 각종 제도를 만드는데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본받아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의 골격을 조성한 것이다.

홍익정신이란 개인의 발전도 도모하지만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고 도와주려는 정신이다. 현대 국가에 비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기본법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익정신이란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 기록과 『제왕운기』, 『규원사화』 등에서 유래된 것이다. 1948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할 무렵에 4천년 이전의 건국이념인 홍익정신을 소급하여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격변을 겪으면서 시대상이 변함에 따라 홍익정신이라는 국민정신이 퇴색하여 지금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희미해진 상태에 놓여 있다.

2. 화랑정신

화랑정신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라의 무사도이며 신라 통일정신이었다. 화랑오계를 보면 임금에 충성, 부모에 효도, 벗을 믿고,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살생을 가려서 하라는 등의 무사의 신조였다.

화랑은 창설로부터 삼국통일이 완성된 문무왕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 융성하였다. 삼국통일의 어려운 시기에는 강한 무사도정신으로 나타나 삼국통일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가 망한 후에도 그 정신은 소멸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에 면면히 내려와 국난을 맞을 때마다 의병 등의 위기로 치솟아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일부 계승되기도 하였다.

다만 3국 통일의 타도 대상이 되었던 백제나 고구려인의 입장에서 보면 화랑정신을 결코 찬양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3. 선비정신

선비정신이란 나라가 위급할 때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애국정신을 말한다. 왕조시대 시책에 큰 오류가 있을 때는 임금께 상소를 올려 목숨을 걸고 시정시키는 것도 선비정신의 하나였다.

또한 국란이 닥칠 때는 의병을 일으키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구한 것도 선비정신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진왜란 때의 의병과 구한말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일어난 의병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왜적이 침략을 감행했을 때 관군이 당연히 방어해야 한다. 그럼에도 왜적은 파죽지세로 복상을 했고 관군은 패전을 거듭하였다.

정부는 병력 보충을 위해 모병을 했지만 응하지 않던 백성들이 선비가

앞장 선 의병에는 무기를 들고 일어났다. 선비 의병장을 중심으로 대개 지방에 사는 양반, 중인, 노비 등이 의병에 가담하고 전투에 참가하였다. 의병장은 대체로 그 지방에서 명망 높은 시골 선비였다.

그 중에서도 고경명, 곽재우, 조현, 김천일, 정문채 같은 선비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사실상 충성스러운 의병의 큰 역할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19세기 말엽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었을 때도 선비들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켰다. 순창에서 최익현·임병찬, 홍성에서 민종식, 경상도에서 신돌석 등이 활약하였다. 1907년 일제가 구한말 군대를 해산하자 한말 군대는 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더욱 조직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의병들의 항쟁사를 보면 1907년부터 1901년까지 의병이 일본군과 교전한 횟수가 2,852회 이고 연 인원수는 141,818명 이었으며 희생당한 의병은 17,6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선비정신에 대한 정다산의 혹평도 있었다. 문약에 홀려 일을 천시하고 백성을 멸시하며 가난이 영광인 것처럼 굶주렸다는 평이다.

더구나 선비란 소수의 양반계층이었으므로 보편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선비정신이 국가발전에 공헌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IV. 전주정신의 형성 과정

1. 전라도와 전주의 관계설정

지금까지 한국의 국민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해 왔다. 그렇다면 한국 속의 전주도 나름대로의 정신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전라도 속에 좁은 행정구역으로 존

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를 떠나서 전주정신을 독자적으로 논하기에
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좁은 도시일지언정 독립된 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 정신, 스파르타 정신을 논할 수 있었지만 전주를 도시국가에 비교
하여 ‘전주정신이 이것이다’ 라고 내놓기가 어려운 입지에 속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는 전라도 정신 속에 전주정신인가? 아니면 전라도 정신과
는 관계없이 전주만의 정신인가 구분하기가 모호하였다.

따라서 전라정신이 전주정신일 수 있고 전주정신이 전라정신일 수 있
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와 공존관계에 놓여 있었지만 분명히 전주정신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훈요 10조를 비롯하여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전라도와 전
주가 심한 박해를 받아 왔음에도 국난 때 마다 난국 돌파를 위한 저항적
전주정신이 발휘되어 나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오늘날의 전통문
화도시답게 문화 창조를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전주정신도 있어왔다.

먼저 전주정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살피고 그 속에
서 전주정신의 진수를 추출하기로 하자.

2. 임진왜란의 구국항쟁

1) 전라도는 의병과 식량의 공급기지

1592년 왜군이 부산진 앞 바다에 쳐들어와 7년간의 임진전쟁이 시작되
었다. 개전 3개월에 수도 뿐 아니라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7도가 왜적의
수중에 들어가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임란 중 7년간 전라도를 왜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임란초
기 관군과 의병의 연합체가 웅치의 혈전과 황진의 안덕원 전투, 고령명의
금산성전투, 권율의 이치전투를 통해서 왜군의 예봉을 꺾었기 때문에 호

남을 지켜낼 수 있었다.

호남방어는 임진란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국가 보존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순신도 ‘호남이 없으면 나라는 없다’ 라고 까지 극찬을 하였다. 호남이 국가 보존의 역할을 한 대목을 짚어 본다.

첫째 호남은 곡창이다. 전쟁의 군비와 군량을 지원했다.

둘째 호남의 인력이 관군과 의병의 공급원이 되었다.

셋째 근왕병이 모두 호남인이었다.

넷째 육전에서 행주대첩, 진주성전투 등과 해전에서 한산도대첩, 노랑해전 등 경기도 이남의 크고 작은 전투들이 모두 전라도 젊은이들이 주동이 되어 수행한 전투였다. 호남은 의병·관군, 식량을 공급하여 나라를 구한 고장이었다.

2) 전주성 사수

왜적이 진안으로부터 전주로 행하자 전주성내는 물 끓듯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할 때 이정란이 앞장 서 끝내 전주성을 지켜냈다. 적이 왔다고 하니가 관리들이 도주하려는 것을 이정란이 앞장 서 성민과 관리들을 지도 감독하고 독전하였다.

낮에는 많은 기치와 연막으로 군세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성 밖에는 허수아비 군대를 세워 세를 과시하였다. 밤에는 횃불로 인근 산과 성 부근을 훤히 밝혔다.

왜적은 성 밑까지 도착하여 주위를 여러번 살폈으나 살기등등한 성 내외를 보고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적은 이미 웅치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의기가 상실된 상태이기도 하였지만 이정란의 용감한 방어 정신과 지모, 성민들의 임전 태세가 확고한 것을 알고 퇴각한 것이다.

전주를 지킨 거룩한 이정란의 향토방어정신은 국란이 끝난 후 충경(忠

景)의 시호가 내려지는 영광이 있었다.

3) 왕조실록과 어진 이안

조선 왕정에서 왕조실록 등을 보관하던 사고가 4개소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3개소의 사고가 불타 버리고 전주사고에 있었던 실록만이 보존되어 방대하고 주옥같은 역사서를 보유하는 민족의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임란이 벌어지고 전라도에도 위기감이 감도는 속에서 태조 영정과 조선왕조실록을 보전하려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안의, 손홍록과 경기전 참봉 오희길과 유인, 삼례찰방 윤길, 전라도 도사 최철건, 무인 김홍무 등과 기술 및 가동 30여명, 내장산에서 스님 희묵과 재인 100여명, 내장산에서 아산으로 이안할 때는 정읍 현감 유태, 참봉 구정려 등이 적극 협력한 사람들이다.

삼례 찰방이 끌고 온 삼례역 말 100여 필이 40~50필의 짐을 싣고 엄중한 호위 속에서 경기전을 떠나 1차 정읍 내장산 용굴암, 2차 아산, 3차 강화, 4차 묘향산 보현사 등에 이안하여 왕조실록과 어진을 전화에서 보존하게 된 것이다.

전란 속에서 개인의 안위도 어렵거니와 국가 존망이 불투명한 위기의 순간에서 문화와 역사를 지켜낸 것은 크게는 전라인 작게는 전주정신의 발로였다 할 것이다.

3. 동학혁명정신의 발원지

1894년 고부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는 역사상 최대의 민중항쟁이었으며 초유의 농민혁명이었다.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의 진원지가 내 고향이었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농민군이 전주성에 입성한 후 농민통치기관이며 민정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국사상 최초의 민중의 자치기관이 탄생되었고 각 고을의 행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이다.

혁명군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협의 하에서 전주에 대도소를 설치하여 전봉준이 전라우도, 전라좌도는 남원에 대도소를 두고 김개남이 지휘하였다.

집강소에서 공포한 개혁 요강 12개 조항에는 ①탐관오리 징벌 ②노비 해방 ③재가 허용 ④인재 등용에서 차별 타파 등이 골자이다. 신 절서를 만들기 위한 혁명적 개혁이었다.

5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짧은 시기에 불과했으나 전주에서 나타난 봉건제도 타파, 신분적 차별 폐지, 외세 배격 등의 선언이 있었고 집강소에서 동학혁명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4. 대사습 놀이의 종류

판소리는 광대의 소리와 대사를 통틀어 일컫는 극가이다. 오늘날에는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노래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

판소리의 발상지는 전라도이며 대사는 거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가 조선 숙종 무렵부터 불려지고 있었긴 하지만 육성되고 보급 되는 데는 전주대사습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 후기에 전주부의 통인들과 전라 감영의 통인들이 경쟁적으로 유명하다는 소리 광대를 초대하여 대사습놀이를 펼쳤다. 이 때 관중이 많고 적음으로 일종의 권위에 대한 우열을 가렸던 것 같다.

때로는 경쟁이 과잉되어 통인들과 관중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거나 심하면 투석전이 벌어지는 일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대사습을 개최케 하기도 하였다. 대사습놀이는 동

짓날 팔 축제를 지낸 음식을 먹는 재미에서 시작된다. 통인청 앞마당에 등불을 훤히 밝히고 숯불을 피워 추위를 막아가며 진행하였다. 줄타기와 땅재주를 선보이고 소리판을 벌렸던 전주만의 동지 풍속이었고 풍류였다.

대사습의 시작과 단절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대체적으로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 치욕적 한일합방 직전까지 존속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V. 결론 - 전주정신의 진수

1. 저항과 풍류정신

전주정신이 무엇인가를 추출하기 위한 전주정신의 형성과정을 분석해 봤다. 그것은 외적의 침입에 저항하고 왕정의 폭정에 저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역향으로 몰렸던 전라도의 한에서 발생한 판소리를 대사습놀이의 풍류잔치로 만들었다. 덧붙여 동쪽 산야와 서쪽 해안에서 산출되는 산해진미로 전주음식을 맛 풍류로 형성하였다.

그 결과 전주정신은 『저항과 풍류』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항정신에는 구국정신, 향토방위정신, 동학정신이 있었다. 풍류정신은 문화창조 정신이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

추출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로 나누어 미시적 설명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2. 저항 정신에서

1) 구국정신 - 의병이 왜적을 막고 전라도를 보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크고 많은 침략을 당하였고 그때마다 구국 애국정

신을 발휘하여 나라를 지켜왔다. 임진왜란의 전화 속에서도 범국가적으로 애국정신이 발휘되어 적을 물리쳤다. 관군이 싸웠지만 나약하기 짝이 없었고 오히려 의병들이 큰 성과를 거두어서 임진왜란 극복은 의병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상이었다.

의병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나 전라도 의병이 초전부터 쫓기하여 왜적의 전라도 진격 노선의 길목인 웅치와 이치고개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타격을 가하였다. 왜적은 호남평야의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전라도 진격을 획책했으나 사전에 차단되어 버렸다. 그 결과 전라도를 보전시켜 3년 전쟁의 병력과 군량미 지원의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다.

2) 향토방위정신 - 이정란과 주민이 전주성을 사수하였다.

웅치 전투에서 장병들은 옥쇄했고 왜적은 조선왕조이 본향인 전주성으로 달려들었다. 이때 의병장 이정란의 탁월한 지모와 전략으로 전주성을 지켜냈다.

전주는 호남의 근본이 되는 땅일 뿐 아니라 조선왕조의 발상지였다. 왜적은 왕조의 정신적 기반을 와해시키려고 전주성 공격을 시도했으나 성내외의 물של 틈 없는 방어태세에 퇴각하고 말았다.

기실 전주의 군졸은 이미 강화에 가 있는 실정이라 성내는 방어할 군사가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이정란이 모은 의병은 겨우 700여명에 불과하였다. 객사 문 밖에 장대를 쌓고 성을 순찰하는 한편 기지와 연막 등으로 군세를 과시하고 횃불로 기세를 돋우자 성 밖까지 왔던 왜적이 퇴각하고 말았다.

이정란의 지모와 성내의 장정들이 스스로 자기 고장을 지켜낸 위대한 향토 방위였다. 또 하나의 충성과 문화재 보호는 전화 속에서 전주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하게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풍전등화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안의, 손흥록, 윤길, 오희길 등의 시

꿀 선비가 왕조실록을 말에 싣고 정읍, 아산, 해주 등 기나긴 여정을 견디며 보존한 것이다. 실로 자기 고장의 문화재를 지켜낸 위대한 향토방위 정신이었다.

3) 동학혁명정신 - 집강소 설치로 주민자치 구현

1894년 4월 동학농민군은 마침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봉준과 회담 끝에 정부와 농민군이 협력하여 전라도내의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그 결과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농민군의 자치를 인정하여 만들어진 기구였다. 전주성 안에 대도소를 설치하는 한편 각 군현에 통문을 보내 집강을 두도록 하였다.

집강소의 설치 운영은 전라도에 국한된 것이었고 또 일시적인 조치였긴 하지만 집강소는 농민들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방 단위에서 행정력을 장악한 자치기구였다.

집강소가 전주에서 출발되었고 최초의 자치기구였으니 동학혁명의 꽃이었고 전주에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동학혁명정신이 구현된 것이었다.

3. 풍류정신에서 - 문화창조 정신의 발로

1) 판소리는 민중의 풍류

판소리의 발상지는 전라도이며 대사는 거의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있다. 판소리가 조선 숙종 무렵부터 불리워 내려오긴 하였으나 육성 보급에는 전주 대사습놀이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후기에 전주부와 전라감영의 통인들이 동짓날 통인청 앞마당에 불을 밝히고 유명 광대를 초대하여 소리판을 벌였다. 먼저 줄타기와 땅재주를 넘는 여흥 끝에 판소리가 등장하였다.

구경거리가 별로 없던 당시에 대사습놀이는 일대 장관이었다. 걸걸하고 애절한 판소리가 한마당 벌어지면 추임새 열씨구를 외치고 또 한 곡이 끝나면 더 부르라고 무릎을 탁 치며 “이어!”를 연발하는 열기 가득찬 관중의 물결을 상상해 보라. 전주만의 풍류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

처음에는 서민들만 즐긴 판소리였으나 점차 사대부들도 잔치에는 소리판을 벌였고 왕실에서도 소리 광대를 초대하는 등 전주의 풍류는 한국의 풍류가 된 것이었다.

2) 곱삭은 맛 고장

전주하면 음식과 소리의 고장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맛과 멋과 흥의 고장이라 하고 있다. 맛의 기본인 한식은 한류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또한 전주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은 어디에 서든 전주라는 관명사가 붙는 전주 브랜드 음식이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전주성내에서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전주 여성들의 음식 솜씨와 곱삭은 음식 맛을 즐겼던 전주인은 문화창조적이었다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통인청에서 울려 퍼진 멋스런 판소리, 곱삭은 음식 맛 등은 전주에서 발생한 자생적이고 문화창조적인 소산이었다.

높은 문화를 만들어 낸 창조적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와 음식맛이 전주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국란때마다 대외적으로 맞서 저항을 하면서도 문화창조를 감행한 『저항과 풍류』가 전주정신이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익두, 『판소리, 그 지고의 신체 전략』, 평민사, 2003.
- 김화성, 『전주에서 놀다』, 고즈윈, 2009.
- 송영상, 『全州川邊』, 全州文化院, 1995.
- 신정일, 『지워진 이름 정여립』, 가람기획, 2000.
- 윤홍길, 『전주이야기』, 신아출판사, 1999.
- 이기백, 『韓國史新論』, 一潮閣, 1999.
- 이서행, 『한국 한국인 한국정신』, 대광서림, 1984.
- 이철수, 『全州野史』, 전주출판사, 1967.
- 이희권, 『역사로보는 전라도』, 신아출판사, 2005.
- , 『여립이여, 그대 정말 모반자였나』, 신아출판사, 2006.
- 전라문화연구소, 『임진왜란 웅치전투와 그 전적지』, 선명, 2006.
- 전주부, 『全州府史』, 선광인쇄주식회사, 1943.
- 전주시, 『아하! 그렇군요』, 전주시, 2007.
- , 『우리고장 全州』, 대흥정판사, 1982.
- 정 양, 『판소리 더늠의 시학』, 문학동네, 2001.
- 조병희, 『完山高을의 脈搏』, 新亞出版社, 2001.
- 최기성, 『동학과 동학농민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2.
- 황미연, 『판소리』, 유네스코연맹 전북협회, 2002.

전주정신 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

홍 성 덕*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전주정신’의 정립 방향 |
| II. ‘전주’ 연구실태와 문제점 | V. 맺음말 : 상생과 해원 |
| III. ‘전주’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 |

I. 머리말

‘전주정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개념적 정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주’의 공간적 개념과 ‘정신’에 대한 상호 인지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정신’을 정립함에 있어 시대적·공간적 범주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후 특히 1935년 완주군의 분립 이후 초래된 전통적 공간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인위적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수백년에 걸친 공간적 개념의 축소가 강제된 상황 속에서 ‘전주정신’을 현재의 전주만의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정신’의 상호인지는 어떻게 무엇을 나타내고 어디를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전주라는 도시의 발전과정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하나의 개념화된 명제로 보편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전주정신’의 정립은 ‘다른 도시와 다른 차별화된 삶의 방식과 시대적 변화의 이면에 흐르는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개념화함으로써 ‘전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도시정체성, 도시이미지)’에 답하는 작업이다.

‘전주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인위적 정체 과정을 통해 정립되고 교육되어야 할 ‘선도성’을 갖는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전주학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금 ‘전주정신’의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은 효율적 투자 가치를 확보하려는 현실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전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주정신의 정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주’ 연구실태와 문제점

1. ‘전주’ 연구의 흐름¹⁾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전근대 시대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완산지』·『호남읍지』 등과 같은 지리지와 『호남영사례』·『전라감영지』 등 전주지역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는 『금난부』·『이조와 전주』·『전주부사』 등과 같은 전주지역관련 서적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1) 전주역사박물관·전주시, 『전주학 중단기발전 기본계획』(2007)

해방 이후 지역학에 관한 연구는 중앙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에 둔 주변부 또는 그 일부로서 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전주지역의 발전 과정에 필요한 분야가 아닌 중앙의 역사와 문화에 필요한 영역의 연구로 제한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향토문화의 진흥 차원에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향토전주사』(1984)·『전주문화』(1986)·『자랑스런 우리전주』(1997) 등과 같이 일련의 지역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이러한 지역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앙의 역사 문화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의 실태에 대한 분석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전주’에 대한 연구가 지역학적 관점에서 고민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이며, 2000년대에 본격화하였다. 1990년 지방자치의 시행,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역에 대한 지역적 관점의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전주학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공론화한 것은 역시 자치제의 시행 이후이다.

이러한 논의는 ‘전북학’ 연구로 시작되었다. 1997년 『전북학연구』 전3권이 출간되었으며, 그 이후 각 분야별 논문집 발간으로 계속되고 있다. 전주학은 2000년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의 『신문으로 보는 전주, 전주사람들』·『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2001)이후 본격화하였으며, 2002년 전주역사박물관과 2006년 전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전주학의 추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2. ‘전주’ 연구 현황

1) 고고학 분야²⁾

고고학분야의 경우 현재 전주시 일원에서의 고고학 발굴 성과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6개소의 발굴·시굴 조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이 완료되어 있다. 시대적으로는 구석기시대 1개소가 보고되었으며, 신석기 유적지는 조사된 바 없고, 대부분은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걸쳐있다.³⁾ 전주지역의 고고학 성과는 1990년대 이후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문화재보호법의 강화 이후 지표조사가 의무화함에 따라 신흥 개발지역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⁴⁾ 현재에도 혁신도시 예정지역의 발굴이 진행 중에 있고, 법조타운, 35사단 이전부지의 발굴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지역에 대한 발굴과 함께 최근 구 도청사의 전라감영터 부지 발굴, 동고산성 발굴 등 역사시대 이후의 발굴도 진행된 바 있다.

2) 역사학 분야

역사학 분야에 있어서는 마한시대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전주지역의 마한 소국에 대한 전주 비정 연구는 전무하다. 고고학적 성과를 토대로 할 때 마한 소국 내 일정한 세력이 거주하였다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연구의 공백은 삼국시대 즉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을 당시에 대한 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주라는 독립된 공간의 역사

2) 전주학 연구 논저현황은 위의 책 부록 참조.

3) 이상균, 「전주지역 고고학의 조사현황과 과제」(『전주학서설』, 전주역사박물관, 2006) 및 정은, 「전북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8) 43쪽, <표3> 전북지역 유적조사 현황 참조.

4) 이상균, 위의 논문, 53쪽.

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후백제에 집중되어 있다. 후백제에 대한 연구는 전주라는 지역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연구보다 국가사 연구가 중심이다.

고려시대에는 전주목에 관한 연구와 관향세력의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며, 본격적인 역사학 분야의 지역 연구는 조선시대 이후이다.⁵⁾ 조선시대의 경우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조 이성계의 세력과 경기전의 각종 조사보고서들이 있으며, 주요 연구 테마로서는 경기전의 어진과 전주사고와 실록의 이안, 정여립 모반사건, 완판본과 출판문화, 임진왜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대이행기 동학농민혁명에 관하여는 집강소 운영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 천주교사와 기독교사에 대한 연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연구테마이다. 일제시대 이후의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는 근대교육과 항일운동 연구가 있으나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⁶⁾

3) 문화·예술 분야

문화·예술분야 연구 중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테마는 판소리, 한옥, 서예, 한지, 음식 정도이다. 판소리의 경우 전주대사습을 중심으로 전주의 소리문화에 대한 일반연구가 있으며, 한옥은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연구가 있고, 서예는 창암 이삼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한지의 경우 개괄적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음식은 비빔밥·콩나물국밥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이외에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연혁지와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보고서가 있다.

5) 유호석, 「전주지역 중·근세 연구현황과 과제」(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6) 참조.

6) 송만오, 「전주지역 근현대사 연구현황과 과제」(전주역사박물관, 위의 책, 2006) 참조.

3. ‘전주’ 연구의 문제점

첫째, 전문연구자의 절대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학 연구의 진행과정이 개별 연구자에 의한 연구단계로부터 출발하는 점⁷⁾으로 보아 전주 연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전주’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의 부족은 지역정체성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학술적 규명의 뒷받침 없이 향토애에 기대어 행해지는 다양한 지역 찾기는 곧바로 순환참조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으로 인식되어 버린다. 이러한 성향은 1970년대 문화적 강제에 의한 향토문화의 창달에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온 결과이다.⁸⁾ 그 결과 지역 연구는 한국적 보편성을 규명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기능하였을 뿐, 지역과 지역민들의 삶의 특징을 밝히기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지역”에 대한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지역 정체성 찾기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연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지역내 전문연구자의 증가는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학문연구의 특성상 연구의 소재, 재료의 현존과 다양성에 의해서 연구 경향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부족은 전문

7) 김창민, 「지역학의 관점에서 본 전주학의 개념과 방법」(『전주학연구』 창간호, 2007, 57~61쪽)에 의하면 지역학 연구는 개별연구자 연구 - 연구자의 조직화 - 학제적 공동연구 - 비교연구 등의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8) 한국적 전통문화의 규범화는 지역간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보편적 가치로 획일화하였다. 충의와 예절의 고향이라는 가감 없는 수식어가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그에 걸맞는 사례의 발굴에만 치중하게 만들었다. “규범화된 한국적 전통화의 깃발”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버렸다. 국가에 대한 ‘충(忠)과 의(義)’가 우선시 되었으며, 지역 찾기는 우리 고장도 그러한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짐을 지고 있었다.

연구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의한 요인이 크다.

전주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자치시대 이후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커졌다. 지역의 특수성을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학문적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연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암묵적 인지 수준에서 찾아진 지역문화의 특징이 과연 올바른 선택 일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좋아지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전주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부족하다.

둘째, 전문연구자의 부족은 연구분야의 공백을 너무나 크게 만들고 있다. 꼭 전주에 사는 사람만이 전주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람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지역 연구방법론의 시각으로 볼 때 지역내 연구자의 연구는 ‘지역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비교된다. 흔히들 ‘필드’라 부르는 현장감이 지역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연구분야의 공백을 예를 들어보자, 2010년이면 경기전에 어진을 봉안한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경기전은 전주전통문화의 랜드마크로서 한옥마을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기전에 대한 연구⁹⁾는 너무나 부족하다. 경기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지, 경기전 내에서 이루어진 제향의례는 어떠했는지, 어진은 어떻게 보존 관리되고 유지되었는지 등 어진 봉안 600년을 목전에 둔 지금도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경기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음¹⁰⁾에도

9) 경기전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연구는 홍승재 원광대학교수의 보고서(『경기전-건축·의례와 유물』, 전주시, 2008)와 김철배 전북대 강사의 학위 논문(「조선시대 경기전의 건립과 관리직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이 대표적이다.

10) 홍성덕, 「전북대학교박물관 소장 일제시대 경기전 관련 문서 해제」, 『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2005

일제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기전 운영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어진 봉안 600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전주정신’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정신에 대한 개념을 시공간적으로 확장한다고 해도 전주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사(思想史)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아울러 고대 이래 지금까지 내려온 전주·전주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정신사적 분석 역시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글을 쓰여진 바¹¹⁾가 없다.

셋째, ‘전주’ 연구의 공간적 의미가 자치단체로서의 전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연구로서 ‘전주’가 가지는 공간적 의미는 행정구역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전라도의 수부로서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도를 포괄했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던 전주는 물리적으로 현대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간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주와 완주의 경우 일제시대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함에 따라 기존의 ‘전주군’에 속했던 현 완주군 지역의 명칭을 새로이 정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그 이전의 연구에서 전주와 완주에 대한 공간인지는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정신’을 정립함에 있어 이러한 공간인지는 자치단체의 정체성 수립 노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¹²⁾ 따라서 전주정신의 수립을 논의함에 있

11) 최근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조사와 관련한 함한희 연구팀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옥마을에 거주했던 유학자들에 주목하여 전주 정신으로서 “선비정신”을 찾고자 한 점은 지금까지의 단편적 연구와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시기적으로 일제시대 이후 유학자였다는 점과 구술조사를 위주로 하였다는 점은 향후 보다 많은 학제간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요소이다.

12) 전주와 완주는 본래 동일한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이경전이 지은 경기전

어 지역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왜 ‘전주정신’이 필요하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전주’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1. 전주 이미지의 변화

1) 조선왕실의 본향(本鄕) - 豐沛之鄕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전주의 이미지는 “조선의 근본을 이루는 땅”이었다.¹³⁾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전주이씨였다는 점은 조선시대 ‘전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경기전의 건립이나 전주사고의 설치, 조경묘와 조경단의 설치 등 조선시대 전주는 조선왕실의 본향지로서서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다. 서거정은 전주의 공북정에 대해 쓴 기문에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선대가 일어난 태빈 땅과 같은 곳”¹⁴⁾이라 하였다. 왕실의 본향지, 즉 선원(璿源)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에 ‘완산부’로 승격된 실질적인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량문을 보면 “고을의 이름은 전주(全州)·완주(完州)이니, 길이길이 온전하고 완전하리라”(변주승, 『국역 여지도서』 보유1, 전주 묘전조)하여 전주와 완주를 동일한 지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전주보다 완주군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전주부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고산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완주지역이 1914년 전주군으로 편입된 뒤, 1935년 ‘완주군’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의 수립과 ‘완주정신’을 정립해 나갈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13) 『완산지』 「남고산성만역루신건기」(『호남읍지』) “완산은 우리 조선의 근본을 이루는 땅이다”

1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주부」 누정(변주승, 앞의 책, 35쪽)

이외에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전주의) 지리는 가장 아름다워서 참으로 살만한 곳이다. ... 전주부성은 인물이 두루 모이며, 재화가 넉넉히 쌓여 있어서 서울과 더불어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정 하나의 큰 도회지이다. ... 오직 전주만 맑고 서늘하여 가장 살만한 곳이다.¹⁵⁾

라 하여, 물화의 고장이자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서거정 역시 “남부지방의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¹⁶⁾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물산이 풍부한 고장의 이미지는 고종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호남은 다른 고을과 다르다. 풍패의 고을로서 임금께서는 경기전과 조경묘를 두었던 땅으로 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달랐다. 게다가 물산이 모이는 지역으로 풍부하고 땅이 넓어서 다스리기 어렵다고 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대가 내 뜻을 널리 배양하면, 풍요와 평안을 널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일성록』 고종 계사 3월 25일).¹⁷⁾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신임 관찰사 김학진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내린 고종의 발언에도 역시 풍패지향과 물산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물산이 풍부한 것 때문인지 인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다”는 인식과 “역사가 오래된 나라의 기품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어리석거나 완고하지 않고 모두가 점잖은 선비와 같다.”¹⁸⁾라는 상반된 인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풍패지향의 이미지는 고종대 적극적인 왕실 성역화 사업으로 이어진

15) 이중환, 『팔역지』 「지리」(홍성덕 외역,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 2009, 41쪽)

16) 변주승역, 앞의 책, 35쪽.

17) 홍성덕 외역, 위의 책, 96쪽.

18) 위와 같음, 34쪽.

다. 오목대와 이목대, 조정단 등에 비(碑)를 세운 것은 왕실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국가를 강고히 한 다음 외세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선을 멸망시키고 강점한 일본 역시 전주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조와 전주』를 비롯한 일제시대 전주를 표현한 많은 서적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실의 본향지라는 이미지로서의 풍패지향이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의 부속 공간에 소학교를 세움으로써 온전하게 유지시키지 않고 훼손하였지만 전주는 경복궁과 같은 왕실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제시대 경기전의 운영을 전라북도나 전주부에 넘기지 않고 황실의 기구였던 이왕직의 직할로 하고, 통제된 관리 운영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전통적 인식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 예향(藝鄕)과 농도(農道)

조선시대 전주 이미지로서의 ‘예향’은 다른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았다. 대사습놀이와 본거지로서 전주의 기능은 유효하였지만, 그것이 도시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관점으로 정립된 예향의 이미지가 조선시대 당시 농경문화에 기반한 문화양태가 민중문화로 꽃을 피웠다고 한다면, 예향의 이미지는 선비문화로부터 도출된 이미지이다. 민중문화와 선비문화가 이분법적 틀로 규정되지 않고 공유의 통섭문화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은 전주의 문화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가 향유자에 의해 발전하여 대중적 문화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컨텍스트로서의 판소리는 반체제적이지만 그 주된 향유자는 체제내의 상위계층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향” 전주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일

까? 언제부터 전주사람들이 전주를 예향의 도시로 인식하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조사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몇몇 연구에서 지적한 “예향 전주”의 이미지는 전주시민들의 생각과 문화지표에 의해 연구자들이 검증해 놓은 이미지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 전주사람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주의 이미지에 ‘예향’의 이미지가 있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향의 이미지는 일제시대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형성된 인위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예향의 이미지에 대해서 원도연은 예향의 이미지는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전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정착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시대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이 전주지역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문화적인 배출구를 통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¹⁹⁾ 그렇지만 원도연의 지적 역시 현재적 시각 아래에 놓여있다. 당시대의 전주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그러했는지, 그러한 문화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도시이미지로 규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선시대 풍패지향의 이미지가 예향이미지로 전환되는 시기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라는 도시를 예향, 예술의 도시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시대적 배경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전주의 이미지는 풍패지향의 도시로서 여전히 호남의 대도(大都)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근대 이후 도시이미지는 문화에 기반한다기 보다 산업화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제시대 이후 전통적 물산과 재화가 풍부한 도시이미지가 산업화의 기원 도시로서 기능하기 위한 농도(農道)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전주는 농도의 도시로서 파악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지의 배후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일제시대 형성되기 시작해서

19) 원도연, 『이미지와 지역정체성 : 전주 - 과거에서 미래로』 『전주의 문화 정체성』, 신아출판사, 2004, 19쪽.

1960·70년대에 강화되었다. 농도(農道) 전라북도의 이미지는 한국전쟁 당시 제5대 이요한 지사 때 이후 ‘농촌부흥’의 도정방침이 수립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기능하였다.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농 정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농도 이미지는 고착되기 시작하였다. 농도 전북의 이미지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산업화 전략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은 농업생산력을 가지고 있던 전라북도의 이미지는 정책적으로 강제·강화되어졌던 것이다. 전주는 그 지역의 수부로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예향, 즉 문화예술의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서 이미지 만들기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10월 유신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달이라는 이름 아래 전통문화에 대한 규범화가 이루어지고, “예향의 고장·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도시 이미지가 정착되어져 갔다.

197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문화운동은 전북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적 정통성을 확인시켜주었다.²⁰⁾ 노동자와 농민의 문화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노동자·농민의 민중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예향문화 도시 이미지가 재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전자가 주로 농악과 탈춤 등 민중적 전통문화였다면, 후자는 서예와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선비문화의 성격을 띠었다. 이러한 이중적 전개과정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한 채 전통문화도시 이미지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3) 전통문화중심도시 - 한스타일과 전주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전통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있으며, 한옥·한식·한지 등 전주 한스타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매우 높다. 맛과 멋의 고장, 예향으로부터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전환하게 되는

20) 원도연, 위의 논문, 24쪽.

배경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사업의 하나로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을 통한 특화관광사업개발이 추진되면서 부터이다. 7대 문화관광권 개발은 전국을 7개의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총 50개의 중점사업과 80개의 연계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충청권의 백제문화권과 대구·경북권의 유교문화권, 부산~목포를 연결하는 다도해문화권(남해안 관광벨트) 등이 ‘문화권’으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문화관광권 개발에 전라북도가 소외되면서, 지역내에서는 전라북도 문화권 개발에 대한 공론의 장²¹⁾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전라전통문화권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앞서 민선2기를 맞이한 전주시에서는 전주를 ‘조선문화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한옥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된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전주시의 전략을 확고해져 갔다.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2000~2010)』(2000)에서 전주의 비전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전주”로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첨단문화의 예향, 전주 비전 2010』(2001)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2005)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등 일련의 용역과제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다.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전주 방문객 중 전통문화도시(63%), 문화예술도시(31.1%)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전통문화도

21) 2000년 12월 8일, 전주코아호텔에서 가칭 전라북도문화권 개발을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전라북도 문화권 개발을 위한 몇가지 제언」이라는 주제로 홍성덕(당시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현 전주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시(67.2%), 문화예술도시(16.4%)로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이해하고 있었다.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전통문화도시(60.7%), 문화예술도시(16.4%)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²²⁾

2002년도 한옥마을 1단계 조성사업(태조로 확장, 한옥생활체험관, 공예품전시관, 숭박물관, 전통문화센터)이 완료된 뒤 가시적인 지역혁신모델로서 자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갔으며, 2004년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결성²³⁾되고 조직적인 홍보와 수많은 공청회 및 워크숍을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대한 전주사람들과 타 지역사람들의 이미지 형성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와같이 맛과 멋의 고장, 예향의 도시 전주 이미지는 국민의 정부 수립 이후 문화관광권 개발 정책의 참여를 위한 지역문화권의 특징을 ‘전통 문화’에서 찾았고, 문화권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4년 전통문화중심도시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 정립에 성공하였다.

2. 전주 인식과 가치 충돌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전주이미지 변화를 분석해 보면 다양한 상징어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어들은 한편으로 이미지 형성에 충돌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22)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93쪽.

23)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아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 2004년 7월에 결성되어 2006년 12월까지 활동한 민간단체이다. 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백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미래 천년을 열다』(2007) 참조.

1) 충(忠)과 역(逆)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고자 했던 전주지역의 유지세력들이 표방한 것은 조선왕실의 본향지라는 점이었다. 이후 국가의 근본이 되는 터전으로 조선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적 모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주라는 도시는 조선왕실에 ‘충(忠)’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후백제의 멸망과 고려시대 훈요십조에 의한 폐쇄적 지역정체성을 전주이씨의 조선건국을 통해 개방적이고 중심적인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실록과 어진을 이안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지역적 정서를 기반으로 형성된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반면 정여립의 모반사건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전주성 점령은 반조선적으로 ‘역(逆)’에 해당한다. 조선왕실의 본향지에 대한 정책적 이미지 형성은 때문에 ‘반역향’의 코드와 충돌한다.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동학농민혁명군의 인내천 정신이 강조되면 될수록 왕실의 본향지로서 종묘사직에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조발지지(肇發之地)’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2) 박해와 순교

한국 순교의 일번지라는 타이틀에는 박해와 순교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천주교를 박해하였던 조선왕실의 창업주 영정을 모신 경기전과 배교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던 유항검 등의 처형지에 세워진 전동성당은 박해와 순교라는 이질적 개념어로 서로 대면하고 있다. 상징적 대면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충(忠)과 역(逆)의 대립과는 달리 박해와 순교 역시 비례적 관계에 놓여 있다. 박해의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순교의 이미지도 강화된다. 선악의 기준으로 재단할 때 비례적 관계는 반비례적 가치로 전환한다. 순교가 선이면 박해는 악이 되는 상반적 개념어인 것이다.

3) 선비문화와 아전문화, 민중문화

선비는 신분적으로 양반을 의미하며, 아전은 향리들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관찰사, 부사, 도사 등)을 보좌하는 행정실무자들로 중인에 해당한다. 민중은 상민·천민에 속하는 자들로 농업·상업·공업에 종사하는 일차 생산자들이다. 서예와 부채(합죽선), 정악 등으로 표현되는 선비들의 풍류문화는 한벽당과 같은 누각이나 향교, 서원 등의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아전문화는 마땅히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것인지 모호하지만, 중앙 관리들을 향한 아전들의 생활 문화로 제한할 때 대시습과 같은 판소리가 해당할 수 있다.²⁴⁾ 음식문화 또한 아전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민중문화는 기층 백성들이 향유한 문화로 농요, 민요 등이 해당할 것이다. 계층간이 구별된 문화양태는 전주의 문화를 하나의 계층적 문화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주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연계해 볼 때 전주의 문화를 아전문화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저항과 풍류

전주의 문화적 코드로 소개되고 있지만, 전주를 잘 표현하는 용어로 “저항과 풍류”가 지적되고 있다.²⁵⁾ 원도연은 전주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최명희가 말하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꽃심’을 저항으로 파악하였다. 천주교 순교와 동학, 모악산의 신흥 민족종교, 후백제의 등장과 몰락 등 전주의 역사가 곧 저항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저항과 좌절의 역사 속에서 전주는 가장 민족적인 풍류를 꽃피운 도시였다. 판소리와 인쇄

24) 물론 판소리를 아전문화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판소리가 전라감영의 통인청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회였다는 점에서 전주의 아전문화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5) 원도연, 앞의 논문, 26~32쪽.

문화, 전통한지의 명맥 등이 그것이다. “전주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많은 역사와 사건들을 씨줄로 엮어 놓고 보면 그것은 한국의 저항운동사와 맥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전주는 저항과 풍류를 집약해 놓은 공간인 셈이다. ‘저항’이 혁명을 싹틔우는 새싹이라면, 풍류는 ‘저항’의 외면이거나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전주의 문화코드로서 저항과 풍류는 대립적이다. 저항과 풍류가 “한 바탕 한 뿌리에서 뻗은 두 가쟁이”라 한다 해도 전주에서 저항의 주체는 풍류적이지 않았으며, 풍류에서 저항정신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전주의 풍류는 패배자의 쓰디 쓴 쓸개즙을 먹고 자란 피안의 언덕일 뿐이다.

IV. ‘전주정신’의 정립 방향

1. 전제 요건

전주정신은 전주라는 도시를 움직여 온 사상으로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나 도시 이미지와는 구별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지역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²⁶⁾ 선행적 경험을 토대로 지역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지만 때로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수립되기도 한다. 도시정신 역시 동일한 개념 아래 놓여 있지만, 정체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전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전주정신은 역사적 근거에 토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정신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과거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경험을 찾아내고, 누적된 경험 속에 일관되어 있는 철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달성이 보다 중요한 정체성 수립과는 달리 전주정신의 정립은 목표의 달성이 아닌

26) 원도연, 앞의 논문, 12쪽.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다음 목표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

둘째, 전주정신의 정립에서 ‘전주’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주의 경우 완주군을 포괄한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라도 수부로서의 역사적 경험은 전주정신이 전라도 정신으로 연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셋째, 전주정신이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전주정신은 다양한 전주의 정신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따라서 상호 상반된 개념이 모두 검토될 수 있으며, 양립할 수도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유보되어야 한다.

넷째, 전주정신의 정립은 분명한 목적과 활용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왜 ‘전주정신’을 정립해야 하는가, 전주정신을 정립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궁리해야 할 것이다. 목적성과 활용성이 전제되지 않은 전주정신의 정립은 공허한 담론에 머물러 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주정신은 단시일 내에 정립되지 않는다. 수천년을 내려온 도시의 역사와 그 역사를 영위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작업은 지난한 것이다. 몇몇 연구자의 주의 주장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대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한낱 욕심일 뿐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규명을 통해서만 도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신을 정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따라서 전주정신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될 수 있다. 연구의 진흥을 따라 전주정신은 새롭게 재정립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전주정신은 결코 왕도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다. 시대의 변화와 연구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기존의 전주정신이 도시발전의 지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지역민들의 동의하에 바뀔 수 있는 것이 도시정신인 것이다.

일곱째, 정리된 전주정신은 삶의 영위방법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 정립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전략개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정립 방안

‘전주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충실한 지역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연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주와 전주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촉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촘촘하게 짜인 지역연구 성과를 토대로 할 때 전주정신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에 관해서는 각 분야별 연구사 정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지난 2005년 전주역사박물관 제1회 전주학 학술대회(전주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개괄적 지역사 정리로부터 철학, 문학, 예술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연구사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시대적으로 전주 역사의 근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백제 이전의 시기에 대한 규명과 해석이다. 전주 역사의 출발은 결코 백제일 수 없다. 그 이전에 수천년을 지나온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현재 전주의 삶에 연결지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작되어야 한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통해 많은 고고학적 연

구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그것이 지역사와 지역문화에 끼치는 영향(해석)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제로서는 사람에 대한 연구이다. 과거 전주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연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옥마을 스토리텔링 조사사업의 결과도 도출된 선비정신 역시 역사철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 선도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개념화 작업을 진행한다. 전주정신의 개념어(상징어)는 많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정제된다. 전주정신과 관련하여 설정 가능한 다양한 상징어들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저항과 풍류, 선비정신, 절의(節義), 순교, 사랑 등 전주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어는 연구자들에 의해 심화되고 대중의 공유를 통해 전주정신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주제별로 백가쟁명식의 논의를 통해야 할 것이다. 백가쟁명식의 토론은 연구자들에 의해 심화된 결론을 개별 공간으로 부터 집단 공간으로 끌어냄으로써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 분야별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각 아젠다별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이 종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젠다 중심 토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브레인스토밍이다. 지역내 연구자들이 아닌 타 지역의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만 한다.

넷째, 아무리 훌륭한 전주정신을 정립했다 해도 그들만의 소유물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립되었거나 정립되어져 가는 전주정신은 대중들과 소통해야 한다.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전주시의 새로운 슬로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전주정신과 연결된다. 다양한 전주정신을 각종 시책에 연결지어 활용함으로써 전주정신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 상생과 해원

역사적으로, 전주는 패배자의 역사로 기억된다. 백제·신라·고려에 패배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주는 비록 조선왕조의 본향이라는 지역의 자부심을 만들어 내었음에도 정여립 모반사건 이후 ‘반역향’의 굴레에 갇혀버렸다. 일제시대 수탈 1번지로서 제국주의의 공간이었으며, 공간지기로서의 지역성은 해방이후 산업화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패배자의 역사로부터 끝없는 회생을 강요당해야 했던 공간지기의 삶은 ‘소외’·‘낙후’·‘차별’ 등 처절하리만큼 처량한 자조적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도시의 삶은 수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반역향의 이미지를 저항으로 승화하고, 체제 도전을 민중의 해방과 미래의 동력으로 해석해 내며, 패배의 삶에 녹아든 풍류에 주목하는 일련의 논의들이 있었다. 저항과 풍류, 선비정신의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주목할만한 견해들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적 구도보다는 미래 지향적 이미지로서 “상생과 해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원(解冤)은, 원한·원망스러운 것·마음 아프고 원통스러운 것을 풀다(冤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마음 아픔과 원망스러움, 欲求不滿,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뜻한다.) 풀다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뜻한다.²⁷⁾ 상생은 더불어 같이 가는 삶을 말한다. 해원은 상생으로 승화된다. 응어리를 풀어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27) 김진소, 「우리 문화로 읽는 조선시대 천주교도들의 생각」,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문화강좌 2007년 11월.

전통문화도시 전주

고 언 기*

전주라는 도시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시민의 삶이 녹아 있고, 자부심과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소위 ‘전주정신’이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전주만의 특별한 정신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들로 인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시의 입장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자원을 토대로 전주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한 추진했던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는 한옥마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은 소위 삼재라 불리는 선비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유학사상을 주도해온 공간이며, 주변의 자원들은 모두 전주가 전통문화도시라는 명칭을 얻기에 설득력 있는 자원입니다. 이 원천의 중심에는 전주의 정신이 서려 있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이 ‘전주한옥마을’로 공식 지정된 해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러나

* 전주시청 전통문화국장

한옥마을은 1976년 ‘이조문화권’ 개발 계획에 의해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후, ‘전통한옥지구’, ‘전통문화지역’, ‘전통문화구역’, ‘전통문화특구’ 등으로 불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한옥마을이 2002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전통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명품관, 전통술박물관, 최명희문학관, 한방문화센터와 함께 한옥숙박시설인 한옥생활체험관, 승강재, 양사재, 동락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한정식 집과 찻집, 한지 및 공예품 판매점 등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계획되고 건립된 것은 전통도시 추진 이전의 일이지만, 전통도시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전통경관을 더욱 세심하게 가꾼다거나, 전통 건물을 새로이 짓는다는 거나 하는 등 이곳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축제인 풍남제에 비빔밥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음식 축제도 진행되고 있으며 옛 한지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한지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령시제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이 전통도시 기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정부문화정책의 하나인 ‘한브랜드 사업’이 전주의 전통자원과 관련을 맺으면서부터는 전통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이 전주를 예향의 도시, 맛과 멋의 도시, 전통의 도시로 인식하는 것은 전주에 한옥, 한지, 소리, 음식 등의 전통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기 때문이며, 이는 단기간에 형성된 자원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 우리 전주사람들이 형성해온 하나의 정신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이나 축제들은 하나같이 전주 시민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던 정

신문화영역의 부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전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면 전주의 정신이 기본에 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정신문화뿐만 아니라 역사·경제·정치·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전주에 대한 내용이 투사된다면 더욱 훌륭한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만들어진 우리 전주지역의 정신이 도시 이미지로 형상화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천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는 전주정신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정신의 정체성

김 기 현*

사람들은 흔히 ‘정신’이라는 말을, 개인을 넘어 집단의 특징을 규정하는데 사용하곤 한다. 정신이란 사고와 감정, 의지를 총칭하는 개념이라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의 정신, 국가적으로는 한국정신, 전통적으로는 민족정신, 역사적으로는 시대정신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정의 방식은 한 집단의 특징을 규명하고 사람들의 공동체적 자아를 확인·성찰하며, 미래의 진로를 모색케 해주는 의의를 갖는다.

‘전주정신’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논의의 주제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일련의 의문을 갖는다. 과연 ‘전주정신’이라 할 만한 것이 있는가? ‘한국정신’이라 하면 그 동안 국제교류 속에서 체험적으로 확인된 한국인 교유의 사고방식으로 잡힐 만한 것이 있겠지만, 국내 타지역과는 달리 전주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온 전주인 특유의 정신이 있는가?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 사람들은 때로 그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론하기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도 하지 않은가? 전주(전북)사람들이 겉으로는 유순하지만 뒤로는 남을 무함하기 좋아한다는 비난이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전주인들의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실상을 확인하고 대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규명하고 규정하기가 지난한 작업을 장명수 선생님은 역사적 관점에서 시도하면서,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전주인이 지향해야 할 이념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주제를 다루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선생님은 먼저 한국인의 정신으로 홍익정신과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을 풀어 제시하고, 이어 전주정신으로 저항정신과 풍류정신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이 한국인의 정신으로 제시한 홍익정신 등은 사실 포괄적으로는 전주정신의 모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란 모두가 공유해왔을 그것들이 전주인들의 사고와 삶 속에서 어떻게 융해되고 표출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는 아마 앞으로 지속적인 논구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생님의 글은 여러 가지로 너무 소략한 느낌을 준다. 이를 나누어 논의해보려 한다.

먼저 홍익인간의 정신을 거론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려는 것”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군신화의 내용 전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거기에 내포된 현세중심적 사고에 주목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천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환웅)이 지상의 인간세계를 회구하면서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이 세상이야말로 가능적 유토피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의 원형적 사유요 ‘조선문화의 일체종자’(최남선)라

할 단군신화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홍익인간의 정신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 시대에 맞게 새로이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화랑정신하면 흔히 세속오계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것처럼 忠君愛國과 효도의 정신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화랑에 관한 崔致遠의 글이나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살펴보면 그것은 유교와 불교, 도가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도덕정신과, 공동체의식, 자연주의적 사고, 더 나아가 심미정조를 함양하고 계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의 공동체(도덕)정신이나 친자연적인 의식, 풍류정신의 원형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랑정신을 좁게 ‘신라의 무사도’나 ‘삼국통일의 정신’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뜻 깊은 사상과 철학을 밝혀내고 그러한 역사적 유전인자를 이 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한국인의 정신으로 제시한 선비정신은 너무 일면적이다. 의병의 정신이 선비정신의 발로양상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작용되었던 의로움의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며, 권력의 위협과 재물의 유혹에 의연했던 의로움의 정신의 근저에는 오늘날에도 매우 긴요한 인간관과 삶의 정신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선비정신의 핵심에는 인간애와 생명애[仁]의 정신이 놓여 있으며, 예절의 정신 또한 그것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 밖에 “만물은 나와 더불어 사는 이웃”(李滉)이라 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또 시와 음악으로 풍류를 즐겼던 정신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선생님이 제시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국인에게 공통된 정신인자를 발견한다. 우

리 사회에 ‘우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처럼 공동체의식 속에서 함양된 도덕정신과, “콩을 세 알씩 심어 한 알은 하늘의 새에게, 또 한 알은 땅 속의 벌레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알은 내가 먹겠다.”는 자연친화적인 정신, 그리고 촌로들까지도 詩會를 열어 감흥을 주고받는 풍류의 정신이 그것들이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 이는 물론 역사적 한국정신의 긍정적인 면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밖에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우리의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선생님은 한국인의 정신을 살펴본 다음 전주정신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저항정신과 풍류정신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 중 풍류정신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그것의 발현형태인 판소리는 전주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주에 가서는 소리자랑하려 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더 나아가 전주의 서예 역시 그 한 양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예술철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거기에 내재된 심미정신을 민중 속에 뿌리내려 생활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주인의 저항정신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말 전주를 저항의 땅이라 말할 수 있는가? 선생님은 의병활동과 동학혁명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것들은 전주(전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면치 못하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항정신의 산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어떤 학자는 전라남도를 저항의 땅이라 하면서 이의 역사적 자료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동학혁명은 당시의 왕조질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담겨 있는 동학 본래의 세계관과 삶의 정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봉건사회에서 핍박받는 민

중의 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드러났지만, 그 근거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아니 오늘날까지도 실현되지 못한 획기적인 사상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라는 人乃天의 정신이 그것이다. 이 명제의 뜻은 일견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거기에서 느낄 수도 있다. 이를 고 신동엽 시인의 대서사시 <금강>의 구절에서 엿보자.

그는 동학의 이대교주인 海月 崔時亨의 포교행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전략) 어느 여름 / 동학교도 徐노인 집에서 / 저녁상을 받았다 // 수저를 들으려니 / 안방에서 들려오는 베짜는 소리 // 『저건 / 무슨 소름니까?』 // 『제 며느리 애가 / 베 짜는가 봅시다』 // 『서선생 / 며느리가 아닙니다 /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십니다 // 어서 모셔다가 / 이 밥상에서 / 우리 함께 다순 저녁 / 들도록 하세요』(후략)”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이름에 갇혀 산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 남자와 여자 등등 사회생활상 각종의 이름에 담겨 있는바, 기왕에 만들어진 이미지(의미)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간다. 이를테면 우리는 결혼과 함께 전에 없던 남편과 부인의 의미와 역할을 갑자기 떠안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이름들은 자칫 존재를 왜곡시키고 소외시키기 십상이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이름(의 의미와 역할)은 두 사람을 평등한 인간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방해한다. 아니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양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인격과 순수존재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이는 며느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시아버지도 존재의 소외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요컨대 “이름은 사물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의도되어 있지 않”(E. 카시러)은 터에, 이름에 집착하는 한 자타를 막론하고 존재의 은폐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분이 바로 한울님”이라는 해월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이름의 존재 한 정성과 존재왜곡성을 폭로하고, 존재폭력성을 고발하는 대성일갈의 경구이기도 하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깎듯이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언어로 무어라고 규정할 수 없는 ‘하늘님’의 신비를 사람들이 외경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풀 길 없는 이름 너머 신비의 존재로 우러르고 경건히 대면해야 한다는 존재론적인 사고가 거기에 깔려 있다. 남편과 부인, 선생과 학생이라는 일상적 존재의 외피를 벗어 던지고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 별거벗은 순수존재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내천”의 동학정신은 왕조사회를 넘어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 아니 지상의 인류가 부단히 지향해야 할 영원한 이념이다. ‘동학’하면 사람들은 사회혁명의 역사적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간혁명의 정신으로 재조명하고 또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주정신’과 관련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동학정신이 전주인들의, 또는 전북인들의 정신적 유전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터무니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전주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할 이념의 차원에서 ‘전주정신’을 논의한다면 “인내천”의 정신이야말로 아주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마침 전주(전북)는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학

김 남 규*

I. 전주 바로알기

『전주문화유적분포지도』(2005, 전주시·전주역사박물관)를 넘겨보면 지리적 공간 범위안에 고고분야, 건축분야, 미술사, 역사민속 분야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다. 천년 전주의 역사만큼 깊고 넓다. 옛 마을, 옛 지명, 고지도, 매장문화, 유형문화재, 민속분야가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지역사람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문화의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을 바로 알고 지역을 답사하고 마을과 도시가꾸기 사업이 시대적 소명처럼 지역과 문화를 되감기 하고 있다. 지역은 세계와 미래로 향하는 문화발신 기지국이다. 지역에 대한 자부심은 경쟁력의 에너지이며, 숨어 있는 문화 콘텐츠는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다. 자기가 나서 자라고 살아온 텃자리, 삶터에 대한 기초지식은 담고 있어야 한다. 고향에 대한 지식

*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과 정보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자긍심과 공감대 형성으로 세대간 단절을 이어가야 한다.

몇년 전부터 전주의 문화단체와 소장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전주학’에 대한 모색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주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지역학과 전주학에 대한 개념정립에서 범주설정과 방향, 다른나라, 타 도시의 사례까지 논의가 활발했으며 『전주학 연구』책도 창간되었다. 전주학은 전주권 사람들이 지키고 기록하지 않으면 전승할 수 있는 주체가 구성될 수 없다. 그리고 타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높낮이와 검증의 절차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담론 형성을 마치고 각론의 완성도 찾기에 더듬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고 말했듯이 전 국토는 지역이며 지역은 살아있는 풀뿌리이고 문화의 현장이다. 비슷비슷한 도시화 과정은 대한민국을 봉어빵 찍듯 만들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차별성이 사라지려고 하는 마당에 지역의 뿌리찾기는 소중한 것이다. 또한 세계화를 위해서도 내면화된 지역학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지역학이 지역 공동체의 모태이며 지역과 세계를 소통하는 길잡이이다. 유럽을 많이 여행하고 답사한 학자들이나 여행 매니아들은 유럽의 각 도시가 박물관처럼 보존되었거나 그 도시의 서점, 박물관, 도서관, 각종 자료실에는 30~40%가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자료를 수북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부러워했다.

자기 도시에 대한 체계적 자료 파일 수집, 연구로 도시의 층층을 겹겹으로 성곽처럼 쌓고 보존하였다. 도시의 기록 콘텐츠들은 - 오래된 축제, 오페라, 미술사, 인물사 - 왕궁과 공원에서, 광장 및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의 기초자료가 되며 디자인 등 응용분야까지 미래문화를 겨냥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2년이면 수백개의 석사논문이 쏟아지고 4~5년이면 박사 논문이 발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역학이나 그 도시, 마을 관련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의 대학이나 학문 영역에서 지역학은 학문의 교과과정에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학에 대한 연구의 성과도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미흡한 수준이다. 중앙집권적 정치경제는 이러한 풍토를 부채질 하였다. 겨우 문화원에서 향토사 모임이나 지역사 정리수준의 접근과 활동이었다.

최근 4개 대학의 ‘지역학 대학원’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 수업을 진행할 때 향토자료, 고장알기 수준의 지역 교과서 『사회과 탐구』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지역사, 향토 문화의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또는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다”라는 지적이 있고 연구자의 경우 “오류가 너무 많다. 또 어떤 분야는 너무 간소하다”는 비판도 있고 “유명 인물, 알려진 문화유적 중심 등으로 다양성과 현재성이 너무 떨어진다.” 등의 지적은 향후 전주학의 내용, 범주 설정에 경청할 만한 고언이다.

최근 전주학의 논의와 전개는 소장 역사학자 중심으로 연구가 짜여지는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기획 단계나 자료수집, 감수단계에 향토사, 금석문, 미술사, 국문학, 민속 생활사, 그리고 각 대학 박물관, 도서관, 문화단체, 문화원, 향토 연구자, 지리학자 까지를 포괄하는 연구회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끼리끼리 학술풍토의 배타성 때문에 반쪽짜리 전주학은 애시당초 시작되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문화 주권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역학의 내용과 문화자료 지표수준은 빈약하고 열악하다. 사진자료, 사료모음집, 문화유적 전집 등이 베껴지고 반복 간행되었고 표지만 바뀌 성의없이 많이 양산되었다. 지역의 자료도 나열식에서 벗어난 날줄 씨줄의 그물코처럼 촘촘히 연계되고 심층화 될 때 지역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역대상 범

주도 시군 단위에서 면이나 마을이야기로 축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관심사도 넓은 문화사에서 생활사까지, 지역 특성이 특화된 이야기가 더 친근해지고 관심 대상이다.

II. 스토리텔링과 구술사

최근 발간된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사업계획 중 제1권 일제식민시대 구술록은 매우 의미있는 자료이다. 근대 100년사는 일제 하 36년, 해방 정국, 6·25한국전쟁, 산업화 등의 격변 혼란기 시기를 조명하였다. 많은 기록들이 소실, 분실, 폐기되고 많은 공간들은 파괴되고 멸실되어 와전되거나 왜곡되기 쉬운 시간·공간의 사실들을 증언과 채록에 의해 내놓은 것이다.

이 자료집의 구술실록이 나오기까지는 80~90세 전주토박이의 증언과 구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희미한 기억들을 까막 까막 전하는 채록의 증언들은 당시의 시대성과 일상사를 전승하여 주었다.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이나 향토사의 언저리에도 남아 있지 않고 문헌도 없는 절맥의 시대적 생활사를 복원한 것은 수백개의 논문보다 값어치 있는 것으로 구술 증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이제까지 역사책이 연대기 중심의 지배사, 정치, 행정사였다면 또한 ‘신문으로 본 전주’의 기사 모음집처럼 나열식 보도기사가 아니고 역사책이나 신문기사에서 볼 수 없는 그 당시 시대의 생활상과 풍습들을 구술이란 스토리텔링으로 재현한 값진 자료이다. 시골 장터의 인심이 그리움처럼 살아나고 관혼상제 세시풍습이 있는 정서와 오감이 있는 시대의 빗살무늬처럼 생생하였다. 신선하고 흥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였다.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흑백의 무성영화였다.

구술의 전통은 생활과 문화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구술실록처럼 발품을 팔고 힘든 과정을 거친 생활문화적 접근은 전주학의 장르에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주는 역사의 깊이만큼 문화사도 다양하다. 그래서 전주학의 범주는 넓어야 한다. 전주학에서 다루어지고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근대 전주의 도시형성사이다. 도시의 성곽 발달에서 가로망, 주거지 등 도시계획·건축·인구변화 등 도시학 분야로 근대 전주의 공간 구성 이야기이다.

둘째는 옛 지도 지명이 어우러진 마을사이다.

셋째는 설화나 민담, 구수한 전라도사투리, 방언 등 국문학적 분야이다.

넷째는 기록과 출판 분야로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의 해석과 전달이다. 비석, 탁본, 편액 등과 금석문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내는 비문들의 스토리텔링이다.

다섯째는 ‘전주 100년의 풍경’ 사진 모음처럼 각 분야를 테마별로 구성하여 사진 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이며,

여섯째는 시·서·화의 예향으로서 작가나 주요 작품들을 집대성한 예술사적 접근등이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는 자연·생태유산의 접근으로 마을사와 더불어 마을 숲, 고개, 길, 당산나무 등 유·무형의 지리, 풍수분야 등으로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렇듯 전주학이 생활적 공간적 접근으로 지척의 거리처럼 쉽게 다가왔으면 한다. 그래서 다양한 전주학의 자료들이 시립도서관 각종 박물관 초·중·고 도서관 등에서 쉽게 꺼내 읽으면서 전주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놀고, 지역을 배우는 길찾기’ 였으면 한다.

도시는 힘이다. 물리적 기반의 힘과 더불어 소프트한 힘이다. 도시가 강해지고 내용이 풍부할 때 중심도시로서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정신적인 총화이며 문화콘텐츠에서 나오는데 그 바탕이 전주학이다.

III. 다른 지방의 사례

한국의 오래된 도시 부여, 공주, 경주, 안동 그리고 전주 등 이러한 전통 있는 역사·문화 유적도시에서 지역학은 중요하다. 한때는 왕도로서 도시의 힘이 강했었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 수도를 자칭하며 유교문화권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다. 기록문화 콘텐츠인 ‘국학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8년에 걸쳐 ‘목판 10만장 모집운동’을 전개하여 민족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개인·문중·서원 등 소장 목판을 조사·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고서, 고문서, 목판 등 20만여 점의 서지정보 입력을 보완하고 있다.

경주는 세계 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왓트와 자매결연하며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행사와 디지털 버전으로 고대문화의 현대화 과정을 거쳐 세계 속의 경주를 지향하고 있다.

제주도는 15개 박물관, 다양한 전시관, 민속마을보존 등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제주의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알리고 있다. 2003년에는 제주일보사와 제주학회가 공동으로 제주학 학술상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학 학술상 제정 이후 제주도에 대한 연구와 출판물이 매년 20여편이 나올 정도로 제주학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제주학회 회원은 제주에서 학술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육지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즉 전국적 학회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이다.

IV. 맺음말

전주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문화의 측면에서 주목받을 가치가 충분하지만 이에 비해 연구 성과는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역사, 문화, 민속, 예술분야 등 분과학문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개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들을 끌어내어 조직화하고 정례화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전주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주제와 사업을 개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전주학은 과거 · 현재 · 미래가 소통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 대학교, 지역문화단체, 언론사, 국립 · 시립 역사박물관 등이 수평적 협의체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에 전주시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전주학의 발전은 전주의 현재 지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구심이 될 것이다.

도시는 힘이다. 우수한 인적 자원의 소프트한 힘이 에너지화 될 때 전주의 옛 명성은 회복될 것이다. 스토리텔링이 산업화되는 문화의 시대, 이야기가 흐르는 전주 이야기가 흥미있고 재미있을 때 창조산업의 기반이 되는 우수 인력과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한국의 혼이 종자화되어 CD로,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영상화 될 때 이야기 산업의 기반은 전주학이 넓고 깊은 저수지가 될 것이다. 시인의 감수성과 소설가의 풍부한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회경제사로 본 전주정신

소 순 열*

I. 전주의 경제 - 공시성(共時性)과 통시성(通時性)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금성출판사, 2005)를 보면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공업은 한지·부채와 섬유·제지이다. 전주의 경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사회과 부도에서 전주의 주요공업으로 식품·화학·공업·자동차 공업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물산이 풍부했던 전주는 60년대 후반부터 성장의 정체도시로 빠져 들었다(김영정, 1991). 민력(民力)의 가장 대표적인 인구수치만을 보아도 그렇다. 1970년 전국에서 9위였던 전주시가 35년 지난 2005년 15위로 떨어졌다. 시(市)에도 끼지 못했던 안양이 이제 호남제일성인 전주와 인구가 같아졌다(<표 1> 참조).

통계청이 해마다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광공업통계조사라는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2005년 광공업사업체는 378개,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48위이다. 인구가 비슷한 안양보

*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다 4분의 1, 부천보다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전주의 광공업체는 총 사업체의 10%도 채 안 된다. 무려 총사업체의 4분의 3이 도소매·음식·숙박업체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체이다. 여기에다 금융·보험·운수·통신 등의 서비스업체를 넣으면 사업체 가운데 9개가 제3차 서비스업체인 셈이다.

〈표 1〉 전주시의 인구비교

순위	1970년(전국 172개 시군)		순위	2005년(전국 167개 시군)	
	지 역	총인구(천명)		지 역	총인구(천명)
1	서울시	5,433	1	서울시	9,820
2	부산시	1,842	2	부산시	3,524
3	대구시	1,064	3	인천시	2,531
4	인천시	634	4	대구시	2,465
5	광주시	494	5	대전시	1,443
	·	·		·	·
	·	·		·	·
	·	·		·	·
7	삼척군	273	13	안산시	682
8	양주군	245	14	청주시	643
9	전주시	258	15	전주시	623
10	정읍군	254	16	안양시	612
11	서산군	259	17	천안시	522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전주는 서비스산업 위주의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 구조이다. 전주와 인구가 비슷한 마산이나 청주와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체 비중이 무려 10%나 높다. 서비스 산업의 몸집이 전주의 생산활동규모에 비해 너무 비대한 것이다. 농업, 공업생산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적은 도·소매, 숙박, 음식점과 같은 소비자 서비스 산업이 반 이상이다. 전국 전주의 일반 음식점

수와 숙박업체 수는 시군 순위 10등 안에 있을 정도다.

이런 소비자 서비스의 비대화는 지역경제에 전후방으로 효과를 미쳐 가며 확대재생산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농업의 축소, 공업의 위축 내지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어느 신문의 사설처럼 전주의 산업구조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 소비도시형태로 고착화될지 모른다(전북일보, 1999년 8월 9일). 전주의 경제는 확실히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로 내세울 것이 없다. 1940년대(전주부사, 1943)에도 그랬고 60년대에도 그렇다(전주시 건설종합계획기본조사보고서, 1964).

세월이 흘렀는데 전주경제, 전주사정은 여전하다. 경제적으로 전주는 왜 뒤쳐지는 도시가 되었을까. 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 정권의 지역차별정책탓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소외론’으로는 16개 시도 가운데 1인당 지역총생산이 10년 넘게 꼴찌인 대구를 설명하지 못한다. 현재 대구는 섬유, 건설 등 주종 산업이 쇠락하면서 안경테 등 주변을 지탱해 주던 업종도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문제의 상당부분은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라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전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전주경제의 낙후성을 외래적·공시적 조건 즉 정책론적 레벨에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

전주경제의 낙후성을 보다 다잡아 보기 위해서는 내재적, 통시적 조건을 중요시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의 지역에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인 개성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경제·사회·법률·종교 등 여러 문화제영역이 합쳐져야 문화가 형성되며 그 근처에는 이를 관장하는 정신이 있다. 이 때문에 문화 제영역은 각기 고유한 법칙이 있어 상호배타적이기도 하고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정신에 의해 제어 된다. 적어도 경제라는 사상(事象)을 뽑아내어 전주정신의 내재적 통시적 조건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은 일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과학은 단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라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이 정책과의

무매개적인 직결, 자만적인 향토사적 접근 등 과학적 인식결여 문제는 다소 해소될 듯하다.

II. 전주 정신과 경제 - 선비대망론(선비待望論)

정신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초개인적 원리로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어도 전주정신이라면 시대가 바뀌더라도 전주시민(혹은 출신)이 공유하고 있는 주체적이고 독자적이며 자립적인 가치이어야 한다. 전주정신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조건→자원의 부존상태→생산양식→생활양식의 메카니즘을 통해 주체성, 독자성을 가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이른바 ‘풍토론’).

〈표 2〉 전주정신(내지 관련 특징)

출처명	전주 정신(내지 관련 특징)
전북의 길잡이(1929)	교육도시, 교토의 정취
전주부세일반(1941)	순치하고 인정 많고 우아
전북부사(1943)	기력 상실, 늘 낡은 인습
전영래 (뿌리깊은 나무, 1983)	온의 정신, 낙천적이며 평화롭고 다사로움
강준만외 (재미있는 전주 이야기, 2008)	화이부동(和而不同, 화합과 조화의 가치)
김상휘 (전주정신 소설바탕의 의도, 2009)	강하고 올곧은 자존심, 왕도 정신과 선비 정신
장명수 (기조발표, 2009)	저항과 풍류정신

이제까지의 전주정신(내지 관련특징)에 대해 정리하면,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감성적 인식을 제외하고 주로 전주정신은 ‘온의 정신’, ‘왕도정신

과 선비정신, ‘화이부동(和而不同)’, ‘저항과 풍류정신’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선비정신’과 ‘저항과 풍류정신’을 관련시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그것은 기조발표 또한 궁극적으로는 선비정신을 저항(임진왜란 시 의병활동, 전주성 사수)과 풍류(판소리, 음식)의 사상적 원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선비라고 불리우는 계층이 얼마나 되었을까. 한일합방전 전주의 양반호수는 49호로 전체호수의 0.3%, 유생 20호까지 넣어도 0.4%미만에 불과하다. 전주를 선비사회로 일컬어도 좋을 만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만큼의 세력이 아니다(<표 3> 참조). 실제로 작춘 조병희선생은 양반이 아전에게 쫓잡 못하였다고 할 정도이다(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2001). 이를 당시 전국에서 확인해 보면 300호 이상 양반가구호수는 전북 가운데 홍덕군(565호) 하나 군 밖에 없었다. 양반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충남의 경우, 양반호수가 전체 가구 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사회에서 선비는 저항보다는 강학과 후진양성을 택하였다. 간재 전우같은 분은 학자를 양성하면서 학문이 지방사회에 뿌리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자만 해도 3천여 명에 달하였다(김기현, 2008).

〈표 3〉 합방직전 전주의 직업별 구성(1910.5)

직	업	호수(%)	직	업	호수(%)
관	리	97 (0.52)	공	업	225 (1.20)
양	반	49 (0.26)	날	품 팔 이	402 (2.14)
유	생	20 (0.11)	기	타	156 (0.83)
상	업	1,518 (8.08)	무	직	166 (0.88)
농	업	16,161(85.99)	계		18,794(100.0)

* 자료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0.

〈표 4〉 300호 이상 양반가구의 도별 분포(1910.5)

(단위 : 호, %)

지 역	가구수	호별 양반호수
한성부(1부)	1,189 (2.1)	북부(554)
경기도(1군)	1,879 (0.8)	양평군(646)
충청북도(5군)	5,829 (4.5)	제천군(1,890), 연풍군(1,318), 충주군(486), 음성군(347), 단양군(336)
충청남도(18군)	22,481 (10.3)	목천군(2,388), 공주군(2,238), 정산군(2,122), 연산군(1,881), 홍주군(1,828), 대흥군(1,747), 양덕군(1,540), 연기군(1,418), 직산군(1,197), 아산군(1,050), 전의군(647), 천안군(643), 노성군(516), 은진군(491), 청양부(350), 진잠군(344), 덕산군(330), 부여군(321)
전라북도(1군)	2,113 (1.0)	홍덕군(565)
전라남도(1군)	1,723 (0.5)	담양군(322)
경상북도(9군)	13,130 (3.8)	경주군(2,599), 풍기군(2,294), 봉화군(2,213), 영천군(1,526), 순흥군(1,267), 예안군(664), 선산군(473), 장항군(402), 안동군(337)
경상남도(1군)	1,292 (0.4)	밀양군(361)
강원도(2군)	1,790 (1.1)	횡성군(560), 삼척군(462)
함경남도(1군)	865 (0.4)	감산군(415)
합계(1부 39군)	52,293	

* 주 : ()는 각각 해당 부군수, 해당지역 총가구수의 비율, 양반호수임.
자료 : 표 3과 동일.

한말 의병활동이나 3.1운동 때에는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일어났다. 3.1운동 같은 경우 전북은 3월에 1부 14군 중 1부 2군, 4월이 되어도 4군에서 운동이 일어난 것에 불과했다. 당시 관헌자료에서도 ‘몇 군데에서 폭행사태가 일어나거나 교량에 방화하는 일이 있는 외에는 대체로 평온하다’라고 보고하고 있다(조선헌병대 사령부, 1919). 일제시대 전주의 소작쟁의도 1926-39년간 842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제 특히 일본인지주에 대한 정치적 투쟁보다는 경제적 요구가 많았으며 대부분 소작위원회의 조

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것이었다. 저항하기도 보다는 체제속에서 순응하여 경제적 이득을 구하였다.

선비는 오로지 대의를 논해야 되고 세력과 지위에 굽히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나 그 정신은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항일운동은 발현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풍류도 마찬가지이다. 훌륭한 선비는 민중 앞에서 초연해야 했으며 민중이란 따르게 하고 알려서는 안 될 중우(衆愚)에 지나지 않았다(송건호, 2007). 풍류라는 것은 별개의 사회에서 별개의 풍류를 즐기는 사회의 분단적 구조에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선비정신은 삶을 간소하게 하고 풍아(風雅)의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는 것을 참된 인간의 고결한 생활로 여기고 있다. ‘초가에 비가 새고...’라고 할 만큼 빈궁에 태연하다. ‘궁색한 산림이지만 벗이 오면...’과 같이 비세속적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으로서 자격상실이며 구조조정감이다.

최근 한영우 교수는 문화포럼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원칙을 지키며 백성의 삶을 끌어안았고 도덕과 양심을 위해 모든 영광을 미련 없이 포기했던 선비정신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오늘날의 황금만능주의, 사생활 행복주의 속에서 사회 지도적 인사가 저지르는 온갖 부조리, 비리에 대한 반향이다. 선비들은 대의를 위해 왕에게 직언을 하였고 때로는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비정신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의 정신이던 조선의 선비정신은 모두 사라졌다.

III. 전주정신의 지향점 - 전통과 현대를 함께하는 신(新) 화이부동정신

조선의 선비정신은 전주에서도 정신적 기반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그 원인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윤리(Protestant Ethic)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윤리적 전환을 했다. 단순한 영리욕이 아니라 영리추구가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윤리적인 선 및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하였다. 종래 상업과 노동이 천시되었던 사상에 비하면 대전환이다. 왜 전주는 선비정신이 지닌 교육열,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 자기 절제, 통합적 인문교양 등을 전주라는 그릇에 못 담았을까.

나는 나름대로 담아왔다고 생각한다. 전주가 전주의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계층과 계층, 지역과 지역을 담아왔다. 뜻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화목할 수 있게 지내는 포용력을 갖고 있다. 화이부동이 표방하는 화합과 조화의 가치는 전주의 대표음식이라 할 비빔밥에서 잘 드러난다(강준만, 2008).

나는 이런 가치가 경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쉬어야 아름답고, 쉬어야 강해지고, 쉬어야 살아남는다. 학계, 기업, 사회가 함께 쉬어야 한다’(최재천교수). 일하는 곳에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는 법이다. 지역에 힘이 있나 없나는 경제력에 달려있고, 경제력은 곧 경제 활동을 해 나가는 산업의 힘이다.

전주시의 일인당 총생산이 얼마인지, 전국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 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다. 전주시가 울산시와 함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운동을 벌일 때,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전주직할시 승격추진위원회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한 기본구상’ 1994년). 이 보고서에 의해 전주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다. 1991년 전주의 지역 총생산은 1,737억원. 그 당시 현대그룹 전체 자산액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전주의 1인당 총생산은 3,360천원으로 전국 평균의 86%에 불과하다. 전주의 경제력은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따라 잡지 못한다.

흔히 전북을 3%경제라고 한다. 전북이 전국에서 고용·금융·수출·조세 등 차지하는 비중이 3%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전북도내에서

전주의 비중을 따져 보면 전주의 경제력은 단연 으뜸이다. 전주는 면적으로 따져서 불과 3%의 면적도 채 안된다. 그런데 전주에 전북 전체 인구의 30%가 모여 산다. 전북 전체에서 20%이상 수출하고, 예금액과 국세비중은 각각 62%, 53%를 차지한다.

서울에 가서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더라도 전북 안에서는 땀땀거리지는 세도가이다. 더욱이 큰 문제는 가면 갈수록 전북의 경제력이 전주에 집중되어가고 다른 도내 시·군지역과의 격차가 커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가 형님노릇을 제대로 해야 전북이 고루게 잘 산다라는 이야기이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만들 때부터 일본 가나자와시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다. 가나자와에게 배울 것은 문화만이 아니라 지역자원을 고도로 관리해가면서 내향화해 가는 내적·연관적 산업발전이다. 가나자와는 전통적인 직물업을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독특한 산지기구의 형성과 관련하여 발전시키고(면→면면→섬유직물로 전환), 염색업, 기계, 금융산업을 육성시켰다. 그 결과 중견 중소기업과 기업의 본사기능이 집적됨과 동시에 금융기능, 도매기능, 서비스업, 인쇄업 등 다양한 본사관련 기능산업이 모여들었다. 이로 인해 전통문화, 자연을 중시하는 의식이 높아져 문화도시로서 성장 발전한 ‘산업도시’, ‘문화도시’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임해부에 철강, 섬유, 화학 등 외래기업을 유치하여 신산업도시 건설의 우등생으로 커졌던 오이타시는 단순한 ‘공장도시’로 되었다. 더구나 오이타시는 해외원료를 사용하여 소재제품을 생산하고 지역에서 가공하지 않는 수출용 공업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지역 내 순환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고용효과도 적고, 소득수준도 낮은 외래기업의 ‘생산현장도시’가 되었던 것이다. 40여년이 지난 뒤 오이타는 인구, 고용, 판매, 소득, 금융 등 모든 면에서 가나자와에게 뒤떨어지고 있다(<표 5> 참조). 이를 지역경제학에서는 외래적 개발과 내발적 개발이라고 부른다.

〈표 5〉 가나자와시와 오이타시(2003)

구 분	단위	가나자와시(金澤市)	오이타시(大分市)
인 구	만명	47.1	43.9
세 출	억원	1,986	1,521
소 매 판 매 액	억원	5,897	5,197
종 사 자 수	천명	26.8	21.7
은 행 예 금 잔 고	백억	21.9	14.7
과 세 대 상 소 득	만원	353.8	341.3

* 자료 : 東洋經濟(2004.5)

가나자와의 지속적인 성장비결은 대기업이나 중앙정부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고 지역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 내 시장발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메이지유신 이래 가나자와의 쇠퇴를 우려하고 재생을 구하는 의식 있는 경제인, 지역주민, 행정의 결합이 내발적 발전의 기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전주는 과거 천년의 자존심을 미래 천년의 자존심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전통과 현대가 함께 하는 신 산업도시’로 갈려고 하고 있다. 그 핵심은 5대 역동산업(한스타일,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이다. 이를 이루어 내려면 기업, 공급업자, 관련산업, 전문화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여야 한다. 모여서 협조와 경쟁을 통해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을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여야 한다. 각 행위주체 들끼리 가치사슬화(value-chain)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섞어서 만드는 신화(新和而不同) 정신이 필요하다.

전주정신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송 화 섭*

I. 기질이 정신의 본성인가

오늘날 정치구도를 본다면 경상도와 전라도는 본성이 다른 듯 하다. 경상도는 한나라당을 선호하고 전라도는 민주당을 선호한다. 풍년으로 인한 추곡수매가격 하락에 대한 투쟁도 두 지역이 조금 다르다. 전라도 농민들은 트랙터로 추수할 벼를 통째로 갈아파서 잊어버리는가 하면, 수확한 벼 가마니를 관공사 앞에 쌓아놓고 시위와 투쟁을 벌이는 매우 적극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경상도 농민들은 비교적 추곡수매가 조정에 대한 집단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러한 행동방식은 그 지역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른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 나온다고 본다. 본성은 사람의 심성에서 나온다. 심성은 마음의 성격을 말하고, 마음은 정신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표현된다.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의 심성이 다른 것은 종교 성향에서도 뚜렷하

* 전주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 교수

다.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불교신자들이 많고, 전통적으로 사찰이 더 번창하는데 비하여, 전라도에서는 그리스도교(천주교·기독교)의 신도들이 많고, 인구수에 비례하여 교회의 숫자가 경상도에 비하여 훨씬 많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불교사상의 구도를 놓고 본다면, 통일신라시대에 경상도는 화엄사상을 중시했던 땅이라면, 전라도는 미륵의 땅이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미륵신앙과 사상을 선호하였음은 익산의 미륵사계 사찰과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심성은 불교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지역민들의 정서와 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와같은 심성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심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발표자는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기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첫 번째는 자연지리적 환경이요,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며, 세 번째는 인문적 환경이 작용하여 생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다. 광주 중심의 전남사람과 전주중심의 전북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남원사람들이 다르고 정읍사람도 다르고 부안사람들의 기질도 제 각각이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기질 차이는 사람들이 사는 자연환경, 즉 지리·지형이 다른데서 기인하는게 아닌가 한다. 기질이 다르면 문화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조선후기에 전라도를 자연환경의 기준에 따라 좌도와 우도로 구분한 바 있다. 좌도는 산간지방이고 우도는 평야지방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는 좌도에 속하고, 정읍·고창·부안·김제·완주·익산·군산은 우도에 속한다. 쉽게 구분한다면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이 확연하게 다르다. 좌도소리 다르고 우도소리가 다른 것은 제일 중요한 기준은 그 땅과 산세와 물길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속에서 일개의 사건과 제도를 정신과 연

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화랑제도는 통일신라에서 창안된 것이고, 동학사상은 경상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것이다. 화랑의 세속오계는 일종의 교육 규범이지 오늘날 경상도 사람들의 정신과 연계시킬수 있는 것인가는 의문이 간다. 또한 동학을 사도라 하여 최제우가 처형되었는데, 최제우의 신원운동을 앞장서서 집단행동을 한 주체가 전라북도 사람들이다. 동학도 모르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무리지어 동학정신을 선호한 것이다. 전라도 농민들이 최제우를 좋아해서 신원운동을 벌인게 아니라 동학의 정신세계를 선호한 탓에 집단행동으로 옮겼다고 본다. 수운동학은 종교의 사상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논리가 농민들의 마음(심성)을 사로잡은게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수운동학을 농민동학으로 바꿔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평야지대의 농민들이다. 동학이 전라도에서 와서 평야지대의 농민층에서 급속하게 확산된 것도 혁명적인 기운이라기 보다는 농민들이 이상세계와 합치되는 면이 있었기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고 본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농민들의 정신, 심성을 들여다보는데 흐릿하게 만드는 요인은 아닐까.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전주성을 방어하고 왕조실록과 어진을 이안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 거기에서 저항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왕조실록을 보존하려 했던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어진 이안은 어진각이 전주에 있었기에 국가의 존엄과 관련된 것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책무였을 것이다.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모두가 의병으로 나서야 할 상황이었다. 농민들 뿐만 아니라 글방에서 선비들이 뛰쳐나오고, 산 속에서 수행하는 승려들까지 모조리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은 전주만의 사건은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양란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태극기를 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구국운동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가져야 할 필연적인 민족의

식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명수 선생님의 발표문에 나오는 “전주정신”에서 “저항 정신”을 언급한 것은 전주사람들의 심성을 읽어내는데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풍류정신을 이야기 하면서 판소리와 전주대사습놀이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소리문화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대사습에서 사습(射習)은 활쏘기를 말하는데서 유래된 용어이지 소리사습의 용어는 문헌과 사전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현재로 볼 때, 전주대사습놀이는 명창들의 잔치마당이지 풍류를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따라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서 찾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

II. 지리인성론의 관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여 각 고을마다 사람들의 기질이 지리, 지세에 따라 다른 것을 기술해놓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전국 팔도의 지세와 지리, 지형 등을 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성이 다르다는 「地理人性論」의 논리를 펴왔다. 이러한 논리는 학자마다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것으로 믿을 것은 못되지만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본다. 성호 이익과 청담 이중환의 전라도 인성론을 엿보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전라도는 산수가 모두 산발체(散髮體)를 이루면서 흩어져 나가 국면을 이루지 못하므로, 그 지방에는 재주와 덕행이 드물고 인정도 고약하다 하였다.”고 하였고,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라도의 풍속이 노래와 여색, 부(富)함과 사치를 숭상하고 사람들이 흔히 영리하고 경박하며, 기교를 다하여 문학을 중요시하지 않는 까닭에 과거급제에 현달한 자는 경상도에 비해 떨어진다.”라 하였다. 전라도 사람들이 과연 그런한가는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다만 자연환경의 조건에 따라 자연의 조화와 기운이 사람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 심성이 기질일 것이다. 자연의 지세와 땅의 기운이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 고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 들, 바다는 자연지리적 환경이 다르다. 농촌과 산촌, 어촌이 다르고, 도시와 농촌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연지리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지리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생활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살면서 자연지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이 지리인성론일 것이다.

III. 전주 정신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전주정신은 전주고을에서 찾아야 하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읽어내야 한다.

전주의 한글 표기는 ‘온고을’이다. 전주의 옛지명은 「完山州」이다. 통일신라 시기의 온고을이라 불려오고 있는 것이다. 완산주를 한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산세가 완비된 고을」 「산세가 온전한 고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산세가 완비되었음은 사람살기에 좋은 산세를 갖추었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전주의 지리는 우선 배역이다. 전주천이 남동출하여 북서류하는 지세이다. 한마디로 풍수지리적으로 본다면,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전주다. 물이 흘러 빠지는 북서쪽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하고 제방을 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진 곳도 전주다. 풍수지리적으로 불완전한 자연지리를 보완하여 좋은 고을로 만든 곳이 전주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고, 그릇지형처럼 분지형을 갖춘 곳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고요한 늪과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지형지리를 갖추고 있다.

전주라는 공간속에서 작은 마을들이 태동하여 성장, 결합하여 전주가 되고, 완산주가 되었다고 본다. 전주가 역사속에서 도시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이후 후백제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후백제라는 왕조가 전주에 들어섰기 때문에 도성이 조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관아시설도 들어서며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도시도 조성되었을 것이다. 작은 마을들이 큰마을로 전환되면서 전주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전주를 가꾸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전주의 중심은 전주읍성이었고(오늘날도 같은 곳), 전주 읍성은 남향으로 공간질서를 갖추어 자연지세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산지도성이 평지도성으로 전환되면서 전주 읍성은 조선초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중양동(풍남문) 시대의 도시중심은 조선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언제부터인지 전주사람들은 전주읍성을 둘러싼 전주의 산세에 이름을 붙여 놓았다. 사찰명 앞에 산의 이름을 붙이듯이, 전주읍성을 둘러싼 산에 명칭을 붙인 것은 전주사람들이 전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진산을 두고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도 있지만, 18세기 고지도에 전주읍성을 둘러싼 지명은 성황봉, 기린봉, 도솔봉, 건지산, 곤지산, 화산(태극산), 완산, 다가산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지명을 그냥 붙여놓은 것은 아닐 것이며, 오랫동안 이러한 자연지리적 산세에 둘러쌓여 살아온 사람들이 제각각 의미를 부여하여 산의 지명을 붙였을 것이다. 이 지명에는 도교적, 불교적, 유교적인 명칭이 모두 들어있고, 산이 위치한 방위에 따라, 자연지리적 여건에 따라 산의 지명을 붙여놓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산의 지명에 전주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도솔봉은 전주를 도솔천의 세계로 인식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전주의 읍성을 내원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완산지』에는 전주에 사면석불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전주에서 사면석불로 추정하는 석불이 모두 미륵전에 미륵불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도솔봉

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불교가 발달했던 시기에 전주사람들은 전주를 미륵불국정토세계로 조성하려 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역사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진다. 산세와 산의 명칭에서 조선시대에 살았던 전주사람들의 정신세계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전주사람들이 생활속에서 생성되거나 의례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것이 산의 지명이라고 본다. 사고사찰로 추정된 전주의 진북사도 내면을 들여다 보면 북쪽을 진호하는 사찰로서 비보적인 성격이 강하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건도 아닐 것이다. 전주정신은 전주라는 공간에서 읽어내야 하는데, 완산주라는 지명이 생겨난 이후에 천년동안 전주에서 온고을을 지향하려는 다양한 문화구도가 겹겹이 장치되어 왔으며, 그 문화의 층위가 전주정신의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고 본다. 전주정신을 언급하려면 이러한 전주정신의 사상적 토대를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한다. 전주사람들이 어떠한 유형의 온전한 고을을 조성하려고 했는지에 천착하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

전주정신, 넉넉함과 포용력

이 동 희*

I. 전주정신, ‘저항과 풍류’에 대한 견해

최명희는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을 지닌 “저항과 풍류”의 도시라고 하였다. 꽃심은 싹을 띄워내는 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한다. 『혼불』에서 관련 대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백안(白眼)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根)이 깊은 목의 가지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내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외의 갖은 방법을 다하게 했다.”(최명희, 『혼불』 8권)

“어쩌면 〈저항과 풍류〉 이 두가지는 아주 상반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 가진 자는 저항하지 않으며, 억울할 일이 없는 자, 혹은 세상

*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을 거머쥐려는 욕망으로 들끓는 사람의 검붉고 길쭉한 혈관에는 풍류가 깃들지 못한다. 풍류는 빈자리에 고이고, 빈자리에서 우러나며, 비켜 선 언덕의 서늘한 바람달이 이만큼에서 멀리 앓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면 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둘은 한 바탕 한 뿌리에 서 뻗은 두 가쟁이다.”(최명희, 『혼불』 4권)

오늘 기조발제문에서도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 놓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토론자도 기본적으로 전주정신을 저항과 풍류에서 찾는 취지에 동의 한다. 다만 저항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담은 ‘변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견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이를 승화한 새 세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토론자는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 풍패지향에 주목하여 자긍심과 전통을 이어가려는 전주정신을 언급한 적이 있고, 변혁과 예향이라는 관점에서 전주의 특질을 논한 적이 있다.¹⁾

그런데 토론자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전주 정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전주정신에 변혁과 풍류, 자긍심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를 가능케 한 근원적인 전주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용력 있는 넉넉함에서 전주 정신의 토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넉넉함에서 오는 포용의 정신, 그것은 어머니와 같은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토론자는 다소 두서없고, 막연하지만 이런 시각의 전주정신을 언급해 전주정신을 정립해 가는 하나의 논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이동희, 「조선왕조의 발상지로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 『전주의 정체성』(전라문화총서 12), 신아, 2004. 이 글은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2000)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 이동희,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과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전주역사박물관 개관기념학술대회자료집), 2002.

II. 전주의 역사문화적 특질과 정신

전주의 특질을 이야기할 때 농경문화와, 그 안에서 조선제일의 비옥한 땅 호남의 수도가 전주였다는 사실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는 20세기 산업사회가 도래하기 전까지 농경사회로 농경문화의 특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농경사회에서 비옥한 땅으로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곳이 전라도요 전주이다. 물론 이것은 타 지역과 비교선상의 이야기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넉넉함을 전주가 지녔다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1/3이 전라도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전라도와 전주의 경제력을 짐작케 한다. 전주와 호남의 문화에는 이런 경제력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정신은 경제적 넉넉함에 기반하고 있다.

전주는 이러한 경제력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 체제에 들어와 주가 설치되어 익산을 대신해 전북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어 후삼국시대에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후백제의 왕도로 자리하였다. 조선시대에 전주는 건국자 태조 이성계의 본향으로 조선왕조의 발상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더불어 오늘날의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제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이 설치되어 호남제일성이 되었다. 현재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다. 이렇게 볼 때 전주는 통일신라 이래 중심도시로서 역사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특질을 지닌다고 하겠다. 전주의 기품은 이런 전통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중심도시로서의 오랜 역사가 전주사람들에게 자긍심과 넉넉함을 가져다주었으며, 기품있는 전주·전주인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또한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근래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을 표방하고 있지만, 전주야말로 전통적인 예

향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영남과 호남을 비교할 때, 호남은 예술이 발전했다고 생각되며, 그 호남의 중심이 전주이다. 전주는 문화적 역량으로 볼 때 한양과 함께 조선의 문화예술을 선도해 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계무형문화로 등재된 소리가 그렇고, 빼어난 음식 문화가 그러하며 춘향전·심청전 등 완판본을 중심으로 한 기록문화가 그렇다. 이런 문화예술 또한 전주의 경제력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전주인의 넉넉한 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전주는 또 임진왜란 등 국난극복에도 앞장섰고, 반상의 차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으며, 만인 평등의 새로운 사상이자 종교인 천주교의 만개지이기도 하다. 전주와 전라도는 왜란의 와중에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냈고, 조선제일의 옥토 호남을 지켜내 7년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반이 되었다. 왜란 직전 정여립사건으로 전라도가 축발이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때 왜란 극복의 주역으로 전주와 전라도가 자리했다는 것은 꺾박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전라도의 도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정을 표출한 것이며, 천주교의 만개는 배타적이지 않은 전주의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III. 전주정신의 근원, 넉넉함과 포용력

그러면 이런 전주의 역사적 특질을 관통해 주는 전주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넉넉함과 포용력이라고 생각한다. 전주의 역사문화는 곧 전주가 타자를 받아들이 줄 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잉태해 내는 넉넉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주의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이 전주사람들에게 넉넉함을 가져다 주었고, 이런 넉넉함이 전주를 전통의

기품있는 도시로 만들었고, 풍류의 문화예술을 꽃피웠으며, 국난극복과 새 세상에 대한 열정이 강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날 전주가 외형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어머니 같은 아늑하고 포근한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주는 중심도시로서의 정치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야 되었다. 그것이 최명희의 표현대로라면 꽃심을 지녔기 때문이며, 토론자의 표현대로라면 전주의 넉넉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전주의 넉넉함은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 자체가 위협이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이래 후백제와 풍수를 내세워 전주와 전라도를 인심이 사나운 곳으로 몰아붙였고, 이런 인식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 지역패권주의에도 연계되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주는 넉넉함과 포용의 정신을 계승해 왔다. 그러기에 넉넉함의 전주정신이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넉넉한 도시 전주, 그것이 전주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 전주라고 호칭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하고 좋은 곳이 전주라고 생각되며, 그 안에 전주정신이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 전주가 이런 정신을 정립하고 계승하여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며, 화해와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전주사람 같다’ ‘전주것 같다’ ‘전주답다’는 등의 이미지가 무엇이고, 그 이미지에 담긴 전주정신이 무엇인지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전주정신의 근원은

이 상 균*

I. 들어가며

근래에 들어 지역학의 열기와 함께 지역에 있는 도시도 나름대로 색깔을 찾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전북학이란 용어와 함께 전주학이란 명칭도 이제는 익숙해져가고 있고, 전주학의 큰 범주 내에서 전주정신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에도 ‘전주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심포지움이 열렸으며, 오늘날의 심포지움도 전주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주정신을 논할 때 조선왕조의 본향, 임진왜란시의 의병활동, 정여립 사건, 동학농민혁명, 한지와 출판, 판소리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오늘날의 발제에서도 임진왜란의 구국항쟁, 동학혁명의 발원지, 대사습놀이 등 조선시대가 전주정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현재에도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고, 전주정신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역사문화콘텐츠전공 교수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 전주정신과 관련된 이미지는 없는가. 또한 전주정신의 주체인 전주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가, 전주정신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소박한 의문들이 제기될 법도하다. 따라서 오늘의 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사시대 전주사람들의 흔적

1. 구석기시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전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3만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송천동 와룡리 전주천변의 구릉사면에서 처음으로 후기구석기시대의 석핵, 꺾개, 밀개, 톱니석기, 스펀베찌르개, 송곳 등의 다양한 석기가 채집되었고, 송천동 사근리 유적조사에서도 세석핵, 밀개, 격지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근래에는 삼천천이 바라다 보이는 효자동 봉곡 I 구역의 낮은 구릉에서도 스펀베찌르개, 꺾개, 밀개, 격지 등 많은 양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전주에서 살았던 구석기인들은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낮은 구릉지역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었으며, 출토되는 유물의 성격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토되는 후기구석기의 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신석기시대

전주에서 후기구석기인들이 신석기시대로 이행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신석기시대가 되면 전주에 일시 공백기가 있었으나, 4천년전을 전후한 신석기시대 후기 정도의 시기에 전주에 다시 신석기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의 구릉에 위치한 장동유적

에서 신석기시대의 수혈유구가 조사되었고, 서부신시가지 일환으로 조사된 효자동 4지구에서 주거지와 함께 빗살문양토기가 상당량 출토되기도 하였다. 유적의 규모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적은 인원이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동기시대

전주에 영주하면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한 시기는 청동기시대부터이다. 청동기인들은 삼천천과 전주천변의 넓은 옥토를 배후한 구릉지대에 취락을 이루며 생활하였다. 이 시기는 청동의 유입과 함께,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농경이 생산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다.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유적은 신석기시대에 소량으로 조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취락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거지는 효자택지 4지구에서 17기, 송천동2가 유적에서 16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성곡B, 여의동, 평화동에서 조사되어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다. 전주 지역의 곳곳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묘제는 토광묘, 지석묘, 석관묘 등이 존재한다. 토광묘는 여의동, 송천동, 완주 갈동, 상운리유적에서 확인되었고, 지석묘는 우아동, 호성동 봉암, 만성동, 여의동, 우아동, 원당동, 중인동 원중인, 완주 상운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석곽묘는 여의동유적에서 조사되었으며, 석관묘는 송천동, 완주 상운리유적에서 조사되었다.

출토된 주요유물로는 효자택지 4지구에서 출토된 동검, 동경, 관옥 등이 있다. 전북지역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청동유물은 동경의 경우에는 익산 다송리, 평장리, 오금산, 전주 여의동, 장수 남양리유적이 있으며, 세형동검은 익산 오금산, 신동리, 평장리, 장수 남양리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다.

4. 원삼국시대

철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남부지방에서는 삼한이 성립되었다. 그중에서도 전주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된다. 마한은 목지국을 중심으로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북 지역에는 10여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주지역은 이병도 선생에 의해 不斯瀆耶國으로 비정되고 있고, 전영래 선생은 爰池國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전주지역에서 마한과 관련한 유적 중 주거지가 66기나 출토된 취락유적이 존재한 송천동유적과 주거지 100여기와 분묘가 출토된 익산 사덕유적이 마한 소국 중 하나의 후보지가 될 수도 있다. 마한은 4세기 중후반에 멸망하나 완주 상운리나 익산 사덕유적에서는 5세기대 이후까지도 마한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마한의 주거지는 송천동유적에서 66기가 조사된 것을 비롯하여, 성곡 B, 여의동, 평화동 등에서도 조사되었다. 주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방형 내지 장방형이며, 4주식의 기둥에 벽구, 배수시설, 화덕자리, 칸막이시설 등이 있는 구조이다. 특히 송천동 9호주거지에서는 15개체분이 넘는 각종 토기가 군집된 상태로 출토되어 당시에 사용하는 토기의 종류 및 용도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4기의 주거지에서는 탄화미, 콩류의 곡물이 출토되어 당시의 식생활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송천동유적에서는 주거 이외에도 저장구덩이인 수혈유구, 토기공방, 토기가마, 고상가옥, 광장 등이 있는 대규모의 취락이 조사되었으며, 주거의 형태, 규모, 배치, 유물출토의 양상에서 마한의 생활과 문화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판단된다.

수혈유구는 송천동유적에서 23기, 평화동유적에서 26기가 조사되었으며, 이들 유구는 저장구덩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구상유구가 송천동유적에서 5기, 마전유적에서 6기가 조사되었다. 송천동유적에서는

토기가마와 공방이 조사되었으며, 평화동유적에서도 토기가마가 조사되었다. 묘제는 효자동유적에서 토광묘, 마전유적에서 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5. 백제시대

삼국시대의 백제 주거유적은 마전유적에서 1기, 여매유적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백제의 묘제로는 횡혈식석실묘, 토광묘, 석곽묘, 화장묘 등이 있다. 횡혈식석실묘는 마전유적에서 3기, 효자 4지구에서 4기를 비롯하여 여의동, 덕진동, 평화동고분이 있다. 횡혈식석실묘는 판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시기와 구조에 있어서는 백제 후기의 석실분과 상통하고 있다. 횡구식석곽묘는 서곡, 평화동유적에서 조사되었으며, 횡혈식석실묘가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묘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외에도 토광묘는 봉곡유적에서, 석곽묘는 마전과 원당리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원당리에서는 수혈식의 내부에서 광구호, 철검, 철부 등 5세기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화장묘는 중화산동의 산 정상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사용된 뼈단지로 보아 6세기 중반으로 보인다. 수혈유구는 여매유적의 51기를 비롯하여 성곡B 11기, 평화동유적 등에서도 조사되었다. 군산 내흥동유적에서도 출토되어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II.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

고고학 조사의 성과에 따라 근래에는 마한의 지배자가 사용한 무기, 토기의 양식,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등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마한 특별전에서도 그 위용과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취락유적과 분묘유적이 조사되면서 철제무

기인 환두대도, 토기, 마구, 장신구 등 위세품에서부터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마한과 관련된 주요 유적은 군산 관원리, 익산 읍촌리, 익산 영등동, 익산 사덕, 완주 상운리, 전주 송천동유적이 있으며, 이중에 전주와 연관된 유적은 송천동과 완주 상운리, 익산 사덕유적을 들 수 있다. 최몽룡 교수에 의하면 마한의 중심세력이 백제의 공주 천도 이후에는 익산 영등동, 전주 송천동, 남원 세전리, 정읍 신정동 일대로 이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한의 변천을 한성-익산-나주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백제의 영향이 적게 미치는 시기의 마한세력은 백제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주에서 성장한 마한세력은 4세기경에 백제가 금강유역으로 남하하면서 점차로 백제에 편입되는데, 완주 상운리의 분구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양상에서 보면,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익산 사덕유적에서도 4세기 이후에 토착문화에 백제문화가 유입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완주 상운리유적은 소양천을 사이에 두고 전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주 송천동유적과는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확인된 유구는 가-1지구에서 총 8기의 분구와 매장주체부(토광묘 43기, 옹관묘 17기)가 조사되었고, 그 외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지석묘 1기, 석관묘 1기, 삼국시대 와관묘 1기, 고려시대 횡구식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다. 가-2지구에서는 4기의 분구가 확인되었고, 그 중 1호 분구묘에서 매장주체부(토광묘 6기, 옹관묘 수기)가 확인되고 있다. 그 외 수혈 유구 5기 및 굴립주 건물지의 주공으로 추정되는 수혈이 총 45기가 있으며, 구릉의 북사면과 동남사면에서 청동기시대 및 원삼국시대 주거지군이 존재하고 있다. 나 지구에서는 분구가 확인되는 분구묘가 11기 확인되었고, 주위로 토광묘 42기, 옹관묘 14기가 조사되었다. 그 외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석곽묘 5기가

확인되었다. 마한의 분구묘는 충청, 전라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상운리의 분구묘는 수장급이라 할 수 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99점, 환두대도 및 대도 15점, 철정 11점, 철부 23점에 이르며, 옥류는 1,640여점에 달한다. 출토된 유물은 백제의 위세품과 토기, 마구류, 농기구류 등이 부장품으로 출토되어, 마한과 백제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단야구와 관련된 공구류가 많이 출토되어 철기생산과 관련된 집단이 문헌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4세기 중반~5세기 말까지로 추정되며, 이는 4세기 중후반경 전북지역의 마한세력이 백제에 병합된 후에도 마한세력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향후 마한과 백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익산 사덕유적은 만경강 상류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익산에 속하지만 완주 상운리와 전주 송천동유적과 근거리에 접하고 있어, 마한 유적의 비교자료로 주목되는 곳이다. 사덕유적에서는 100여기 이상의 주거지와 수혈이 조사되었고, 토기가마 4기, 분묘 31기가 조사되었다. 이 유적은 전주 송천동유적보다도 규모가 큰 대규모 복합취락유적으로, 조성 시기는 4~7세기경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시간적 전개 과정에 따른 마한의 토착문화에 백제문화가 유입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분묘에 있어서는 완주 상운리와도 유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 마전 분구묘에서는 백제의 수혈식석곽묘가 확인되고, 부장품도 백제토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이후가 되면 전주 지역의 마한도 백제로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IV. 조선시대 이전의 전주정신은?

근래에 전주시가 추구하는 천년 전주의 의미는 전주가 한때 후백제의 도읍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전주시가 유구한 역사에 대하여 자

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약 1000년전에 견훤이 내걸었던 정신은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에서 백제의 중심은 익산 금마에 있었으며, 백제의 멸망 후 신라는 보덕국을 세워 백제세력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신라 신문왕 5년(685)에는 새로운 9주 5소경의 지방편제로 전북의 중심도시가 전주와 남원으로 옮겨졌다. 견훤은 900년 무진주에서 전주로 진출하면서 국가체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의 국호, 백제왕의 칭호를 사용하며 위세를 떨쳤다. 『三國史記』 권 제50 열전 제10 견훤조에, 견훤은 고조선, 마한, 백제의 계승인식을 강하게 표명하였으며, 백제가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백제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주에서 백제를 부흥시켜 의자왕의 원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삼국 통일의 의지를 굳건히 다졌다. 이렇듯 전주 사람들은 신라의 압박에도 좌절하지 않고, 백제정신을 지켜내 후백제를 건국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후백제의 백제정신이 고려,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전주가 한때는 후삼국통일 각축의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의 전주정신 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백제정신을 정립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V. 전주정신의 근원은?

상술하였듯이 통일신라 이후에 전북의 중심이 전주로 옮겨 왔지만, 전북에서의 백제의 중심은 금마지역이었다. 이러한 백제도 이른 시기에는 마한의 연맹체에 속해 있었으며, 마한의 영향 하에 성장하였다. 또한 견훤은 삼국사기에서 고조선, 마한, 백제의 계승인식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상에서는 백제로의 계승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고

고학 자료에서는 고조선(청동기시대)에서 마한,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원주 상운리유적의 분구묘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보면, 5세기대까지도 마한의 문화가 지속되었고, 익산 사덕유적에서도 마한 세력의 문화가 백제에 문화에 흡수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전주에는 백제유적이 곳곳에서 조사되고 있고,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전주에 백제시대의 집단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백제시기에는 익산의 금마가 전북의 중심이었지만 백제 멸망 이후 그 중심세력은 금마에서 전주로 옮겨지게 된다. 백제정신의 한 축이 후백제 건환과 관련이 있다면, 적어도 전주의 근원은 마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문헌상에 나타나는 마한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주 송천동유적은 마한 소국 중 한곳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오늘의 발제에서 장명수 총장께서 언급하신 상고시대의 홍익정신을 고조선(청동기시대)까지 올려본다면, 전주에서도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니만큼, 전주정신의 근원을 청동기시대까지 올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주 송천동 2가 유적에서 16기, 효자동 4지구에서 17기의 주거지가 있는 큰 규모의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하였고, 전주의 전역에서 묘제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전주에는 농경에 기반을 둔 청동기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철기의 유입과 함께 농경을 배경으로 점차 마한 소국의 일환으로 성장하여 갔다. 따라서 전주의 역사, 전주의 정신을 논할 때에 그 근원을 마한 시기는 물론, 청동기시대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음식과 소리, 그리고 한옥마을을 통해 본 전주정신

이 종 민*

I. 완전을 향한 정성 - 비빔밥 그 혼융(混融 혹은 渾融)의 미학(味學 혹은 美學)

전주는 ‘완전’을 꿈꾸어왔다. 옛 이름 ‘완산주’의 첫 글자와 현 이름의 첫 글자 모두가 온전함 혹은 완벽함을 뜻하며 그것을 모으면 ‘완전’이 된다. 애초에 도시를 만들어나가면서 사방에 신령스러운 네 동물, 기린과 봉황, 용, 그리고 거북을 배치한 것에서도 이 꿈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사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도 이 도시의 동서남북에는 이를 굳게 지켜줄 절(固寺)이 자리를 하게 되며, 근래에 이르러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는 또다시 수호의 동, 서, 남, 북문 교회가 세워진다. 재난을 막아 ‘완전의 땅’으로 만들려는 기획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예들이다.

*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위원장

지금도 전주에서는 ‘완전’을 꿈꾼다. 판소리나 산조가 예술적 완벽성을 피하는 것도 전주에서의 일이다. 온전한 몸을 위하여 한방이 성하고 한지 공예가 공예 이상을 꿈꾸며 비상하려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전통문화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도, 생태와 환경 그리고 삶의 질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대안적 삶, 공동체를 상실하면서 잃어버린 온전한 삶의 형태를 되살리려는 노력과 패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 전형적인 예가 전주비빔밥이다.

비빔밥은 일종의 간편식이다. 궁중에서도 비빔은 점심 혹은 종친들이 입궐했을 때 수라 대신으로 이용했던 가벼운 식사였다. 농번기 농경문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에서도 이러한 특색은 확인되며, 군사문화나 사찰문화, 의례문화 등과 연계된 태생설도 이러한 조리의 편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비빔밥의 특징은 이러한 탄생의 배경과 멀리 떨어져 있다. ‘완전’을 꿈꾸는 전주에서는 비빔밥에서도 ‘대충’을 용납하지 못한다. 적어도 조리과정에서는 그렇다. 1968년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조사한 전주비빔밥 조리법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물이 아닌 사골국물에 밥을 짓는 것이나 밥이 한 물 넘으면 콩나물을 넣고 뜸을 들인 후 따듯할 때 참기름으로 무친다는 대목에서도 조리의 간편성과는 거리가 먼 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숙주나 미나리, 고사리 등도 나름의 특성을 살려 각기 따로 조리하며 색상까지 고려하여 노란 청포묵과 오방색의 화려한 고명을 고집하는 데서는 투철한 장인의식마저 느끼게 된다.

핵심은 정성이다. 철분이 풍부한 전주콩나물만 고집하는 등 조리재료의 선택에서도 ‘완전’을 향한 정성은 확인된다. 최근 들어 색깔별로 나뭇잎을 배치한 후 중앙에 빨간 고추장을 떠놓고 그 위를 계란 노른자로 장식하는 모습은 화룡점정(畵龍點睛)의 숙연함까지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전주비빔밥에는 ‘원래’가 없다. 어제와 오늘과 다르고 내일은

또 더 나은 재료, 더 나은 혼용을 통해 더 나은 맛과 멋을 추구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과 다르게 위생과 보온효과를 위해 솥그릇을 고집하게 된 데서도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는 확인된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세계미식대회에서 비중국요리부분 최고상을 전주 비빔밥이 거머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완전’을 향한 정성의 비빔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여 정성이 생략된 산업화나 선부른 세계화는 이런 전주정신을 훼손하는 길로 피해가야 한다.

느린 성숙을 통해 ‘게미’를 얻게 되는 것갈과 같은 발효식품이 전주 음식상에 흔한 것도 이런 전주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I. 공동체적 한과 신명 - 판소리 그 애이불비(哀而不悲)의 미학

우리 민족 대표적 정서로 흔히 한(恨)을 꼽는다. 우리에게 새는 노래하지 않고 운다. 국민영화 [서편제]에서 유봉이 송화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체념해버린 슬픔 혹은 분노”를 체화시키기 위해서다. 이것 모르고는 소리예술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슬퍼도 비탄에 빠지지 않고 분노가 원한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예술적 승화가 가능하다. 적어도 살아남은 우리들 전통문화예술에는 이런 체념을 통한 극복이라는 잔잔하지만 질긴 삶의 지혜, 그 미학의 징후가 진하게 남아 있다.

한이 절망이나 원한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미학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이 된 판소리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오랜 공력의 삭임과 익힘 과정을 겪어야 도달할 수 있는 ‘시김새’, 이를 통해서만 펼쳐질 수 있는 “소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오묘하면서도 음송깊은 멋 혹은 여유”인 ‘그늘’, 여기에 판소리 미학의 핵심이 깃들여 있다.

판소리의 판은 말 그대로 어울림의 마당을 뜻한다. 예술행위의 장이기도 하지만 여럿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놀이의 터이기도 하다. 창자와 반주자로서 고수의 역할 못지않게 청자의 참여, 그 추임새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판이 함축하는 독특한 동참(同參)문화 때문이다.

판소리는 ‘창작’된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한 예술가의 참담한 고뇌의 노력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판을 거듭하면서 여럿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들 고유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놀이판의 어울림에 신명과 해학은 필수적이다. 간난신고의 현실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해줄 힘을 높이는 제공해주어야 한다. 판소리에서 가난은 그래서 비참하지 않다. 놀부의 심술도 해학적이며 옥중 춘향의 형상은 처연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지기까지 한다. 놀이의 신명을 통해 현실의 고난을 해소하려는 삶의 철학이 미학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전통예술이 홀대받으면서 이런 한과 신명의 정서들도 변질되고 만다. 한의 미학은 원한의 폭력으로, 신명의 멋은 엽기적 퇴폐와 선정으로 타락해 버린다. 폭력시위, 무한대결의 정치, 선정적 누리꾼, 퇴폐적 성문화, 한 맺힌 입시문화, 이들 모두 이 한과 신명의 미학을 상실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독버섯들이다.

뒤늦게 전통문화를 내세우며 잃어버린 공동체를 운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우리의 전통문화는 분명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콘텐츠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독특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가 이를 홀대하면서 상실해버린 우리 고유의 삶의 지혜, 그 공동체적 삶의 멋과 여유를 되찾는 데 있다 하겠다. 전통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려는 전주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으며 그런 것이어야 한다.

III. 기개와 기품 - 여유 속에 무르익는 전통문화의 텃밭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천년이 넘는 ‘완전의 땅’ 전주의 역사와 기운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전주한옥마을, 그곳에서는 다시 천년의 전통으로 이어질 문화와 예술이 매우 느리게 무르익고 있다. 하여 몸과 마음의 걸음이 바빠서는 그 오묘한 정취를 놓치기 십상이다. 낮은 하늘선과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주는 여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만 그곳에 녹아있는 기개의 역사와 기품 있는 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평온해 보이는 이 기와집 마을, 이곳의 형성과정에서도 전주인들의 기개를 확인할 수 있다. 옛 전주부성 남동쪽에 자리한 이곳은 20세기 초 성내를 점유해오는 일본인들의 ‘꼴’이 보기 싫어 성 밖 가까운 곳에 ‘우리들만의 터’를 잡는다고 기와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6,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이 모여 살았으니 전주의 문화 예술은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곳이라고 풍운의 역사가 없었을까? 이승만 전대통령의 “보기 좋다!”는 말 한마디에 영광의(?) 개발금지구역이 된 이곳은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에 밀려 줄지에 ‘전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슬럼가로 전락하고 만다. 그 덕에 ‘새마을운동’ 식의 서구화 파고를 피해갈 수 있었고 다시 그 덕으로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통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으니, 이 짧은 기간동안에 겪은 술한 역사의 반전, 그 아이러니의 묘미를 생각하면 ‘천천히!’는 당연한 화두였을 것이다.

이곳을 둘러싼 예사롭지 않은 품세도 여유와 기품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 마을 남쪽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젖줄 전주천이 흐른다. 지금은 쉬리가 살 정도로 깨끗한 도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등 이 고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술한 역사적 사

건을 지켜본 입 무거운 증인이기도 하다.

그 동편에는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바람의 언덕’이 있다. 한 때 청소년들 ‘비행’의 우범지역이기도 했던 이곳에도 이성계와 정몽주, 이완용과 전동성당에 관련된 역사가 묻혀있다. 전주 이씨가 발흥했다는 발이산(發李山) 끝자락인 이 동산은 그 기운을 차단하고 싶은 일제에 의해 전라선 철도의 명분으로 댕강, 본류와 끊기는 설움을 겪기도 했다. 오동나무가 있어 오목대라 불리는 이곳은 오얏나무가 있었다는 이목대와 남원행 도로에 차단되어 서로 다른 바람을 맞고 있다.

그 뒤가 중바위(僧岩山). 그 깊고 너른 골짜기에는 ‘문화강국’을 꿈꾸었던 후백제 견훤의 한이 서려있다. 그 빗겨 너머에 세계 유일의 동정부부 순교자를 모신 치명자성당이 있고 그 서쪽 사면에 전주를 동쪽에서 굳게 지켜주고 있는 동고사(東固寺)가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에 전주팔경의 하나인 한벽청연(寒碧淸煙)을 사랑하는 한벽루가 있다.

그 곁에는 지금도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릴 듯한 전주향교가 교육입국의 꿈을 북돋아주려는 듯 단아하면서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찾는 이들을 반긴다. 특히 이곳에는 대성전, 명륜당 말고 성인들의 아버지를 모신 계성전(啓聖殿)이 있어 다른 향교와는 사뭇 다른 규모와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한옥마을 서쪽은 옛 전주부성자리로 이어진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 그 의젓하고 웅장한 기품에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곳. 그 곁에는 술한 병화 속에서 역사를 지켜낸 전주인들의 기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주사고가 있어 후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 전주사고본마저 불타버렸다면 조선전기의 방대한 역사는 암흑 속에 묻혀버렸을 것이다.

동양문화를 상징하는 경기전 맞은편에는 서양문화를 대변해주는 전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포근하면서도 화려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풍이 가미된 이 건물은 치명(致命)의 숭고함을 웅변하면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처럼 풍성한 역사로 둘러싸여있는 전주한옥마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속촌과 같은 박제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점이다. 골목골목마다 애환의 한숨과 웃음소리가 낮은 돌담 넘어 가득하다.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전통문화를 갈고닦는 장인들의 땀 냄새가 배어 있다. 명창부부가 명창아들과 더불어 소리공부에 여념이 없는 소리청이 있고 천년한지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뚝심과 이를 공예로 꽃피우기 위해 손 닳는 줄 모르는 열정이 있어 찾는 이의 넋과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다.

나무냄새 벗 삼아 목각에 여념이 없는 이도 있고 차의 향취에 취해 거의 신도가 되어버린 이도 이 정겨운 한옥마을에는 하나 둘이 아니다. 시간을 저당 잡히지 않고는 도저히 이곳의 정취를 그 겉치레나마 느낄 수 없다. 그러니 전통문화에 취한 몸을 구들 따스한 한옥에 누일 일이다. 다도와 전통예절 체험을 겸할 수 있는 숙소가 있으며, 마당이 좋아 거의 매일저녁 작은 음악회로 투숙객을 잠 못 들게 하는 참으로 근사한 한옥도 있다. 대청마루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는 당당한 기와집도 있어 세월에 지친 우리들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준다.

새벽이면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걸으며 그 오밀조밀 다정한 맛을 필히 느껴볼 일이다. 그래도 찌뿌둥하면 사상의학으로 웰빙을 꿈꾸는 한방문화센터를 찾을 일이요, 조금 가뿐해진 마음으로 최명희문학관이나 강암서예관을 둘러보는 것도 ‘강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삶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곳에는 각종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전주백반, 오묘한 비빔의 조화로 세계가 주목하는 웰빙의 전주비빔밥, 애주가들의 속을 달래주는 콩나물국밥, 바람 시원한 한벽루의 오모가리, 옛 향수를 자극하는 칼국수, 그리고 막 땅

기는 막걸리와 싸고 풍성한 가맥 등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마을 곳곳에서 우리들 미각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한옥마을은 미완의 터다. 완전을 꿈꾸며 느리게 무르익어갈 뿐이다. 급하게 구경이나 하려는 사람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줍은 새색시 같아 진정어린 마음가짐이 없는 이에게는 그 장한 끼를 보여주지 않는다. 귀를 열고 추임새라도 보태려는 마음, 차의 더딘 향에 취할 수 있는 여유, 손수 비빔밥을 만들고 한지로 손거울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있어야 그 은밀한 매력을 나뉘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준비된’ 사람들, 즉 기개와 기품의 전주정신을 갖춘 이들만을 위한 공간인 것이다.

理想세계,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정신

이 태 영*

I. 선비의 儒學, 節義 정신 - 무성서원과 가사문학

판매를 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간행한 책을 방각본(坊刻本)이라고 하는데 이 방각본의 원류는 서울에서 선조 9년(1576년)에 간행된 ‘고사촬요(攷事撮要)’로 알려져 있다.

전북에서는 민간 출판업자인 ‘전이채(田以采), 박치유(朴致維)’가 ‘사요취선(史要聚選, 1799), 사문유취(事文類聚, 1799), 신간소왕사기(新刊素王事紀, 1804), 공자가어(孔子家語, 1804), 농가집성(農家集成, 1806),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1806),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 1796), 상설고문진보대전(詳說古文眞寶大全, 前集 1803), 동자습(童子習, 1804), 공자통기(孔子通紀, 1803), 대명률시(大明律詩, 1800), 증산염락풍아(增刪濂洛風雅, 1796), 효경대의(孝經大義, 1803), 효경언해(孝經諺解, 1803), 명심보감초(明心寶鑑抄, 1844)’등 판매용 책을 정읍 태인현에서 19세기 초기까지 간행하였다. 이 책들은 당시 문인사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실용적인 책들로, 수요자인 문인들의 요구에 따라 출판한 것이다.

태인(泰仁)은 태산(泰山)현과 인의(仁義)현이 합쳐서 생긴 지명으로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많이 거주하고 상업이 활발하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상업적인 출판도 활발하였으며, 특히 17세기에는 방각본 출판을 주도하였다. 태인의 방각본은 지방의 상업적 출판의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책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는 큰 역할을 했다.

당시의 태인은 현감이 있었던 큰 도시였고, 최치원을 모신 무성서원(武城書院)이 있을 만큼 유학자들이 많이 기거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지식 탐구열이 높게 되었고 교육용 도서가 많이 발간되게 된 것이다.

전북 전주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까지 방각본의 최고 출판지였다. 공교롭게도 태인 방각본의 출판이 끝나는 1803년부터 전주에서 방각본 판매가 일반화되는 것은 전주와 태인의 출판 문화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신라(新羅)의 포석정에 비견되는 태인의 유상대(流觴臺)에서 노닐던 태산군수 최고운 선생, 그 후 선생의 학덕과 풍류를 이어받아 학문을 닦으며 도(道)를 펼치며 풍류를 즐긴 태인 선비들은 유학적 안빈낙도의 풍류정신과 절의정신(節義精神)이 강했다.

우리나라 국문가사의 효시로서 봄에 들판을 산책하면서 지은 <상춘곡>으로부터 ‘옛 사람 풍류’(최고운 선생의 풍류)와 정극인 선생의 풍류를 볼 수 있다. 태인의 피향정(被香亭)과 관련된 태인 문인, 그리고 태인 문인과 교유한 많은 시인묵객들은 선비들의 풍류 문화와 그 정신을 즐겼다. 면앙정 송순, 점필재 김종직을 비롯한 당대 명문장가들은 태인에 머물면서 지역 문화 유적에 대한 감상을 노래한 시문(詩文)들을 남기곤 하였다.

임진·정유의 왜란 당시의 창의, 구한말 항일 병오창의(丙午倡義)에

태인 지역 선비와 주민들이 대거 나섰다. 김천일, 변사정, 김제민, 안의, 손홍록과 김후진, 기효간, 신개, 이수일 등 많은 사람들이 창의(倡義)하였다. 최익현 선생과 임병찬 장군은 병오창의를 통해서 구한말 항일투쟁을 전개하면서 강한 선비들의 절의정신(節義精神)을 남겼다.

II. 근대 시민 의식의 발흥

인류의 문명과 더불어, 책은 한 시대의 사상(思想)과 정신의 산물로서 앞 세대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였다. 책에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업적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책을 통하여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서울에 견줄 만큼 지방에서 인쇄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 그 이유는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각수와 인쇄시설이 발달하고, 품질 좋은 한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였으며, 구비설화와 같은 이야기 문화, 판소리와 같은 음악 문화, 남문시장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잘 발달하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완판본(完板本)은 서울에서 발간된 경판본 고전소설에 대비된 말로, 전주(全州)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목판으로 발간한 고전소설을 일컫는 말이다. ‘완판 방각본(完板 坊刻本)’이란 용어는 ‘판매를 목적으로 전주에서 찍은 옛 책’을 말하는 것이다.

한지의 발달로 말미암아, 조선 초기에 약 60여 권, 조선 중기에 전라감영에서 60여권의 책이 발간되었고, 조선 후기에 50여 종류의 한글 고대소설과 250여 종류의 판매용 고문헌이 개인 출판업자에 의하여 발간되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다.

일찍이 지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가 강했던 전주 시민들은 사대부를 중심으로 정치와 교육용 책을 출판하였고, 서민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책과

교육용 책, 그리고 생활백과용 책을 수없이 만들어냈다. 이러한 놀라운 문화 의식은 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적 의식이 매우 앞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민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개화 의식은 매우 뛰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여성 해방, 신분 철폐 등과 같은 민주적인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전주 지역 사람들이 많은 책을 통하여 배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동학, 실학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각본의 출현은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방향에 촉진제가 되었다. 판매용 책이 일반인을 위한 책이고 더욱이 한글고전소설의 경우 소시민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책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은 다분히 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III. 상상력의 세계관 - 판소리, 소설문학, 시문학의 발달

판소리는 삼백 년 이상 전승되어 오면서 ‘판’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해 왔다. 판소리는 일반적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생겨났고 자라났다. 전라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노래들 중에서,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판소리는 아직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규모도 가장 크고 수준도 높다. 판소리는 그 자체가 음악·문학·연극적 요소가 다 들어있는 고도의 복합성을 지닌 예술이다.

판소리가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크게 대두하기 시작할 때 발생, 서사 무가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판소리 창자가 전라도 단골무가(丹骨巫家)에서 나왔다. 판소리계 완판본 고소설이 전주 지방에서 주로 간행되어서 호남 지방의 농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민 계층으로 보급되었다는 사

실은 판소리가 서민 문학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판소리에 담고 있는 양반 사회의 풍자와 비판에서도 나타난다.

판소리는 한의 문학이라고도 하고 종합 예술이라고도 한다. 소설로 발전한 것으로 보면 분명히 문학이요, 여전히 노래로 불려지는 걸 보면 음악이며, 창자가 청자와 더불어 공연하는 걸 보면 연극이다. 세계문화유산 걸작으로 등록된 이 판소리는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상상력을 제공해 주었다. 울고 웃기고,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면 시름을 잊게 해주던 예술작품인 것이다.

이 판소리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로 이어져 24종의 고전작품을 발간하는 계기가 되었다. 완판 방각본 소설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은 1725년 나주에서, 1803년에 전주에서 간행한 한문본 고소설인 <구운몽>이다.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최고본은 ‘별월봉기(하권, 48장본)’으로 1823년 4월에 전주시 평화동 석구동(石龜洞)에서 발간되었다.

현존하는 완판본 한글 고소설의 종류는 24가지이다. 이 가운데 판소리계 소설이 춘향전, 심청가, 심청전, 화룡도, 토별가 5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영웅소설이다. 판본이 다른 종류를 합치면 약 50여 종류가 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주에서만 한글 고대소설이 발간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글도 된 이야기책이 발간된 사실은 당시의 전주 시민의 출판 문화 의식과 개화 의식, 시민 의식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남원은 동편제로 대표되는 판소리의 고장이며, 남원을 배경으로 한 소설 ‘춘향전’은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소설로 알려져 있고, 이미 1850년 무렵 한글 책으로 만들어져 약 150여 년간 읽혀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 남원은 민족의 대하 민속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혼불>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남원은 <만복사저포기>의 고향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지은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5편 중 하나이다. 한 마디로 전북은 한국 소설문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전북 지역은 수많은 걸출한 소설가와 시인을 배출하게 된다. 풍자 문학의 대가 백룡 채만식은 옥구 출신이고, <혼불>의 작가 최명희는 전주, 시대 정신을 풍자한 정읍 출신의 윤홍길, 수채화 같은 소설을 쓰는 정읍 출신의 신경숙 등의 소설가와 시인인 부안의 신석정, 고창의 서정주, 전주의 김해강 등이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소설과 시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이 지역이 주는 여러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감수성이 발달한 것은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상상력의 세계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희구하는 강한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내세(來世)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전북의 천주교는 이미 신유박해를 통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 없는 백성을 죽이려 하자 신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다. 유항검, 유중철, 이순이 등은 전주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로 그들은 내세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현세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다.

불교의 경우도 완주군 구이면 광곡에 고구려 ‘보덕화상’이 ‘경복사지’를 세우고 열반종을 펴뜨린 곳이다. 기독교의 경우에도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치료도 하면서 신앙을 전파한 지역이다. 특히 원불교는 전라도가 탄생 지역으로 원불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화기 시대 신흥종교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증산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 3대 신앙은 물론, 이 땅을 배경으로 탄생한 종교가 있고, 여러 신흥종교가 발달한 지역이다. 이 땅에 ‘내세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은 곳이 전주 지역이다.

V. 결론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은 일찍이 선비문화가 꽃핀 곳이어서, 선비들이 모여 시를 나누고 글을 쓰며, 시서화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유학적 풍류정신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한 절의정신을 함양한 곳이다.

인쇄문화가 매우 발달한 곳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판매용 책이 지방에 서는 가장 먼저 판매된 곳이다. 이는 일반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대중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지식을 쌓고, 정신을 배우며,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일찍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시민 의식의 발흥으로 이어진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판소리라는 공연 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대소설의 발달, 이야기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다양한 필사작업으로 이 지역 사람들은 상상력의 세계를 풍부히 갖게 되었다. 이후 현대문학에서도 이 영향력은 그대로 이어져 걸출한 수많은 작가를 배출한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은 종교와 신앙의 입장에서조차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고,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지역이다. 이는 이 지역민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주로 출판 문화와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인은 지식으로부터 나아가 초자아를 꿈꾸었고, 소시민들은 책을 통하여 개화하여 자각하는 새로움을 맛보았으며, 문학을 통하여 끝없는 상상력을 키워왔고, 신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추구하는 정신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 체험 · 교육도시 전주

조 법 종*

I. 전주의 역사문화적 성격

1. 완전(完全)의 땅 전주(全州) : 완산(完山) + 전주(全州) = 완전(完全)

전주의 옛 명칭은 백제시대의 완산(完山), 통일신라시대의 완산주(完山州), 전주(全州)로서 완(完)과 전(全)이 이 지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명칭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 의미가 완벽함과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어 이 지역의 성격이 ‘완전(完全)’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명이 1300년 이전부터 형성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즉, 이 일대 지역은 가장 안전하고 살기 편안한 최상의 거주지역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역임을 지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지역이 큰 자연재해가

* 우석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없으며 주변지역이 산간지역(무주·진안·장수), 바다지역(군산·부안·고창)에 인접한 호남의 최대 평야지역(김제·만경·익산평야)으로서 가장 살기 좋고 평안한 땅이란 이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식 맛이 좋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곳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웠던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은 현재에도 훌륭히 계승,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완산과 전주라는 명칭은 완(完)과 전(全)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우며, 재연재해가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이다. 따라서 전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도시, 전통문화도시, 예술의 도시, 학문의 도시, 건강의 도시 등으로 명성 높다. 그리고 전주음식, 전주한옥마을, 전주 약령시가 이 같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2. 왕도(王都)의 땅 전주(全州) : 후백제왕도 + 조선왕조관향 + 전라감영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900-936)로서 전라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왕도를 경험한 도시이며 전주는 조선왕조(朝鮮王朝)의 발상지(發祥地)로서 특히 조선시대 가장 부유한 경제력과 문화를 꽃 피운 도시이다.

또한 전주는 근대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근대 개혁운동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문화적·역사적 역량은 전주의 예술문화, 학문적 전통으로 계승되어 최고의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된 도시였다.

3. 기록(記錄)문화(文化)의 땅 전주

실학시대 대표적 학자인 이덕무는 백과전서인 『청장관전서(靑莊館全

書』에서 우리나라 서적이 당한 최대 참화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우리나라 서적이 당한 첫 번째 재난은 고구려가 멸망할 때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의 문화가 중국과 대등한 것에 놀라 이를 말살하고자 고구려 전역의 서적을 평양에 모아놓고 이를 불태운 것이 그 첫 번째 재난이었다.

두 번째 재난은 후백제 견훤왕이 전주에 도읍한 이후 삼한지역의 모든 서적을 수도인 전주에 모아놓았다. 그런데 후백제가 망하면서 이들 책이 모두 불타버렸다. 이것이 우리역사상 서적이 당한 최대 재난 중 두 번째이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전주는 역사거점의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였다.

또한 조선왕조의 역사를 수호한 도시가 바로 전주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역사를 지키기 위해 매일의 기록을 남겼고 이를 정리한 역사가 조선왕조실록으로 편찬되었다. 이들 역사의 소실을 막기 위해 서울을 포함해 전주, 성주, 충주의 4대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3개 사고는 임진왜란 당시 모두 불타고 나머지 전주만이 유일하게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수호되어 현재 조선왕조의 역사를 CD로 편히 찾아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전주는 조선 후기 완판본 출판문화의 도시로 가장 다채롭고 풍부한 고전문학과 관련기록을 인쇄하였던 출판·인쇄문화의 최대도시였다. 당시 서울에서 간행한 경판본에 비해 전주(완산)의 첫 이름을 딴 완판본은 『춘향전』, 『홍길동전』, 『홍부전』 등 그 내용의 풍부함과 우수함에 있어 우리 고전문학의 백미를 이루는 내용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민족사적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재적 시점에서 이 같은

전통은 계승, 발전되어야 하며 당연히 부각되고 강조되어야 할 전통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족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역사적 역할은 새롭게 조명되고 그에 부응하는 현재적 계승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II. 전주의 공간문화적 전통

1. 후백제 역사공간 : 전통시대 왕조공간 - 왕권(王權)공간

전주에는 후백제 왕도유적으로서 견훤고성유적이 현재 동고산성 일대 15군데 건축유적 및 산성유적으로 존재하며 이 시기 전통도시 수호관념 유적으로서 사령·사고사찰 등 전주를 수호하는 사령(거북바위·기린봉·용머리고개·봉황암)과 사고사찰(동고사·서고사·남고사·진북사)유적이 존재한다.

2. 조선왕조 : 전통 지방정부 행정공간유적 - 신권(臣權)공간

전주는 조선시대 지방행정통치공간인 전라감영·객사, 읍성유적인 풍남문·성곽길 그리고 의례공간인 경기전·조경묘·충경사, 교육공간인 향교, 군사공간인 남고산성 등이 잘 남아있다.

3. 전통생활공간 : 전통시대 백성의 생활공간 - 민권(民權)공간

전주는 한국 유일의 도심한옥공간인 한옥마을이 남아있다. 한옥마을은 도심 속 한옥밀집 거주지역으로 약 800여 채의 한옥주거 공간이 존재하며 한옥생활을 통해 전통문화의 다양한 자산(판소리, 한지, 공예, 음식)등

을 일상에서 소비하고 계승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마을 전체가 한옥변천사(1930년대~1960년대)를 읽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건축박물관과 같은 공간으로 역사 유물과 유적의 보고 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3건 및 지방지정문화재 44건 등 문화유산지수 전국 1위의 역사유적과 일상의 생활공간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이다.

4. 전주공간의 회복

전주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관도시로서 조선왕조 건국 이래 왕조발상지인 “풍패지향(豊沛之鄉)”으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현재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역사문화도시로서 “한국을 느끼려면 전주로 가보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도시의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다. 이 같은 전주의 역사성은 전주이씨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이목대, 태조 이성계가 처음 전주를 방문하여 새 왕조 창건의 포부를 밝혔던 오목대 및 경기전에 의해 그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전라감영에 의해 그 역사적 실체가 유지되어 왔다. 또한 대표적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와 근대 도시한옥군에 의해 차별화된 도시미감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몰락과 일제강점기로의 전환은 이 같은 전주의 역사적 실체들이 심각한 훼손을 당하는 위기를 맞았다. 즉 태조의 어진을 모신 대표적 상징공간인 경기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경기전 영역의 1/2에 달하는 수복청 등 의례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들이 철거되고 일본인 소학교가 설치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원형복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 공간이 그대로 중앙초등학교로 원형이 손상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2000년 초에 와서야 그 원형이 복원되어 경기전의 면모를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전주 객사도 일제의 도로개설 명분하에 동쪽 날개건물인 동익헌이 철거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 한 칸이 모자란 3칸 건물로 보수

되었다.

한편 전주의 역사적 실체와 위상을 대표하던 전라감영은 일제에 의해 더욱 의도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어 1930년대 선화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이 철거, 매각되고 유일한 건물인 선화당이 1951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는 그 원형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행히 전라감영부지는 광복 전후 몇 차례에 걸친 건물의 신·증축을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 전라북도 도청사로서 사용되다가 최근 전라북도 신청사로 이전 후 현재는 일부 주차장부지등에 대한 발굴이 진행된 상태로 복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복원의 범위와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앞서 객사와 경기전의 복원사례와 같이 최대한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이목대-오목대 관련 지역이다. 일제는 전주 이씨의 발상지 공간인 오목대와 이목대를 전라선 철도를 개설한다는 명분하에 1930년대 오목대 및 이목대가 자리한 발이산(發李山) 자락과 전주의 진산인 기린봉(麒麟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를 끊어 풍수지리적으로 조선왕조 발상지 지맥을 단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단절된 오목대의 지맥은 1984년 전라선 철도이전 뒤 전주시내를 관통하던 기존 철도노선이 전주-남원간 국도로 활용되면서 2차선 정도의 간격이 6차선 이상의 폭으로 더욱 단절 간격이 넓어졌다. 특히 이때 전주천을 관통하는 한벽교가 설치되면서 전주8경 중 한벽청연, 남고모종, 남천표모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였던 전주천의 아름다움이 집중된 한벽루의 풍취와 역사성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공간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III. 전주의 전통문화교육역량과 전통문화체험교육의 확대

1. 체험교육의 확대 : 교육시설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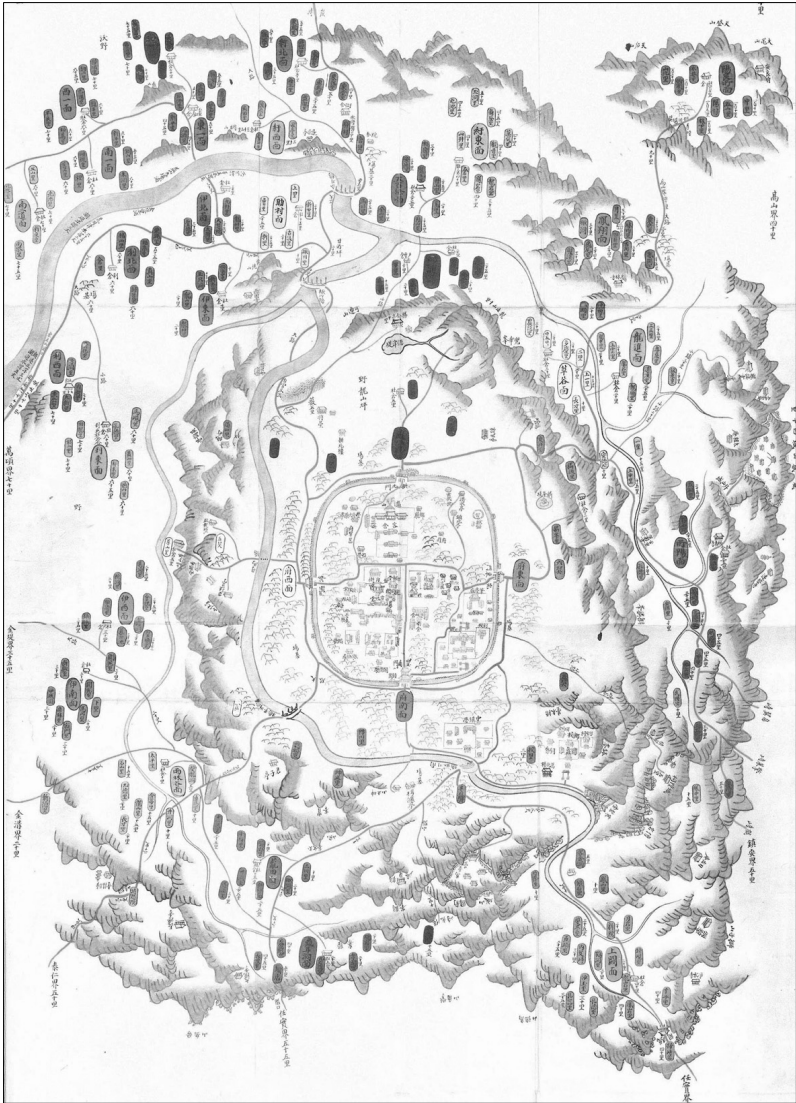
전주에서 진행되는 전통문화아카데미 등 문화관련 교육은 현재 한국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예술문화 등 이론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한국의 정신문화와 여가문화로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며 다양한 체험 및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이 필요하다.

2. 체험대상의 확대 : 교육제도정비

현재 전통문화아카데미는 전주, 전라북도 유학생중심교육이 진행되어 향후 타 시도 유학생, 한국주재 외국인등으로 교육영역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취업 외국인강사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의무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지원이 요청되며 초·중·고등학생의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 이해, 현장교육으로의 확대를 위해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이 요망된다.

3. 해외동포 전통문화교육기지화

이러한 전주의 전통문화교육을 바탕으로 전주시를 6백만 해외동포에게 민족의식 및 한국의 얼을 심어주는 전통문화 체험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 교육 실행의 본산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덕진구>

동산동
고량동
만성동
여의동
장 동

I. 동산동

1. 동산동 유래와 지명

동산동은 전주시 서북방에 입지하여 전주시의 위성취락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이러한 성격의 도심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것이다. 동산동을 둘러싼 드넓은 들판은 일본인의 농업경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각종 도시 기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동산동 일대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산동이란 지명 유래에서 확인되듯이 동산동은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도심의 구조가 재편성된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동산역이 전주평야의 미곡반출지로 이용되어 역전과 그 주변에는 농장건물과 미곡창고가 집결되어 있었다. 때문에 동산동 소재지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남아 있다.

동산동은 본래 완주군 조촌읍에 소속된 지역이었다. 이후 몇 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전주시에 편입되었고, 현재는 전주시의 통근자 주택지구와 근교농업지대 중심지 역할을 한다. 전군도로가 지나고 전주-삼례간의 중앙에 자리 잡아 교통이 편리하고 전주시내버스 통근권 안에 있다. 동산동을 지나는 교통망은 고속도로 10km, 국도 30km, 철도 5km, 지방도 11km가 지나고 있다. 인근 전주공단 종업원의 전출입으로 인한 것과 교통이 원활한 탓에 인구의 유동이 많은 곳이다. 앞으로 동산동은 전주시의 교외 공업지구로 성장을 꿈꾸고 있으며, 장동 유통단지 및 혁신도시 배후 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동산동의 중심지에는 가촌형태로 상업·서비스시설,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이 집결되어 있다. 또한 전주시의 위성 도시적 성격이 강하여 주택지구, 공업지구 등이 있고

시의화물트럭집결지가 수 개의 주유소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다.

□ 동산촌



쪽구름 장터

근대화 이전의 동산동에
는 동산촌, 덕룡, 반룡, 구사
마을 등 몇 개의 전통마을
이 있었다. 그러나 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명확
한 구분은 어렵게 되었고,
이 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러나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았던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어렵게 전통시대
마을 명칭 및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산촌은 일제강점기 이 마을에 일본사람 동산(東山 : 히가시아마)의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워진 지명이다. 본래 이 일대는 ‘쪽고름이’,
‘쪽구름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이유는 풍수지리설로 볼 때 이곳에 ‘편운
혈(片雲穴)이 있다는 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편운(片雲)’의 우리말 표기인
것이다. 그러다가 일본사람의 농장에 의해서 지명이 바뀐 곳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오욕(?)의 지명을 가지고 있어 본래의 지명을 찾아 달라
는 주민들의 염원대로 하루속히 지명 개편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동산촌에는 2개의 전통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현재는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가 들어서있어 명확한 전통마을 구분은 어
렵지만 농협을 중심으로 조촌초등학교 인근을 상동산, 우체국 위쪽을 하
동산이라 했다.

한편 동산촌이라 불리웠던 농협인근 지역에는 쪽구름 장터라는 사람
냄새 나는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

해서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은 전주시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공장건물 및 주거지로 형성되어 웅한 텅빈 거리만 쓸쓸이 그때의 북적함을 대변하고 있다.

□ 덕룡마을

덕룡마을은 동산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상동산 옆 마을인 공업고등학교 사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이라고 한다. 유달리 동산동에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보이는 것은 이곳에 낮은 구룡들이 많아 이 구룡이 보기에 따라서 용의 형상처럼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덕룡마을은 신작로(월드컵경기장 가는 길)에 의해 마을이 반토막나 그 때 대부분 마을을 떠나게 되어 당시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이 불가했던 곳이다.

□ 반룡마을

반룡마을은 동산촌 동남쪽에 입지한 곳으로 덕룡마을과 구사마을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반룡이란 지명은 마을 앞에 자그마한 산에 있는데 용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반룡마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도시화로 인해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정확한 마을의 구분은 어렵지만 대승마을 좌측, 동산성당 우측에 형성된 마을을 반룡마을이라고 한다.

□ 구사마을

동산동의 서편, 고랑동의 원고랑마을과 인접해 있는



구사마을 전경

구사마을은 그 유래에 관해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용혈이 9개가 있어 구룡리로 불리웠다가 일제강점기에 구사마을로 개칭되었다는 것과, 뱀 9마리가 개구리산(대미산)을 먹고 있는 형세라고 하여 마을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숫자 9라는 단어와 함께 마을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산동의 문화유산

□ 동산농장



동산농장과 주변시설



동산농장터

동산농장이 위치하였던 곳은 현 전북중학교 자리이다. 조촌면 시절 뚜렷한 중심지가 형성되지 않았던 동산촌 일대에 특정지역인 동산리가 지역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군산항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의 구축과 관계가 깊다. 또한 미쓰비시(三菱) 재벌의 이와사끼(岩崎)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경기도의 수원, 오산, 인천 근교, 전라북도의 조촌면 반월리, 전라남도의 영산포 등지에 농토를 매입하여 동산농장을 설립하였다. 이와사끼는 반월리의 농토 2,000정보를 점유하고, 주민 대부분을 소작으로 지

배하여, 이 지역은 이와사끼의 사영지가 되었다. 원래 반월 또는 쪼그래미(또는 쪽구름)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는데 이와사끼는 자신의 아호를 따라 동산(東山)이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개칭했다. 이와사끼는 동산촌에 저택, 사설우체국, 사설학교, 사설경찰서 및 신사까지 설립하였으며 사실상 동산촌은 총독부의 지방행정권을 벗어나 있었다. 동산농사주식회사 전북출장소는 직원이 13명, 사음(마름)이 51명이었으며, 소작인이 1,091명에 달했다.

□ 교통의 변화

조선시대에 동산동 지역은 전주성의 근교에 위치하여, 당시 주요 교통로인 전주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여 있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는 전주부성의 남문 → 서문 → 숲정이 → 떡전거리 → 상가리 → 전주천(추천, 여울, 구주리) → 신복리 → 감수리 → 평리(주업정) → 대천(만경강) → 삼례의 길이 주요도로였다. 이



동산동 옛길

길은 동산동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1908년 전주 - 군산간 신작로가 개설되고, 동산동에 일본인 농장(동산농장)이 개설되면서, 전주성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전주부성의 북문 → 상가리 → 전주천 → 동산촌 → 대천(만경강) → 삼례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신작로의 개설

로 전주에서 삼례로 가는 주요 도로가 동산촌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하게 되고, 동산촌은 전주 - 이리 - 군산 노선과 전주 - 삼례 - 한양으로 통하는 삼거리로서 이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삼례가 전라도의 동남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 연결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동산촌이 전주 - 군산, 전주 -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1914년에 전주 - 이리간 경편철도의 부설과 동산역의 설치로 동산촌은 이 지역에서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 하마비

전라감사로 부임했던 이서구와 관련하여 구한말 하마비가 있었는데 6·25사변 후에 돌다리를 놓는다고 마을사람들이 이 하마비를 가져다 썼다고 한다. 그 후 경지정리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구술] 하마비

형태가 없죠, 바위들이 많았어요. 형태는 없어졌지 바위들이 많이 있지 거기 산이고 밭이었어. 저 동네는 “대죽은 안 나와도 소죽은 끓이지 않겠다”는 곳이야. 말하자면 사람 인물을 대나무로 비유해서 말이야. 그리고 역전 가는 삼거리에서 쪽 내려가면 아파트가 있어, 연립주택. 왜정시대 땐 농촌지도소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서구씨가 “여기에 숲을 조성해 북을 막아주면 이 동네가 융성할 수 있다. 북쪽을 막아주면 동네가 괜찮다”는 얘기가 있지. 해방 후에, 왜놈들이 간 후에, 6·25사변 후에 들녘에 옛날에 독다리 없었거든. 독다리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떼어다가 다리를 놔버렸어 진짜 유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 신흥마을 이종열氏

□ 동산의원

동산동 동산지구대 뒤편에 일본식 건물이 원형 그대로 남겨져 있다. 이

건물은 동산농장의 부속병원으로 활용되다가 광복후 정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귀순씨의 시아버지, 김수형씨를 조촌면 공의(公醫)로 발령내면서 동산의원으로 활용되었다.



동산의원

제일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도 “그럼, 병원 거기로 다녔지. 그때는 병원이 있었가니”라며 동산농장에서 운영하던 병원에 대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동산동의 대표적인 병원이었다.



‘동산’명문 기와

한편 건물 내부는 일본식 가옥의 원형을 그대로 갖추

고 있으면서 생활의 편의상 화장실을 없앴고, 주방을 입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붕은 약 10년 전에 비가 새어 양철지붕으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이 동산의원 건물은 동산성당과도 관련이 있다. 동산성당 건립 당시 주임신부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 거처를 물색하라고 동산의원 건물이 눈에 띄어 이곳에서 얼마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생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현재 거주자인 전귀순씨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

예전의 모습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건물 내·외부와 당시 병원에서 사용하였던 물건들이 남아 있어 속히 근대문

화유산으로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산공립보통학교(東山公立普通學校, 현 전주 조촌초등학교)

현 전주 조촌초등학교 전신인 동산공립보통학교는 나라를 다시 찾는 길은 애오라지 교육임을 깨달은 유지들이 1919년 4월 18일에 동산공립보통학교(4년제) 설립 신청을 통해 동년 4월 25일에 설립허가를 얻어, 동년 7월 28일 初代校長으로 山中辰之允(日本人: 高山公立普通學校 初代教長 역임)이 부임하여 개교를 준비하다 동년 9월 23일 당시 조촌면사무소 창고에서 개교하였다.

이 인근에는 이곳 밖에 학교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 출신이다. 1921년 3월 25일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동산공립보통학교는 해방 이후 조촌국민학교로 개명하였고, 이후 1987년 1월 1일 자로 전주시로 편입되었다.

특기할만한 일은 조촌초등학교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는데 박영래(2대 국회의원, 완주·을구), 김용진(7대 국회의원, 전주), 최영두(6대 국회의원, 완주) 김태식(11대 국회의원, 전주·완주)등이 모두 이 학교 졸업생이다.

□ 우익인사가 많았던 땅

조촌면에서도 많은 우익인사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희생되었다. 당시 대한청년단 조촌면 부단장이었던 이영환(72세)에 의하면 조촌면에서는 완주에서 제일 많은 63명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조촌면 감수리 고랑구역의 김용태와 이용선 가족이 모두 공산당의 손에 죽었다. 두 집만의 희생자 수가 15, 6명에 달했다. 원여의리에서는 반공활동을 했던尹모와 그의 가족이 학살되기도 하였다. 이영환은 수복 후 조촌면향토방위대장을 맡아 170명의 대원을 이끌고 경찰이 진주해오기까지 치안을 유지하였다(완

주군사, 1983).

□ 조촌면 구사리 임여인 치사 사건 검안(檢案)

동산동 구사마을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그것은 1852년 9월에 전라도 전주부 조촌면 구사리에서 발생한 임여인 치사 사건에 대한 만경현령 정완목의 복검(覆檢) 보고서로 초검(初檢), 삼검(三檢), 사검(四檢) 때의 사건처결서를 간단히 부록한 책이다.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내지에 적혀 있는 『전주부 조촌면 구사리 피타치사여인 임소사 검안(全州府助村面九思里被打致死女人林召史檢案)』이 될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1852년 9월, 이시화에게 재가(再嫁)한 임여인이 부부싸움 끝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6년 전 남편을 잃은 임여인은 1852년 정월에 이시화에게 재가하여 살았다. 그런데 재가한 처음부터 부부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니 남편 이시화가 임여인의 전 남편 소생의 7세난 아이를 구박하고 다른 곳으로 주라고 하였다. 이에 임여인은 아이를 자신이 길러야 마음이 편안하겠다면 서로 다투었고 다음날 아침 이시화는 자신의 부인 임여인이 부부싸움 당일 날 밤 치마로 목을 매 죽었다고 마을에 알렸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남편 이시화가 구타 살해 후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 밝혀졌다.

이 책은 사건 조사 경위와 간단한 사건 개요를 먼저 기록하고, 관련자들의 심문, 증언을 부록하였다. 1차 심문대상은 발장(發狀) 도윤(都尹) 김도은, 유족 속오(束伍) 임동이, 정범(正犯) 이시화, 증인 이사삼, 조수영, 임사일, 유족 진영 급창(及唱) 임성춘, 주검을 지킨 동장(洞長) 김호돌 등이었으며 2차 심문대상은 발장 도윤 김도은, 주검을 지킨 동장 김호돌, 유족 속오 임동이, 정범 이시화, 증인 이사삼, 임사일, 유족 진영 급창(及唱) 임성춘이며, 3차 심문대상은 유족 속오 임동이, 증인 이사삼, 임사일, 김

여호 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경현령 정완묵의 사건처결 보고서와 시장(屍帳)의 전, 후면을 첨부하였으며, 끝에 낙안군수 김일순의 초검(初檢) 처결 보고서, 여산군수 한취선의 삼검(三檢) 처결 보고서, 부안현감 강연의 사검(四檢) 처결 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였다.

3. 동산동의 생활민속

□ 구렁이 설화

제일아파트 경로당에서 채록한 당산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마을 당산은 동산역 부근에 있던 은행나무인데,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당산을 파냈다고 한다. 우연치 않게 얼마 뒤 당산을 파냈던 사람이나 당산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급사하였다고 한다.

[구술] 당산나무와 구렁이

(조사자 : 동산역있는데가 당산이 있었다면서요?) 거기가 당산이 있었어. 은행나무가 오래된 놈이 있어. 고목 끊어내고 그 근방에서 고리 뽕뽕 돌아가면서 다 죽었어. 사람들이 고향을 지르고 나가서 보니까 당산을 파내는데 귀 달린 큰 구렁이가 반절이 끊어져서 도망가니까 그것을 잡는다고 사람들이 웬 거시기를 다 돌았네. 참 난리가 났었네, 귀가 달려가지고, 한 도막이 끊어져가지고 잘 도망가더라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죽었당개. ... 우리 바로 뒤에 당산 거기 파냈거든. 우리가 당산 옆에 살았어. 우리집 양반 죽고, 그 옆에 은행나무집 끊은 집 죽고 그 뽕뽕뽕뽕 사람이 다 죽었어. 늙은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다 죽었어. 그 갓 쓴 어느 영감이 그러더라. ‘허허, 이 동네 큰일났네’ 역전에 서서 우리 아들이 들으니까 ‘저 집에도 큰일났네’, 꺼떡하면 큰일났다고 하더라고. 당산을 파내가지고 동네가 큰일 났다고 하더라. 하여튼 많이 죽었어. 그래도 죽었으니까 소용없고...

— 동산동 홍순녀氏

□ 구사마을 당산제

지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지만 7·80년대까지만 해도 음력으로 정월 초 5~6일에 남자들이 당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현재 당산나무는 주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하며, 당시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떠난 상태여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구사마을 숲

구사마을은 주로 완도에서 행상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는데, 그들이 구사마을로 들어온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교통이 편리해서 이주해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구사마을에는 완산지도소(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마을의 숲을 조성하면 마을이 융성될 수 있다고 하여 계획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 일본인 집단거주지

동산동에는 일본인이 살았던 가옥들이 눈에 띈다. 동산농장(현 진북중학교 뒤편), 전북여고 앞쪽이 그곳. 현재 사람이 살지 않아 가옥이 파괴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예전에 이곳이 일본사람들의 집단 거주지였다고 한다.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들만의 공간이 필요했고, 한편으론 한국인들의 출입을 금하여 일본인의 우월감을 높이기 위한 자신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해왔다고 한다.

또한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었고 이 곳을 중심으로 병원, 행정기관, 치안시설 등 각종 사회 기반 시설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집단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 우석여고와 호랑이

우석여고 자리는 본래 비탈진 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이 호랑이가 엮어져 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일제강점기때 일본사람이 호랑이를 죽인다고 그 비탈진 밭을 깎았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사람의 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을 주민에 의하면 이곳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석여고 자리에서 금이 나오는 꿈을 꾴서 이곳을 파보게 되었는데 뜻 밖에도 금이 아닌 대량의 기왓장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의 일확천금의 꿈이 순식간에 날아간 순간이었다고 한다.

□ 두꺼비 바위

구사마을에 있는 우신아파트 앞뜰, 평야에는 대미산(大美山)이 있다.



들판 한가운데 있는 대미산

이곳에는 두꺼비 바위라 불리는 곳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조선시대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구사마을의 형세를 보고 “대죽은 안 나와도 소죽은 끊이지 않겠다”고 하여 마을이 잘 살 것이라 예언했다고 한다.

[구술] 대죽은 안 나와도 소죽은 끊이지 않겠다

옛날에, 이서구, 아 그 전라감사 이서구라고 하는 양반 말여. 그 전라감사가, 예전엔 서울서 전주를 가려면 도보로 땀겨. 도보로 다닐 때는 동산촌 주유소 있는디로 해서 우석여고 담장 밑에 길로 해서 저기 간수물이라고, 팔복동 있지? 고리로 왔다갔다 했어. 지금은 경지정리하면서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고리 또랑이 쪽 하니 있었지. 팔복동 간수마올로 가는 도로가. 그런데 그 전라감사 이서구라는 양반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을을 한번 살펴보더니 “저 동네는 대죽(大竹)은 안 나와도 소죽(小竹)은 끊이지 않겠다”라고 했다드만. 말하자면 사람 인물 뒹뒹이를 대나무에 비유해서 했다는 말이지. 그 양반이 여기 북쪽을 막아주면 동네가 융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마을 숲이 조성되었고...

_ 구사마을 강대석氏

II. 고랑동

1. 고랑동의 유래와 지명

고랑동은 추천과 호남선 철로 사이에 끼여 있는 동이다. 추천의 제방을 따라 자연마음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바로 옆에는 고랑뜰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고랑뜰에는 여러 개의 하우스가 지어져 있으며 대부분 특용작물을 재배한다. 전주 IC에서 송천동으로 가는 4차선 대로도 본래는 고랑동에 속하는 지역이었으나 도로가 개설되면서 원고랑과 신흥, 평리, 삼화동, 춘평 등 자연마을과 분리되어 있다. 또한 삼화동과 춘평은 인접해 있는 마을이 아니지만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해 1개의 통으로 묶여 합쳤다고 한다.

고랑동은 원래 ‘호랑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이 마을 앞 냇물 건너편에 ‘흰 개’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호랑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 마치 호랑이가 개를 쫓아가는 형이라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랑동에 신흥, 평리, 삼화동, 춘평, 원고랑 등 5개의 자연마을이 남아있다.

□ 신흥마을

추천을 따라 형성된 천변도로로 가다 동산역과 송천역을 잇는 철로 아



신흥마을 표지석

래를 통과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미암교가 나오는데 이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 좌측에 형성된 마을이 신흥마을이다. 신흥마을은 글자 그대로 자연부락이 아닌 일제강점기 농사를 짓기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신흥마을에는 약 200마지기를 동산농장으로부터 불하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일제강점기 당시 농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온다. 마을에는 반듯반듯 잘 정리된 논과 더불어 곳곳에 하우스가 있

고, 이곳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가 농가의 주 수입원이 된다고 한다.

[신흥마을 유래]

용산다리를 지나 삼례로 가는 길목에 전주천과 고산천이 만나 만경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제법 큰 물을 만날 수 있다. 이곳 왼편으로 일제강점기에 제방을 막아 농지로 만들면서 형성된 신흥마을, 말 그대로



이종열씨 할아버지 초상화

‘신흥마을’이 있다. 신흥마을이 형성된 역사는 매우 짧다. 본래는 원고량마을에 속해 있었는데, 독립 이후 현재는 독립적인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동산농장 일본인 지주로부터 200마지기를 불하받아 관리해 온 마름(사슴, 이종열씨 할아버지)이 머슴들과 함께 이주해 와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이하게도, 그 때문에 등기부 등본 상 15가구 이상이 모두 ‘343번지’로 함께 묶여 있었다.

□ 평리마을

추천을 따라 천변 도로변에 형성된 3개 마을 중 중간에 있는 마을이 평리마을이다. 평리는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여 삼례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깐 소개되는 마을이기도 하다.

들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에서 평리로 불리우나 원래는 ‘주막쟁이’, ‘주막정’으로 불렸다고 한다. 옛날 역(驛)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주역정(駐驛亭)’이 와전되어 주막정으로 불리워지게 된 듯하다.

평리마을 표지석은 옛 다리 역할을 했던 커다란 돌을 옮겨 마을 표지석으로 삼고 평리마을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표지석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



평리마을 표지석

□ 삼화동, 춘평마을

삼화동은 추천과 삼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춘평은 1번 국도상에서 삼례로 가는 길에 형성되어 있다. 서로 끝과 끝에 위치해 있어 마을과 마을을 오가려면 한복판을 가로질러야 한다. 이처럼 서로 먼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지만 마을 호구수가 작아 행정의 편의상 묶어놓은 마을이다.



삼화마을 표지석

[구술] 삼화동 마을유래

세 가구가 들어와서 화합하자고, 세 사람이 살아서 한마음으로 화합하자고 삼화마을이라고 지었어. 황씨하고 박씨하고 이씨하고... 세집 다 도시로 나갔어. 지금은 다 새로 지었어 그 자리는.

_ 삼화마을 박민웅氏

□ 원고랑마을



원고랑마을 표지석

원고랑 마을은 송천동에서 전주 IC로 가는 26번 지방도로에 의해 마을이 나뉘게 되었다. 원래 고랑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도로 위쪽 전북여고 뒤편에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26번 지방도로가 나기 전에는 동산역에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출·퇴근 장소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뽕나무가 무성한 곳이어서 뽕 농사도 많이 했다고 한다. 한편 26번 지방도로 변에는 일제강점기 누에농사를 했던 공장이 남아있다.

2. 고랑동의 문화유산

□ 주엽정이

전주에서 삼례로 향하는 천변 제방길을 따라 신흥마을과 주엽정이(평리)마을이 있고 이 신흥마을에 전주에서 서울로 가던 옛 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마을로 들어서서 새로 난 아스콘 길을 따라 비닐하우스와

논들이 즐비한 가운데로 난,
경지정리를 피해간 대략
100m의 농로가 바로 그것.

주엽정이는 현재 전주시
완산구 고량동 평리마을로,
용산다리에서 제방을 따라
삼례로 내려가다 보면 얼마
안 가 좌편에 있다. 춘향전
에 보면, 이 도령이 암행어



서울로 가던 옛길

사가 되어 내려올 때 삼례역을 지나 주엽정이를 거쳐 전주성 남문으로 입
성했다.

주엽정이는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전주·남원 등 호남의 수많
은 유생들이 과거를 보러 이 길을 거쳐 갔으며, 한양에서 내려오는 전라
감사, 남원부사 등이 이 길을 거쳐 임지로 부임했다. 주엽정이는 오랜 세
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다.

주엽정이 지명의 유래는 주엽나무가 있었다고 해 붙여진 것으로 보인
다. 정자 이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엽정’이 아니라 ‘주엽정이’라고
한 점에서 마을 이름으로 생각된다. 주엽정이는 주엽정·취엽정이라고도
하는데, 나무 이름도 주엽나무, 취엽나무, 취엄나무 등으로 쓰인다.

[구술] 주엽정이

(조사자 : 여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길이 있다고 하더라구
요?) 이도령이 다녔던 길, 남원 내려가는 길. 여기 하우스 못가서요. (조
사자 : 이도령이 춘향이 만나러 장원급제하고 남원으로 내려가던 길이
요?) 옛날에 걸어서 다닐 때 이조 말엽 때 과거를 보러 갈 때 가는 길이
호남길이야. 서울로 가는 길. 여기 가다보면 아랫동네로 조그마한 길이
있어. 우리 다리 건너서 바로. (조사자 : 그게 옛날 길이란 말씀이지요?)

응 그게 옛날길이야. 호남에서 서울 가는 길이라고 큰 길이지. 전부 걸어서 여기로 다녔으니까. 지금 텔레비전에 주엽정이라고 하면, 무슨 주엽정이나면, 춘향전 이도령이가 건넜던 길을 주엽정이야. 춘향전에 주엽정이라고 나와. 주엽정은 옛날 이름이야. 부락은 지금은 평리인데... (조사자 : 평리인데, 주엽정은 옛날이름이고요?) 그게 옛날이름이야. 이 조때부터 생긴 이름이야. 거기는 조막이 아니고 주막. 사람들 오가고 걸어댕기는데가 이 지방에서 이런 큰 데 있었어. 우리 어릴 때부터. 주막 있어서 거쳐가고 오두막에 쉬었다 가는거여. 지금 그 나무도 없어져버렸어. (조사자 : 할아버지 어릴적에도 술 팔고 그랬어요? 주엽정에서?) 그때는 동네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가게도 있고 그랬지 나 어릴적에는... 우리동네만 해도 방천리에 술집이 세집이나 있었지.

_ 신흥마을 이종열氏

□ 추천제방



제방을 따라 형성된 도로

신흥마을과 평리마을 옆 제방은 일본인이 동산농장을 만들면서 쌓은 독이다. 이 제방을 쌓으면서 옛 물길을 현재의 물길로 바꿔 놓았으며, 인근 흙을 조금만 걷어 내도 모래자갈이 나온다고 한다.

원래는 비가 오면 홍수의 피해가 컸던 지역이었으나 독을 쌓음으로써 피해가 적었고, 이 제방을 따라 새롭게 도로가 형성되자 기존에 삼례로 가는 길을 버리고 이 제방을 따라 형성된 길로 다녔다고 한다.

[구술] 방천

(조사자 : 요 앞에 논도 많고 그래서 그때 대략 몇 가구나 있었어요?)

철도 있는데 까지 여기가 다 강변이여. 일정때 일본사람들이 수리사업 한다고 방천을 쌓았어. 저 황방산 추천대교의 황방산부터 방천을 쌓았는데 이 방천이 저 익산 춘포로 방천이 이어지는, 이 방천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 안쪽이 농지로 만든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터가 없어. 자기 터가. 일본 사람들이 땅을 만들어서 분배를 해 준거라. 소작이야. 소작. 여기서 백마지기 이백마지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땅 자기 토지가 아니라 다 소작이야. 여기가 해방 후에도 방천을, 어떤 때는 방죽 위에까지 올라와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야. 저 높이 황방산 쪽에서 (물이)내려오니까.

_ 신흥마을 이종열氏

□ 평리입석

평리는 동산역 뒤쪽에서 삼례교 못미쳐 전주천 제방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옛 지명이 ‘취엽정’이다. 이 마을 어귀에는 ‘평리’라고 새긴 돌기둥이 세워져 있다.

이 입석은 본래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개울을 건너는 다리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콘크리트 다리로 교체되었지만 그대로 문헌 채 방치된 것을 몇 년 전에 다리를 확장하면서 마을 입구에 이정표로 세웠다. 그런데 이 입석은 춘향전의 배경을 담고 있어 그 민속적 가치가 높다.



평리입석

즉 이도령이 과거 급제 후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을 가던 중 ‘가리내(湫川)’와 ‘취엽정’을 지나 전주 선화당으로 향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취엽정이가 곧 평리마을이고, 이 돌다리가 이도령이 밟고 지나갔던 다리라고 한다. 이 돌기둥은 사각기둥 형태로 높이 1.95m, 둘레 1.5m 이다.

□ 동산역



1975년 동산역 모습



현재 동산역

동산역(東山驛)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에 위치한 전라선 및 북전주선의 철도역이다. 전주공단지역으로 연결된 북전주선의 분기지점으로, 컨테이너 중심의 화물 수송역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여객 열차의 취급이 중단되었다.

원래 동산역의 위치는 지금보다 조금 위쪽에 있었고, 건물 또한 목조건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 위치로 옮겨온 것은 대략 30년 정도라고 한다. 현재 동산역을 바라보고 왼쪽 철탑이 있는 위치가 동산역의 원 위치다.

동산동은 동산동 인근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복잡한 버스 대신 통학용 기차를 많이 이용했다고 하며, 아침이면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곳 중 하나라고 했다.

[구술] 통근열차

통학열차, 통근열차라고 하죠? 그게 인자 전주 - 군산간 다녔는데. 올해 없어졌나, 작년에 없어졌나? 그것도 너무나 운임이 싸다보니까. 우리가 100원 투자하면 고건 한 30원이나 40원 밖에 못 버니까. 우리가 공사체제로 바뀌면서 고건 건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행중

지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청시절에는 고걸 많은 제약을 받아 못 없었는데, 수지타산 보고, 고런 걸 없었어요. (조사자 : 90년대 중반에는 몇 백원 한 것 같은데?) 싹 넘어 섰어요. 우리 버스가 군산-전주 3000원 하면, 우리가 1200원 했나? 지금 인자 화물역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의 지금 공단, 팔복동 공단의 그 화물을 거의 다 취급하죠. 전주역은 지금 완전 여객취급만 하고, 여기는 인자 화물취급만하고, 지금은 물류여객이라고 하죠. 물류여객.

_ 동산역 박성기氏

[구술] 안 땡긴게 불편하지

(조사자 : 사람들이 동산역으로 출퇴근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하루에 얼마나 이용했던 것 같아요?) 많이 땡겼지. 요새는 여기서 어느 날 부턴가 차가 군산 가는 것 안 땡기잖아. 여기 학생들 많이 갔어 군산으로. 통학차로 땡겼었어. (조사자 : 통근열차?) 응. 근데 그것 안 땡긴게 불편하지 학생들이. 이리 원대도 여기서 버스 타고 땡겼었잖아. 아니, 기차 타고.

_ 원고량마을 한상학氏

□ 솔갱이 기름

대동아전쟁(“태평양 전쟁”을 당시 일본에서 이르던 말) 당시 비행기 기름이 부족한 일본군은 솔갱이 기름을 공출하게 된다. 원고량마을에서도 솔뿌리, 소나무를 이용해 기름을 내는 곳이 있었다. 솔갱이 기름을 뽑았던 공장에는 현재 아파트(삼화아파트 부근)가 들어서 있다.

당시 솔갱이 기름은 솥을 만드는 방식처럼 뿔동(蓐)같은 가마를 만들어 솔기름을 냈다. 솔갱이 공장 근처로는 일본인 소유의 소나무 밭이 있었고, 울타리를 쳐서 한국인들의 출입을 차단하였다.

[구술] 전부 솔갱이 공장이었었어

(조사자 : 할아버지, 솔갱이 기름을 여기서 많이 했다면데요?) 아, 기

름 낸 집? 여기 시방 아파트 지었지? 삼화라고 지은 디, 거기가 전부 술갱이 공장이었었어. 이렇게 둥그럼 하게 해갖고 말하자면 굴, 쪼그만 혀. 시방 숯 굴 만드는 디, 시방 우리 보면 숯 굽잖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술기름 내대. 쪼깐해서 본 게. 이렇게 맹글어 갖고, 이렇게 뿔동 같이 크게 해갖고 거기서 술기름을 냈어. 고리 기여, 그 밑으로 다. 위에는 다 소나무 꼭 찼어. 저기 소나무 밭 있었은게. 저 아파트 삼화라고 하는 데가 왜놈들 소나무 밭이 있었어. 농장 있었어, 일본놈 농장. 우리는 못 땡겼었어 그때.

— 원고량마을 한상학氏

[구술] 비행기 기름으로 쓰고

(조사자 : 그러면 이 밭에서 뽕나무 심어가지고, 누에 했던 거예요?)
여기도 여기지만, 사방 간데서 했지. 여러 간데서. 그래가지고 고치 수매를 정부에서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놈을 갖고 실을 내 갖고, 명주 있잖아.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 명주로 해가지고 일본놈들 낙하산 있잖아? 낙하산 천으로도 쓰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가서 내가 대동아전쟁 때, 기름이 별로 없고 그런게 술뿌리 기름내는 데가 있었어. 솔나무 뿌리 캐갖고 기름, 그놈 떼가지고 기름이 쳐대잖아. 시킴하게. 그렇게 기름도 내갖고 비행기 기름으로 쓰고 그랬다고 하거든. 여기서 낸 때가 있었어. 우리 있을 적에.

— 원고량마을 이남준氏

□ 뽕나무 밭과 나카무라 양잠술

일제강점기에는 평리에서부터 원고량마을까지 그 일대 모두가 뽕나무 밭이었다. 이 일대는 일본인 나카무라가 운영하는 ‘나카무라 양잠술’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일을 하고, 샅을 받았다. 마을사람들이 누에농장에 가서 하는 일은 뽕잎을 따 누에 밥을 주고, 누에가 싼 뽕을 치우고, 명주실을 뽑는 일을 했다.

현재도 동산역 삼거리에서 삼례방향으로 30m 좌측에 당시 사용했던

누에공장과 사무실, 숙소 등의 건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가정집과 개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외형은 아직도 그대로다.



나카무라 양잠술 공장건물

[구술] 누에 키웠어,
누에

(조사자 : 일본 사람 누구 집이었어요?) 나카무라라고 일본사람. 여기가 뭐였는고 하니, 뉘어 키웠어. 뉘어.(누에) 잠실. 전부 잠실이여 지금. 잠, 누에 키우는 잠실. 건물이 크잖아. 그래서 양쪽에다가 쪽 해갓고 세간, 그걸 쪽쪽 물어 났었어. (조사자 : 일본 사람이 키운 거예요?) 그렇지 그때가 일본 사람이 했고 일본 사람 가고 나서는 한국 사람이 했었어. 저기 저 배 밭 있지? 그것도 일본 사람이 한 배 밭이야. 많이 없어졌지 인자. 꼭 찼었는디... 이 근방 사람은 다 여기서 벌어먹고 살았어. (조사자 : 누에 공장 가면 무슨 일을 해요?) 뽕잎 따 갓고 누에 밥 주잖아. 밥 주고, 뽕 싹 놔 치우고, 그렇게 해갓고 누에에서 나오면 뿔 하는고 하니, 누에가 크잖아? 그러면 그것이 몇 밤 자고 나면, 한 달이나 자고 나면 번데기가 되. 그럼 실을 빼지, 명주실이라고. 누에 고추가 나와, 하얗게.

_ 원고량마을 한상학氏

□ 송탄유 채취를 위한 학생동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가상 적은 미국으로서 일본인들은 세계 제1위로 부유한 미국민들이 염전사상이 농후하다 하여 미국을 과소평가하고 기습을 전통으로 하는 일본군의 속전속결법으로써 우위적 전략을 전개하여 대전하면 2년 이내에 미국을 격파하거나 승전적 위치에서 화전

할 수 있다고 오판하여 전쟁에 들어간다.

일본은 연합국의 대일 단교에 이어 1941년 8월 1일 미국의 전면적 대일 석유 금수조치가 취해지매 일시 제3국을 통하여 석유의 수입을 계속 하였으나, 미국의 봉쇄 포위가 엄해지자 다급해진 일본군은 남방자원 영역으로 진격을 개시했던 바 치열한 전선의 연료유는 의외로 폭증하니 일본의 비축 유량도 1년여의 사용량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일본군은 솔송이(간솔)로써 기름을 짜내는 송탄유 채취법을 개발하여 그 많이 소요되는 일본군의 항공기 연료유를 한국인 소학생들을 동원하여 한국의 산을 깎아서 짜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송탄유 공출 책임량을 할당 하는 자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요 그 할당을 받는 자는 각 도지사과 군수들이었다. 조선총독 소기국소(小機國昭)는 진두에 나서서 각 도를 순시하면서 “나라가 있고난 뒤에 산이 있다”는 등의 괴변을 외치면서 송탄유 생산을 독찰하고 다녔다.

각 지방에는 징병과 노무자 징용으로 장정은 다 없어지고 소학교 학생, 중학생 밖에 없는데 어린이들을 동원하여 솔송이 따기에 총동원하였다. 그러나 삼림 남벌을 한 뒤라서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없게 되고 다급해진 일본군의 송탄유 공출 독려는 광폭을 고하게 되었다.

도직원, 군직원, 면서기 등을 연일 수업을 전폐하고 동원된 학생들과 소수의 노무자들을 독려하여 채유작업을 시행하였더니 송지(松脂)가 많은 송송이를 채집하여 그것을 산골짜기에서 드럼통으로 만든 솔 안에 넣고 불을 때니 도유관을 통해서 제법 송탄유가 나왔다. 이제 솔송이 마저 채취하기 어렵게 되니 어린 소나무를 마구 베어다 착유작업을 하니 송탄유가 그렇게 생산될 리가 없었다. 모두 허사였다. 이런 무모한 작업에 동원된 학생수는 헤아릴 수 없으며, 이 작업은 1943년 가을부터 전국 13도 2,460개 부읍면에서 1945년 광복 직전까지 계속되어 산에 나무의 흔적은 거의 볼 수 없는 황폐한 강산만이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전주시사).

3. 고랑동의 생활민속

□ 경지정리 때 이야기

김제평야 경지정리를 할 때 신흥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나갔다. 새벽 1시에 일어나 걸어서 먼 길을 가 일 하고 받는 하루 품삯은 겨우 밀가루 7kg. 이것도 일을 잘 하는 사람의 경우이고, 대개는 3~5kg을 받았다. 또 남자들이 일 하면 쌀 한 납대기(모되), 지금으로 치면 8kg을 받고, 한 말을 받으려면 5일간 일을 해야 했다.

[구술] 그래도 일은 해야 목구녕에 풀칠이라도 하지

(조사자 : 김제까지 가요?) 말도 마, 그때 생각만 하면, 그렇게 송악한 적이 없어... 먹을것은 다 뺏아가고 없지, 그래도 일은 해야 목구녕에 풀칠이라도 하지, 정말 그야말로 죽을동 살동 먹고 살기 위해 일 나간겨...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항게. 새벽에, 새벽 1시였나? 1시 였을꺼, 그때 부텨 일어나서 김제까지 가서 종일 쉼없이 일해서 받는게 한 5kg, 많이 줘야 7kg... 보통 한 3~5kg 그렇게 받고 왔어. 그것도 쌀도 아니고 밀가루여 밀가루... 그래도 그거라도 받고 먹고 사는겨...

_ 고랑동 신동임氏

□ 머슴의 생활상

이종열씨(78)네 일꾼들(머슴)의 1년 샅은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쌀 세 가마니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쟁기꾼’으로 일년에 일곱 가마니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일명 ‘상머슴’ (일을 잘하는 장정 머슴)은 쟁기질과 농번기에 물을 대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열두 가마니를 받았다.

□ 머슴들의 물꼬싸움

신흥마을의 제일 부자는 200마지기를 짓는 집이고, 평리마을의 제일

부자는 100여 마지기를 짓는 집이었다. 당시로서는 꽤나 큰 규모의 논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사일에 있어 ‘물’을 얼마나 원활하게 대는가로 한 해 농사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 두 마을 부잣집에서는 일명 ‘깡패머슴’을 두어 모 심을 때 물꼬싸움을 하였다. 이 상머슴의 역할은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물을 가지고 이웃마을 상머슴과 물싸움을 하는 것이다. 치고받는 싸움을 하기 보다는 ‘기싸움’을 하여 주인집 눈에 가능하면 빨리, 많은 양의 물을 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구술] 물을 대야 하니깐

(조사자 : 그럼 일꾼들 샅을 얼마나 쫓았어요?) 그때는 쌀이 하루 일당이 아니라 1년에 얼마. 1년에 켈 적게 받는 게 쌀 세가마니. 80석에서. 제일 많이 주면은 쟁기꾼 같은건 일곱가마니. 일년에. 그리고 상머슴이라고 있어. 뭐 쟁기질도 하고 물도 대고, 이 근방은 수리조합이 안 되서 물을 대고 들고 받고, 모 심을 때 되면 저녁에 싸우니라고, 물 땀에. 전에는 전부가 품고 바가지로 받고... 우리집같이 농사가 많은 집은 그렇게 하면 모 심겠소? ... 소문이 난 사람을 데려다가 열두가마니, 여튼 주고. (조사자 : 싸움 잘 하는 사람은 열두가마니를 쫓다구요?) 그렇게 싸움이 붙으면 열흘이고 스무날도 좋고 농사 다 질 때까지 싸움을... 물을 대야 하니까, 기싸움 하는거지. 싸움을 잘 한 다기보다 물을 댈라고.

_ 신흥마을 이종열氏

□ 6·25 전쟁

일명 ‘큰 사고’라고 불려지는 평리마을 사건은 한국전쟁 이전에 일어났다.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농민들 대다수는 ‘토지분배’에 대한 이상 때문에 복한을 동경하고 있었다.

이에 칠월 칠석 무렵, 마을 모퉁에서 ‘공산주의 회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산촌 경찰지서에서 그 정보를 알고 경찰 10여명과 대한청년단 7~8명이 현장을 덮쳤다. 그런데 총기를 휴대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적(敵)’으로 간주한 마을주민들이 그들을 때려 경찰관의 팔뚝이 부러지거나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심지어 몽둥이로 맞고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자전거를 뺏고, 물속에 처박는 와중에 한 명을 물에 던져 죽이고 말았다. 도망을 간 경찰 일행이 전주경찰서에 연락해 오후 3시경에는 무장한 경찰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다. 이미 마을의 남성들은 전주나 김제, 고산 등지로 도망을 간 상태였다. 마을에 온 오륙십 명의 경찰들은 100여 마지기 농사를 짓던 김철봉씨 집에 임시본부를 차리고, 두어 달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낮에는 도망간 사람들을 잡기 위해 차에 사람들을 싣고 근방 친척이나 고향집을 찾아다니며 “도망간 마을사람 친척이 있다고 말하자면 저 사람이다 그럼 잡고 해서 한 20명 잡아갔다.”고 한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15년형에서 20년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짧게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이 후퇴하면서 잡혀간 사람과 마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다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살했다. 복수는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일어났다. 한국군이 후퇴할 때와는 반대로 공산주의를 찬동하다 남편이 죽었다거나 가족이 죽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하라”면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호맹이’(호미)로 죽이도록 했다. 김성준(74, 평리마을 경로당 회장)씨에 따르면 “실제로 인민군이 사람을 별로 안 죽였어. 시방 사람들끼리 인민군 후퇴하니깐 후퇴 전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면 죽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비극이 있었다.”고 한다.

□ 땀감

이남준씨에 따르면, 주변에 산이 없어 땀감이 부족한 원고랑마을 사람들이 땀감을 구하기 위해 완주군 상관면, 소양면, 심지어는 모악산까지 다녔다고 한다. 새벽같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 나무를 해서 집에 돌아오

면 뉘엿뉘엿 서산에 해가 저물었다.

[구술] 새북같이 나갔어, 새북같이...

보다시피 여기는 순 밭이고 논이고 그래가지고 땔나무 구할라문, 겨울 되기 전에 땔감 저 놓으려면 아주 애 먹었어요. 뭐 근방에 산이 있어 야지, 산이. 그렇게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이 뛰야, 새북같이 나갔어, 새북같이... 땔감 구할라면 저기, 저기 상관이나 소양까지 걸어나가야 혀. 거기나 가야 나무가 있지, 안 그러면 모악산에도 가고 그랬을게...

— 원고랑마을 이남준氏

□ 원고랑 당산제

현재는 진행되지 않는 이 마을의 당산제는 여성들만 지냈다.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당산제는 대개의 경우 남성들에 의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여성들이 지냈다고 하며 당산제를 지낼 때 그리 멀지 않은 마을인 만성리에 있는 디딜방아를 훔쳐다 또랑에 다리를 놓고 밝고 다니면 좋다고 해서 훔쳐오기도 했다고 한다.

III. 만성동

1. 만성동의 유래와 지명

만성동은 황방산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제군 이서면과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황방산을 경계로 팔복동과 경계를 이루며 중동, 장동, 상림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본래 만성동은 전주군 이동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만성리, 영흥리, 월평리, 신성리, 신리, 두현리, 용흥리, 냉정리, 신동리 및 이남면 신곡리, 안심리 각 일부를 병합하여 만성리라 해서 조촌면(읍)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7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

라 전주시에 편입되었다. 만성동은 어느 때인가는 만명의 사람이 살 수 있게 번창할 수 있는 마을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온 이름이라고 한다.

만성동에는 황방산을 뒤편에 두고 용흥, 두현, 원만성, 옥계동, 찰방, 월평 등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혁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찰방, 월평 마을은 혁신도시 부지조성지역에 편입되어 마을이 없어질 예정이다. 또한 원만성 마을과 옥계동 마을에도 법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조사 당시 혁신도시 지역에 편입된 찰방과 월평마을은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없었으며, 원만성과 옥계동 마을은 보상협의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 용흥마을

전주 김제 간 716번 지방도에서 팔복동 2공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만성 초등학교 못 미쳐 위치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천고사와 만성교회가 있으며, 이어 마을 모정과 노인정이 자리 잡아 마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공동우물이 남아 있다. 현재 용흥마을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주로 논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논농사 외에 고추, 담배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논이 천수답이어서 가뭄이 들면 농사짓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부터는 농사짓기가 조금은 수월하다고 한다.



용흥부락 표지석

□ 두현마을



두현마을 표지석

두현마을은 황방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말고개를 사이에 두고 다시 이마를 쳐든 앞 뒤편과 그 앞 뒤편 왼쪽으로 흐른 청록골이 느슨하게 감싸 안고 있다. 남쪽으로는 용흥, 북쪽으로는 칠방, 원평, 그리고 동북쪽으로 옥계동이 둘레를 이루

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완주군 이서면을 경계로 툽 터져 있다. 그 너머 멀리 금만평야와 서해 바다쪽을 바라보고 있어 비교적 너그러운 시계를 통해 생활 속의 호흡 또한 각박하지 않은 마을이다.

두현마을 동쪽에 있는 황방산은 전주의 서쪽을 방어하는 황방고성이 있었던 자리로 정상에는 지금도 석축의 흔적이 확연히 남아 있고 고인돌로 추정되는 학바위와 말바위 등이 널려있다.

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옆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어 시내로 일보러 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 두현마을 입구에는 용원정미소가 있다.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제법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기계도 잘 돌아갔다고 한다. 현재는 가동을 중지하여 쓸쓸히 마을 귀퉁이에 홀로 서 있다. 마을 중앙에는 마을회관이 있어 이곳에서 동네 대소사를 논의한다고 한다. 마을회관 바로 앞에는 은행나무 1쌍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뒤편에는 두현제가 있어 이곳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고 한다.

□ 원만성마을

‘날아가는 갈까마귀
가 시체를 쫓아 먹는 혈’
인 ‘비아타시혈(飛鴉啄
屍穴)’의 날개 안쪽에
자리 잡은 원만성마을
은 농지로 둘러싸여 대
부분의 주민들이 농사
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
의 생활터전인 전답은



원고랑마을회관 현판



마을 내 철거번호

법조타운 조성 발표와 함께 외부인들의 땅 투기로 인해 잃어버린지 오래
이며, 외부인의 전답을 관리하며 소작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마을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불만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어
수선하다. 이것은 마을회관에 세워진 보상 대책위원회의 현수막에서, 마
을 곳곳에 설치된 보상협정 현수막에서, 집집마다 붙여진 붉은색 철거번
호에서 느껴질 수 있었다. 마을회관 바로 옆에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전주시지회 만성수령당(萬成壽寧堂)이 있으며 인근 텃밭에는 이 만성수
령당 건립비가 있다.

□ 옥계동마을

옥계동 마을은 원만성 마을
과 붙어 있는 마을이다. 이 마
을 역시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
정지구여서 그런지 원만성 마
울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다.



서고사에서 바라본 옥계마을 전경

옥계동 마을은 원만성마을과 행정편의상 1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 대부분은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외지사람이 소유한 땅을 임차하여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지인에게 팔았고 증언하였다.

한편 마을 뒤편 낮은 구릉에 층층이 논·밭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 북서쪽에는 기지제(뜰못)가 있다.

□ 월평마을



월평마을 표지석

월평과 찰방마을은 혁신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현재 주거지 철거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월평마을은 황방산에서 서북쪽으로 흘러 내려온 구릉지를 북에 두고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풍을 피하기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이며, 지하수를 얻기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마을 앞에는 좁은 고라실이 발달해 있으며, 다랭이논이 전개되어 있다. 마을 뒷산 구릉지는 전형적인 황토이며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서남쪽은 기지제에 접한 저습지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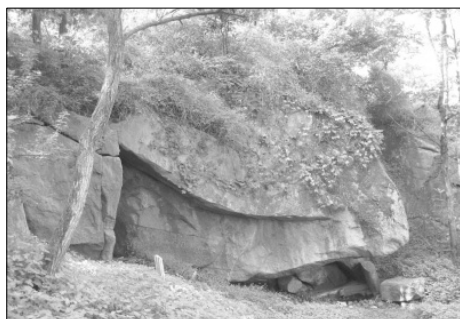
□ 찰방마을

찰방마을 역시 혁신도시지역에 편입, 보상이 완료되어 마을이 텅 빈 상태이다. 현재 주거지 철거 및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찰방마을은 황

방산에서 두현리를 거쳐 흘러내려오는 구릉지를 북에 두고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풍을 피하기 좋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이며, 지하수 역시 얻기 쉬운 곳이다. 황토로 이루어진 구릉지를 중심으로 밭이 개간되어 있고, 서쪽 조촌천 방향으로 논이 발달하였다.

□ 용추

용추는 용흥마을 뒷산이 용이 꿈틀거리는 형세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 동쪽 황방산 밑에 용추(龍湫)라는 못이 있다(지명유래).



용추

[용터]

농사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이다. 용흥마을 역시 지하수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 어른들이 황방산 용터에 올라 우제(雨祭)를 지냈다. 용터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전해지는 신비한 샘인데, 그 깊이가 무려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가도 안 닿는” 깊이다. 용터의 위치는 서고사 방향에 있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있고, 현재 이정표나 안내판은 따로 없다.

□ 두현(말바위)

두현마을 광랑골에서 말고개로 넘어가는 고갯길 정상 부근에 쌀을 한 되(납대기)가량 담을 수 있는 말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곡식을 부어 그 양을 재어 가지고 전주장에 가면 딱 맞았다고 전해온다. 그래서 곡식을 재는 말 두(斗)자와 고개 현(峴)자를 써서 두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일반



말바위

적으로 이 바위를 말바위라 부르지만 되바위, 납대기바위로 부르기도 한다.

[말바위]

두현마을 뒤쪽으로 두현지(池)를 지나 산길을 따라 20여분 정도 올라가면 말바위가 있다. 2m정도의 말바위는 ‘한 되’(곡

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 되는 한 말의 10분의 1, 한 홉의 열 배로 약 1.8리터에 해당한다. ㄴ 승(升) - 국어사전)만한 크기의 사각형 홈이 파여 있는 바위를 지칭한다. 인근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곳에 와서 짝과 곡식의 양을 잰다고 한다.

□ 옥계동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곳에 토끼가 떠오르는 보름달을 바라보는 형국인 옥토망월(玉兔望月)혈이 있기에 옥토 계수에서 온 이름이라고 한다. 옛 이야기 속의 토끼는 비록 힘이 약하고 몸집도 작지만, 산중의 왕이라는 범을 골탕 먹이는 의로운 동물로 등장한다. 토끼가 사는 달은 여성을 상징하며, 토끼는 한 배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또 달의 상징인 여성도 생산과 다산의 표상인 것이다. 특히 달에 사는 옥토끼는 떡을 쪼거나 불사약을 빚는 영물이다. 점괘에도 토끼는 재산이 늘고 벼슬이 높아지며, 절세의 미녀를 아내로 맞는 것을 알려 준다. 토끼와 달이 한 몸을 이루는 터를 길지로 꼽는 것은 당연한 일 인 것이다.

□ 찰방

옛 만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찰방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찰방은 조선시대에 각 도(道)의 역참을 관장하던 종 6품의 외관직(外官職)이다. 삼례역을 관장하는 찰방이 이 마을에 거주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웃한 월평마을과 합쳐서 “월방”이라고도 불린다(한국토지공사·전북개발공사,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마을지 -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되는 날』, 2009, 디자인 흐름).

□ 월평

월평이란 단어 그대로 ‘달뜰’이라는 말이며, ‘다랭이’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황방산에서 기지제(틀못)쪽으로 다랭이논과 밭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2. 만성동의 문화유산

□ 만성초등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이다. 1956년 1월 5일에 조촌국민학교 만성분교 인가를 받고 개교하였으며, 1959년 3월 5일에 만성국민학교 7학급으로 승격인가를 받았다. 교훈은 “큰 뜻을 품자, 능력을 키우자, 바르게 살자”이며, 교목은 은행나무, 교화는 철쭉이다. 유치원 1학급을 포함하여 6학년 7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색사업으



만성초등학교

로 영어 말하기, 한자 익히기, 컴퓨터 기능 익히기로 구성된 <미래형 3품제 특성화 전승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천고사



천고사

천고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두현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이다. 신라 때 원광(圓光 : 555~638)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이 백제의 영토 안에 속해 있었으므로

신빙성은 떨어진다. 진감국사 혜소(惠昭 : 774~850)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이 절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후의 연혁은 전해지지 않으며,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1919년에 송윤금(宋輪金)이 중창하였고, 1955년에는 보운(寶雲)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물로는 불상의 특성을 보아 고려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고사 석불좌상(石佛坐像)이 있다. 천고사 미륵전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석가여래좌상이다. 그동안 미륵불상으로 알려졌으나 향마촉지인을 맺고 있어서 석가모니불로 밝혀졌다. 1999년 7월 9일 전라북도문화재자료 제145호로 지정되었다(한국토지공사·전북개발공사,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마을지 -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되는 날』, 2009, 디자인 흐름).

[구술] 천고사 돌부처 설화

응. 여기 절이 왜 있냐면, 지게 지고 쉬는데 거기 눌러 붙었다고. 그래

서 거기가 돌부처야. (조사자 : 불상을요? 원래 어디로 갈라고 했는데요?) 금산사로 갈라고 했었다야. 여기서 잠깐 쉬는데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고 해서, ‘아, 여기가 절터구나’ 그런거지. 말도 타고 가면 그 앞에 서서 꺾어 돌아간다고 하잖아. 말을 타고 가면 말굽이 부러지고 그렇대. 부처님이 계신데라. 그게 참, 스님이 계셨으면 잘 아실텐데.

_ 용흥마을 김덕수氏



석불좌상(石佛坐像)

[구술] 비 올 것을 예견하는 입석

(조사자 : 마을분들한테 듣기에 비가 올 때면 저 입석 세워진 것이 색깔이 변한다면서요? 비 오려고 하면, 그래서 비 오는 줄 안다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떤 때는 습기가 많이 올라와 어떤 때는... 그 전에 새벽에 가면 물이 줄줄 흘러, 물을 부운 것 같이 (조사자 : 줄줄 흘러요?) 그럼. 그냥 그런 말을 안했지 내가. 하면 또 미친소리 한다고 할까 싶어서 말을 안했어. 가끔 어떤 때는 한 번씩 그렇게 흘러. 그도 말을 안했어. 남돌라먹을라고 또 그럴까 싶어서 말을 안했지. 헛소리한다고

_ 천고사 보은스님

□ 천고사 독성상

천고사 대웅전에 따로 모셔진 독성상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둥그스름한 좌대 위에 나한상과 같은 모습으로 새겨졌다. 머리는 민머리이고 둥글둥글한 얼굴 형태에 친숙한 모습으로 사실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다. 법의는 가슴과 어깨가 상당히 드러나는 도포 형태로 양손을 모으고 있는 팔 위에 도포자락이 걸쳐 있다. 옷자락 표현이 단순하지만 사실적인 느낌이 난다. 비교적 얇은 키가 크게 느껴지는데, 무릎이 좁고 도포자락에 가려져 있지만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다.

□ 천고사 보살좌상

천고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 보살 좌상이다. 높이가 43.5cm 무릎 폭이 26.5cm의 자그마한 불상이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이마 위 보관을 쓴 부분에 검정띠를 두르고 있고, 양쪽 어깨에 검정색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다. 얼굴은 원만한 형태이고, 귀는 거의 어깨에 닿을 듯 크다. 눈썹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눈은 지그시 내려 감고 아래를 내려다 보는 듯하다. 법의는 통견이고, 어깨는 머리와 무릎에 비해서 작은 편이다. 손은 따로 만들어 끼워진 형태인데, 아미타 수인과 비슷하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천고사 석불좌상

육계가 큰 편이며, 소발이며 얼굴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란형의 윤곽에 눈과 코는 마모가 심해서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입술은 도톰하게 새겨져 있는데 아랫입술만 남아있다. 귀는 어깨에 닿을 만큼 크고 위아래 컷밥이 깊게 패어 있다. 몸집에 비해 머리는 가분수처럼 크고 얼굴에 비해 어깨는 좁은 편이다. 우견편단의 모습으로 법의가 왼쪽 어깨에 네 겹으로 겹쳐져 있다. 왼팔에 옷주름은 손목까지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인데 다섯손가락의 길이가 거의 똑같이 새겨져 있다. 옷주름은 결가부좌한 다리까지 표현되어 있으며, 자세가 마치 양반다리처럼 왼쪽 무릎 위에 올려진 오른쪽 발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 왼손은 선정인과 유사하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 엄지와 검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있으나 다른 손가락은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다. 상반신에 비해 하반신의 표현이 약화되고 비례상 상반신에 비해 작아졌다. 불신과 광배가 하나의 돌로 새겨져 있는데 두광과 신광의 구분이 뚜렷하고 외곽에는 화염문이 조각되어 있으며, 당초문과 세 잎의 꽃잎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새겨져 있다. 두광에는 양쪽에 세 송이씩 연꽃봉오리가 새겨져 있으며,

따로 떨어져 나간 광배의 윗부분에도 연꽃이 새겨져 있다. 두광의 연꽃부분은 청색으로 광배의 가장자리 화염무늬에는 단청이 되었던 흔적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맨 윗부분의 광배편이 떨어졌으며 세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다.

□ 만성교회

1905년 3월에 설립된 만성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로 전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서문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교회이다. 초창기 명칭인 두현리 교회 설립 당시 초대 당회장에 전요섭 목사가 취임한 이래 24대에 이르는 목사가 취임했으며, 1921년에는 교회에서 숭선사립소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만성동 인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교육을 받은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교회에서 소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탄



만성교회

압에 억눌려 1940년도에 폐교하게 된다. 아직도 교회 옆에는 당시 학교 건물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만성교회는 두현리 교회로 불리다가 1940년도에 만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현재 건물은 1978년도에 완성된 것이며, 교회 정면에는 100주년 기념비가, 그 뒤편에는 50주년 기념비가 설립되어 있다. 그리고 뒤편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종이 남아있으나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 효부열녀가선대부한성좌윤김재택지처정부인평강채씨려

(孝婦列女嘉善大夫漢城左尹金再宅之妻貞夫人平康蔡氏閭)

- 구 조 : 팔작지붕 홀처마, 시멘트 담당
- 정려비 : 높이 119cm×폭 36cm×두께 16cm



평강채씨 효열비

이 정문(旌門)은 조선조 고종 29년(1892) 4월 1일에 하사(下斯)되었다. 가선대부 한성좌윤(嘉善大夫 漢城左尹)을 지낸 김재택(金再宅)의 처(妻)인 정부인(貞夫人) 평강채씨(平康蔡氏)는 공조 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시부(媳父) 김현대(金顯大)와

남편 김재택이 와병(臥病)으로 눕게 되자 주야정성(晝夜精誠)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며, 특히 어느 겨울날 와병중인 시부가 잉어를 잡수기를 원하자 눈 덮인 강가 웅덩이의 얼음을 깨고 눈물로 기도하여 잉어를 얻어 병환을 낮게 하였다. 그 후 남편의 간병에도 식음을 잊고 단지주혈(斷指注血)하는 등 지성을 다했다. 이에 세인(世人)들은 설한풍(雪寒風) 속에서 잉어를 구(救)하고 손가락을 자른 지선(至善)한 마음은 하늘이 내린 효열(孝烈)이라며, 인동(隣洞)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에 나라에서는 효열(孝烈)이 지극하다 하여 정려를 내렸는데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만성초등학교 인근의 두현마을 입구에 정려각이 세워져 있다.

□ 조선말 대문 및 행랑채

두현마을 김용섭씨 댁에는 조선시대 말엽 주인과 머슴의 생활을 대비

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가옥구조를 가진 집이 있다. 가옥구조는 본채와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다 초가지붕의 형태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본채는 현대식 구조로, 행랑채 초가지붕 대신 슬레이트로 바꾸었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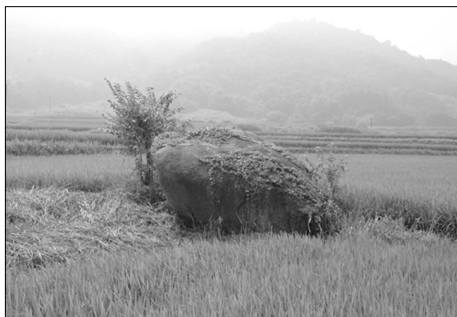


조선말 대문

대문에 있다. 대문은 2개 인데, 하나는 주인만 출입하는 대문이며 다른 하나는 행랑채와 이어지는 조그마한 출입구로 이곳으로는 머슴이 출입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까지 출입을 달리했다고 하니 주인과 머슴의 삶을 대문만으로도 알 수 있다.

□ 만성동 지석묘군

황방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 7기의 지석묘가 있는데, 서쪽을 향하여 약간 경사진 사면에 대략 한 줄로 자리하고 있다. 가장 북방에 있는 제1호는 장축 방향 200°, 길이 4.1m, 최대폭 3.9m, 높이 1.8m이다. 제1호 남변에서 225° 방향으로 7.2m 떨어져 제2호가 있다. 제2호는 상석의 장축 방향 190°, 길이 3.0m, 최대폭 1.7m 높이 0.6m인데, 원래는 더 컸을 것이나 파괴되었다. 제2호에서 정남 방향으로 3.0m 떨어져 제3호가 있다. 방향



만성동 지석묘

은 정남이고, 길이 2.35m 폭 1.9m, 높이 0.6m인데, 논 개간으로 인하여 서쪽으로 기울었다. 제3호에서는 정남 방향으로 5.5m 떨어져 제4호가 있다. 제4호는 170° 방향, 상석 길이 3.5m, 폭 2.5m 높이 1.4m이다. 제4호에서 서쪽으로 3.0m 떨어져 제5호가 있다. 제5호는 상석이 파괴·절단되었는데, 215° 방향, 길이 2.7m이나, 폭은 0.6m만이 남아 있다. 높이는 0.6m이다. 제4호에서 남방으로 9.7m 떨어져 제6호가 있다. 제6호는 동남 130° 방향, 길이 3.7m, 폭 3.0m, 높이 1.3m이다. 제6호에서 서남 210° 방향으로 48m 떨어진 곳에 제7호가 있다. 제7호는 장축 200° 방향, 길이 3.3m, 폭 3.0m, 높이 2.3m이다. 제7호는 서쪽면에 「慶州 丁若坤書」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지석묘군은 거대한 자연암석을 상석으로 하고 3~4개의 지석을 괴었으며, 7기가 남북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긴 상석은 제1호로 4.1m이고, 가장 높은 상석은 제7호로 2.3m이다. 현재 4·6·7호만 남아있다(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 『전주시 옛고장 지표조사 보고서』, 1995).

□ 만성동 유적

전주 제2공업단지의 외곽을 지나는 전주 서부순환도로 개설 도중 발견되었다. 발굴조사한 3기의 주거지 외에도 주변에 다른 주거지가 자리하



유물산포지

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말각방형과 말각장방형이며 기둥구멍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는 도랑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수습된 유물은 대체로 원삼국시대 토기인데 적갈색 연질토기, 회

색 연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는 석자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나 석기로 만들었던 생활도구 및 생산도구가 상당부분 철기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여의동 용정마을 동방 능선상에 2기의 지석묘가 있는데 1기는 파괴되었으나, 다른 1기의 개석은 장축 130°방향으로 서북쪽의 넓어진 삼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이룬다. 길이는 2.95m, 서북변 2.25m, 두께 0.55m이다. 지석묘는 1994년 1월에 전북 대학교 박물관 앞으로 이전하였다(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 여의동유적 수습조사보고서』, 1992).

□ 기지제 - 툴못, 툴방죽

기지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인공저수지로 주민들은 이곳을 ‘툴못’ 혹은 ‘툴방죽’이라고 부른다. 농사를 지을 평야는 넓지만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이곳에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지개

목적이었다. 약 80년전 쯤에 기지제를 조성할 당시, 돌이 많은 황방산에서 돌을 일명 ‘도루꾸’로 불리는 모노레일을 이용했다고 한다. ‘도루꾸’는 고도가 높은 산에서 고도가 낮은 평야지대로 돌을 손쉽게 나를 수 있는 유용한 기구였다. 이 ‘도루꾸’는 브레이크 장치가 따로 없어 나무를 이용해 속도를 제어했다. 기지제를 만들면서 인근 지역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했으며, 또한 무거운 돌을 나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사상자도 많았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한국사람은 영리하니까 힘 좋은 중국사람들”을 많이 동원했으며, 중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장소가 따로 있었

다고 한다. 못을 만드는 과정은 흙을 파내고, 땅을 다진 뒤 다시 황토를 덮어 나무판으로 꺾꺾 단단하게 다졌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가져다 물이 새지 않도록 기초작업을 했다. 기지재 옆에는 그 때 못을 만들면서 파낸 흙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언덕이 있다.

[구술] 도루꾸 타고 그 놈 널러가는 줄 알았어

왜정 살 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도루꾸를 타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널러가는 줄 알았어. 도루꾸 타고 그 놈 널러가는 줄 알았어. 지금 뚝 거기가 시방 도루꾸집 자리였어. 도루꾸 타고 축대가 저기에 있고... 많이 죽었어, 틀을 막을 때. 틀을 막은지 굉장히 오래 되었어. 한 80년? 그때 열 몇살 먹었으니까 거의 80년. 여기는 틀뭇이라고 다 했어. 기지재라고 안하고. 그것이 한 70년 되어. 틀 막은지가. (조사자 : 서고사에서 (도루꾸가) 반듯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휘어져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건 확실히 모르지. 그때만 해도 도루꾸라고 하지. 그거 타고 간 거, 반듯이 가지. 나무로 브레이크 하고 뭐 그런거지. 그때는 도루꾸로 다 실어 날랐어. 오르막도 위로 올라갈 때는 들고 내리고 하고 내리막은 신나게 내려오는 거여. 그냥 죽어. (조사자 : 방죽 공사는 몇 년이나 했어요?) 그게 한 대략 7~8살 먹었으니까 지금 저것이 한 80년 그렇게 되었지? 그때 중국 사람들도 엄청 와서 시켰어. (조사자 : 중국 사람들이 왔었어요?)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은 영리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힘이 좋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 시켰어. 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살다 간 데가 있어. (조사자 : 터가 있었어요?) 어,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리하니까 안 시키고 중국 사람들 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했지.

_ 옥계마을 정귀섭氏

3. 만성동의 생활민속

□ 만성동 일대 농경지 형편

예전 만성동 일대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릴 때 누군가 “어디 사냐?”고

물으면 큰 목소리로 “만성동이요!”라고 얘기하고, 비가 적어 농사짓기 힘들 땐 작은 목소리로 “만성동 살아요”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용흥마을에서는 벼농사 외에 담배농사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몇 가구만 짓는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에는 삼베옷을 만드는 삼농사를 약간 지었다. 옥계마을은 저수지도 없고, 지하수도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일이 더 힘들었다. 저수지가 있는 곳 같으면 그 물을 대어 농사를 짓겠지만 “여기는 하늘에서 떨어져야 농사를 짓는 거지. 하늘의 운에 따라 농사를 짓는 데가 여기야”라고 할 정도로 농사일이 더 어려운 곳 이었다.

[구술] 농경과 비

인자 그런디, 금계 옛날에 그랬디아. 어디 사냐? 하면 비가 많이 와서 모를 심으면 만성동이라고 크게 얘기하고 그랬디아. 그리고 비가 안오면 목소리가 작아져서 만성동 살아요 이려고.... 기분이 쪽져버리셔 목소리가... 그런디아 여그가.

_ 용흥마을 김덕수氏

□ 샘과 관련된 설화들

지금은 혁신도시로 편입되어 없어진 찰방마을에는 샘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전되어오고 있다. 샘물을 먼저 먹고 진사가 되었다는 진사벼슬 설화와 여자들이 돌을 날라 다리를 놓았다는 독다리 설화로 모두 마을 샘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술] 독다리 설화

옛날에 찰방 지나면 돌이 있어. 독자리가 났다 해서 그러고 그 찰방이 동네 터가 여자 장군이 들고 나와. 물을 먹으면, 여자들이 힘이 켜가지고 독이 반절만한 게 있는데 다리를 끌어다 났대. 그래서 거기 찰방이라고 안 해? 얼마나 힘이 세면 거기에 끌어다 갖다놔!

_ 용흥마을 김덕수氏

[구술] 진사 설화

양씨랑 한씨가 같은 꿈을 꿔디야. 그 시암(쌈)을 먹고 벼슬에 오르는 꿈. 여기 원상림에서 멀지 않아. 그런데 한씨가 가보니 양씨가 먹고 벌써 가더라. 그래서 양씨가 진사벼슬 했디야. 먼저 먹은거지. 그 전 세상엔 거기 물 먹고 다 살았어.

_ 용흥마을 김덕수氏

□ 복구형국 _ 황방산과 중동의 반산

황방산(黃彪山)은 이름 그대로 ‘누런 삼살개같이 생긴 산’으로 개가 배를 서쪽으로 깔고 엎어져 있는 형국이다. ‘개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구형(伏狗形)’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옥계, 원만성, 월평, 찰방 등의 마을은 개의 젖에 해당하는 냇물이 지나가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혈자리 가운데 개의 머리와 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만성초등학교 뒷산과 만성초등학교 자리가 각각 그에 해당된다. 여기가 복구혈(伏狗穴)로 개가 밥을 먹기 위해 고개를 내밀어 밥그릇을 응시하는 형이다. 따라서 앞에 밥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만성초등학교 앞의 중동의 반산이 개 밥그릇에 해당한다. 두현리에 거주하는 김정룡씨(72세)는 “반산은 소반반(盤)자를 써서 반산(盤山)이라 하며, 옛날에 어른들이 반산 꼭대기가 움푹하여 주기적으로 흙을 가져다 부었다”고 하였다. 이는 개 밥그릇에 밥을 채워 복구형의 지기를 왕성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한국토지공사·전북개발공사,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마을지 -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되는 날』, 2009, 디자인 흐름).

□ 원만성 마을의 비아탁시형국(飛鵲啄屍形局)

만성동 원만성 뒷산에 ‘날아가는 갈까마귀가 시체를 쪼아 먹는 혈’인 ‘비아탁시혈(飛鵲啄屍穴)’이 있다. 혈처는 원만성 마을 뒷산에 있는 수원백씨 가선대부 백상득(水原 白氏 嘉善大夫 白尙得)의 묘소와 역시 수원

백씨인 통정대부 백응기(水原 白氏 通政大夫 白應琦)의 묘소이다.

비아탁시형에서 마을은 까마귀의 겨드랑이 사이와 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로 입지하며, 날개 끝에는 자리 잡지 않은 경향이 있다. 날개짓을 하면 털려나가기 때문이다. 옥계마을과 원만성마을 역시 가옥 대부분이 까마귀의 겨드랑이와 주둥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이 서풍과 북풍을 피하고, 햇빛을 받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4. 황방산의 역사문화자원

□ 연소형국(燕巢形局) _ 황방산 서고사

황방산 안에 있는 서고사는 풍수지리상 처마 밑에 있는 제비집과 같은 형국이어서 연소형(燕巢形)으로 불린다. 연소형은 산 중턱에 약간의 축대를 쌓으면 터를 마련할 정도의 제비둥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어미제비와 같은 모양의 바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서고사의 연소형에 대해서 풍수지리학자 최창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현 전주시 만성동)에 있는 서고사는 전형적인 연소형의 자리이다. 눈에 쌓인 산 중턱에 법당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면 아주 온화하다. 서고사 주지 의성스님은 “이곳은 바람이 한풀 꺾어 들어온다. 그래서 북서향인데도 겨울에 아주 따뜻하다. 마을에서는 서고사에 서리가 가장 늦게 든다고 한다. 태풍이 불 때에도 다른데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데 이곳은 감나무에 감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전에 서고사에도 어미제비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으나 절을 크게 중수하고 축대를 보수하면서 낮게 묻혀 버렸다. 대신 과거에 비해 숲은 울창하여 서향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다.

_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 한국풍수의 이론과 실제』, 1990, 서해문집

□ 서고사(西固寺)

팔복동 2공단에서 이서로 2km쯤 가면 만성주유소가 있고 여기서 우회 전하여 500m 정도 올라가면 서고사이다.

황방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은 산의 서쪽에 기가 허한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삼살개가 밤새껏 짖어대며 그 기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서고사 극락보전

서고사는 일찍이 전주의 사방을 방비하는 사고(四固) 사찰의 하나로 창건되었지만 창건의 과정이나 자세한 연혁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

면 절의 역사는 그 보다도 훨씬 오래 전으로 올라간다. 먼저 후백제의 견훤이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국운의 회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명덕(明德)스님에게 절을 창건하도록 하였다. 그 후 고려시대에 들어서 공민왕 2년(1353년) 혜공대사라는 분이 중건하였고, 조선시대인 인조 2년(1624) 지엄대사가 3차로 중창하였다. 그리고 영조 39년(1774년) 벽송대사가 4차로 중창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중창의 역사는 비록 정확한 문헌에 전하는 기록은 아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때 가람이 완전히 소실되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그 이전까지 사증기록이 있었던 것 같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절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조 3년(1779)에 편찬된 『사찬읍지(私撰邑誌)』에도 ‘서고사는 서고산에 자리하며,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는 대목이 있다. 그러므로 18세기 후반까지 법등을 이어왔음이 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 뒤의 연혁을 잘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이후 근근이 법당이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1987년 가파른 산중턱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요사와 나한전을 중수하였다. 절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된 것은 최근 오도상 주지스님이 주석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97년부터 국가의 중창을 기각하여 전주의 사고 사찰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극락전과 나한전이 이때 완공되었다.

□ 서고사 나한전 석가불좌상(西固寺 羅漢殿 釋迦佛坐像)

앉은 높이 64cm이고 무릎 폭이 40.5cm의 흙으로 빚은 불좌상이다. 육계가 뚜렷하고 나발이다. 이마에는 백호가 있고 얼굴이 약간 긴 편이고 상당히 사실적인 조각이다. 눈은 거의 감은 듯 선정에 들어있는 모습이 고, 코는 오뚝하니 약간 각



서고사 나한전 석가불좌상

이 저 있다. 입술은 약간 도톰하고 코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다. 법의는 두껍게 주름져 있고 통견이며 팔은 통통한 편이다.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석가모니불로 볼 수 있다. 석가불좌상 좌우에는 나무로 제작된 입상의 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이 있다. 그리고 좌로 8구, 우로 9구 총 17구의 목조나한좌상이 있다. 다양한 표정과 손 모양의 나한상이 모셔져 있다.

□ 서고사 자음전 아미타불좌상(西固寺 慈蔭殿 阿彌陀佛坐像)

법당에 모셔진 돌로 만들어진 좌상이 있다. 39.5cm의 아주 작은 키의 불상이다. 육계와 나발이 뚜렷하고 상호는 원만하다. 통통하게 살진 얼굴

에 초승달 같은 눈썹 그리고 백호가 뚜렷하다. 코는 얼굴 중앙에 짧지만 뚱뚱하다. 입은 작지만 야무지게 다물고 있다. 삼도가 표현되었고, 통견의 법의는 두터운 편이고 항마촉지인의 손모양을 하고 있다. 결가부좌를 한 무릎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황방산 마애불

□ 황방산 마애불

(黃方山 磨崖佛)

만성동 황방사 입구 오른편 발가 산기슭에 있는 자연석에 불상을 새겼다. 좌측엔 반듯하게 깎여 있고 우측은 자연석 그대로 광배가 새겨져 있다. 얇은 부조에 화면이 마모되어서 정확한 도상을 알 수 없다. 인접 50m 전방에는 ‘황방팔경’이라는 글씨가 자연석에 새겨져 있다.



황방팔경 각석

□ 황방팔경각석(黃方八景刻石)

만성동 황방사 입구 오른편 바닷에 위치해 있다. 자연석을 깎아서 글씨를 새겼는데 마모되어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八景 黃方吐月 西高鍾 奇巖瀑布 飛飛落鴈 遷江歸帆 泗川漁水 兎岑 ○月 邊山落照’ 라고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 여의송계비

고인돌을 받침돌로 삼은 여의송계비(如意松契碑)는 고인돌 한쪽을 잘라 ‘黃榜山牛岩’이란 글씨를 새기고 흠을 파서 송계비의 비신을 고정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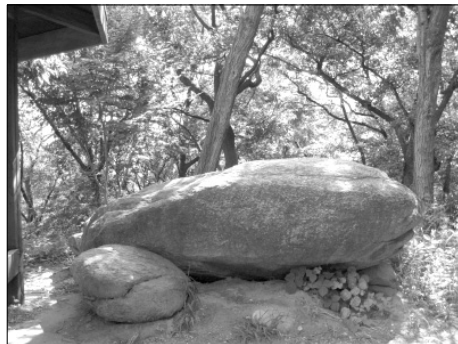
이 송계비는 일제 강점기인 임신(壬申, 1932)년 4월 산주들이 소나무를 지키자고 세운 비석이다. 잘라낸 고인돌의 남은 모습이 마치 황소 같다 해서 우암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여의송계기념비

□ 납암정과 고인돌

황방산 탐방로 입구에서 10여분을 오르면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길 오른 쪽에 한 쪽 밑돌이 어그러진 고인돌이 있고 그 옆에 납암정이라는 간이 정자가 있다. 정자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납암정의 납(納)자가 암고래 납자인 것으로 보아 옆



납암정 옆 고인돌

에 있는 고인돌을 암고래 같이 생겼다 해서 지은 이름으로 판단된다.

□ 황방산성(黃方山城)

전주 서방 황방산(黃方山 ; △215.6m)의 남단에 자리한다. 208.9m 봉우



성곽 둘레길

리를 최고봉으로 하여, 남향한 산상 분지를 감은 석성인데, 거의 파괴되었으나 흔적은 잘 남아 있다. 수구 안은 만덕사(萬德寺)가 자리하고, 수전(水田)으로 바뀌고 북반은 밭이 되었다. 평면은 오각형에 가까운데, 동남향한 수구쪽은 2.5m의

석축으로, 길이는 약 50m이다. 남변(A~F)은 132m, 동변(A~B) 204.5m, 북변은 170m, 서북변(D~E)은 110.5m, 서남변은 (E~F) 103.5m, 전체 둘레 721.0m이다. 북변도 중앙부는 낮아 높이 8m 35°의 경사를 이루는 석축이다. 성내에서는 삼국시대의 기와편, 토기편이 수집되었다. 『고적조사자료(古蹟調査資料)』에 “石築周 約四百二十間, 城壁 대부분 崩壞됨”이라 하였다.

□ 황산(黃山, 黃彪(方)山)의 효자천(孝子川)

부성 밖으로 서고진(西高(固)鎭)인 황방산의 수려한 산용은 우뚝 솟아 부성의 서북방쪽 빈(空虛) 구석을 수호(守護)한데서 일설에는 기린토월(麒麟吐月) 할 때 황방의 누런 삼살개(黃山의 形局, 삼살개像으로 指稱한데서 紀因)가 밤새도록 짚어 재액을 방비한다는 전래설이 있다

이런 설화들로 가득 찬 이 산 중턱에 지금도 효자천(孝子川)이라 부르는 바위 틈 타고 청간수(淸澗水)가 솟는 옥돌샘(玉壺泉)인 생수물이 있어 탐승객들을 반기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삼백칠십년전 이씨조 선조조 때 일이다. 용사, 정유(龍·蛇(壬辰·癸巳의 異稱) 丁酉 一五九二~一五九七)의 왜란을 치룬지 몇 해 후였다. 이 산기슭에 성을 백가(白哥)라 부르

는 한 선비가 좌우 산수의 일원복지(一圓福地)를 운대로 눌러 이락으로 삼고 슬하에 아들 3형제를 연년생으로 조르르 거느리고 조출한 생활로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단명수(短命壽)였던가 한창 나이에 우연히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부인과 아들의 걱정과 놀라움은 여간이 아니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불러대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조리 써봤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니 부인과 아들들은 짙은 수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천수인 생명을 어찌하랴 달포지간을 두고 앓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지켜보는 아래 그만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

상(喪)을 당하자 불시로 청춘과부택이 된 그 부인은 아직 동몽(童蒙)의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앞날이 캄캄하여 창졸간에 울음조차 막혀 망연자실하던 그 때였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 노승(老僧)이 나타나서 부인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오, 부인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염(殮)을 할 것이며, 장사 지낼 범절을 속히 서두르시오. 그리고 나를 따라 오시오.”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란 외롭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받게 되면 슬픔 속에서도 솔깃하게 귀에 받친다.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녀는 이상한 노승의 거동과 하는 말에 그저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거두고 따라 나섰다. 노승의 뒤를 따르니 그 노승은 말없이 한 동안 산을 올라가더니만 한 곳에 당도하여 뚝 멈추고선 하는 말이 “이 장소를 잘 밝혀두시오. 이곳을 와우혈(臥牛穴)이라 하오. 망인이 들어갈 곳 이오. 불원하여 댁엔 효자가 날것이오. 또 부귀영화를 누리리다. 내 말을 허술히 듣지 말고 바로 모시시오. 그럼…” 하면서 홀연 형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슬픈 가운데서도 하도 신기한 일이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방금 그 노승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감축한 합장 배례를 올린 후 허둥지둥 바삐 집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출상을 하게 될 때 그 노승이 점지한 곳에도 두 말 없이 남편의 만년유택으로 묘를 썼다. 그리고 천근

무게로 떨어지질 않는 발길을 부축 받아 막 돌아설 참이었다. 셋째 아들이 어쩔 일로 울기만 하고 묘소 앞을 떠나지를 않는다. 그 모친과 형들 그리고 친척과 배향 온 동네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달래보아도 막무가내였다. 그러자니 해는 뉘엿뉘엿 서산에 걸려 미구에 지게 됐다. 일동은 엮거나 들것에 태우거나 하여서라도 데리고 가자고 의견이 돌았다. 그래서 한 장정이 엮고져 하였으나 이상도 하다. 그 어린 몸 무게가 순식간에 천근 무게로 굳어 마치 바위돌처럼 육중하여 끄떡도 안는다. 모두들 하는 말이 이는 반드시 이 아이의 효심에서 우러난 지성에 감복한 신령님의 조짐으로 신통력이 쏠린 게라고 단정하면서, 그렇다면 하는 수 없는 일이다. 일단 돌아가서 하룻밤 거동을 보자는 의견들이 났다. 이렇게 되고 보니 상주인 모자간들도 무슨 도리가 나서지 않았다. 막가내하(莫可奈何)다. 셋째 아들만 산소에 혼자 놔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하산하였다. 밤이 됐다. 모두들 수심속에서 잠들 기색을 잃고 꼬박 날이 새자 동네 사람들과 같이 부산하게 달려가 보니 셋째 아들은 울다 지쳤는지 산소 아래 엎드려 곤하게 잠이 들어 있지 않는가. 모두들 혹이나 사나운 짐승들에게 해침을 받지 않았나 하고 밤새도록 걱정속이었다가 와서 보니 어디 하나 다친데 없이 몸 성히 잠든 꼴을 보자 슬픈속에서도 반가운 울음이 또한 터져 서로 부둥켜안고 한바탕 산천을 적셨다. 이윽고 모친과 형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어제처럼 간곡한 설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응하지 않을뿐더러 들뜬 같은 몸이 되어 땅에서 요지부동이다. 모두들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포기하고 이제는 그에게 먹음 음식이나 날려 주자고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 모자간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셋째 아들의 식음을 매일 같이 나르다 주자고 결정했다. 이 근방 각처로 퍼지자 이 아이는 하늘이 낸 신기한 효자란 이름을 붙여 부르게되고 동네 사람들은 나서서 울력하여 자그마한 초막(草幕)을 지어 그로 하여금 시묘(侍墓)살이를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산쪽에서 이제까지 물이라곤 조

금도 보지 못했더니 그 후부터 산소 도랑 바위 사이를 타고 맑은 생수물이 솟아났다. 이를 본 동네 사람들은 옥돌샘을 효자천(孝子泉)이라 부르게 됐고 그 셋째 아들은 그 후 3년의 시묘(侍墓)를 마치고 하산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이 생수물은 약수라 하여 이 물을 마시거나, 맞거나 하면 영력하게 효험을 본데서 지금도 한 여름이면 원근 각처에서 찾아온다고 한다.

IV. 여의동

1. 여의동의 유래와 지명

여의동은 이 마을이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하여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곧 이 마을은 반룡리의 서쪽에 있는 반룡리 뒷산을 용의 형세로 보고 여의리를 여의주로 생각하여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다. 현재 여의동은 방초(尙草), 원여의(元如意), 여실(如實), 양화(良花), 용정(龍井), 태평(太平) 등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태평마을

본래 ‘농원’이라 불렸던 태평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마을로 상이군인들의 초기 정착지였다. 상이군인들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각종 세금을 면제 받는 일종의 ‘특혜’를 누렸다. “정부에서 타 먹고, 편한게” 태평마을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태평마을에도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과 ‘비만 오면 황토 땅이라 폭폭 빠진다’는 말



태평마을 표지석

이 있다. 태평은 새로 이루어진 마을로 마을이 항상 태평무사(太平無事)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름 붙인 것이다.

□ 양마마을

양마마을은 마을에 갈마음수혈(渴馬飲水穴)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갈마음수혈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세라는 것이다.

□ 화개마을



화개마을 표지석

화개마을 지명에 대한 설은 분분하다. 하나는 ‘꽃이 만개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이명근 통장), 또 하나는 ‘방죽에 삶아 먹으면 밤 맛이 나는 마름이라는 열매가 많이 피었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학하마을(학 아랫마을)’

이 변해서 화개마을이 되었다(이건만 할아버지)는 설들이 있다.



용정마을 전경

□ 용정마을

길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외길을 따라 자동차로 5~6분을 들어가야 비로소 마을의 집들이 보인다. 도로에서 볼 때는 이곳에 마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

지 못 할 만큼 아늑한 곳이다. 과거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이 소로(小路)여서 구루마나 한 대 지날 수 있는 폭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사업을 통해 도로가 포장되고, 도로 폭도 넓어졌다고 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그전에 옛날 어른들 말씀이 여기가 움푹하니 들어가 있어 피난터”였으며 이런 형태의 길을 ‘소랫길’이라 불렀다. 구술자인 안경순씨가 소랫길에 대해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줬다. “오솔길을 촌사람들은 소랫길이라고 하지. 산 속으로 길이 가니까”

한국전쟁 때 이 마을은 피난터였다. 마을의 위치며, 형세가 숨어 있기 좋은 형세여서 그랬을 것이다. 문헌에는 ‘용정마을 안에 용샘이 있어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술] 얼마나 고생들하고 살았는지

“우리 커서 큰 논도 호미로 모심어 먹고 살았어. 물이 없어서. 그래서 박정희 때 밀가루 타 먹고, 샘 파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샘 파서 농사 저먹고 살았어. 그전에는 비가 안 오면 하늘만 보고 있었지. 비오면 심고, 안 오면 작대기로 꽃아 가지고 호맹이로 심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어. 그래서 흉년들 때는 못 되게 흉년들었어. 저런 독새풀도 다 뜯어다 먹고, 그런 거 먹고 살고 그랬어. 여기서도. 얼마나 고생들하고 살았는지... 쭉 같은 거 먹고 살고, 흉년들어서 뭐이 있어야지. 나락은 그렇게 심어놓고, 이제 그전에 옛날에는 옥수수 배급 조금씩 주고, 가루 조금씩 주고 그렇게 조금씩 주고 먹고 살았지.”

_ 용정마을 안경순氏

[구술] 일본놈들이 와서 공출해 가고

“그때는 삼베도 기르면 공출 나가고, 일본놈들이 뺏어가 버리고, 쌀도 조금 잘 되면 일본놈들이 와서 공출해 가고. 그래서 감춰놓고 먹고 그랬어. 저기 콩밭에다도 조금씩 감춰두고, 귀신같이 다 아니까 감춰봐도 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다니니까 밥 한 숟갈 해 먹으면 씨래기를 버무려서 오다가다 하나씩 술에다 넣어 놔. 그놈들이 조사하러 나오니까 그렇게

살았어. 늦그릇도 다 뺏어 가고 그랬어. 여기도 그렇게 살았어. 저렇게 농사짓고 콩밭에 있으면 싹 조금씩 어디다 담아서 놓으면 귀신같이 다 알아. 명석이라고, 명석 만들은 거. 그 속에다 조금씩 돌돌 말아서 그전에는 불 때고 살았으니까. 그런 데다 놔둬도 귀신같이 다 빼가. 일본놈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 여기는 엄청 고생한 사람들이여.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많지. 막 풀 뜯어다 지저먹고, 쭉 뜯어다 지저먹고.”

— 용정마을 안경순氏

□ 방초마을

호남제일문을 가는 길에 월드컵경기장 못 미쳐 네거리 좌측, 전주공고 뒤편에 있는 마을이 방초마을이다. 도로가 나기 전에는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야 찾을 수 있었다. 동산동 일대 어른들은 방초마을과 여실마을 일대를 ‘녹두밭 웃멀(머리·윗머리의 옛말)’이라고 부른다. 또한 전라북도 속담 가운데, ‘녹두밭은 웃머리다’라는 속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 속담은 두류작물이라도 초세가 강하고 토질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잘 되기 때문에 한 포장 중에서 제일 척박한 곳을 골라 심어도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녹두는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가난한 마을’이나 ‘어려운 생활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그마만큼 방초마을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는 방초는 옛날 여암리(如岩里)라 불렀다. 여암리는 ‘용과 여의주의 관계에서 유래된 이름인 듯 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여실경노당 현판

□ 여실마을

여실은 여의리의 일부와 실리(實里)의 일부를 합하여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 원여의마을

원여의마을은 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산업도로, 호남제일문 못 미쳐 우측 동국아파트 뒤편에 형성된 마을이다. 본래 이 마을은 여산 송씨 집성촌이었으며 동국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여산 송씨 선산이 있었다고 한다. 마을이 부촌인 까닭에 인근 이서에서 농사를 위해 품 팔러 왔었다고 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현재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동국아파트로 인해 마을의 형세가 왜소해 졌다.

2. 여의동의 문화유산

□ 양마마을 연자방아

지금은 마을 어귀에 터만 남고 사라진 연자방앗간. 이 일대에서 유일했던 연자방아는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세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메(멧돌)의 일종(국어사전)’으로, 양마마을 연자방아는 크기도 클 뿐더러 일거리도 많았다고 한다.

[구술] 연자방아

여기가 방앗간 있었어. 물레방아. 아니 물레방아가 아니고, 디딜방아도 아니고 말로 돌려서 하는 거. 연자방아. 여기가 연자방아가 있었어. (조사자 : 이 집터가요? 이 밭자린가요?) 여기가 연자방아가 있었어. 당나귀로 돌리고 말로도 돌리고 그랬어. 이렇게 컸었거든.

_ 양마마을 백운대氏

□ 여의동 선사유적

여의동 선사유적은 전주시 중심에서 서북방으로 직선거리 약8km지점에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남측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1985년 현지 주



여의동 선사유적 발굴 현장

민에 의해서 토광묘 1기가 파괴되어 청동유물이 수습되었는데, 그것들은 다뉴조문경 2점, 동부 1점, 동착 1점이다. 이후 1988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토광묘 3기와 주거지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토기, 석기등의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1) 토광묘 1호

구릉 정상부인 50.1고지의 남변에 장축 185° 방향으로 위치한다. 토광은 먼저 길이 2.95m, 폭 2.55m의 말각방향의 외광을 파내려간 다음, 다시 이와는 대각선이 되게 동서방향으로 길이 2.87m, 폭 1.15m의 내광을 약 0.4m 깊이까지 파들어 가서 묘광을 설치하였다. 묘광은 길이 2.18m, 폭 0.47m의 모나지 않는 장방형평면이다. 깊이는 0.4m로서 원지면으로부터 바닥까지는 약 1.0m에 이른다. 토광은 서반은 파괴되었으나 동반은 원형대로 남아 있다. 개석은 외광의 윤곽에 맞추어 내광을 덮고 있는데, 개석하, 내광 상변에는 할석을 끼워 받치고 동반에는 길이 0.65m, 폭 0.8m 너비의 개석을 잇대어 덮었다. 결국 이 토광묘는 2매의 개석을 덮은 셈이다. 바닥에서 약 25cm, 동벽에서 약 25cm 떨어진 광내에서 대전 괴정동유형의 흑색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2) 토광묘 2호

토광묘 1호의 서북방, $320\sim 330^{\circ}$ 방향, 42m 떨어진 능선상에 위치한다. 지표 하 약 30m내외에서 개석 상면이 닿았다. 개석은 길이 0.7m 내외의 자연관석 5매를 토광위에 가로 걸쳐 덮고, 개석사이의 틈새를 작은 막돌

로 막았다. 동쪽 끝, 개석상면에 무문토기 단지 밑굽과 조각들이 널려 있다. 복원한 결과 전체높이 42m, 구경 22.6m, 저경 11.5m의 적갈색 옹형토 기였다. 개석을 덮은 다음 부장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토광묘는 장축서남 240°방향인데, 동서양측의 단벽은 둥글게 뾰다. 저면의 넓이는 길이 1.7m, 폭 0.4m, 깊이 0.6m이다. 현지면으로부터 저면 깊이는 0.95m 내려가 있다. 토광 상면의 폭은 0.7m로 넓어져 있다. 바닥에는 무문토기편을 깔았다. 시신의 두위는 동편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측 요부에는 마제석검 1점이 병단을 위로 하고 비스듬히 놓여 있다. 마제석검은 송국리 석관표 출토품과 같은 유형이다.

3) 토광묘 3호

2호와는 약 4.0m의 간격을 두고 그 북방에 나란히 위치한다. 현 지표 아래, 약 30cm깊이에 바닥이 나타났다. 생토층을 파 들어간 깊이가 20cm도 되지 않는데, 따라서 벽면의 높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바닥벽만이 남아 있다. 저면은 장축 서남 230° 방향, 길이 1.73m, 폭 0.6m로서 바닥에는 편평한 잡석을 깔았다. 부장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4) 석실분

토광묘 1호의 남쪽에 파괴되어 흩어져 있는 개석 아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백제후기형식의 횡혈식석실임이 확인되었다. 장축은 거의 남북방향인 N8°로서 남방에 짧은 연도입구가 있다. 원래는 약간의 경사면에 등을 댄 원분이 있었으나 거의 유식되었다. 석실은 4매의 개석을 덮었었는데 제거되고 안쪽 벽 위에 1매만이 원상태대로 놓여 있을 뿐, 2매는 흩어져 있다. 현실은 장방형평면으로서 3벽을 거칠게 뜬 판석으로 짜 맞추고 입구양측에는 짧은 우주장석을 세우고 연도입구를 폐쇄한 것이다. 석실 바닥 오벽에서 우장석 내면까지의 중앙축선상 길이는 2.06m, 동벽길이

2.00m, 서벽길이 2.12m이고, 폭은 오벽 0.88m, 중간은 약간 넓어져서 0.97m, 현실입구는 0.86m이다. 오벽은 전매의 판석을 세웠는데 말각된 상변 양 위에는 역석을 끼웠다. 천정 폭은 0.80m로 줄었다. 양측벽은 모두 4매씩의 판석을 나란히 맞춰 세웠는데 그 위 천정개석과의 사이에 폭 10cm내외의 내경장석을 끼웠다. 역시 측벽은 위로 올라가면서 내경되어 현식의 천정폭은 0.67m로 축양되었다. 개석재는 길이 1.2m~1.3m내외, 폭 0.6m내외, 두께는 20cm정도의 크기이다. 현실바닥에는 편평석을 깔았다. 현실입구 양측의 우장석은 동편이 16cm, 서편이 13cm씩 각각 중앙으로 내밀었다. 높이는 0.80m, 그 위에 높이 18cm의 추녀돌을 가로 얹었고, 바닥에는 길이 61cm, 폭 20cm, 높이 16cm의 문턱돌을 끼웠다. 이리하여 현실입구는 높이 0.68m, 폭 0.61m, 상면폭 0.57m가 된다. 우주석의 바깥쪽 묘도에는 두께 20cm의 판석을 2단으로 세워 이를 폐쇄하였다. 연도는 퇴화한 말기형식이다.

5) 주거지 및 출토품

토광묘 1호가 있는 50.1 고지의 동북방 50°방향, 200m 떨어진 곳에 이 주거지가 동남향하고 있다. 남북 6.8m, 동서 6.37m의 원형평면의 수혈식 주거지이다. 지층에서 0cm~20cm가 표토층이고 20cm~50cm는 밝은 갈색사질점토층, 50cm~60cm는 회갈색사질점토층, 60cm이하는 생토층이다. 주거지의 어깨선은 지표하 20cm에서 나타났다. 이 어깨선에서 바닥까지의 높이는 26cm이다. 바닥은 불에 구워진 듯 딱딱하게 다져졌다. 주거지 바닥의 동쪽은 측벽의 어깨선이 깎이어 그 높이가 5cm에 불과하다. 토기편 등 생활 유물이 제Ⅱ층의 어깨선 아래에 집중적으로 널려있었다. 따라서 제Ⅱ층은 이 주거지가 폐기된 다음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바닥을 덮고있는 제Ⅲ층은 약간의 유물만이 있을 뿐이다. 이 주거지는 가운데에 노지형토광(爐址形土壙)이 있고 그 둘레에 네 개의 기둥자리가 거의 정

방향으로 남아있다. 중앙토광은 동서방향으로 긴 타원형 평면으로서 길이가 1.45m, 폭 1.0m, 깊이는 26cm인데 배(舟)모양을 이룬다. 주거지 내의 생활유물은 주로 중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산재해 있다. 이 주거지에서는 완벽한 형태의 옹형토기 1점, 연석(礪石) 1점, 절단된 자귀 1점 등이 깨진 토기들과 함께 발굴되었다. 이상의 분묘와 주거지에서 토기와 함께 다뉴조문경(2점), 동부(銅斧), 동착(銅鑿), 마제석검(10점), 석촉(5점), 석부(8점), 돌자귀, 유구석부, 반원형석도, 맷돌, 스크레퍼, 석추, 반륜(紡輪), 숫돌 등이 혹은 완형으로 혹은 부서진 채 수습되었다. 여의동 유적은 마제석검과 벼농사에 수반하는 석기를 가진 토착집단문화와 새로운 청동기 문화가 동화되어 청동기문화를 형성해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를 연구조사한 결과 BC 2세기 초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추정된다(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 『전주시 옛고장 지표조사 보고서』, 1995).

□ 여의동 지석묘(如意洞 支石墓)

여의동 용정마을 동방 능선상에 2기의 지석묘가 있는데 1기는 파괴되었다. 다른 1기의 개석은 장축 130° 방향으로 서북쪽의 넓어진 삼각형에 가까운 평면을 이룬다. 길이는 2.95m, 서북변 2.25m, 두께 0.55m이다. 1994년 1월에 전북대학교 박물관 앞으로 이전하였다(전주대학교 부설 전주사학연구소, 『전주시 옛고장 지표조사 보고서』, 1995).

3. 여의동의 생활민속

□ 살다살다 못 살면 오는 곳, 태평마을

타향에서 고생하다 살면서 다시 오는 곳이 바로 태평마을이다. 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우리는 타향에서 고생하다 살다보면, 이리 들어오고 그랬는데, 살다 살다 못 살면 여기 오게 돼”라며 가난한 사람

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설명했다.

[구술] 이승만과 태평마을

이승만 대통령. 궁계 여가 농원이여. 왜 그냐 하면 서민들 제일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켜이, 낫 이런 것 이런 것 하나씩 쫓거든. 농사 지어 먹고 살으라고. (조사자 : 땅도 쫓어요, 그러면?) 땅까지 주면 거시기 하지 만은 그냥 켜이를 줘서 땅은 우리가 샀지. 산지 얼마 안되. 얼마 안 되지? 땅 산지. 켜이질 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오백 얼마씩 쫓어. (조사자 : 할머니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나 여기 온지는, 시설 할 때는 안 왔는데, 이 근방에서 농사를 지었기 땀에 이렇게 짓는 지는 알았지. 이 대통령이 지어 준 거여, 이게. 서민들 살으라고. (조사자 : 6.25 끝나고 참전 용사들 마을?)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와서 살았어. 그 양반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_ 태평마을 남경애氏

□ 상이군인



상이군인이 생활하던 집 앞 골목

한국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은 상이군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태평마을에도 마치 ‘군대 막사’처럼 똑같이 생긴 주택을 7가구씩 3줄로 나란히 지어 21가구의 상이군인 가족이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다. 맨 뒷집 창문으로 보면 맨 앞집 창문까지 훤히 보였다. 이들은 현재 성덕면으로 이주하였지만 마을에는 그 당시 지어진 집 가운데 1줄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구술] 이승만과 태평마을

(조사자 : 6·25가 끝나고 상이용사촌을 여기다 만들어 주고, 이게 몇 년이나 된 집이에요?) 지금 한 40년 되었어. 상이용사들 저 여그 한 40년, 43년이나 45년 그 정도 되었는디. 10년 살았어. (조사자 : 상이용사들이요?) 어어. 10년 살다가 저그 거시기로, 여그 저 성덕, 성덕. 새로 진 디. 그리 갔어. 성덕으로 가야꼬 거그다 성덕에다 전부다 상이용사들 집을 새로 지어 줘가꼬 그리 이사 간 것이여. 여그 있던 사람들이. (조사자 : 여기서는 한 10년 정도 그분들이 계셨다고요?) 응. 그렇게 된 거여. 여가 원래 저기 저저 지금 저 어디여. 우석여고 들어가는 길 있지? 이? 동산동 우석여고 들어가는 디. 거그가 정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 정아원이 뭐더는 데냐? 이 저 상이용사들 전부다 거그서 먹고 자고. 옛날 거시킨 사람들이. 거기가 있었어. 거그가 있다가 거그서 여그 63년인가 64년인가 65년인가 여그다 그 사람들 집을 지 준거야. 원래는 정아원에서 큰 학교같이 지어가꼬 공동생활을 허다가 이리 태평마을로 니들 여그가서 살아라. 정부에서 여그가서 살아가. 그래가꼬 이리 이사를 온 거야. 태평마을로. 그래가꼬 여그서 한 10년 살다가 성덕으로 이사갔지.

_ 양마마을 백운대氏

□ 도깨비 터

‘살다 못 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나가 “도깨비 터”라 부르고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 올 때는 리어가 하나로 살림살이를 챙겨 올 정도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일을 해 어느 정도 생활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사라진 양화마을

서너 해 전, 화개마을과 양마마을을 합해 “양화마을”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원래대로 나뉘져 있다. 이유인즉, 두 마을간의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 미묘한 갈등이 단합을 저해한 까닭이었다.

[구술] 화개마을과 양화마을

(조사자 : 예전에 이 마을하고 화개마을하고 합쳐졌었다고 하던데요?) 예. 양화마을 이라고, 2006년인가? 2005년인가 그때 양화마을로 합쳐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합쳐졌다가 다시 분리가 되었지. (조사자 : 왜 분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저쪽 화개마을하고 양마마을은 원래가 거시기가 좀 틀렸었어요. 틀리고, 화개마을은 좀 부자 동네고 우리 마을은 조금 빈촌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개마을은 돈은 많은데 양마마을 같이 단체가 잘 안 돼요. (조사자 : 단합이?) 양마동은 단합이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개하고 양마동하고 합쳐졌는디 지금은 분리가 되어 버렸죠. 한 3년 되었어요.

_ 양마마을 백운대氏

□ 척박한 땅, 녹두별

전라북도 속담 가운데, “녹두밭은 웃머리다”라는 말이 있다. 두류작물은 초세가 강하고 토질을 가리지 않고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제일 척박한 곳에 골라 심어도 된다는 것이다. 즉 두류작물인 녹두가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가난한 마을이나 어려운 생활상을 여기에 빗대어 사용한 것이다. 이 지역은 소위 “녹두별”로 불리던 곳으로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척박한 곳이었고 그만큼 생활이 고단했던 곳이었다.

[구술] 가장 살기 곤란한 동네

(조사자 : 마을 유래가 어떻게 되요?)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불러 서 왜 그런지 몰라. 아는 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가난한 동네였어. 녹두밭 웃머리라고, 메마른 동네여서 녹두밭 웃머리야. 가난하고 토끼 밭맞추고, 여기가 살기가 가장 곤란한 동네여. 여기 녹두길이라고 불어있어.

_ 방초마을 김두완氏

[구술] 제일 메마른 곳에 녹두를 심는다고

(조사자 : 여기가 녹두밭이 많았나요?) 녹두밭 웃머리여. 그러니까 여기에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살았다 이말이여. (조사자 : 녹두밭이 있었던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의미지.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다 그 말이지. 제일 메마른 곳에 녹두를 심는다고..

_ 여실마을 신순덕氏

[구술] 얼마 안 살고 다 떠났을 것

녹두밭 웃머리라고 한데요. 여가 그래서 녹두뺨이라고 불려요. 수리 조합 안됐으면요 주변 동네가 얼마 안 살고 다 떠났을거라고 해요. 수리 조합 생기고 하니까 사방에서 이사를 왔어. 호남제일문 녹두길이라고 해요.

_ 화개마을 이명근氏

□ 화개마을 당산제

현재 화개마을에는 당산제가 치러지지 않지만, 치러질 당시까지는 여성들이 주관하였다. 용정마을에서처럼 여성들이 머리에 속곳을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 해에 유행병이 있으면 그런 거 달라 들지 말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였다.

□ 용정마을 당산

동산동 일대 여느 마을처럼 이 마을의 당산제 역시 여성들에 의해서 치러졌다. 특이한 점은 용정마을 당산이 머리, 몸통, 꼬리를 상징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이 속곳을 뒤집어쓰고, 풍물을 치면서 머리 당산부터 꼬리 당산까지 ‘마을 잘 되라고’ 당산제를 지



당산나무

낸 것이다.

만약 누군가 산에 묘를 쓴다거나 건드리는 일이 발생하면 마을의 우물이 뒤집어져 더러워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도 했다. 화개마을에서도 여성들이 당산제때 머리에 속곳을 쓰고 돌아다녔다고 한다.

[구술] 당산제의 중심은 여자

여성들이 중심인 이유는 특별히 없지만 대략 여자들이 드센 게 그렇지 남자가 귀해. 나 여기서 커서부터 여자들이 했당개. 당산제를 여자들이 했어. 궁계 남자들은 여자들이 한게 그냥 내비 둔 거여. 여자들이 하는 것인갑다 하고 내비 뒀어 여자들이 떡 해 가지고 이고 다니고, 풍물치고 그랬어. 그 전에는 그게 뭔 것이었는가 몰라. 여자들이 속것(속옷)을 이렇게 둘러쓰고 했어. 나 꿩과리 잘쳐. 장구도 잘 치고. 그 전에는 당산 뒤에다가 뽕 쓰고, 뽕하고 하면 동네가 안 좋고, 시암물고 못 먹고 한게

_ 용정마을 안경순氏

□ 용정마을 양학당

조선말에서 20세기 초 마을마다 서당이 설립되었듯 용정마을에도 “양학당”이라는 서당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었다. 일본어도 가르친 것을 보아 과거 한문경전만을 공부하던 “학당”에 외래의 것, 즉 양(洋)을 더해 “양학당”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

[구술] 양학당

우리 클 적에는 얼마나 누가 공부들 했간디? 흥년도 들고 공부도 못 가르친 게 양학당이라고, 이름이 양학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 거기서 공부도 조금씩 가르쳐 주고 하면 조금씩 하지. (조사자 : 동네에서요?) 허몰어져 버리고 밭으로 되있어 지금은. (조사자 : 그러면 양학당

이 동네 서당 같은 거죠?) 거기서 공부를 조금씩 일본말도 가르치고 그 때는 그렇게. 그때는 일본말 가르칠 때는 일본사람들이 오고 그랬었나 봐. 일본사람들이 그전에는 여기도 많이 왔어. (조사자 : 배우시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그전에는 일본말 조금 배우다가 말았지 뭐.

_ 용정마을 안경순氏

□ 구전설화

용정마을에는 도깨비불 설화와 개로 환생한 시아버지에 관한 개 발자국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술] 도깨비불 설화

옛날에는 참말로 도깨비불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깜깜하자나. 전기불도 없고, 여기는 촌인데. 들판 같은데 보면 막 들판도 까맣지. 불이 뻥뻥 하고 땡긴다고 도깨비불이라고 하느디 몰라. 영전네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세 번째 흘려가지고 날 샐느디 어디 빠져가지고 옷을 다 내버리고 들어왔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밤새서 돌아다니 다 아침에 들어왔네. 신도 내버리고, 당신 옷도 다 내버리고 그랬당개. 우리 언니가 징그럽게 우리 시아버지 때때 욕봤어. 도깨비 많이 흘렸당개. 그 사람은. 그렇게 그 할아버지는 뚱뚱으로 빠져죽었어. 술 먹고 오다가.

_ 용정마을 안경순氏

[구술] 개 발자국 설화

두루마기 입고 온 사람이 없어졌드라. 아이고, 이상허다. 그 구신이 허는 소리가 ‘야, 나 오늘 저녁에 어디 좋은 디 갈랑게 나 지달리지 마라’허고 왔느디. 그 집, 그 집을 와 본게 두루마기 입고 들어가는 거 분명히 봤느디, 왜 집이 머시 왔느디 없네. 그런게로, 아고 우리 시아버지가 죽었느디 왜 와. 꿈에. 무섭지 인자. 구신이 온 거여. 구신이 없다해도 지암을 모시른 그게 밥을 먹으러 온다. 구신이. 그래가꼬는 그 저 아씨가 구신이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떡가루를 이렇게 놓아보라고 했다.

창 밑에다가. 후딱 말허자면 비엠티 되면 비엠티 이렇게 그려지고, 새가 되면 새 발찌꾸가 있고. 다 거가 있드랴. 이렇게 본 게 개발찌꾸가 있드라네. 개발찌꾸가. 궁게 하도 인자 개를, 개발찌꾸가 그랬는디 개를 맥 인게 그 사람이 매느리가 반찬을 해 놓고 간게 개가 싹 먹어버렸드랴. 그래서 대가리를 어트게 때렸는디, ‘내가 죽어서 이렇게 개가 되얏는디 니가 머슬 좀 먹은게 이렇게 대가리를 때리냐?’ 글드란게. 개도 함부러 때리는 것이 아니라.

— 용정마을 안경순氏

□ 방초마을 당산

방초마을 입구 2차선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길을 내면서 언덕, 집, 그리고 당산나무가 없어졌다. 여느 마을처럼 이 마을 당산을 없애고 난 후 마을이 ‘시끌시끌’하게 되었다. 이 마을 이옥례(73) 할머니는 “맨 과부만 있고, 젊은 아저씨들이 많이 돌아가셨어. 그 전에는 안 그랬지. 길 만드느라 없었당게.”라며 당산을 해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 마을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동네 사람들끼리 십시일 반해서 액땀을 하기 위한 굿을 지냈다. 굿을 지낸 장소는 북부경찰서(현 덕진경찰서)에서 월드컵경기장 네거리 가는 길목에 동산동·삼례 들어가는 길 바로 앞 횡단보도. 그런데 굿을 하는 도중 트럭이 굿판을 덮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내 식구 찾느라 난리”가 났었던단다. 사고 현장에 대해 이옥례 할머니는 “사고 나지 말라고 굿을 했는디 굿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지. 굿 하는데 사람이 많이 왔어. 삼례방향으로 가면 킹PC 방이라고 있어요. 맛깔 해장국집 주차장 자리. 그 자리에서 굿을 하고, 구경꾼들이 구경하고, 오가던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내리는데 죽었지. 그렇게 사고가 나서 굿을 했지”라고 회고했다.

□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살아

방초, 태평, 여실마을에서 공통으로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었다. 이유인즉, 이 일대의 토양이 황토여서 비가 올 경우 보통 신발을 신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이란단다.

[구술] 장화 없이는 못 살아 1

여기가 다 황토밭이어서 장화신고 걸어 다녀야 해. (조사자 : 태평마을도 장화신고 다녔다고...) 갓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여기도 그랬어. 여기가 빨간 흙 이야.

_ 방초마을 이옥례氏

[구술] 장화 없이는 못 살아 2

내가 여기 온지 18년 됐는데, 그때는 여기 포장도 안 됐었어. 91년 정도에 시험장 오면서 시험장까지만 포장했어. 신작로가 없었지 신작로가 여기 뿐이야. 비포장이라 먼지가, 먼지만 먹고 살았어. 고추사다가 말리면 먼지 때문에 못 먹어. (중략) 비가 오니까 걸어 나가도 못해. 동방레미콘 지은데는 수렁이야 수렁. 18년 전에도 비가 오면 빠져서 걸어나가들 못해. 여자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살아

_ 여실마을 신순덕氏

□ 여의동에 여자가 많은 이유

이옥례 할머니가 하는 말씀, “신기(神氣)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한 번 씩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동네가 맥이 막혀서, 산에서 내려오는 뽕이 막혀서 이 동네가 과부가 많대. 또 이 동네가 남자들이 명이 짧대”라고 한다. 실제 이 마을의 성비(性比)는 60여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남성이고 나머지는 여성이었다.

V. 장동

1. 장동의 유래와 지명

장동은 본래 전주군 이동면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부동리, 정암리, 재방리, 영동리, 화암리, 내동리, 용산리, 장동리와 이남면 노강리, 중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장동리라 하여 조촌면(읍)에 편입되었다.

장동에는 현재 중리, 용기, 원장동, 내동, 동재, 정암, 부동의 7개 자연마을이 있으며 주로 벼농사에 종사하면서 특용작물인 담배, 포도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 중리마을

본래 전주군 이남면 지역으로 중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리, 상정리, 반곡리, 신곡리, 면학리, 오공리, 안심리, 흑암리 각 일부와 이동면의 신동리를 일부를 병합하여 중리라 해서 이서면에 편입되었다가 장동에 편입되었다. 현재 중리마을은 혁신도시 지역에 포함되어 마을주민들은 살지 않고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용기마을

용산마을과 기지마을을 합하여 부른 이름. 용산마을은 이 마을 뒤에 용산(龍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 용산은 반용리(盤龍里)의 뒷산이 이 마을 뒤까지 뻗친 형세이다. 기지마을은 이 마을 옆에 ‘틀못’이 있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으로 틀못을 한자로 표기하여 기지(機池)가 되었다.

[구술] 마을유래

(조사자 : 이 마을에는 특별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당게. 여기는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했나보더라고. 그러니깐 여기 몇 집 있고 여기 몇 집 있고 몇 없으니깐 이 동네를 합쳤다가 그전에 우리 부모들 말 들어보면 원래는 내동리하고 이 동네가 한 동네였었데. 내동리 들어가는 입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장동리로 또 한 번 되었다가 그전엔 그랬다고 하더라고. (조사자 : 참 애매하네요, 이 동네는) 내동, 원장동 그렇게 두 동네는 그전부터 하여튼 컸지 동네가.

_ 용기마을 김정조氏

□ 원장동마을

월드컵 경기장 4거리에서 713번 지방도로 상 장동교회를 지나 위치해 있으며, 마을이 이 지방도로와 인접한 까닭에 반원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마을은 작고 아담하며 바로 정면에는 기지제(뜰못)가 있다. 또 마을 옆에는 동래정씨 묘역과 재



동래정씨 재실

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인근 지역이어서 그런지 개발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 원장동은 다른 마을과 합하여 장동리라 부르기 전 원래의 장동마을이란 뜻이다

□ 내동마을

월드컵 경기장 4거리에서 713번 지방도로 타고 가다 장동교회 앞에서 장동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골목을 따라 가면 내동마을이 나온다.



옹기굴뚝

내동마을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마을 안에 천주교 공소가 있으며 매달 1회 미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서 인지 마을 주민 90%가 천주교 신자로 구성된 마을이다. 또 내동 마을

에서는 예전에 옹기를 구웠던 곳이어서 마을 주민들 가운데 옹기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도 여러 명 있었다. 내동은 원장동리에서 볼 때 장동리 ‘안쪽마을’, ‘안마을’이란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워지게 된 것이다.

□ 동재마을

월드컵경기장 4거리에서 713번 지방국도를 타고 가다 물류센터 못 미쳐 좌측에 조그마한 샛길을 따라가면 동재 마을이 있다. 영동마을과 재방마을이 통합되어 한 마을을 이루는 ‘동재마을’은 영동의 ‘동’자와 재방의 ‘재’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마을 입구에는 양식장이 있어 향어를 기르고 있고, 마을 뒤편 야산에서는 포도, 배 등 과수작물을 재배한다. 또한 마을 끝 자락 산 밑에는 사슴농장도 있어 농사 외 다양한 소득을 얻고 있다.

□ 정암마을

동재마을에서 장동유통단지 위쪽, 에코르 아파트를 지나면 정암마을이 나온다. 지금은 개발로 인해 자연부락의 형태를 잃었지만 자연부락의 원형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마을이다. 일레로 마을 샘터가 아파트 개발로

없어질 상황에 처하자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 회관 앞에 마을 샘의 형태를 복원하고 표지석을 세웠다고 한다. 현재 마을 회관은 아파트 건축사무소로 임대해주고 있다고 한다. 정암은 정암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을 가까이에 바위에서 물이 나는 곳이 있었다는데에서 유래된 이름인 듯하다.



정암마을 표지석

[구술] 정암마을 유래

정암마을은 우물정(井)자에 바위암(岩)자를 쓰는데, 정암마을이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서 있었던 이야기는 우물 정(井)자에 바위 암(岩)자 써서 정암(井岩) 그러거든. 정자가 우물정자야. 샘바위라고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로 이루어지는 동네다 해서 정암이라 해. 들어오는 입구 보면 “정암유래”라는 것을 요약해 새겨놨지. 오랜 역사적으로 나올만한 이야기거리는 없지만 완주군청에 가면 이 마을 지명에 관한 책자가 있어.

_ 정암마을 최병권氏

□ 부동마을

정암마을에서 양 옆에 포도밭이 형성되어 있는 구부정한 길을 따라 가다보면 부동마을이 나온다. 마을 가운데로 호남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마을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처럼 느껴진다. 아랫마을과 윗마을 사이에는 부동제가 있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포도, 배 등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부동마을은 장수마을로 마을회관 앞의 장수마을이란 뜻말이 눈에 띈다. 부동마을 앞으로는 이서와 수목원을 잇는 길



농산물 재배포장 알림판

이 나 있어 이쪽 도로를 이용하여 시내를 다닌다. 부동은 원래 ‘가마골’이라 불렀다. 가마골은 이 마을이 가마솔과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풍수지리설에서 볼 때 이 마을에 가마혈(釜穴)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원래 이 마을에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구술] 부동마을 유래

부동이라고도 하고 여기 가마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보고 지관들이 명당 잡으로 다닌다고 돌아다니다가 얹어 놓은 솔이야, 그 근방에 명당이 있다 그래서 봄 되면 지관들 많이 다녔어요. 부자가 되네, 풍수설이 그래요. 그래서 솔이 있는 동네다 이런 말이 있어요.

_ 부동마을 유정웅氏

2. 장동의 문화유산



공소

□ 내동마을 공소

내동마을 공소(가톨릭에서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 본당 사목구에 속하여 있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른다)의 역사는 전동성당과 비슷

하다. 내동마을에는 마을주민의 90% 이상이 카톨릭을 믿는다. 동학농민혁명 때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와 살게 된 교인들이 쌀 한 말씩을 내 기금을 만들어 공소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공소가 운영되지 않아 대부분 마을 내 신자들은 동산성당으로 다니고 있다.

□ 인풍뜰과 기와공장터

마을입구 큰 도로변 현 GS주유소 자리는 “인풍(人豊)뜰”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뜰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연유와 더불어 지리적으로 서전주IC나 북전주IC와 가깝기 때문에 요즘 이곳이 터미널과 버스가 들어오고 싶어라하는 후보지역 1번이라고 한다.

한편 웅기가마로 유명한 내동마을에서는 이 인풍뜰에서 1950년대 후반까지 토기와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구술] 뜰이 다 우리 소관이에요

웅기도 우리가 일부 했어요. 웅기마을이 내동마을이고, 요새는 철거를 해서 그렇지 전에는 웅기를 전부다 거기서 다 만들어내고, 지금 현재 앞에 가면 주유소가 있어요. (조사자 : GS요? 마을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요?) 네. 우리가 만든 토기와 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가 인풍뜰인데 그 유래가 있어요. 지명이 그냥 지어진게 아니라 인풍이라는건, 사람 인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뜰이다 해가지고 인풍뜰이다. (조사자 : 풍자는 바람 풍자씨요?) 아니, 풍성할 풍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이거야 그래서 인풍뜰이고 그 주유소자리를 인풍뜰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토기와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주유소자리가 기와 만들었던 자리.

(조사자 : 그렇다면 내동마을은 웅기만 만들었나요?) 웅기만, 여기는 기와 굽고 거기는 웅기 만들고. 왜냐면 그 토양을 구해야 되잖아요. 흙을, 말하자면 웅기 만드는 흙 틀리고 기와 만드는 흙 다 틀려요. 웅기 만드는 것은 질이 좋은거고, 기와장 만드는 건 질이 좀 낮아도 만들었

지. 여기 둘레는 인풍뜰이라는 것이, 요새 버스회사 시외버스나 모든 터미널을 이리 읍길라고 후보지가 제1번지였는데, 땅값이 비싸니깐 읍길들 못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모든 교통량이 다 연결이 되요. 뜰이 다 우리 소관이에요, 다 장동이에요.

_ 영동마을 박용氏

□ 부동마을 서당

부동마을에도 정식 서당은 아니었지만 마을 아이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고 한다. 채록에 의하면 구술자의 유년시절, 당시 마을 어른신 중 한 명이 보리 한 말, 나락 한 말을 받고 한자공부를 시켰다고 기억했다.

[구술] 마을 서당

(조사자 : 할아버지 초등학교 다니셨어요?) 아니 하늘천 따지 조금 하고 (조사자 : 어디서 배우셨어요?) 집에서들 배우지. 서당 있었어. 저기 어떤 집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지 (조사자 : 집에서요? 사시는 곳이에요? 따로 서당 같은거 안 만들고요?) 아니, 자는 방에서 11명씩 데리고 보리(추수할)때 보리한말 나락(추수할)때 나락한말 그렇게 주고 배웠어요. 조금 배우다 해방되고 하니깐 중등입학들을 시켜. 한글시험 좀 해서 한문은 잘 아니깐 국어는 백점이지.

_ 부동마을 유정웅氏

3. 장동의 생활민속

□ 저울형세 - 장동 기지마을과 여의동 용정마을간의 저울질

장동 기지마을과 여의동 용정마을은 두 마을의 지세가 마치 평행을 유지하는 저울과 같아 실제로 어느 한 마을이 잘 되면 다른 마을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내동마을 옹기 제작

1970년까지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장동에 위치한 내동마을은 ‘옹기마을’로 유명하다. 집안 대대로 옹기를 굽던 정영순씨(79)는 “2백년인지 3백년인지 잘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도 모르시고.”라며 옹기제작이 오래되긴 했지만 정확한 역사는



정영순씨 집 옹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영순씨는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 때 이곳에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곳 옹기공장을 ‘내동 옹기점’ 또는 ‘내동점’이라고 불렀다.

정영순씨네가 본격적으로 옹기공장을 시작한 것은 전주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부친이 옹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이 공장을 넘겨받으면서부터란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약 10여명 남짓.

내동마을에는 옹기생산에 적합한 ‘질흙(진흙)’이 많았다. 초기에는 근방의 질흙을 가져다 옹기를 만들었다가 점점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제 황산 우체국 근처까지 가서 그 흙을 가져왔다.

옹기제작은 흙에 물을 주어 찰 다음 ‘매경이’ 같이 동그란 것으로 쳐서 그 흙을 늘린다. 넓적하게 늘린 흙을 가지고 물레에 돌려 옹기모양을 만들고, 한나절 가랑 별에 말린다. 그리고 나서 태운 솔가지와 황토를 섞어 만든 잿물을 고운 빗자루로 찍어 바른다. 옹기에 넣는 문양은 손으로 그렸으며, 어느 정도 마른 후에는 서너 달 가랑 옹달에 말린 후 가마에 넣고 굽는다.

옹기제작에 필요한 잿물의 마련은 비 온 뒤 움푹 파인 곳에 매끈하게

있는 ‘약토’라는 것을 소나무 태운 재와 섞어 만든다. 이 흙을 ‘소레’라는 큰 솥에 흔들어서 다시 다른 소레에 ‘콩나물 기르는 것처럼 부어’서 물이 떨어지면 한참 지나 구정물이 다 가라앉게 된다. 이게 바로 옹기에 사용되는 잿물이다.

옹기를 가마에서 구울 때 불의 온도는 1000℃정도가 적당하다.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는 나무는 따로 없으며, 한 사흘 가마에서 구웠다가 7일 정도 식혀 마당에 크기별로 나누어 놓는다.



옹기굽던 터에 남은 옹기파편

여기서 만들어진 옹기는 중간상인이나 소매인들이 주로 구입하여 소구루마나 말구루마 등을 이용하기도 하여 전주나 군산으로 내다 팔았다. 이들은 대부분 물건을 가져갈 때 돈을 주지 않고 쌀이나 보리로 후결제를 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가져간 옹기를 팔아 제대로 값을 가져다주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그마저 값을 깎아 주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이야 법으로 받아낼 수 있지만 그때

는 없어서 못 주는 걸 어떻게 하. 그래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는 소리로 옹기주인 했다는 사람들은 그때 좋은 일 많이 했다”고도 한다.

옹기제작에 대한 대가는 10개를 만들 경우,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 3할을 가져가고, 뒤에서 흙을 치는 사람이 2할을, 나머지 5할을 주인이 갖는다. 옹기 판매량은 농사의 풍흉과 관계가 깊어 풍년이 들면 그만큼 판매량도 비례하였다고 한다.

‘옹기’라는 명칭은 이렇게 유래되었다고 한다. “오곡을 남겨 먹었대. 가령 100원을 쳐서 주면 500원에 팔아먹었대. 그래서 옹기여. 어째서 많이 남

겨 먹냐면, 무거운 것을 이고 다니니까 하루에 다 못 팔거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을 이고 다니려면 며칠을 이고 다녀야 하니까 비싸게 받아야 자기네들 자고 먹고 하는 비용을 벌거 아냐. 그냥 먹고 자고 할 수 있간. 그릇이라도 하나 주어야 하니까 다른 거 팔 때 많이 받아야 하나라도 주지.”

□ 담배농사

장동 인근 마을에서는 벼농사, 포도농사 등과 함께 담배농사를 많이 짓는다. 담배농사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지만 담배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선호도가 높다.



담배잎 고르는 작업

□ 포도농사

현재 서부우회도로와 월드컵로 사이가 전부 농경지였던 정암마을도 기지제(틀못)의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986년부터 마을주민 대부분이 <호남제일문 작목반>을 편성하여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이름 난 백구포도밭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구술] 포도가 돈은 안 돼

(조사자 : 포도농사는 잘 되시는 가요?) 어려워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포도농사야. 이런거 잡아줘야 되니깐. 잎파리 잡아 줘야하고.

마디마다 다 끊어 줘야돼. 일손이 무지하게 많아. 영양분을 저축하기 위해서 다 잘라 줘야해. 원나무에서 줄기로 가게끔 다. (조사자 : 5kg 한 상자에 얼마나가요?) 품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 보통 좋은 것은 만오천 원에서 만원까지. 우리가 내는 가격은 그래. 그런데 사먹는 사람들은 거의 이만원 내지 이만오천원 주고 사 먹어. 일하는 거에 비해서 포도가 돈은 안 돼.

_ 영동마을 박호경氏

[구술] 호남제일문 작목반

(조사자 : 백구쪽에 영행을 받아서 이 일대가 포도농사를 많이 짓는 가봐요?) 백구쪽이 먼저 했다고보다도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시기에 했지. 나도 8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깐. 거기가 유명세를 탄 것은 백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홍보해서 그것이지 다른거 없어. 오히려 여기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한국 유기농협회 전주지원 회원이야. 작목별로 이름이 다 있어. 우리는 호남제일문 작목반이라고 상자에 전주제일문 넣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유기농 협회 회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이런거 아니면 농사도 못 지어 어려워.

_ 정암마을 최병권氏

□ 마을 당산제

동재마을에서는 매년 칠월 칠석과 연말에 당산제를 지내고 음력으로 말일날 당산굿을 했다고 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산과 관련한 행사 때에는 상여가 마을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부동마을 당산제는 여자들이 제를 주관하여 제사와 마을 놀음이 결합된 형태였다고 하는데 십여 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완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대 성 동

색 장 동

I. 동서학동

1. 동서학동의 유래와 지명

서학동(棲鶴洞)은 고덕산에서 뚝아 내린 남고산 자락에 형성된 마을이다. 북서쪽으로 곤지산과 완산칠봉이, 동남쪽으로는 고덕산과 남고산이 둘러져 있다. 전주천이 반석리 앞쪽으로 흘러 동 경계를 이루면서 서편으로 휘어 나가고, 남고천(공수내)이 흑석골을 지나 곤지산을 돌아 초록바위쪽에서 전주천으로 들어가며, 반석천이 전주교대 동남쪽에서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서학동은 본래 전주부 부남면 반석리(半石里)와 사정리(射亭里) 지역이었다. 반석리는 돌이 반절이고 흙이 반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사정리(사정물)는 현 전주교대 자리에 읍양정이라는



중바위에서 본 동서학동

활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반석리와 사정리 일부를 합쳐 서정(曙町)이라고 하였다. 서정이라고 한 것은 마을이 부의 남동쪽에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 먼저 아침 해를 맞이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국역 전주부사』, 148쪽).

1946년 광복 이듬해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서정을 고쳐서 서학동이라고 하고,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으로 나누었다. 서학동이라는 이름은 ‘깃

들 서(棲)’에 ‘학 학(鶴)’자를 써서 학이 깃드는 동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남고산에서 흘러내린 산자락이 학이 날개를 편 형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쌍학의 모습으로, 지금의 동서학동 전주교대터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 동남편 학봉리 뒷산의 학봉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학이 많이 살아 서학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동서학동은 1957년 12월 12일(전주시 조례 제108호)에 의하여 일부(반석리)를 동서학동 1가로, 일부를 산성동과 합하여 동서학동 2가로 나누었다가, 1973년 7월 1일(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1, 2가를 다시 합하여 동서학동이라고 하였다. 1998년 8월 1일(전주시 조례 제2190호)에는 동서학동에 남고동이 합쳐졌다.



고덕산 일대

동서학동은 전주시 동남부의 관문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주거지역으로 남고산성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산들이 자리하고 있다.

□ 반석리

반석리(半石里)는 남천교 남쪽마을로, 전주교대 부근이다. 자갈이 반절이라고 해서 반석리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이 지역에는 자갈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전주천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흔히 남밖시장이라고 하는데, 싸전다리 동편으로 반석리 전주천변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반석리는 관노들의 거주지로, 19세기말에는 약 500호 정도의 관노와 사령(使令)들이 살았다. 기축년(1889년)에 전주부성의 영리(營吏, 전라감 영의 아전)와 이 마을의 관노(官奴, 관청의 노비)간에 큰 분쟁이 있었다. 황현이 지은 『매천야록』에 그 내용이 상세하다. 1892년 이 사건을 기록한 석비를 남천교 넘어 반석리 서쪽에 세웠는데, 현재 다가산 밑에 세워져 있다.(암행어사 이면상 영세불망비 ;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143쪽)

한편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들이 반석리 일원에 집단 거주하였다고 한다(『전주시사』, 521쪽).

[1889년 반석리 관노와 전주부성 영리의 분쟁]

기축년(1889년) 정월에 이르러 통인(通引) 노릇하는 영리의 아들 하나가 총각머리를 한 어린 나이로 늙은 관노를 만나서 버릇없다고 꾸짖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에 관노와 사령들은 일제히 결의하여 이 치욕은 견딜 수 없다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 그 통인의 집을 불질렀다. 영리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감사에게 아뢰고 무기를 꺼내어 그들을 때려 잡자고 하였다. 당시 이헌직(李憲植)이 감사로 있었는데, 그는 나약하여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권리가 영리들 손에 있어 어찌할 수도 없었다. 영리들은 각기 집안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무기고를 부수고 군화(軍火)를 꺼내어 대적하였다. 그리고 반석리(盤石里)를 불질렀는데, 남천교의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약 500여 호 가량 되며 관노와 사령이 사는 곳이었다. 햇불에 타서 온통 잿더미가 되었으며 피살된 자도 수십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원망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원근에 진동하였다. 영리들은 이헌직을 협박하여 관노와 사령이 난을 꾸민 것으로 조정에 거짓 보고를 하게 하였다. 조정에서는 비록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어 영리들에게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영리의 무리가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고 또 권귀들이 서로 비호해주어 서둘러 판결을 내려 관련된 우두머리 몇 사람만 유배를 보낸 정도에 그쳤다.

난이 조금 진정되자 관노 사령이 없으면 관부를 이룰 수 없다는 이조(吏曹)의 의론이 있어 드디어 죄를 용서한다고 공포하고 각기 옛 직임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돌아났던 관노 사령들은 떠돌이 생활이 괴로워 점차 돌아왔으나 원한을 품고 때를 기다렸다. 을미년(1895) 겨울에 이르러 기일을 정하여 거사를 하였는데, 감사를 받들고 먼저 나서서 제압하되 영리들의 집을 온통 도륙내리라 맹세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이 누설되어 영리들이 대부분 가족을 끌고 도주했기 때문에 살해된 자는 얼마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영리들은 결사대가 갑자기 일어날까 두려워 옛날부터 있었던 관노와 사령들을 모두 쫓아내고,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하게 했다.

친위대가 창설되자 여러 영리들은 또 관노와 사령들이 응모할까 두려워하여 제각기 자기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부대를 충원하였으므로 관노와 사령들은 원수를 갚을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하였다.

— 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역주 매천야록』상, 281~283쪽

[부남면]

부남면은 전주부에서 10리 밖까지 일계, 방천리, 곤지리, 구석리, 삼계리, 사계리, 교리, 반석리, 묘동리, 원당리, 동봉산리, 은석리, 죽음리로 구성되어 있다. 부남면 가운데 성안에 위치한 지역은 부남 일계로 남문에서 서문 사이에 있는 성벽 주변 지역이다. 그 나머지 지역은 모두 성 밖 지역으로 서천교를 넘어 군자정 아래에서 매곡교 부근까지가 부남은송리이다. 남문 밖에서 전주천으로 나가는 길을 중심으로 서편은 방천리, 동편은 구석리이다. 전주교(싸전다리)를 지나 곤지산을 중심으로 서편은 곤지리, 동편은 사정리이며, 남천교를 지나 남고산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부남 반석리이다.

부남면은 모름지기 전주의 중심적인 민간인 거주 지역이다. 이곳에 방천리, 구석리, 은송리, 곤지리, 사정리, 반석리, 교동 등의 명칭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도 이곳에 여러 마을들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곳 또한 부서면과 더불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전주는 주로 부서면과 부남면 일대에 주민들이 집중하여 살고 있었다.

□ 노루목

노루목[獐項峙]은 서학동 남쪽의 남고산 지맥으로 전주천과 맞닥뜨리는, 좁은목 위 조그만 언덕을 말한다. 노루목의 형국은 남고산 꼭대기가 승암산을 바라보며 쏜살같이 곤두박질치며 내려오다가 좁은목 못미처 까무라친 형국으로 노루가 놀란 형세이다.

노루목 앞 옥류동은 승암산 꼭대기가 서북쪽 발산을 돌아놓고 한 가닥을 슬쩍 비켜 사뽀히 내려 앉은 듯한 형세인 한벽루 부근을 말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대숲을 끼고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는 형국이다. 즉 노루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놀다가 목이 말라 물 있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란 형세라고 하여 노루목이라고 한다.

1912년 무렵 이곳을 넘는 도로를 한때 개설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했다. 노루목은 하류의 매곡로와 마찬가지로 홍수가 있을 때면 예전부터 이용되던 고갯길이다. 평상시에는 좁은목을 돌아 남원으로 가지만, 비가 많이와 물이 넘치면 노루목 쪽으로 넘어 객사동, 새원을 거쳐 만마관을 벗어나 노구바위, 슬치고개를 넘어 관촌역을 지나 남원으로 간다.



사정공덕비

좁은목에서 남원가는 대로를 따라 조금 내려가면 산자락으로 오르는 길이 있는데, 이를 따라 오르면 활터마을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다. 좁은목 위 노루목재에 있는 마을이다. 활터마을로 불린 것은 이곳에 1975년 ‘풍남정’이라는 활터가 생기면서부터라고 한다. 여기에는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이현생씨의 아버지가 80년 전에 처음 마을로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았

으며 그 이후에 마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현생씨의 아버지는 이 마을에 풍남정이라는 활터를 지어서 1985년까지 운영을 하였으나 운영난으로 활터 문을 닫았다. 현재도 활을 쏘는 건물과 현판이 남아있다. 본래 활터마을이라 하면 읍양정이 있던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부근을 말하는데, 좁은 목 위에 활터가 생기면서 이 마을을 활터마을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남고산자락을 타고 활터 마을로 내려오는 산을 방독(온돌방 구들장)이 많이 난다고 하여 방독산이라고 하였다.

[구술] 노루목 형국

(마을 앞 남고산 줄기를 가르키며) 저그 시방 노루, 노루형으로 잡고 있거든. 여기보면 꽃새 나오잖어. 저그 낭구도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노루형상으로 잡는다고, 호랭이가 노루를 잡아먹으러 건너가다고 시방 그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백호가 노루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형상인데, 앞에 물이 있어서 건너가들 못허고, 호랭이가 별로 좋지못하다 이거여, 그것만 잡아먹으면 그것만 연결시켰으면 좋아졌을 터여.

— 승암마을, 정종엽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인용

[구술] 활터마을 1

옛날에 활터가 있었으니까. 활터가 어딘고니. 약수터 위에, 노루목이라고 ‘이철승’씨 선산이여 저기가. 저기가 바로 활터야. 거기서 활을 쐈거든. 지금도 있을걸 아마? 얼마전까지도 거기서 활을 쐈어. 그래서 활터야 저기가. 옛날부터 거기서 활을 쐈다는. 역사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까지도 거기서 활을 쐈으니까. 노루목같이 생겼다고 해서 노루목이라고 해.

— 객사마을, 한명희氏

[구술] 활터마을 2

(그전에) 여기는 그냥 노루목재라고 그랬죠. 그 뒤로 여기 활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근게 사람들이 이제 편지 보낼 때도 활터마을 해갔고

보내니까, 그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거여.

_ 활터마을, 이현생氏

[구술] 방독산

여그만 올라 가면은 여기 나무 많은데, 거그만 가도 방돌 깨고 남은 찌꺼기 돌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했죠. (아버님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하신 거죠. 우리 클때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 또래가 우리 선배들, 밑에 선배들 엄청나게 많았죠. 한집에 보통 아무리



방돌

적어도 집에 두세명씩은 다있으니까. 지금은 머 애기를 볼라든 눈 씻고 찾아볼라도 없는데 머... 방독을 여기서 떠서 (방독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여기가 노루목이고, 그담에 여기가 머리쪽이고, 몸통이 저기라는 얘기에요. 근게, 형상이.

_ 활터마을, 이현생氏

[구술] 동고사터

(조사자 : 어른들 말에 의하면 활터마을이 동고사 터 라는 거죠?) 예 그러죠. 글고 지금 현재도 우리집 마당쪽에, 그쪽에 1미터정도만 파면 옛날 기와 깨진거, 도자기 깨진거. 도자기도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거~ 고려청자 있잖아요. 그런 도자기 깨진 것이 무척 나와요. 지금도. 글고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나왔는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옛날에 청기와 있었죠. 청기와 한장이 여 쪼터리 모서리만 조금 깨진게 한장이 나왔대요, 그래가꼬 그것을 연구한다고, 사람들이 한 조각만 달라고 해갔고. 그래서 그것을 여덟 조각으로 깨갔고 하나씩 가져갔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도 거 궁게 거 계단석 그것은 집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두꺼가 세꺼가가 있어요. 글고 우리집서 나온게 있고, 또 저쪽집서 나온게 있고, 근데 그냥 보더라도 이 마을 크기가 딱 절하나 서있을 자리잖아요. 딱 절하나 서있을 자리에요. (불상이 언제 나왔는지요?) 오래 되었죠 그

진. 아버님이 요 밭에서 나왔으니까. 궁게 그것을 아버님 친구분이 나
달라 해갔고, 뺏어 갔다고 글더라고. 궁게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머 부
족한거 없이 살던 양반이니까, 친한 친구분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줬는
가봐요.

— 활터마을, 이현생氏

□ 좁은목

좁은목은 남원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입구 길목, 남고산 노루목 아래를
말한다. 목이 좁고, 양쪽에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임진
왜란 때도 왜군이 좁은목을 통해 전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막실을 통해
전주로 들어왔다.

좁은목은 전주 3대 바람통의 하나로 목이 좁아 찬바람으로도 유명하
다. 이와 관련해 좁은목에는 삭탈관직을 당하여 귀양길을 나서는 탐관오
리의 도포자락에 찬 바람이 스며든다는 유찬로 등의 열두곡(十二曲) 설
화 등이 흥미롭게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승암산과 남고산을 잇는 규암맥이 이어져 있고 높아서, 홍수 때가
되면 많은 물이 좁은목에서 폭포수로 바뀌어 떨어져 장관을 이루었을 것
이라는 이야기도 있다(『전주시사』, 1997, 85쪽). 한벽당에 바라보는 좁은
목 부근 전주천 풍경이 일품이었을 것이다.

좁은목은 또 약수터로 유명하다. 물이 좋아 피부병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좁은목 약수터에 물이 대량으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좁은목 아래 이 약수터 물을 이용한 한지공장이 있었다. 지금은 좁은목 앞에 남원기는 대로가 나있지만, 예전에는 천변쪽으로 차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고, 공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지공장이 자리했었다.

[구술] 좁은목 약수터 가서 세 번 씻고 나왔어

이 약수터에서는 애지간하면 종기 같은 것은 씻으면 다 나왔어. 그래

서 약수터가 일정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여서일곱살 먹었을 때
였을거여! 그 정도. 종기가 이렇게 났었어. 근데 거기 가서 세 번 씻고
나왔어. 근게 거기는 종기 같은 것 이런 것 아픈데 피부병 생기면 씻는
사람이 겁났었어. 근데 우에로 도로를 내면서 우에 물 나오는 구녕을
메꾸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_ 내원당마을 최기남氏

[구술] 좁은목 여우

옛날 같은 경우 9~10시가 되면은 좁은목 돌아오면은 여우울음소리
가 이쪽 산 저쪽 산에서 막~ 비울 때는 뭐 도깨비불이라고 하지! 여기
서 반짝하면 저기서 3개가, 저쪽가면 9개가 되고~! 귀랑 좋긔하고! 상
관사람이 나무장사를 하는데 좁은목서 한 일곱 여덟명 씩 모여야 가!
그러안하면 못가! 무서서 못가, 좁은목 무서서! 여우도 많고 애지간하면
도둑놈들이 와서 나무장사 하면 빼앗아 가고!

_ 내원당마을 최기남氏

[구술] 뱀장어를 잡아 구워먹었더니

(좁은목 약수터에) 뱀장어가 탱크처럼 켜그마니 만들어 논 데가 살
터래요. 거기서 살길래, 그 뱀장어를 사람들이 잡아서 구워서 먹었데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물이 빨간물이 아파 핏물이 나오더라는 얘기여. 그래
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것이 맑은 물이 다시 나오더라는 거여.

_ 활터마을, 이현생氏

2. 동서학동의 문화유산

□ 반석역

반석역(半石驛)은 전주부 남쪽 3리, 반석리에 있던 역이다. 18세기말의
경우, 여기에는 역리(驛吏) 75명, 남자종[奴] 97명, 여자종[婢] 38명, 일수
(日守, 잡무종사자) 60명, 말 15필이 있었다. 삼례 찰방에 속해 있던 중간

역이었는데 고종 26년(1889) 기축년 사건 때 일단 소실, 1894년 무렵까지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그 위치는 남천교의 좌측 북쪽으로(일제 때 서정 34번지의 2) 강 속에 해당하는데, 여러 개의 석재, 영세불망비가 그 주변의 강 속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 반곡서원(완산구 동서학동 210)

반곡서원(泮谷書院)은 전주교대 정문에서 동쪽으로 전주교대의 교정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상점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간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종 5년(1868년)에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938년 중건되었다. 문정공 팔송 윤황(文正公 八松 尹煌), 시습재 이영선(時習齋 李榮先), 육곡 서필원(六谷 徐必遠)을 배향하고 있다.

윤황은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부윤을 역임하였으며, 호란이 일어났을 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영동군에 유배되었다. 이영선은 우의정을 지낸 이상진의 아버지로 참봉을 지냈다. 서필원은 효종 10년(1659년) 전라감사로 재직할 때 큰 흉년이 들자 창고를 열어 조치하고 소를 사서 권농하여 백성들에게 큰 보탬을 주었다. 이상진(李尙眞)과 함께 효종과 현종조의 오직(五直)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다.

반곡서원은 사당과 강당인 모현당(慕賢堂)과 문간채로 되어 있다. 배치는 외삼문을 들어가면 강당인 모현당이 우측에 있으며 내삼문을 들어서면 사당이 있다. 현재 민간인이 거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 남천교 개건비

중진영과 남고산성을 잇는 교량이 남천교이다. 전주부성에서 남원을 가려면 이 남천교를 건너야만 되었다. 전주교대 정문 근처에, 18세기말 이 다리를 개건하면서 그 경위와 비용을 기록한 남천교개건비(南川橋改

建碑)가 서있다. 천변에서 옮겨 놓은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이렇다. 영조대에 구(舊) 석교(石橋)가 유실되어 40여년간 불편을 겪었는데, 관찰사 윤시동(尹蓍東)이 700냥을 내고 전주부민 장익복과 하복언이 각각 500냥을 내는 등 총 14,000냥을 모아 1791년(정조 15) 남천교를 건설하였다. 서울에서 차(車)를 끌어다가 황방산(黃彪山)의 돌을 운반해 썼으며 후임 관찰사 정민시(鄭民始)가 또 800냥을 회사하여 뒷마무리를 지었다.



교대 내 남천교 개건비

이렇게 해서 18세기말 개건된 남천교는 5간의 무지개 다리(五虹橋)로서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또 다섯 개의 창이라고 해서 일명 안경다리라고도 하였다. 거기다가 다리 위로는 남쪽을 향해 하늘을 집어 삼킬 듯 부릅뜨고 바라보고 앉은 다섯 마리의 용머리를 새겨 올려놓았다. 그 앞산 송암산이 화산으로 전주부성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 기를 누르고 전주부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용머리를 새겨 놓았다고 한다.

□ 남고산성

전주시 동서학동 전주교육대학교 뒤로 올라가면 220m 높이의 남고산 정상을 중심으로 둘러쌓은 2.95km 길이의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이 남고산성(南固山城, 사적 294호)이다. 고덕산 서북쪽 골짜기를 둘러싼 포곡형의 석성으로, 전주천 건너 동고산성과 함께 전주의 남쪽 관문을 지키는 형세이다. 남고산성은 견훤성, 고덕산성, 만경산성이라고도 불린다.

후백제 견훤이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이곳이 전주로 들어오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이전부터 성이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성벽은 19세기에 수축된 것으로, 1811년 관찰사 이상황이 수축을 시작하여 이듬해에 박윤수가 관찰사로 부임하여 완료하고 남고진(南固鎭)을 설치하였다. 남고산성을 수비하는 군사는 산성별장(무반 종5품) 1인, 장관 22명, 군역 1,343명, 수문장 1명, 문직이 5명이었다.

산성의 남쪽과 북쪽에 장대가 있으며, 문은 동쪽과 서쪽에 있고, 서쪽에는 암문이 있었다.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의 포루가 있었으며, 특히 천경대, 만경대와 같은 절벽이 자연적 요새를 이루고 있다. 현재 서문지 석축이 남아 있고, 남고사와 관성묘를 비롯하여 남고진의 내력을 기록한 <남고진 사적비>가 있다. 남고산성 고지도에 보면, 산성 안에 종이를 뜨는 지소도 있었다.

□ 남고진 사적비

동서학동 남고산성 서문 바로 옆에 남고진사적비가 있다. 남고산성의 수축경위와 남고진(南固鎭) 설치에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1846년(헌종 12)에 세워졌으며, 최영일(崔英一)이 글을 짓고, 명필 이삼만(李三晩)이 글씨를 썼다.



남고산성 내 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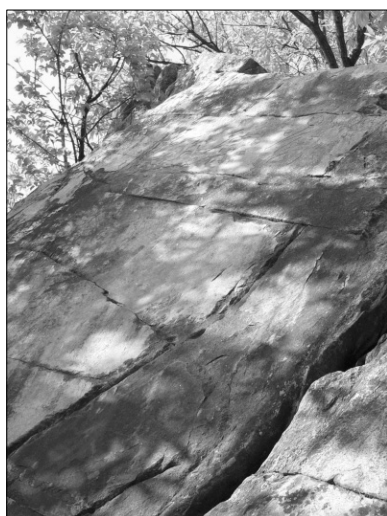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고산성은 견훤의 옛 성터였으며, 임진왜란 때 소모사(召募使) 이정란(李廷鸞)이 수성하여 왜적을 물리쳤다. 이후 1734년(영조 10)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이 성을 복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11년(순조 11) 관찰사 이상황(李相瓚)이 유림(儒林)·삼영장(三營將)·부로(府老)들과 더불어 성을 다시 수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812년 관찰사 금풍군 박윤수(錦豐君 朴崙壽)에 의해 남고산성이 완성되었다.

□ 만경대 정몽주 시

남고산성 만경대는 고려말의 수절신 정몽주의 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문에서 산성을 따라 우편(남고진사적비 반대편)으로 조금 오르면 만경대이다.

1380년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거두고 귀경길에 선조들이 살았던 전주에 들려 오목대에서 일가친지를 불러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에서 술이 거나해진 이성계가 한나라를 창업한 유방이 불렀다는



정몽주 시 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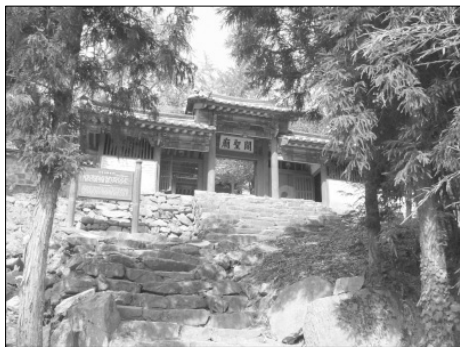
대풍가(大風歌)를 읊었다고 한다. 즉 자신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야심을 던지시 비쳤다는 것이다. 그러자 종사관 정몽주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홀로 말을 달려 남고산성 만경대에 올라 비분강개한 마음을 시로 읊었다고 한다. 남고산성 만경대 바위에 정몽주가 읊었다는 이 시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길 바위 머리 돌길 비끼어, 올라서니 이 마음 견잡을 수 없네. 푸른 산은 은연히 부여국을 다짐했건만, 누런 잎은 백제성에 흩날리어라. 구월의 높은 바람은 나그네를 괴롭히는데, 한 평생

지닌 호기는 서생으로 그르쳤구나. 하늘가에 해는 저물어도 뜬 구름은 합해지는데, 고개를 돌려 속절없이 옥경(玉京)만 바라보네(千仞崗頭石逕橫 登臨使我不勝情 青山隱約夫餘國 黃葉繽紛百濟城 九月高風愁客子 百年豪氣誤書生 天涯日沒浮雲合 矯首無由望玉京)”

□ 관성묘

전주고대 뒤편으로 해서 콘크리트 길을 따라 산성으로 향하다가 좌편으로 산성 서문 가는 길을 그대로 두고 직진하여 삼경사 약수터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관성묘(關聖廟)가 있다. 관성묘는 관왕묘, 관제묘라고도 하는데 관우를 무신으로 모시는 사당이다. 관우는 무신의 사표요 용맹스런 신장으로 악귀를 물리쳐주고 길복이 오게하며(護家護神) 개인의 앞날까지 훤히 내다보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에 관성묘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가 들어오면서부터로 1598년(선조 31) 명나라 장수 진인이 서울 남대문 밖 남산기슭에 처음 세웠다.



관성묘

남고산성 안에 있는 관성묘는 1895년 전라감사 해사 김성근(海士 金聲根)과 남고산성 별장 이신문(李信文)이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창건한 사당으로, 『명성경(明聖經)』에 이 사당이 설치되게 된 김성근과 이신문의 유명한 꿈 이야기가

전한다. 지금은 관왕묘 참례 발길이 끊겼지만, 일제 때까지만 해도 정월 초하룻날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점례를 빼보고 그 해의 복을 비는 행렬이 그치지 않았다.

관성묘에는 관우장군과 제갈공명의 영정이 안치되어 있다. 배치는 외삼문과 내삼문인 팔덕문(八德門)을 지나면 정전인 대성전과 배전이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배치되어 있다. 대성전에는 관우상이 모셔져 있다. 여기에는 또 채용신(蔡龍臣)이 그린 삼국연의도(三國演義圖) 10여폭이 있는데, 도난당하였다가 되찾았다고 한다.

□ 남고사

전주부성 주변에 동고사·서고사·남고사·북고사 등의 사찰이 있어서 성의 사방을 수호하였다. 남고사(南固寺)는 남고산성 서문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 문무왕 8년(668년)에 명덕화상(明德和尚)이 창건하였으며, 남고연국사(南固



남고사 전경

燕國寺)라 불리다가 조선 성종대 이후 남고사라고 칭하게 되었다 한다. 다만 당시의 한자 이름은, ‘南固寺’가 아니라 ‘南高寺’였다. 명덕화상은 열반종조(掣槃宗祖) 보덕대사(普德大師)의 수제자이다. 지도에 보면 남고사 위에 칠성각이 보인다. 남고사에서 해질녘 낙조를 바라보며 듣는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 남고모종(南固暮鐘)이 전주 8경의 하나로 꼽힌다.

□ 충경사(忠景祠)

충경사(忠景祠)는 임진왜란 때 전주성을 지킨 충경공 이정란을 모신 사당이다. 충경로(동서관통로)는 이정란의 시호를 따온 것이다. 남고산성



충경공 이정란 사당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에 건립되었다.

이정란(李廷鸞, 1529~1600)은 본관이 전의로, 수찬벼슬을 지낸 승효(承孝)의 아들로 전주출신이다. 1568년(선조 1) 증광시 문과에 급제하고, 해미현감·개성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

란이 일어나자 64세의 노구로 의병을 모집하여 전주성을 굳게 지켜냈다. 이 공으로 태상시첨정(太常寺僉正)에 기용되었으며, 이어 수주부사(水州府使)·공주목사(公州牧使)를 역임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자 수성부장(守城副將)이 되어 전주성을 지키다가, 전주부윤 박경신(朴慶新)이 도망치다 변산에서 죽자 전주부윤겸삼도소모사(全州府尹兼三道召募使)에 제수되었다. 국난 극복에 이바지한 공으로 충경(忠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전주의 한계서원(寒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불정사

□ 불정사

전주 남원간 국도에서 동서학동 파출소 왼쪽으로 올라가면 남고산성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여기에서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남고사 조금 못 가서 약 200m정도 되는 지점에 불정사(佛

正寺)가 위치해 있다. 남고산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쪽에 있으며 오래전부터 불사가 행해졌던 사찰로 전해진다.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이 있으며, 대웅전 안에 목조아미타불좌상과 석조나한상이 봉안되어 있고 요사채에는 조선시대의 다라니판이 있다.

□ 선정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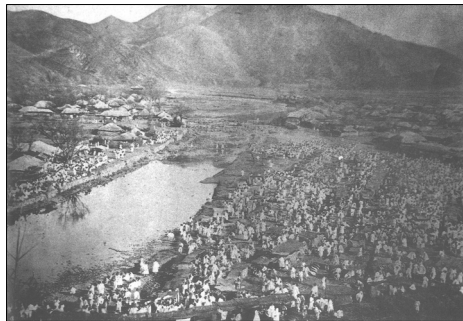
관성묘로 가는 길에 삼경사 약수터를 막 지나 왼편 산자락 남고산성 성벽 바로 안쪽에 선정비(善政碑) 비석군이 있다. 전라감사 서상정(1866년 부임), 판관 강준수, 남고진 별장 송혜옥 선정비가 자연암에 새겨져 있고, 별장 최영우·이신문·김○서와, 관직이 마모된 장영풍 선정비 등이 그 부근에 세워져 있다.

3. 동서학동의 생활민속

□ 남문밖 반석리 시장

19세기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에 의하면 전주에 5개의 시장이 있다. 즉 남문시장, 서문시장, 북문시장, 동문시장 등 4대문 밖에 모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성내에 한 개의 시장이 있다.

1897년부터 일본인들이 서문밖에 상점을 벌이고, 이후 서문부근의 성벽이 철거되면서 시장 판도는 급격히 변해 갔다. 동학농민혁명 때는 남문밖 시장 부근 500여호의 건물이 불에 타버렸다. 일본인들의 상점이



남밖 반석리 시장

다가동과 중앙동 일대까지 진출하여 성황을 이루면서 동북 두 시장이 자연 소멸되고, 이어 서문시장도 침체되어 1923년 남문시장에 통합되었다.

남문시장은 보통 남밖장이라고도 하며 전라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개시일은 매월 2일과 7일, 즉 월 6회 시장이 섰으며, 지금의 남문시장 부근에서 전주교 일대에 이르는 천변자갈밭에서 열렸다. 그런데 조선말의 옛사진에 보면, 전주교대 반석리 앞 전주천변에 사람들이 가득한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남밖장이 지금의 남문시장과는 달리 전주교 좌편(동편) 반석리 앞쪽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남밖장이 번성하면서 부근 일대에 정기적 부정기적 장이 섰다. 전주교는 남밖장에서 이곳까지 주로 되쟁이가 곡물을 판매하여 싸전다리라고 하였고, 매곡교는 담배·담뱃대가 주로 거래되어 연죽다리라고 하였으며, 완산교는 소금장수가 진을 치고 있어서 염전다리라고 하였다. 전주교와 매곡교 사이 하천부지에는 우시장이 열려서 쇠전강변이라 하였다. 1923년에는 다가동에 약령시가 설치되어 대구와 쌍벽을 이루었다.

□ 남고산의 호랑이 바위 전설

옛날 남고산 중턱 기슭에 남매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는 감자 4개를 삶아두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부인과 아이들은 감자도 먹지 않은채 잠이 들었는데, 딸의 꿈속에 호랑이가 아버지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딸이 호랑이 앞에 나가서 자기가 대신 잡아 먹히겠다고 하자, 또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와 누이를 대신해서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이렇게 호랑이 앞에서 옥신가신 하다가 잠이 깨었는데 깨어보니 남매가 똑같은 꿈을 꾸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호랑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 대신 자

신을 잡아가 달라고 빌고 있었다. 이를 본 남매가 서로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이에 호랑이가 감복하여 이들을 놓아주었는데, 이는 산신령이 호랑이로 변신한 것이었다. 산신령은 이들의 효성에 감복하여 복을 주었다고 한다. (『우리전주 전주설화』)

II. 서서학동

1. 서서학동의 유래와 지명

서학동(棲鶴洞)은 고덕산에서 뻗어 내린 남고산 자락에 형성된 마을이다. 북서쪽으로 곤지산과 완산칠봉이, 동남쪽으로는 고덕산과 남고산이 둘러져 있다. 전주천이 반석리 앞쪽으로 흘러 동 경계를 이루면서 서편으로 휘어 나가고, 남고천(공수내)이 흑석골을 지나 곤지산을 돌아 초록바위쪽에서 전주천으로 들어가며, 반석천이 전주교대 동남쪽에서 전주천으로 흘러 들어간다.

서학동은 본래 전주부 부남면 반석리(半石里)와 사정리(射亭里) 지역이었다. 반석리는 돌이 반절이고 흙이 반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사정리(사정물)는 현 전주교대 자리에 읍양정이라는 활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반석리와 사정리 일부를 합쳐 서정(曙町)이라고 하였다. 서정이라고 한 것은 마을이 부의 남동쪽에 있어서 다른 마을보다 먼저 아침 해를 맞이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46년 광복 이듬해 일본식 동명 변경에 의해 서정을 고쳐서 서학동이라고 하고,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으로 나누었다. 서학동이라는 이름은 ‘깃들 서(棲)’에 ‘학 학(鶴)’자를 써서 학이 깃드는 동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된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남고산에서 흘러내린 산자락이 학이 날개를 편 형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쌍학의 모습으로, 지금의 동서학동 전주교대터가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서서학동 전주남초등학교 동남편 학봉리 뒷산의 학봉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학이 많이 살아 서학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자연마을로 동서학동에는 노루목재, 좁은목, 산성, 반석리가 있으며, 서서학동에는 학봉리, 흑석골, 사정물, 불무골 등이 있다.

□ 공수내

공수내는 남고천(南固川)을 말하는데, 매봉재에서 내리는 물과 보광재에서 내리는 물이 흑석골에서 합수하여 곤지산을 돌아 초록바위에서 전주천으로 들어가는 천이다. 본래 남고천인데, 이두리에 얹힌 설화를 실어 공수내[空水川]라고 하였다고도 하며, 물살이 급하여 여기저기 바위들과 부딪치며 흘러 공수내[攻水川]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수내다리(남고천교의 속칭)는 싸전다리 옆 곤지산 초록바위 부근으로 장승백이에서 내려오는 길과 공수내가 만나는 곳에 있던 다리이다. 지금은 다리가 없어지고 아스콘 포장길로 바뀌었다. 천변에서 보면 그 아래로 공수내 물이 전주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술] 그 때만 해도 (공수내) 다리 곁에는 집이 없었어

그때만해도 다리 곁에는 집이 없었어. 논있고. 근데 그게 어느때부터 집이 많이 들어섰나면 완산칠봉에 경찰국 화약고를 뒀어. 시방도 1급 화약고가 유지되어가지고 있어. 경찰국 화약고가. 시방 완산학교 완산칠봉 그리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화약고 굴이 있어. 그 굴을 파면서 돌, 흙을 갖다가 공수내 다리 위에 가가지고 싹 미어가지고 장승백이가 지 메워가지고. 공수내다리위애가 논이었는데 깊었어. 그런데 거기 흙 가져다가 여기저기 주택으로 만든거여.

전에는 산 밑에가 집이 있었고. 산에 띄엄띄엄 집이 있었고. 밭 농사 해먹고. 논 있고, 거기가 돌이 많이 박혔어. 6.25때는 공수내 다리라는 것은 없었어. 또랑으로 되어 있었지. 또랑으로. 그런게 비 많이 오면 거시기 했지.

_ 동서학동, 황봉규氏

□ 보광재

보광재(普光峙)는 고덕산 서쪽기슭으로 흑석골에서 모악산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흑석골에서 남고산성으로 넘어가는 길은 매봉재라고 한다.

보광재는 완주군 구이면 평촌 근방 사람들이 전주로 드나들던 주요 교통로로, 나무꾼들이 많던 시절에는 이곳에 달구지가 지나다닐 만큼 넓은 길이었다. 보광재라고 이름한 것은 이 고개일원에 백제 무왕 때 지은 보광사란 절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보광사는 현재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상보)에 있었다). 또 이 고개의 형세가 앞드려 있는 호랑이 목의 혈, 즉 복호항지맥(伏虎項之脈)이라고 하여 ‘복항재’라고도 한다.

깊은 숲 속에 파묻힌 보광재길은 완산부성 변두리치고 급한 굽이로 꼬인 소문난 고개길이었다. 227m에 달하는 고개로, 날망에 올라서면 부성쪽과 구이동쪽을 내다보고 서 있는 두 서낭나무가 있었다. 이 서낭나무에 반드시 돌을 던져야 했었다. 그 딸그락하고 던져진 돌소리 붙잡고 내다보면 구이동, 평촌가는 길이 술발사이로 실



보광재 정자

뱀처럼 날렵하게 고부라져 그 아래로 굴러내리고 있다.

보광재는 또 전주천과 세내(삼천)의 양쪽 물줄기를 보내는 분수령의 하나이다. 정상을 분수령으로 북쪽은 흑석골로 내려가 남고천(南固川)으로 흘러 서천(西川)에 모이고 남으로는 평촌들을 내려가 세내(三川)를 만난다. 고개 날망은 사절(四絶)의 멋이 있다는 명소이다. 그 사절이란 한 귀로는 <바람을 보고> 한 귀로는 <물을 보며> 한 눈은 <생각하고> 한 눈은 <방랑>한다는 말이다.

□ 두무소

두무소(杜舞沼)는 남고천(南固川)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미륵산을 바라보며 관음사 부근 산허리를 굽어도는 부근을 말한다. 전주사람들이 피서나 소풍가는 자리로 유명하였는데 지금은 훼손되어 그 정취를 찾을 수 없다.

두무소라는 지명은 두사청(杜思廳)이 이 곳 경관에 취해 춤을 추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두사청은 명나라 이여송(李如松)의 막료로 당대 명유(名儒)이며 천문지리에 해박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성에 당도하여 산세를 보고 명나라 중원의 서주(徐州)와 흡사하다고 감탄하면서 서북쪽의 터진 곳이 있어 수적지지(授敵之地)의 형세이며 남으로 뻗은 천혜의 요새지라고 했다. 두사청이 이곳 경관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었더니 장군의 말도, 하늘도, 땅도, 짐승도 한 몸이 되어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런 후로 사람들은 두사청이 진중을 떠나 자연에 취해 진중무(陣中舞)를 추었다고 해서 이곳을 두무소라고 불렀다.

담옹 조함(澹翁 趙潛)의 문집에 두무소에 관한 다음 같은 시제(詩題)가 있다. “두모담(豆毛潭)은 전주부 남쪽 5리쯤에 있는데, 수석(水石)의 규모가 꽤 작기는 하나 기묘하다. 중양(仲養, 목산 이기경의 아우 이기성) 형제와 화전(花煎) 놀이를 하다가 시를 짓고 나니 수옹(水翁)도 따라 화운

(和韻)하다.” 두무소는 옛날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명승이었다.

2. 서서학동의 문화유산

□ 곤지산 초록바위

곤지산(坤止山)은 완산동과 서학동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남천교 쪽에서 바라볼 때 말처럼 보인다고 해서 갈마음수봉(渴馬飲水峰)이라고도 한다. 곤지산의 형세가 목마른 말이 초원을 찾아 강변에 물을 축이는 형상이라는 것이다. 곤지산이 북쪽의 주산이라고 하면 그와 짝을 이루는 남쪽 봉우리가 곤지산이다.

곤지산 끝자락에 있는 초록바위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전주천과 만나는 곳이다. 바위가 검푸르다고 하여 초록바위라고 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호안공사를 하면서 상당부분 깎여나갔고, 근래 천변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또 잘려 나갔다. 곤지산 앞 전주천 바닥이 암석으로 되어있는데 초록바위의 흔적으로 생각된다. 독이 쌓여지기 전에는 공수내 물이 부딪치는 곳으로 홍수 때는 남문밖 장터를 정면으로 흘러 전주성 안으로 밀려들었다고 한다.

초록바위는 조선시대 처형장으로 유명하다.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 중 하나인 김개남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또 조선말 천주교 신자들이 또한 여기에서 처형되었는데, 새남터에서 순교한 성인 남종삼의 15세 된 아들 남명희와 순교자 홍봉주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죽인 곳이다. 이 두 가정은 온 가족을 처형하거나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았는데, 두 어린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당시의 관례대로 전주 감옥에 수감하였다가 나이를 채워 초록바위 밑 전주천에 밀어 넣어 죽였다고 한다.

이곳은 숲정이, 좁은목과 함께 삼대 바람통이라고 한다. 겨울 내내 바람이 차고 거세어 삼복 무더위 때는 피서객들이 줄을 잇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과 달리 초록바위가 전주천까지 길게 뻗어있고 전주천 가장자리로 소로만 있었기 때문에, 해가 설핏하거나 비오는 날은 한낮이라도 음산한 기운이 돌아 아녀자들은 아예 발길을 돌리지 않았으며, 장정들까지도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여 곤지산 골목은 피해다녔다고 한다.

전주천변 가장자리에 솟아있는 곤지산 자락은 이팝나무 군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미륵덩이 미륵불과 이두리 설화



미륵사

1978년도 무렵만 해도 장승백이에서 공수내다리로 내려오는 길 주변에 주택가가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었고, 완산칠봉 밑자락은 버려진 땅들이었다. 장승백이에서 내려오면서 오른편 산 자락으로 있는 자연마을이 미륵덩이와 재실뜸이다. 재실뜸은

전주최씨 재실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며, 미륵덩이는 땅속에 묻혀 있던 미륵입상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난전면 석불리라는 지명도 미륵불에서 붙여진 것이다.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쪽에서 간다면 흑석골로 가는 삼거리를 지나 100m쯤 더 가서 좌편으로 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미륵불이 있다. 이 석불을 모신 미륵사의 창건 연대는 고려 때로 추정한다. 예부터 전주 부근에는 7기의 석불이 있는데 1.인후동 구석리 미륵불 2.용화사 석불입

상 3.노송동 관선암석불 4.서학동 입불석상 5.진복사 미륵석불 6.천고사 석불 7.덕진못 화수각 미륵석불이 있어 이 중 4기의 석불을 4방에 짝지어 사면불(四面佛)이라 하였다. 4면불 중 미륵사의 석불입상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면불이라고 했다.

이 미륵불(전라북도 문화재자료 9호)은 1970년대까지는 가슴정도까지 묻혀 있었다고 한다. 미륵 입상의 상호는 방형이며 양 귀는 길다. 두부는 낮은 육모가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굽혔는데 두 손은 후세에 끼운 것이며 원래의 수인은 알 수 없다. 이 미륵불에 이두리의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이 미륵사의 중건은 1920년경 박진봉스님이 작은 암자로 재건, 미륵당으로 유지해오다가 1960년경 지금의 심요순 보살이 집터도 없는 미륵당을 인수해 새로 집을 지어 미륵불을 안치했다. 심요순 할머니는 미륵불이 영험한 징조를 나타냈다고 하면서, 근처에 대명아파트를 지을 때 미륵불의 손과 발에서 피가 났다고 하며, 미륵불의 발이 남문까지 뻗어 있고, 남문에서 제를 지낼 때 초가 남문모양으로 났다고도 하였다.

[미륵불에 얹힌 이두리 설화]

아주 먼 옛날 이 고라실 동천에 어느 사고무친인 한 젊은이가 늙은 총각 신세로 살았었다. 그는 혼자 몸이었으나 워낙 가난에 몰려 한미(寒微)하기 짝이 없어서 날만 새면 나날을 보내는게 죽기보다 무서웠었다. 그토록 저주받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점지 받았던지 그날그날을 연명하여 내려오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그 날도 다름없이 산 날망을 다니며 칠폰리를 캐느라 한참 바쁜참인데 난데 없이 등 뒤에서 “젊은이 무엇을 그리 캐는고...”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칠폰리를 캐다 말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힐끗 돌아다보니 수염을 대자나 기르고 팔척 장신을 도포로 덮은 허연 노인 한 분이 서 있는데 죽장을 짊고 온화한 웃음 속에서 찬찬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흙 투성이로 영킨 손을 들어 이마의 땀을 문지르고 나서 공

손히 손을 맞잡고 읊한 다음, “예에, 그저 끼니로 때울려고 이렇게 퉁뿌리를 캐는 중이라우” 무거운 짐이나 부리는 듯 하는 소리였다.

그 노인은 다시 “내 그대에게 한 도리를 알려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노인이 하는 말소리를 못 알아듣고 그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노인은 지켜보며 재차 “내가 그대의 포한된 소원을 풀어주겠다 말이네...” 하면서 “백대 천손을 바라는가, 금시 발복인 당대를 누리려나. 둘 중 하나만 고르소”

젊은이는 너무나도 반가운 이 소리에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면서 눈을 휘둥그랗게 굴리다가 이내 털썩 땅바닥에 엎드려 “그,그게 정말이시우? 하,할아버지님?” 그러자 노인이 “허허, 늙은이가 초면에 만난 젊은이더러 무슨 실없는 농을 할겐가. 어서 말하소”

“네, 하도 배고파 사는 놈이라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라우. 할아버지, 그 놈의 백대천손은 창창하지라우. 그저 우선 이놈의 굶는 배때기부터 채우고 싶구만이라우. 제발 이놈 좀 살 도리를 가르쳐 주지라우” 젊은이는 마치 환장한 사람 날뛴듯 눈시울을 적시면서 노인의 도포자락을 부여잡고 허우적거렸다.

노인은 알겠다 하더니만 앞장서서 쉬엄쉬엄 두 봉우리를 재쳐 내려가다가 싶더니 이 곳 미륵불 골짜기에 당도하자 한 곳을 던지시 죽장을 짊어 가리키면서 “여기네! 여기다. 자네 조상의 뼈를 묻히게나” 이 말 한마디 던지고 이내 돌아서서 가버린다. 젊은이는 엉겁결에 할아버지 소리를 연거푸 쏘으며 허겁지겁 따랐으나 노인은 들은 듯 만 듯 갈 따름인데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날쌔던지 어느새 산등성이 하나를 넘는다.

이윽고 젊은이는 정신을 차리자 한시가 바빠 부산하게 달음질 쳐 거처하고 있는 움막으로 뛰었다. 연장을 챙겨들고 지령이 지나간 자국같이 시늉만 남다시피 된 조상의 무덤을 파 당일로 이장을 끝냈다.

그로부터 몇 해 가지 앓아 기어들과 기어나던 움막에 불시로 훈훈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허물벗듯 털털 털고 가산이 늘어나니 이는 그 노인의 말과 같이 당대 발복의 선영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몇 해 안가서 장자 거부의 이름을 떨쳤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봄 날밤, 잠결에 하얀 노인 한 분이 나타났다. 그는 얼른 합장하고 엎드려 높은 은혜를 사례올리며 그 은공을 무엇으로

깊아 올리오리가 여쭙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웃음 띤 너그러운 낮으로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반가운 일일세. 내가 오늘 자네를 찾아 온 것은 다름아니라 자네 선영의 발치 둘레에 한 그루 둥그나무가 둥그지 않나! 그 둥구나무 비껴 미륵불을 세워주소. 그 미륵불은 지금 고대 산록에 가면 우로 나무둥그네. 그대로 옮겨 놓되 일월성진을 받은 상체는 내놓고 땅에 묻힌 아랫도리는 그전대로 깊이 묻어 세워준다면 그게 자네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지성으로 알겠네”

초량초량한 노인의 음성이었다. 그는 국궁재배로서 알아 모시겠다고 승복하면서,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이 계신대도 모두 뜻대로 하여 올리겠다고 하였으나 노인은 그저 함소로서 내저으며 “그로 만족하네. 자아 그럼 부탁하고 가네”하면서 이내 사라진다.

이상 그러한 내력에서 빛은 미륵불이란 말로도 내려오는데 그 젊은 이는 성명을 ‘이두리’라 하였을 뿐, 가승계보도 없고 그 후손도 없다. 그도 그럴것이 배고픈 김에 금새 발복의 당대 소원으로 마쳤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또한 그 노인 역시 전하여 오는 말로는 그 젊은이 ‘이두리’를 도운 다음 그 손을 빌려 고대산으로부터 미륵불을 옮겨놓게 한, 실은 그 미륵의 화신이 아니더냐고 전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두리’란 사람의 묘지라고 하는 무덤이 미륵불이 안치된 도량 언저리 어딘가를 헤치고 보면 천고로 누워 있다고 전한다.

또한 일설로는 어느 봄날 유난히도 별이 초롱초롱한 한밤중 이 도량 땅바닥이 덜그럭 덜그럭 올리더니만 둥그나무에 잇대어 미륵이 솟아났다는 말로도 내려오고 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설화는 고려 중엽 무렵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이 고장 고로(古老)들의 전래설로 알린다.

_ 이철수, 『전주야사』, 1967, 81~85쪽

□ 읍양정터

읍양정(揖讓亭)은 활터로 영조 42년(1766) 곤지산 동쪽 기슭의 평지(속칭 봉산이씨터)에 건립되었다. 당시 사정은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의 북서부(서정 89의 3)에 위치해 있었으며, 과녁은 우시장의 북서부에 세워 남쪽을 향해 활을 쏘았다. 일제강점기 읍양정은 교장사택으로 이건

되어 쓰였다.

조선말 전주에는 군자정, 다가정, 읍양정, 천양정 등 4개의 사정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천양정으로 통합되었다.

□ 흑석사지

조선초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흑석사(黑石寺)가 고덕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조선후기 영조대 『여지도서』에는 흑석사가 전주부 동남 10리상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사되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고덕산 자락 흑석골에 흑석사가 있었는데, 늦어도 18세기에는 폐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조사에 의하면 흑석골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절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중에 흑석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분명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흑석골 일대 산기슭에는 기와편이 산재하고 건물의 유구(遺構)로 추정되는 곳이 자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흑석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km 남짓 떨어진 계곡으로 남고산성 남쪽 성벽이 지나는 산줄기의 남쪽 기슭 하단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 보광사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주 고덕산 자락에 보광사가 있었다. 현재의 완구군 구이면 평촌리(상보)가 보광사가 있었던 곳이다. 조선초의 관찬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덕산에 보광사에 있다고 하면서, 보광사 대해 장문의 기사를 실어 놓고 있다.

[윤진(尹珍)이 지은 보광사 시]

북쪽 뜰에는 산들바람 대밭에 불고, 남향 창문을 열면 넓고 아득한 만경 산이로구나. 소나무 관문과 돌길 시내 건너 들어와서, 고승(高僧)

을 대하고 앉아 잠시 한가함을 얻었도다.

_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보광사

[이곡(李穀)이 지은 보광사 기(記)]

전주의 남쪽 고덕산에 절이 있으니, 이를 보광사(普光寺)라 한다. 실로 백제(百濟)로부터 내려오는 큰 절이다. 비구(比丘) 중향(中向)이 어려서 이 절에서 자랐는데, 그 절이 황폐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개연히 중흥시킬 뜻을 품었는데, 주(州)의 사람 중에 지금의 자정사(資政使) 고룡봉(高龍鳳) 공이 황제의 우대를 받고 성품이 또한 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원통(元統,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 갑술년에 바다를 건너 서유(西遊)하여 경사(京師)에 가서 만나보고 말하기를, ‘고공(高公 즉 고룡봉(高龍鳳))은 변지(邊地)에서 태어난 몸으로 상국(上國)에 와서 이토록 뜻을 얻으니 어찌 인과(因果)가 아니겠습니까. 공은 군상의 측근에서 주야로 반걸음도 좌우에서 떠나지를 아니하니 군상(君上)의 은택에 빛남과 여복(輿服, 타는 수레와 입는 옷)의 아름다움을 고향에 있는 친척과 봉우들이 알 수가 없으니, 소위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고향에 절을 지어서 위로 임금을 위해 축수(祝壽)하고, 아래로 대중들과 복을 같이하여 우뚝하게 한 자리 귀양(歸仰)할 장소를 마련한다면, 낮에 비단옷을 입는 격[畫錦]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공이 흔연히 승낙하고 천민(千緡)에 상당한 지폐를 출자하여 절을 새로 단장하고 삼장(三藏, 불교의 경(經)·율(律)·논(論))을 두게 했다.

그 뒤 공은 재신(宰臣)의 이간질을 당하여 남방에 출거(出居)하게 되고 중향(中向)도 또한 산으로 돌아와서 건물을 수리하고 공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지정(至正, 원(元) 순제(順帝)의 연호)으로 개원(改元)하기 2개월 전에 간신들을 축척하고, 정화(政化)를 다시 베풀어 바람과 우레처럼 호령을 발하고 뇌성과 비처럼 시행하자, 공은 다시 사환(賜環)으로 돌아와 임금의 사랑이 더욱 새로웠다. 중향은 다시 경사에 들어갔는데 공은 전에 뜻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여겨 그 비용을 더해서 공사를 독려하여 완성하도록 하였다. 세시(歲時)에 전장(轉藏)하고 전후로 보시(布施)한 것을 합하니, 천에 달하는 사람이 2만

50명이요, 황금물로 칠을 해서 불상을 새롭게 한 사람이 15명이며, 백금으로 새겨서 기명(器皿)을 장식한 사람이 30명이었다. 무릇, 황금물기둥은 1백여 개나 되는데, 정축년 봄에 시작해서 계미년 겨울에 완성을 보았다. 일이 끝나는 달에는 산인(山人) 담숙(昞淑) 등이 시주를 널리 모아서 크게 화엄회(華嚴會)를 개최하여 낙성식을 하니, 그동안에 쓴 일꾼이 3천명이요, 시일은 50일이 걸렸다. 선비와 부녀자들이 부지런히 다니며 공양(供養)하고 찬탄(讚嘆)하니, 골짜기를 메우고 산등에 넘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중향(中向)이 마땅히 본말(本末)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옳다 하여 고공(高公)의 명으로 나에게 기문(記文)을 부탁한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견훤씨(甄萱氏)가 본국에 들어온 지 4백 년이 넘는다. 절은 비록 백제 때에 창건되었으나 여러 차례 병화를 입고 비(碑)나 기문도 없어 그 세월을 상고할 길이 없으나, 혹은 일으키고 혹은 폐하더니, 오늘에 이르러 반드시 고공(高公)을 기다려서 비로소 옛날의 모습을 복구하게 되었다. 공은 삼한(三韓) 땅에 태어났으니 경사(京師)로부터 5천 리인데, 인연이 닿아서 일월(日月) 같은 천제(天帝)의 빛에 의지하고 비와 이슬 같은 큰 은혜를 입었으니, 향국(鄕國)에 그 여택이 많이 미쳤다. 또한 불사(佛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고[祝釐] 근본을 갚아서[報本] 끝없이 드리우니, 그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겠는가.

—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 보광사

3. 서서학동의 생활민속

□ 흑석골 지소(紙所, 한지공장)

흑석골(黑石谷)은 검은 빛을 띤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수내 다리에서 동쪽으로 뻗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흑석골이다. 흑석은 일명 흑연(黑鉛)의 성질을 띤 돌덩이로 한때는 감마제(減摩制)나 차량의 도말용(塗抹用) 원료로 사용되어 인기가 높았다.

흑석골이 근대에 와서 유명해진 것은 여기에 한지공장들이 자리하면

서이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수질 좋은 물이 풍부해 한지를 뜨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흑석골에 많은 한지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지골이라고도 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이 종이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한지공장들이 들어선 것이 오랜 역사는 아니다. 흑석골이 한지골로 자리한 것은 한국전쟁이후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전주제지 한 곳이 흑석골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 동산면 덕치면 등 전주외곽에서 한지를 제조하던 지공들이 피난 나왔다가 흑석골에 눌러앉아 한지를 뜨게 되면서 한지 생산단지가 형성되었다.

비록 지금은 흑석골에 한지공장이 단 한 곳(고궁한지)만 운영되고 있지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호남제지, 문성제지, 문산제지, 평화제지, 청보제지, 전주제지 등 한지공장들이 즐비했다. 흑석골은 폐수 등 환경문제로 한지공장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폐업할 때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한지의 명맥을 마지막까지 이어가던 전주한지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다.

□ 당산제

흑석골 버스 종점 공터에 만남의 광장이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 당산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다지는 당산제가 부활되어 마을 잔치로 치러지고 있다.

흑석골 당산제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예전부터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 어귀 당산에 제를 올리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였다. 이 곳 토박이들에 의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제 지내기 며칠 전 각 집을 돌면서 재수풍물을 쳐주며 쌀과 돈 등을 십시일반으로 걷어 제물을 마련하고 무당을 불러와 소박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한다. 제에 앞서서는 부부관계 등을 금지하고 당일 정갈한 마음으로 목욕제계 하는 등의 금기사항과



초기 당산제 모습



만남의 광장 조성식

더불어 당산나무 앞으로는 상여도 못 지나가게 했으나 그다지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흑석골 당산제는 당시 마을 통장을 맡고 있던 채정주씨와 이곳에 자리를 잡은 성공회 허종연 신부가 옛 문화 계승과 더불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을 만들어보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풍물 및 민속놀이와 더불어 동네 사람이 직접 축문을 읽고, 정식 무속인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사정에 밝은

무당이 상차림을 도와 “새천년 대보름맞이 당산제 및 민속놀이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1회 당산제를 지냈다.

당산제를 마을 축제로 전환한 초창기에는 신부로서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낸다는 비난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등이 따랐지만 전통문화 지원의 일환으로 당산제를 보조하고 당산나무 주변을 정비, 그 일대가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되면서 전주시의 당산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탄광

흑석골에 석탄이 매장되어 탄광이 개발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탄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남초등학교 후문에서 50m쯤 흑석골로 올라가면 두길로 갈리는데 그 오른쪽 길에 석유창고가 있고, 그 뒤쪽으로 민가가 있다. 그 민가 안에 탄광입구가 있다. 탄광 입구 앞으로 지하수가 있다. 지금은 그 민가 주인이 탄광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 저장창고로 쓰고 있다. 여기가 아랫 막장이다. 탄광 윗막장은 갈림길에서 왼편으로 있는데, 대양교회 마당 끝에 폐가가 있고 그 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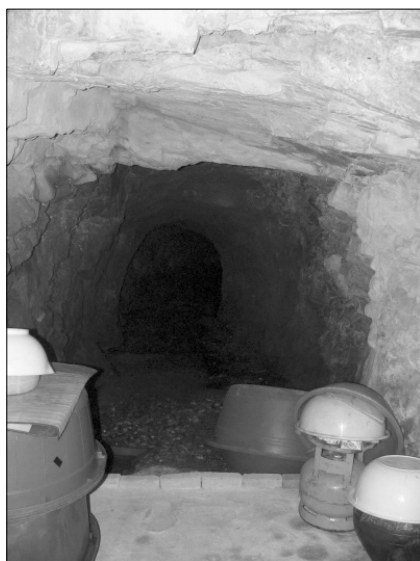
[도심 한복판의 흑석골 탄광]

‘전주시 도심 한복판 속의
동굴을 아십니까’

지난 50년대 석탄이 발견돼
잠시 탄광으로 개발됐던 길이
70m, 높이 2m의 흑석굴이 50
여년의 세월이 지난 31일 드
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주시 도심 한 복판인 완
산구 서서학동 흑석골에 자리
한 흑석굴은 남고산 자락 인
근 100여세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50여 년 동안 폐광 그대
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보존
돼 있다.

흑석골 어원 그대로 검은
돌인 석탄이 발견됐던 흑석굴
은 탄광으로 개발되던 당시 250여m 까지 파 내려가 산 너머 장승백이
마을까지 다다르는 길이로 당시 도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당한 규모
를 자랑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아랫막장 입구

흑석굴은 석탄의 효용성이 없어 폐광에 이른 직후 사고위험과 훼손 등을 우려 시당국이 인근 주민 및 외래객을 철저하게 통제, 서서학동 주민들로부터 50여년 째 잊혀졌던 도내 유일한 ‘도심치녀동굴’로 불리어지고 있다.

흑석굴 입구에서 50여 m 안쪽에는 수심 2m 가량의 샘이 자리하고 있어 지난 50여년 동안 인근 서서학동 주민들의 식수역할을 해왔다는 것.

5대에 걸쳐 150여년을 흑석굴 인근에서 살아왔다는 곽도웅(63)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0년 전 석탄이 나오지 않아 폐광조치돼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던 굴이었다”며 “동굴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운 쉼터 구실을 해왔다”고 회상했다.

서서학동 정갑봉 동장은 “흑석굴 인근지역 주민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수십년 간 덥지덥지 함께 살아와 동굴의 효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상태”라며 “가능하면 도심지 한복판 속의 동굴로 모두에게 볼거리로 제공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 전라일보, 도심 한복판 폐광 50년만에 공개, 2002. 7. 31

□ 기마경찰대

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뒤편으로 경찰기마대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본헌병기마대가 있다가 광복이 되고 우리 나라 경찰기마대가 자리했다고 한다. 1963년 전주부 지번도에 보면, 장승백이 가는 길을 따라 교대부속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기마대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즉 장승백이 길을 따라 교대부속초등학교가 있고 이어 기마대가 위치하고 있다.

□ 우시장

우시장은 처음에 매곡교를 중심으로 한 전주천 부지에 있었다. 1914년 도까지는 자유롭게 매매했지만, 1915년에 전주군 축산조합이 설립되면서 축산 장류를 위해 중개 수수료로 다 자란 소(成牛) 1마리당 2엔, 송아지 1마리당 1엔을 징수하였다. 당시 우시장에서 매매된 마릿수와 거래액은,

1915년에 2,003마리, 44,952엔, 1916년에는 2,034마리, 53,929엔이었다.

우시장이 서학동에 들어선 것은 1925년의 일이다. 1925년 조합에서 매곡교변이 우시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여 서정(서학동)에 부지 2,700평을 매수하여 우시장을 이전하였다. 그 위치는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 위쪽이라고 한다(마을 주민 박기순씨는 기마대자리라고도 하고, 한창석씨는 기마대 위에 있었다고도 한다). 이 때 이 근처에는 집들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후 우시장은 중앙시장 근처로 옮겼는데, 지금의 코아백화점 자리라고 한다(박기순씨는 기마대가 들어서면서 소시장이 이전되었다고 한다). 우시장은 다시 덕진 전북대 후문 근처로 옮겼고, 그 다음에는 이동교 다리 건너편에 섰다(황봉규씨는 이동교로 이전한 것이 6.25 때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동교를 다시 넘어와 지금 효자4동 근방으로 옮겼다.

□ 도축장

지금의 남초등학교 자리에 전주부 도축장이 있었다. 1924년 여기에 부지 819평을 마련, 건평 100평 여의 목조아연지붕 단층 건물 5동을 건립하여 도축업을 개시하였다. 1936년에는 도축장 관계자들이 헌금을 모아 도장 내에 수훈비를 세우고 위령제를 지냈다. 이 근처에 백정들이 살았는데,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천시를 받았다.

한편, 도축장 서쪽 옆에 전주부 우피 건조장(서정 106번지의 2)이 있었다. 건조장 규모는 목조아연지붕 단층 1동(7평)에 부지 1,168평 이었다.

『전주부사』(1943)에 등재된 당시 도축수는 다음 표와 같다.

[전주부 도축장 도축 마릿수]

연도 가축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소	1,169	1,114	1,052	1,140	1,090	858
돼지	70	51	1,266	2,492	2,992	2,944
말	2	—	4	4	5	7
닭	1,241	1,156	2,322	3,636	4,089	3,809

* 자료 : 『전주부사』(1943)

[구술] 도살장이 얼마 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고속버스 있는데 도살장이 이사한 것은 잘 모르고, 6.25 후 얼마까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있다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고속버스 있는데, 밑에가 전부가 그때는 논이었거든. 고속버스 있는 그 쪽으로 논 뚝 있는대로 쪽 내려가면 시방 무슨 교회인가 되었을거여. 덕암창고라고 있어요. 쌀창고. 고 밑에 덕암창고 그 밑에.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도살장자리인가 아닌가 몰라. 시방은 교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때 논두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외딴집으로. 그리고 그 후로는 도살장이 어디로 갔냐면, 팔복동으로 그리 옮겨졌을거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해서 왜 정 때 6.25후까지도 남국민학교가 도살장 자리고.

— 동서학동, 황봉규氏

[구술] 도살장이 없어진 것이 50년도 넘었지

공계 50년도 더 넘었지 아마 50년, 60년 되었을 거야. 우리 지금 저 우리 애가 그 학교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44살 이니까.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우리애가 몇 회 졸업생인지 모르겠네. 공계 한 60년 이상 되었을 거요. 학교 생기면서 그거 없어졌으니까. 공계 아마 도살장이 판데로 이전해서 그런가 어쩐가 하여튼 남초등학교여.

— 서서학동, 최장윤氏

[구술] 그 전에는 거기 살도, 막 이사도 안갔네. 백정놈 촌이라고 도수장이란건, 지금 남초등학교 있지? 고 안에가 도수장이 있어. 도

수장이란 똥인고이니 고기장사들이 소를 잡는데가 도수장이여. 그 전에는 거기 살도, 막 이사도 안갔네. 백정놈 촌이라고. 아 고기장사가 쌍놈 천놈이지 옛날에는

여 넘어 산성도, 갓바치라는건 갓만드는 사람이 갓바치. 저 신 땡그는 사람들은 까바치 그게 말장난이, 그 전에는 구한국때는 그렇게 짓잖는가? 그렇게 나라가 이 모냥 요 꼴 아닌가? 쌍놈의 취급했어, 그 사람들을. 수도꼭목있는데 거기도 고기장사가 있고.

_ 사대마을, 한창석氏

[구술] 그런디 흑석골에는 백정이 하나도 없었어.

산에 가서 나무하러 다니고 그런 사람 있었고, 나무 해서 갈퀴나무 같은 것 파는 사람도 있었고, 근디 인자 저 밑에가 도살장이 있어가지고 그 도살장 근방에 백정들이, 백정들이라고 그러지. 그런디 흑석골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다 없이는 살았어도. 여가 와서 못 살았나는 가봐. 동네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개잡는 사람도 없었어. 없이는 살았어도. 그리고 저기 삼거리 밑에 병원하나 있지. 박병찬 병원 그 금방에가 백정들이 많이 살았지.

_ 서서학동, 최장윤氏

III. 대성동

1. 대성동의 유래와 지명

대성동(大聖洞)은 전주에서 남원가는 대로를 따라 좁은목을 지나 위치한 마을로, 상관에서 흘러나오는 전주천과, 전주천 옆으로 난 전주 남원간 대로를 끼고 양편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즉 전주천 우편 남원가는 대로가 난 쪽으로 고덕산자락을 뒤로하여 원당마을, 내원당마을, 객사마을, 골안마을이 있으며, 전주천 건너 좌편으로 승암산자락을 뒤로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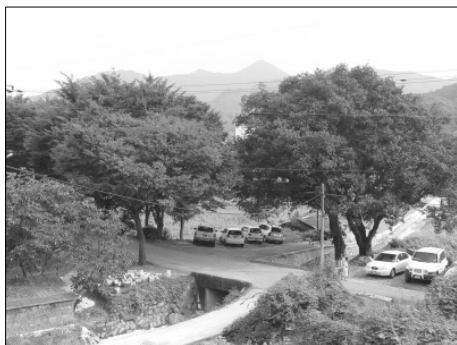
고덕산에서 본 대성동 일대

대마을이 있다.

본래 대성동은 부남면 지역인데 1914년 사계, 교동, 한계, 병풍, 대성, 사대, 원당과 상관면 객사동, 부동면 오계 각 일부를 병합하여 그 중심 마을 이름을 따 대성이라 하고 상관면에 편입

되었다가 1983년 전주시에 편입되어 대성동이 되었다.

□ 사대마을[四大里]



사대마을 당산수

사대마을은 전주천 좌편으로 좁은목을 돌아가는 사거리에서 송암교를 지나 치명자산 입구 쪽으로 조금 들어가 위치하고 있다. 사대마을이란 지명은 이곳에 장군대좌(將軍大座), 금반옥배(金盤玉盃), 복호(伏虎), 금구물니(金龜沒泥)의 사대 명

당이 있다 하여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하면 이 마을에 사는 한창석씨는 산, 바위, 바람, 물 4가지가 크다고 하여 사대마을이라고 했다고도 한다.

마을에서 치명자산 입구 쪽으로 100m정도 가면 초변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육탈이 될 때까지 시신을 묻어 놓았었다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 읍지에 보면 사대원(四大院)이라는 역원이 전주관아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사대마을 혹은 천 건너 원당마을 부근에 있지 않았는가 한다.

[구술] 4가지가 커서 사대마을

여기가 한문으로 녀 사자 큰 대자여 사대 사대마을인디 그게 녀 사자 큰 대자를 쓰느고니 산 대 산이 크잖아 그리고 석대 저 중바위 있잖아 돌이 크고 풍대 바람이 크고 여기가 좁은목 있잖아 유명한디여. 저기가 40리 거든 물이 내려 오느디. 옛날 여기 상관면이었어 상관면 대성리인데 전주로 이관된지 한 25~6년 될 것이여. 색장동하고 대성동하고 전주로 편입된것인데 그래서 인제 여기까지 온거여 그래서 어른들 말 듣기로는 인제 4가지가 크다고 사대마을이라고.

_ 사대마을, 한창석氏

[구술] 사대마을 초변골

그리고 요 밑에 요고 바로 뒷길 여기 골짜기 초변골이라느디여. 초변, 근디 모를 것이여 초변이 뭐인 것이니, 그전에는 사람이 그게 몹쓸 짓인디 인식을 못했어 한국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서 관에다 넣어 가지고 들에다 독을 놓고 거기에다 딱 놓고 나락을 이어 놔 그러면 냄새가 날 거아녀 그래가지고 인제 육탈 되면 해 근디 나도 알아 우리 쪼깐할 적에 애들 죽으면 여시가 뚫는다고 망태로 넣어서 솔나무에다 걸어놓고 말짱그런 짓을 했어!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

_ 사대마을, 한창석氏

□ 원당마을[院堂里]

전주에서 남원가는 도로를 따라가다 좁은목을 지나서 우편으로 원당마을이 있다. 여기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내원당마을이다. 원당마을은 원당이라고 하는데 대성동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위 아래 동네가 다 강씨네 땅이라고 할 정도로 강씨들이 이 마을에서 부자로 살았다. 교통로인 사대원(四大院)이 원당마을과 사대마을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칠성바위

이 마을에는 특이하게 집 마당에 고인돌로 보이는 큰 바위들이 있다. 마을회관의 오른쪽 길을 따라 올라가면 몇 채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칠성바위라고 불리는 바위들이 있다. 본래는 큰 바위 7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칠성바위라고 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유택수 할머니댁 마당에 바위가 2기를 비롯하여 3개가 남아 있다. 바위가 크기 때문에 마당에 그대로 둔채 집을 지었다고 한다.

[구술] 6·25 때 피해가 적었던 마을

(조사자 : 일제강점기 동네에 특별한 일이 없었나 봐요.) 없었어. 이동네는 깨끗했어. 인공 때도 사람 안 죽고, 일정 때도 징용갔다 온 사람들 많지. 징병 가다가 인자 역전에 가서 해방이 되어서 도로 돌아와 버리고, 인공 때도 하나도 없고, 아군들 후퇴할 때도 없었고, 일정 때도 없었고 이 동네는 딴 동네보다는 없었어. (조사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모르겠어. 그것이 인제 우리동네 생각하기 나름인데, 복탄 부락이라고 봐.

_ 내원당마을, 최기남

[구술] 서당

서원이라는 것은 없었어. 서당이지. 그전에는 조금만하게 이만한 방 한칸에서 서당. 이동네에도 있었고, 서학동에도 있었고, 저 아랫동네에도 있었고, 서당 많았지. 참 많았지. 부락마다 있었으께.

_ 내원당마을, 최기남

□ 객사마을[客寺里]

전주에서 남원가는 도로를 따라가다 우편으로 좁은목과 원당마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을이 객사마을이다. 보통 객사마을 하면 손님접대를 떠올리겠지만, 대성동 객사마을은 다르다. 객사마을의 ‘사’자는 ‘절 사[寺]’자이다. 이 일원에 절이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실제로 고덕산 자락 객사마을, 골안마을 일원에는 많은 절터 흔적들이 있다.

이 마을 일원에 ‘한데 시암거리’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다. 승암교를 건너 사대마을을 지나서 전주천을 따다가다 보면 각시바위가 나오는데, 그 각시바위 못미처 전주천에 보가 하나 있다. 이 보를 건너면 객사마을로, 전주-남원간 국도를 건너기 전에 몇 집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한데 시암’이 있었다. 전주 남원간 옛길에 위치했던 우물로, 이 길을 지나서 사람들이 잠깐 쉬어 물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던 곳이다.

[구술] 객사동 무학대사

객사동이 어떻게 객사동이나? 손객자 절사자 거든! 무학대사가 이 위에다 절을 짓고 살았대...!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만나려고 이 산에다 절을 지었다. 전설을 내가 들었어요!

_ 객사마을, 한상인氏

[구술] 한데시암거리

저 좁은목 약수터 있는데서 이쪽으로 건너오거든, 건너 이렇게 여그 오면 부지 자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조리가 그러면 저 객사동이라고 거가 저 한데시암거리라고 불렀어. 한데시암, 한데시암거리라고 거기서 인제 술장사도 하고 그랬지, 시암가에서 고렇게하고 인제 고렇게 하면 저 은석동으로 건너가 은석동 잘 알거 아녀? 그 건너가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갔다 길이 이렇게 있단 말여! 쪼만한 길로

_ 사대마을, 한창석氏

□ 수박동(授朴洞)과 효자 박진(朴晉)

사대마을을 지나 원색장 마을로 들어서기 전에 박씨 재실이 있는 수박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객사동(현재의 대성동)에서 바라보면 전주천 너머 각시바위와 서방바위가 보이고, 그 중간 지점 산기슭에 남향으로 움푹 들어앉은 골짜기 마을이 수박동이다. 조선 초기에 전주가 낳은 효자 박진의 설화가 서린 곳이다.

박진은 조선초 문신으로 호는 죽정, 본관은 전주이며, 경덕재 종수의 아들로 전주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정몽주의 외손으로 고려가 망하자 전주로 내려왔다. 그의 부인은 개국공신 완산군 이백유의 딸이며, 그의 누이는 한벽당의 주인 최담의 부인이다.

박진은 효자로 널리 알려져 정려를 받았으며, 현재 정려각이 전주향교 정문 좌편에 건립되어 있다. 본래는 이 위치가 아니었는데 옮겨 왔다. 누각에 ‘효자군수박진지려’라고 새긴 비와, 현판 2개가 있다. 이 효자비는 태조 7년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1724년에 중각되었다. 그의 효행을 기록한 『죽정공효행록』이 전해지고 있다.

『완산지』에 그의 효행이 전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자 벼슬을 버리고 집에 돌아가 시중을 들었다. 낮에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약을 달이면 반드시 먼저 맛을 보았다. 부친이 세상을 뜨자 예를 다해 장례와 제사를 지내고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태조 7년(1398)에 정려를 내렸으며, 벼슬이 지군사에 올랐다. 완산지에는 또 병이 위태로워진 아버지가 박진에게 지어준 시가 전한다. “여든 살 나이에 병상에 몸져 누우니, 예순 늙은 아들이 약을 먼저 맛보네. 삶과 죽음 운명은 끝내 피할 수 없으니, 네 어머니 무덤 곁에 내 무덤 써다오”

한편, 그의 효행과 관련해 야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태조 3년 영암군수로 있을 때 부친 경덕재의 환후가 위중하여 그날로 벼슬을 놓고 전주로 돌아오는데, 장마로 남천 물이 불어서 건널 수 없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고 그대로 말을 몰아 물길로 뛰어들었다. 그러자 거뒀던 물이 갈라져 길을 열어 주었다.

그는 이후 지극정성으로 부친의 병구완에 애썼다. 부친이 한겨울에 꽃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꽃순을 구해다 달여 드렸으며,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드렸다. 또 부친이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자 눈바탕에 수박을 구해와 드렸다. 후세 사람들이 이에 꽃순을 구하러 다닌 산을 박과산(朴菓山), 잉어가 솟구쳐나온 곳을 잉어소(鯉魚沼), 수박을 얻은 골짜기를 수박동(授朴洞)이라고 불렀다. 사대마을 지난 수박동이 바로 이런 박진의 효행이 어린 곳이다. 수박동 뒤에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이 박과산이고, 마을 앞 냇가에 지금은 흙으로 메워져 겨우 웅덩이 구실도 못하는 소가 잉어소이다.

□ 각시바위와 서방바위

사대마을에서 전주천변으로 내려와 왼편에 있는 복지회관을 지나면 각시바위가 나온다. 사대마을을 지나 원색장 마을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다가 암맥이 잘리고 길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바위가 서방바위이다. 또 애기바위도



각시바위

있는데, 사대마을 입구 올림픽 기념비 밑에 있다

사대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각시바우는 천가에 움푹들어가 있어 각시바위이고 서방바우는 튀어나와 있어서 서방바위라고 하였다고 한다. 각시바위와 서방바위 옆으로 흐르는 전주천이 예전에는 아주 깊어서 시퍼

랬다고 한다. 이 바위들이 각시바위가 되고 서방바위가 된 데에는 신혼부부의 애틋한 죽음에 관련한 설화가 전해온다.

[각시바위와 서방바위 설화]

①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신 신혼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 사이는 의가 좋았지만 고부 사이는 갈등이 많아 날이 갈수록 새댁의 시집살이는 고되어만 갔다.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구박을 일삼는 시어머니의 횡포에 견디다 못한 새댁은 마침내 바위에 올라 질푸른 여울물에 몸을 던짐으로써 한 많은 인생을 마감해 버렸다. 그러자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젊은 남편도 곧 뒤따라 바위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려 아내 곁으로 가고 말았다.

② 아주 먼 옛날, 이 마을로 시집을 오게 된 신부가 있었다. 신부들 태운 꽃가마가 깊은 여울물을 옆에 긴 비좁은 산길을 따라 신행길을 재촉하던 도중 그만 가마꾼의 실수로 이끼에 뒤덮인 바위에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꽃가마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져 신부가 물에 빠져버렸다. 뒤따르던 신랑이 그걸 보고 신부를 구하려는 일념으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신랑 신부는 물속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둘 다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화촉동방 원앙금침의 꿈을 못다 이룬 채 수중고혼이 돼버린 부부암의 유래를 역사설로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설화이다.

— 윤홍길, 『전주이야기』 가운데

[구술] 서방바위 물이 깊었어

남원사람들이 부자로 살어. 저 돌들이 남원을 향하고 있어서. 어 그러서 남원이 부자대 부자가 많이 산대. 전주보다는 저쪽 남원쪽에서는 성이 잘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이쪽에서 볼 때 남원쪽으로 성이 앞이 돌렸잖아. 구부러졌잖아. 거기가 애기바우, 각시바우, 서방바우 있는디가 그 전에는 물이 깊었어. 시퍼랬어. 군산서 내가 이리 이사왔을 때는 물이 시퍼랬어. 물 많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 서방바우도 물 뺀 버리고 없어지고, (서방바우는) 저기 은석동 가는디가 있어. 나그네골

지나서 화산 그 저 골짜기라고 그 골짜 앞이 각시바위, 서방바위 한가지로 있는가며. 애기바위하고 떨어져서. 사대에 있는 것이 각시바우고 거기가 있는 것이 서방바우여. 물이 서방바우 있는디가 훨씬 많고 깊었어.
_ 서해숙 외, 『우리전주 전주설화』 가운데

[구술] 각시바위 술장사

각시바위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면 전주 요정들이 다 여기로 나왔어. 아마 열 집 이상이 나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천막 쳐 놓고, 색시 데려다 놓고 술장사 하는 거야. 유명한 곳이지 뭐. 전주 요정들이 여름 장사를 여기 와서 했으니까.

물 좋으니까 자리 잡아놓고 천막 쳐 놓고, 천막장사, 술장사를 하는 거야. 전주 요정들은 다 나왔으니까. 좌우간. 열군데 이상 나왔지. 여름만 되면 여기가 그냥 벽적벽적 했어. 50년대 60년대쯤인데, 그 뒤에는 단속하니까 못하고. 아주 여기 뭐 색시장사. 옷 벗고 그냥 평상에 앉아서 색시들하고 술 먹고.

_ 객사마을, 한명희氏

2. 대성동의 문화유산

□ 견훤성(동고산성)

승암산(僧巖山)은 우리말로 중바위산이고, 천주교 순교자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여 치명자산(致命者山)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후백제 전주성, 천주교순교자 묘역, 동고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신라시대 정치적 혼돈으로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자 각지에 독자적 세력이



동고산성 내 견훤왕궁지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서해안을 지키는 비장으로 있던 견훤 또한 병졸을 거느리고, 892년(진성여왕 6) 무진주(광주)를 공략하여 세력확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견훤은 900년 마침내 거점을 전주로 옮겨 도읍을 삼고 국호를 백제라 하고, 왕을 칭하였다.

후백제 전주도성은 승암산 기린봉자락에서 그 자락이 끝나는 현 전주 고교 근처의 물왕벌(水王村)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상성(上城)·중성(中城)·하성(下城)으로 되어 있다. 상성인 중바위 동고산성(東固山城)을 중심으로 북향으로 뻗은 전주성은 현재 전주 동초등학교 서편까지 반월형으로 이어진다.

동고산성이라 불리는 견훤고성(甄萱古城, 지방기념물 제44호)은 306m의 주 봉우리인 발계봉을 중심으로 산능선을 따라 동·남·북벽을 쌓고 서북편으로는 전주시내로 흐르는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이며, 남·북에 돌출된 대지를 포용한 익성이 있어 두 날개를 단 독수리와 같은 형세를 보이고 있다. 성의 규모는 둘레 1,588m, 동서 314m, 남북 256m이다.

성내에서 가장 큰 건물은 물왕벌과 함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성황사 위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산을 등지고 서향하여 전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건물은 길이 84.2m, 측면 14.1m의 대규모 단일 건물로 남북으로 긴 누각형태이다. 여기에서 “전주성(全州城)”이란



동고산성 내 후백제 건물지

글씨가 새겨진 연화문, 봉황문, 무사문 와당 등이 출토되었다.

후백제 전주성의 왕궁은 일제강점기 물왕벌(水王村)이라 불리는 전주고등학교 동편 문화촌 일대에서 왕궁터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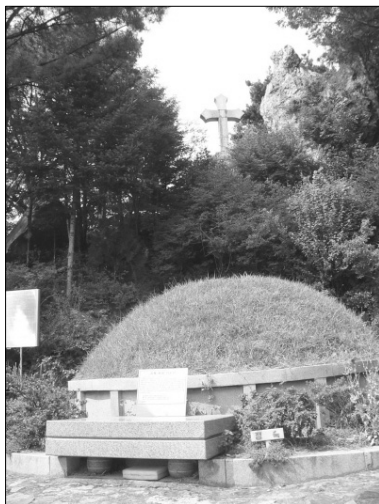
토된 것을 근거로 물왕말에 축조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승암산 성황사 위 건물지에서 전주성 명문 와당이 출토된 것 등을 근거로 동고산성에 왕궁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근래 구도청 자리(전라감영지) 발굴에서 통일신라 양식의 기와편과 건물지 등이 조사되어 후백제 도성이 승암산 자락이 아니라 도심에 자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천주교 순교자 묘역

이 무덤은 순조 원년(1801)의 천주교 탄압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유항검의 가족 7인의 유해가 봉안된 곳이다(지방기념물 68호). 호남 최초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유항검과 그의 아내 신희, 동정부부로 유명한 장남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 차남 유문철, 제수 이윅희 그리고 조카 유주성 등 7인의 순교자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 이들이 순교하자 교우들이 유항검의 고향 초남리와 인접한 제남리에 이들을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1914년 4월 19일에 전주 전동성당 보두네(Baudounet) 신부와 신자들이 이곳으로 옮겨 모셨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초남리 출신인 유항검(柳恒儉, 아우구스티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주지방의 대부호였으며, 1784년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천주교회에 입교한 후 호남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유항검은 1801년 9월 전동성당 자리에서 순교하였으며, 당국에서는 그의 목을 전주 풍남문에 메달아 놓고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를 믿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 유항검의 장남 유중철(요한, 22세)과 차남 유문철(요한, 18세)은 1801년 10월 전주 옥에서 순교하였고, 같은 해 12월 전주 숭정이에서는 유항검의 처(妻) 신희, 제수(弟嫂) 이윅희, 맏며느리 이순이(루갈다, 19세), 그리고 조카 유주성(마테오)이 순교하였다.

특히 이순이와 유중철은 세계 교회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



7인의 순교자 무덤

정부부(童貞夫婦) 순교자로서 “한국 순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기 위하여 평생 동정생활을 결심했고, 이 사실을 주문모 신부에게 알려드렸다. 주문모 신부는 당시 성년이 된 남녀가 일생을 동정으로 사는 것을 최악시 하였던 유교사회의 지탄을 피하면서 동정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라는 형식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

하고 이들의 결혼을 주선했다. 1797년 당시 15세였던 이순이는 18세인 유중철과 결혼식을 올리고 전주 초남이에서 남매처럼 4년동안 함께 살면서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겼으며,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구술] 십자가는 우리가 올렸네

십자가는 우리가 올렸네. (조사자 : 십자가를 어르신들이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헌디, 강한정이라는 사람이 인제 진안 사람인디, 저 노루목자락에 저기 살아. 사는디, 가서 그 말을 혀. 그래서 내가 내일은 못가고 다른 사람을 보낼게. 널 중중, 대중중 회의라고. 거기 가고 다른 사람을 보냈어. 그랬더니 아 석진이하고 달봉씨하고 3판 얼마 따가지고 왔네. 연방 그래가지고 싹 나갔지. 장정들 나오고 독정씨 순당이 나오고 전부 나왔지.

일당 받고 하는디. 강한정이란 사람이 잘 알어. 여그 농사도 이 사람한테 사서 짓고 그랬었어. 그런디 이런 나무가 있었어. 통나무가 긴 놈

이. 그 놈을 갖고 쪼다발 갖고 가서 봉게로 꼭 요만혀. 하바가,·· 열두 자여 길이가. 아 근디 썸썸을 못하것어.·· 그래서 이 도저히 목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가마니로 그 놈을 썸어. 싸고·· 이렇게 나무를 달았어. 이렇게 이달고 상여매듯이 줄을 내가지고 18사람이, 한쪽 9씩, 18사람이 메고 미는 사람도 있고 끄는 사람도 있고. 한 30명 이상이 움직였거든. 움직여도 한나절내 올라간것이 이 치명자산 거기밖에 못 갔어.

어, 거기밖에, 바닷이 천쪽 넘어가지고. 내가 그때 한창이었네. 춘배여기가 이쪽에 서고 요쪽에 내가 섰는디 못가것어. 그래서 인자 거기 집 하나 있어. 그 위에다가 모셔놓고. 성당에서 왔단말이여. 근데 김복사하고 인자··아까 봤지만 도저히 못 올라가요. 여기 딱 오더니 뭐라고 쏘글쏘글하더니 3만원 더 준다고 6만원 준다고. 배를 더 준다고 해.

하루가 6만원, 그 사람들 다 갈라먹는 것이지 그놈 받아서 하루가 6만원이 뭐여? 사람이 30명이 넘는디 그때 별이가 얼마 되거나 나중에 갈라놓고 보녕게로 썰 한 말 값 대신이여. 그렇게 사람이 많이 붙었어. (조사자 : 30명이 총6만원? 6만원을 30명이 나누어 가졌다는?) 그렇지. 30명이 넘어, 나중에는.

내 말 들어봐. 그렇게 했는디, 내가 거기 서 있다가 목사님 성당 교인들 많죠? 그러면 한 100명이상 되는데로 해 줄게 모이쇼. 그러라고해서 거기서 사람이 한 150명이나 왔어. 남녀간에. 산이 허안히 했어. 산땡히를 막 꼬았어. 5개를 꼬아가지고 막 줄을 열었어. 앞에 사람이 막 잡아다녀 막 사람이 벌떼같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밀었던 말여. 잡아당기니깐 쪽쪽 올라가.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는 잡아당기고. 그래가지고 올라간거여. (조사자 : 교인들 교우들 썸 불러다 모아놓고?) 응, 그래서 올라간거여. 그렇게 목도꾼들이 고약했는디 그때, 목도꾼들이 평강부리러 왔다 우리가 엄청 많웅게 평강도 못부리고 갔어. 그 사람들 있으면 돈 많이 쥐. 목도꾼들한테 하면은.

(조사자 : 목도꾼들은 일을 많이 안하고 그냥) 아 썸깐한 거 하나, 십자 이렇게 안생겼어? 이거는 우리가 민 놈이고 요렇게 요 썸은 상투요 하나 갔다왔다더랑게. 저기 저 순교자 묘 앞에 대법원장이 그 사람이 기탁한거, 그것도 우리가 올리고. 올리라고 해서. 성당에서.

_ 사대마을, 한창석氏

3. 대성동의 생활민속

□ 상관의 모스크바 객사마을 오씨집성촌

객사마을 윗마을 골안마을은 오씨 집성촌이다. 산청현감을 지내 오산 청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살았으며, 양반세가 강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오씨집안은 만석꾼으로 일컬어 질 정도로 가세가 대단했다. 지금 노인분들이 어렸을 때, 오씨집 하인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이들에게 ‘예, 예’ 했다가는 동네 어른들에게 혼이 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양반세가 상당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있었던 아천정(我泉亭)에서도 오씨들의 위세를 읽어 볼 수 있다. 남원가는 대로에서 우편으로 꺾어져 객사마을로 들어서서 마을 중간쯤 개천 좌편으로 오씨인물들을 산자락 바위에 새긴 곳이 있다. 그 앞에 공터가 있는데 여기가 아천정이라는 정자가 서있던 곳이다. 오씨문중에서 세운 것으로, 완산지(1911년, 1958년)에 의하면 전(前) 원경 오영석(院卿 吳榮錫)이 창건했다고 되어 있다. 아천정은 60년대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진으로만 전한다.

그런데 또 오영석은 1911년 완산지 편찬시 도유사(都有司)였다. 완산지 편찬 도유사라 하면, 지금으로 말해 편찬위원장 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주에서 오영석과 오씨문중의 위치를 알만하다.

이렇게 조선말 유력가 오씨집성촌이던 객사마을이 상관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좌익운동이 극심했고, 그 결과 이 가문은 몰락의 길을 갔다. 오씨 집안의 좌익 내력과 관련해 전해오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큰 아들은 면장 오치원, 둘째아들은 교육장을 지냈는데, 막내아들인 오치혁이 좌익 운동을 했다. 어느날 면장을 하던 오치원 씨에게 빨치산 대장을 하던 사람을 잡았다고 가보자해서 가 보았는데 자기 동생이었다고 한다.

오치혁은 전고에 다니던 아들, 전여고에 다니던 딸 두 남매를 두었다.

그런데 아버지 오치혁과 원한이 있던 우익단체가 좁은목 약수터에서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 남은 딸은 원불교 교무가 되어서 평생을 원불교를 위해 살았다. 마을 안쪽에 원불교 교당이 있는데 이것도 오씨 집에서 4만평을 기증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동네 살던 분들 중 월북자가 6~7명이 있었다. 특히 오치구라는 사람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간첩이 되어 내려왔으나 형제들에게 붙들려 자수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북에 딸을 둘 두고 와 상심이 컸으며, 이산가족 때도 찾지 못하고 죽었다. 이밖에도 많은 동네 분들이 좌익운동을 하다가 월북을 했고 돌아오지 않았다.

[구술] 객사마을 오씨집성촌

원래는 여기가 저기 객사 뒤에 가서 오산청이라고 살았어. 오산청이라는 것은 산청벼슬을 했거든. 산청 벼슬을 했기 때문에 오산청이라고 했거든. 근디 그 양반이 터를 잡으려고, 거시기 때문이 그 골이 거시기 하면 그 양반이 전부다 차지하는거 아녀. 산청벼슬을 해서 그랬는디. 요 근처가 전부다 종들이 많이 있었다. 종들이 그양반이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옛날이는 거진다 그러거여. 근디 인제 터 닦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알 수 있간디. 날마다 왔다갔다 허는디.

_ 색장동, 이완근氏, 『우리전주 전주설화』 가운데

[구술] 만석꾼이 되고 망한 이야기

거기를 골안이라고 그러지! 산청 원님 오씨들이 살았지. 경상도 산청 가서 돈을 겁나게 벌어가지고 와서 임실 학산가서 살다가 요리 왔지.

만석을 하는데 추수를 하고 보니 만석이 조금 못되더라네. 만석이 되게 하려고 사서 만석이 되었는데 만석이 된게로 다 나가버려! 그런 전설이 있어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제 분수대로 살아야 내 분수대로 살아야해.

_ 객사마을, 한상인氏

[구술] 객사마을 좌익 이야기

그때 당시 어제 오산청 양반이라고 벼슬한 양반, 산청에서 왔다는 양반. 그 양반이 자기 땅만 밟고 왔다고 할 정도로, 이사할 적에. 이삿짐 행렬이 10리에 뻗었어. 짊어지고 오는 이삿짐 행렬이. 그 양반이 와서 이 골짜기를 거진 다 차지를 하고 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멀하게 된 것이 좌익 그것 때문에. 그 시대에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집안에는. 일본 유학도 보내고 대단했지. 이철승씨 외갓집도 그랬고. 거의 몰락을 해버렸지. 일제 때 그랬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식자층이 되어가니까 좌익에 몰드는 거야 좌익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내가 그걸 여러 역사 고증으로 들었는데. 그걸 내용을 잘 아는 노인분이 한분 계셨는데,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남원에서 이사를 오신 할머니인데, 그 양반 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북도를 오면 만나고 갈 정도로 똑똑했다는데, 여기서 테러를 당했다고 이 동네서.

— 객사마을, 한명희氏

[구술] 아천정



아천정

다 팔아먹었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단히 궁궐같은 집이 있었어. 오산청 벼슬한 양반. 그 양반 집인데, 그대로 뜯어가버렸잖아. 경상도 부잣집에서 뜯어갔어. 그대로 가져다 짓는 거야. 집이야 헐어갔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까운 것은, 여기 가

면, 여기 집들이 있잖아. 집 끄트리에 굉장히 높은 정자가 있었어. 연못도 있었고. 내가 클 적에는 연못은 메꿔지고 없고, 정자만 남았는데, 정자를 사다리 타고 올라갔었어. 근데 웬갖 묵객들이 와가지고 묵어가면서 현판을 하나씩 써주고 간 것들을 현판을 걸어놓고 풍류를 즐겼다고,

연방죽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 주특기 있잖아. 먹고 살만하면 바위에다 이름 새기는거, 지금 가면은 오뎀시기, 오뎀시기, 오뎀시기, 그냥 이름 새긴거 그대로 있어.

한자로 바위에다 새겼는데, 지금도 있단니까 다. 거기에 그렇게 높은 정자가 있었어. 전각이지 전각. 정자. 전각. 그 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큰 놈인데, 난간도 말이며 기가막히게 깎아가지고 정말 잘 지은 놈이 있었는데, 못된 자손이 팔아먹어 버렸어. 내가 어린 마음에도 아까울 정도로.

60년대쯤 뜯었어. 목재 쪽 하나에도 전부 번호를 적어. 그대로 지을라니까. 어디로 갔는가 참 아깝게 뜯어 갔어. 진짜 멋진 정자였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물로 지정할 만큼 좋은 정자였어. 정자가 보통 얇잖아. 그건 높았단니까. 한참 기어올라갔어. 난간도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현판도 말여. 좌악 있었거든. 전부 가져간거야. 아무도 몰라. 자손도 여기 살도 않은 사람이 누가 뜯어가는지도 모르게 뜯어갔어. 자기들 것이니까. 오씨들. 자기들 놀면서 이름 수십 개 써놔서. 바위에다 이 집 있잖아 그 위에 말이 하나 있고. 발 끝트리. 우리 코빼기도 모른 자손들이 뜯어갔어. 집 뜯어간것이야. 그것은 굉장히 아깝단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얘기야. 약간 부자가 그 짓 하겠어? 그때 당시. 못은 없고. 우리가 만날 가서 놀았지. 밑에서 불을 때서 감자를 찌 먹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높아. 현판들이 많이 있었다는. 부자집이니까 지나가는 목객들이 글하나 써주고 가고! 진짜 그건 아까워. 전각터 거든. 전각 터. 형태도 특이하고, 사연도 있고.

_ 객사마을, 한명회氏

□ 땔나무 장사

대성동을 비롯하여 상관면, 구이면 사람들은 겨울철 생활수단으로 산에서 땔나무를 해다가 전동성당 담벼락, 풍남문 전복은행 일원 등에 내다 팔았다. 남자들은 지게에 땔나무를 지고 가서 성당 담벼락 아래 받쳐놓고 팔았고, 여자들은 머리에 땔나무를 이고 가서 팔았다. 영남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와서 나무를 해 전주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구술] 땔나무 장사 1

경상도에서 인제 못사는 사람은 전라도에서 머슴도 살고, 저 여기 와서 살면 나무도 하고, 근디 경상도만 나무장사 하는거 아녀. 못배우고 없는 사람도, 우리도 나무 장사를 헛어. 했는디 상관 사람들은 상관 이 런디도 말여 있는 사람은 크게 나무장사 혀.

궁게 있는 사람들은 크게 나무장사 헛고 없는 사람은 인제 또 그런거 없으면 술가지, 갈퀴로 굽어서 팔고 그렇게 나무장사 했어. 궁게 여그뿐 아니라 구이, 상관, 저 우전 그 쪽에도 나무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무장사여.

그때 비쌀적에는 손 놀리는 것보다 더 받고 헐할 적에는 조금 덜 받고 그러지. 근데 전주가 싸가지 없는것이 뭐인고니, 싸게 살라고, 나무를 산에 가서 일찍 해서 받쳐놓으면, 그렇게 어딘고니 지금 나뭇거리리는 지금 전북은행 지점 있지. 저기 남문있는데. 고리가 나무장수들 있어. 그러고 찌쪽에 가 있었고, 그러면 한 11시나 12시 되야 나무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저녁에, 싸게 살려고.

그런 세상을 살았어. 저 풍남문 있는데 로타리 있는데 전북은행까지 나무짐을 가지고 거기다 받쳐놓으면 와서 사. 보고, 근디 어쨌든 살 거면 일찍와서 살꺼 아녀. 12시 넘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못 팔으면 집에다 댕겨놓기도 하고. 그때 나 손 하루 일하면 한 1~2원 했으면, 비싸면 조금 더 받고, 그것보다는 조금 비싸지.

_ 사대마을, 한창석氏

[구술] 땔나무 장사 2

여기 사람들 생활수단이 뭐였나면은 땔나무 장사야.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로 지고, 전동성당, 성당 담 밑에 가서 죽 서있지. 지게를 받쳐놓고, 그러면 그때만 해도 연탄을 안 때고, 가스를 안 땔 때니까 나무를 땔 때니까. 나무 살 사람이 나와서 나무를 둘러보고 ‘잡시다’ 집에까지 디리다 주고, 거기서 그거 판 돈으로 쌀되박이나 팔아서 오고 그렇게 먹고 살았지. 농토가 없으니까. 농토라는 것은 다 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렇게들 살은 거야. 나무장사로 살은 거야.

(조사자 : 어제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 영남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나무 장사를 했다고 그러시던데요?) 영남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못사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이야 잘살지만은, 그때는 더 못사니까, 여기 와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거야. 시내 가서 파는 거야. 지고 가는 거야. 여자들은 이고 가고. 영남사람들이 지독해. 대부분 부잣집이 아니고는 전부 나무장사야. 겨울에 돈이 생길 전 그거뿐이 없잖아.

(조사자 : 이 근처가 농토가 많지 않은가봐요?) 없지. 있어도 다 있는 자들이 가지고 농사를 논을 얻어서 짓고 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세우고 나면. 그때 60년대 겨울 생활 수단이 나무장사였으니까. 땔나무 장사. 그 사진은 있을 거야 아마. 전동성당 밑에 나무 짐 받쳐놓은 사진은 내가 어디 기록에서 봤어. 나오더라고. 지게 해가지고 받쳐놓고, 아줌마들 흰 무명 치마 저고리 입고, 허리끈 찢매고, 나무 이고 가서 받쳐놓고, 나뭇짐 담 밑에다가 성당 담 밑에다가 죽 받쳐놔. 필요한 사람이 가서 ‘얼마요?’ 해가지고 집에까지 배달해주고, 양식 팔아가지고 가져오고, 생활 수단이 나무장사였었어. 너나없이 나무를 다 부엌에 때고 살 때니까.

_ 객사마을, 한명회氏

IV. 색장동

1. 색장동의 유래와 지명

색장동(色長洞, 塞牆洞)은 본래 전주군 부남면 지역이다. 색장이라는 동명은 마을 뒷고개에 왜적을 막기위한 담을 쌓고 경비하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부남면의 색장리·안적리·장전리·은석리·죽음리·죽실리와 상관면의 객사동 일부를 병합하여 색장리라 해서 상관면에 편입되었으며, 1935년 전주와 완주가 분리되면서 완주군에 속하였다가 1983년 대성리와 함께 전주시에 편입되어 색장동이라 했다.

[구술] 색장리 지명

이 마을이 색장리거든.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색자가 아녀. 저 빛색(色)자가 아니고 막을 색(塞)자여. 이렇게 막혀졌다는 얘기여. 그런데 저렇게 터졌잖어. 막을 색자 담장 장(牆)자. 담을 막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막을 색자 담장 장자. 그러서 색장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약식으로 색장이라고 했거든 그 전에는 전주부라고 했다가 전주시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었잖어. 완주군으로 있었는데 완주군이 폐지되고 전주시로 편입되었지. 전주시로 편입되어 전주시라고 허는디. 결국 지금 색장리라고 허는 것은 빛색자 길장자 마을리자 그렇게 해서 색장리라고 허는디, 약식으로 해서 그렇게 쉽게 쓰는 것이고 옛날에는 막을 색자 담장장자 그렇게 해서 색장리라고 했어.

_ 색장동, 서정렬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원색장마을

객사마을을 지나 전주 남원간 대로 좌우편으로 안적마을이 있고, 좌편의 안적마을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전주천을 건너면 원색장마을이다. 색장동의 중심마을로, 그 이름은 마을 뒷고개에 왜적을 막기 위한 담을 쌓고 경비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마을 형세가 풍수지리적으로 배형국이라고 한다.

[구술] 배형국 1

여기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네가 산이 올라가면 동네가 꼭 배형국이라. 배형국인디. 동부순환도로 내면서 저기 산을 끊어버렸어. 끊고 나서부터 우리 동네가 재난이 많이 나고 있어. 산을 끊고 나서 동부순환도로 내면서 산을 착 끊어 버렸거든. 그래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 산맥을 끊어 버렸잖어. 마을이 배형국인디 전부 인자 지하수를 파니까 배 바닥을 뚫는다고, 배 바닥을 뚫어버려. 그러서 안좋아. 지하수를 뚫는 것은 배 바닥을 뚫는거 아녀.

_ 색장동, 이완근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구술] 배형국 2

여기는 결국 배형국이라고 허는다. 이렇게 허가지고 뚫대는 저기 정 자나무 있잖어. 그게 기고. 그래서 배형국이라고 허. 옛날부터 산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통해서 재산을 이루면 떠나야한다고 그려. 오래 못간다고 그런다는 말이 전설이 전해오는 말이 있어. 이렇게 배같이 생기지 않았어. 배가 짐을 많이 실으면 가라 앉은게로,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가라 앉아 버리잖어. 그런게 앵간히 실으면 떠나가야지. 동네가 해방 될 적에만 해도 485명이었어. 지금은 저 건너까지 전부다 한 이십호 되는데. 신작로 전부다 농토로 들어가고 편리허기는 그전보다 편리헌디, 다 들어가 버리고 철도도 이렇게 끊어져서 농토도 다 들어가고, 거기에다 외지에다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거집 다 나가고 있간디.

_ 색장동, 서정렬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은석마을

은석(隱石, 銀石) 마을은 남원 대로를 따라가다가 원색장마을을 지나서, 전주천 좌편에 위치하고 있다. 은석동의 ‘은’자를 한자로 지금은 ‘숨을 은(隱)’을 쓰는데, 18세기말 호구총수에는 ‘은은(銀)’자를 쓰고 있다. 한자 의미 그대로 해석할 때 전



전주유씨제각

자는 숨은 돌이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은이 나오는 돌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은석동은 땅속에 돌이 많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 돌이 은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마을 주민의 구술에 의하면 땅속에 돌이 많다고 해서 은석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은이 석돈 묻혀서 은석동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을 뒤쪽에 전주유씨 동정파(東井派) 재실이 있고, 그 뒤 산 아래로 일제때 지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축조한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 양 옆으로 최씨와 유씨 선산이 있는데, 그 형국이 호랑이 머리상이라고 한다. 저수지 뒤에는 영화 ‘오래된 정원’을 촬영할 때 쓰인 집이 한 채 있다. 이 마을의 1/3이 유씨 땅이라고 한다.

[구술] 은석동 지명유래

은석. 숨을 은, 돌 석자. 여기는 파기만 해도 돌이 나온다고 해서, 밑에가 맨 파기만 하면 돌이 나온다는 얘기여. 또 어떤 사람들은 은이 석돈 묻혀서 은석동이라고 한 대. 원래는 돌 석자니까. 은은 생각도 않지 만은 그냥 언뜻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_ 은석마을, 유성희 氏

[구술] 은석마을 저수지



은석소류지

(조사자 : 저 위에 전주 유씨 제각, 전주유씨 동정과 제각 지나 저수지 하나 있더만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것은 일제 때부터 있었어. [마을주민] 일본 사람이 막은것이 아니고 지주가 막았다고 하드만, 그 때 노인 장 머시기라고 하드만, 그분이 막은

거여. 우리도 왜정때 막았기 때문에 일본사람이 막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지주가 막은 것이여.

_ 은석마을, 마을주민

[구술] 호두(虎頭) 형국

지금 저기 가면은 과수나무 있는데, 저기 거그가 유씨들 산이거든.

전주유씨들 산인디. 그 안이 유청씨 산이고, 유청씨 산이, 저 골짜к 음성 마을 저 골짜이는 거그가 묘지가 좋고, 요 앞이 요리 나온다 거기는 호랭이 머 같여. 거그가 산이 요렇게 안 생겼어. 그 안에는 유씨라도 파(派)가 틀린다. 그 사람들이 성묘를 오들 못혀. 저그 저 도로이서 그냥 절혀고 가고 그러. 왜 그러냐면 거그가 머 호랭이 대가리랴. 호चे, 호두 그러가꼬서는 말이 있거든. 그 사람 자손이 오면은 거그까지 가서 성묘를 못혀고, 도로서 성묘를 혀고 가고 그러. 성묘를 자손들이 못간단 말여. (무서워서요?) 근게 먼일이 있어서 그런가봐.

_ 색장동, 이완근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안적마을

원색장 마을 남쪽으로 전주천을 건너 맞은편에 안적마을이 있다. 남원 가는 대로를 가운데 두고 양 옆으로 안적마을이다. 마을 지명의 유래는 뒷산에 비안함로(飛雁含蘆), 선인취적(仙人吹笛) 두 혈이 있다 하여 안적(雁笛)혈이라고 하던 안적(安迪)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마을 지세가 비안함로(飛雁含蘆)란 "갈대를 물고가는 기러기" 형국이란 뜻이고, 선인취적(仙人吹笛)이란 신선이 통소를 부는 형국이라는 뜻이다.

[구술 : 자라바우와 소(沼)]

여기 앞이 보면은 지금은 논이 됐는데, 지금 저 노랑차 있잖어 그 자리고만(원색장마을 맞은편 산 아래의 도로 근처) 거기 가서 옛날에 바위가 이런 높이 하나 있었었어. 거그가 '자라바우'라고 그랬어. 꼭 자라같이 생겼어. 자라같이 도로가에 있었거든. 근디 거그가 그 전에는 냇가가 있었어. 냇가. 근디 거기가 쏘(沼)라고 있었지. 자라라는 것은 물 속에 살잖어. 그만큼 깊었어. 명주꾸리라고 명주꾸리. 베 찢라면 꾸리를 감잖어. 명주꾸리를 풀러 넣으면 그놈 하나가 다 들어가도 다 들어간다. 지금은 사차선 도로 내면서 바위가 없어졌고만. 근디 바위가 있었어. 그건 우리도 확실히 알어. 거그가 자라바우가 있어가지고 명주꾸리가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 (자라바우는 어디에 있어요?) 몰라 도로내면서 그

것이 파묻혀 버렸지. 도로 넓히면서. 바우 머리가 이쪽으로 있었지. 마을쪽으로, 자라바우가 컸어. 그 바우 머리가 우리 동네 쪽으로 있었어.

_ 색장동, 이완근氏,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부남마을과 덕산마을

안적마을을 지나 남원가는 대로 좌편에 부남(富南)마을이 있고, 부남마을을 지나 덕산(德山)마을이 있다. 본래 부남마을은 하죽음마을, 아랫대건네라고 하였고, 덕산마을은 상죽음마을, 웃대건네라고 하였다.

죽음리(竹陰里)라고 한 것은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것으로 아래위 동네를 나누어 하죽음마을, 상죽음마을이라고 하였다. 마을주민들은 죽음리라는 마을 명이 일제 때 붙여졌다고 말하는데, 18세기말 호구총수에 상관면 죽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부남마을과 덕산마을의 원래 이름이 죽음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부남마을을 아랫대건네라고 하고, 덕산마을을 웃대건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 죽음리를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누어 우리말로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또 웃대건네를 웃택건너, 아래택건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 마을에서 전주천을 건너면 정여립이 살았다는 집터 파쑈가 나온다. 이 정여립 집을 기준으로 웃택건너, 아랫택건너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상죽음과 하죽음마을을 각각 덕산마을과 부남마을로 바꾼 것은 마을 지명이 사람이 죽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개명한 것이라고 한다. 덕산마을은 고덕산에서 따온 것이고, 부남마을은 부자되라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술] 택건너 마을지명 1

택건너라는 웃택건너, 아랫택건너 라는 이름이 여기가 원래는 택건너예요. 그런데 왜 택건너라고 했느냐면은 정여립의 택의 건너마을이라

해서 댁건너, 이쪽은 아랫댁건너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실제로는 저기가 아랫마을이어야 하는데, 물이 거꾸로 흐르잖아 전주는. 전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이 흘러요. 산도 남쪽이 막혔고 북쪽이 터졌어요 지형적으로, 웃마을 아랫마을

그럼 어째서 상죽음 하죽음이 되었냐. 일본사람들이 호적정리를 할 때 호적을 만들었잖아 일본사람들이 새로. 그때 댁건너라는 말이 없는데, 국어사전에도 없고, 아 대그늘인가보다. 그래서 상죽음, 하죽음으로 만들었는데, 덕산과 부남으로 또 개명을 시킨 것은 죽음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따져볼때 대단히 어색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유기준 국회의원이 있었어 옛날에, 공화당 때 그때 그 국회의원한테 상신을 해가지고 마을 이름을 좀 바꿔줘라. 죽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저쪽은 상죽음, 하죽음, 객사동 그렇게 되어있는건데, 사실 이름을 싹 바꿨어요. 공화당 시절때 그때는 이름 바꾸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국방부까지 통과를 봐야돼. 군사지도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뀌어지고 여기는 부남, 저기는 덕산. 그렇게 다시 개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몇 번 바뀌었어 여기도.

_ 부남마을, 정갑수氏

[구술] 댁건너 마을 지명 2

옛날에는 마을 이름은 제가 알기로 댁건너라고 했습니다. 댁건너. 정여립씨가 저산 저쪽에서 살면서 내 건너마을에서 가서 불일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말씀 하신 모양이에요. 거기가면 연못이 크게 있었어. 지금 현재 터널 뚫는데, 그 밑에 가서 연못이 크게 있었어요. 그걸 상세히 알라면은 정여립씨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전주에도, 인제 이것 저것 저의 말도 한 마디씩 가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도 있고, 거기가면 상세히 나와 있을거여. 그래서 내건너 라는 말을 댁건너, 표현이 잘못 들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댁건너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부락이 전부가 대나무예요! 저 부남마을까지 산 밑으로 전부 대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죽자 그늘음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리 그래서 댁건너라는 말이 자연 생겨나는 거지.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흘러왔어. 그 뒤에 덕산마을이라는 것은 고덕산이 여 옆에 있잖아요. 고

덕산을 따서 노인들께서 윗분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명을 고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상죽음 하죽음 이랬거든! 아까 마을이름이 헛갈렸는데, 죽음리 할적에 상죽음 하죽음 그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가 상죽음이고 부남마을이 하죽음이고.. 여가 모부락 거가 자부락이에요 행정구역 상으로는 한부락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그 뒤에 색장리라고 불렀고! 그리고 덕산마을이라는 것은 20년 됐나? 20년전에 덕산마을이라는 것을 행정 저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생긴거죠. 덕산마을 자부락은 우리가 좋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자부자 써서 부남마을을 그렇게 붙였어. 그렇게 해서 부남마을이라 붙였지. 마을이름이 그렇게 변화가 왔어. 그 다음에 1982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할 적에 개편을 해서 남고동이 설치가 됐어. 남고동이 이 밑에 안적 부락 이라는데 있죠? 그 밑에 남고동 사무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행정구역이 너무나 소극적이라 인구도 적은데 합쳤잖아요. 동을! 적은동을 큰동으로 합쳤죠! 그래서 동서학동으로 합쳐진 거죠. 그전에는 남고동이 있었어요. 전주시로 편입되서 행정구역을 남고동으로 했어요. 색장동이라는 것은 근래와서 행정구역 편의상 색장동이라는거지 사실은 동서학동 아니어요. 그래서 색장동이라고 하지.

_ 덕산마을, 홍영수氏

2. 색장동의 문화유산

□ 정여립 집터, 파쏘

정여립(1546년, 명종 1~1589년, 선조 22)은 전주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홍문관 수찬벼슬을 지내다가 스승 율곡 이이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선조의 미움을 받아 낙향하였다. 진안 죽도에 서실을 짓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역모죄로 몰려 죽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역모를 실재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결이라고 보고, 날조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타살되었다고 본다. 정여립 모반사건으로 동인 1,000여명이 희생되었고 전라도는 반역향이 되어 호남사람들의 중앙진출이 제한되었다.

이 사건은 기축년에 발생하여 기축옥사라고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역모를 도모하였다는 설과, 서인이 동인을 타도하기 위해 날조한 당쟁의 산물이라는 설이 맞서있다.



정여립 집터(색장동 파쏘)

색장동의 파쏘는 정여립의 집터로 이야기되는 곳이

다. 기록에는 남문밖에 살았다고는 되어 있지만, 파쏘라는 지명과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이곳이 정여립이 살았다는 집터로 추정되고 있다. 신리역에서 전주로 가는 기차길을 따라 얼마 안가면 색장동 터널이 나오는데, 그 터널입구 동편에 파쏘봉이 있고 그 아래 파쏘 자리가 있다. 웃대전네와 아랫대전네 마을에서 보면, 전주남원 대로와 전주천을 넘어 맞은편이다. 정여립이 역모죄로 몰려 그 집터를 파서 소를 만들었다는 곳으로, 지금은 메워져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그런데 파쏘봉을 파수봉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 산 아래 파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봉우리 이름은 파쏘봉이 아니라 파수를 본다는 의미의 파수봉이라는 것이다.

[구술] 정여립

월암리 가면은 정여립이가 거기 살면서 세부렸다는 그 얘기가 시방도 지금 떠돌고 있어. 정여립이가 중이 동냥하러 오면은 그 앞애가 거기다 색장동인데 댁전너라고 하거든. 댁 전너로 가라고 했디아. 근디 그전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은 정여립이가 축지법을 써 가지고 한 발자국 가면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디아! 그런 전설이 있기가 있는데 아마..!
(조사자 : 왜 중이 오면은 댁전너로 보내요?) 정여립이 살던 그 앞애가

댁 건너라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 버렸어. 댁 건너로 가라고 중이 와서 동냥을 하면은 그래가지고 (조사자 : 동냥을 안주고 보냈다는 것인가요?) 중을 콩을 이눔을 물에다 담귀 가지고 콩태를 먹었디야 (머리에 둘러 줌). 대가리에다 그러면 불은게 아파가지고 말이여, 콩이 불으면 막 팽창할거 아니여. 그래가지고 중을 혼을 냈디야. 그러니까 중이 그걸 복수 하기 위해서 버드나무 있잖여. 버드나무 앞에다가 버러지를 뜯어 먹게 꿀을 발라가지고 정여립의 시대라 한게~ 아따 인제 내 시대가 왔다! 해서 역적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죽었디야. 그런 말이 지금도 지방도 우리가 알고 있어.

_ 원색장마을, 이완근氏

[구술] 파쏘 1

신리터널. 여기가 파수 거기 쏘자리 아니여. 정여립 거시기 한자리. 정여립 비 많이 있고. 거기 가면 돌에 많이 써져 있잖아. (조사자 : 방금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저 봉우리가 파수봉이라고도 하고? 저 밑에 물 쏘가 있어요?) 쏘가 있었어. 요 날둥이 잠겨. 여기가 쭉 잠겨.

_ 은석마을 유성희氏

[구술] 파쏘 2

쏘는 그대로 있었어. [마을주민] 논을 치면서 많이 매워졌지. 지금은 다 없어졌지. 도로나고 철로나고 뿔하고 다 없어졌지. 매워지고... [마을주민] 완전히 매워졌지. [마을주민] 그 집자리 깊었다고 하더라. [마을주민] 형님네 집자리가? [마을주민] 아니 그 앞에.... 거기 말하자면 뜰이여, 뜰, 췌간할 때 가서 보면 키가 넘고, 우리가 가서 보면 배꼽이 닫고 그랬대.

바위 밑에가 기여. 바위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있잖아. 바로 밑에가 거기여. 거기가 물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 지금은 철로나면서 안쪽이 다 매워져 버렸지. (조사자 : 거기 묘가 있고 그러던데?) 그 묘는 요 근래에 쓴 것이고.... (조사자 : 원래 그럼 그 밑에가 쏘였던가요?) 묘 바로 옆에, 상관 쪽으로 (조사자 :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구요.) 철로 공사 때문에, 그 철로하고 철로하고 가

운데여 사이. (조사자 : 아 옛날 철로하고 지금 새로 짓는 철로 가운데가 쏘 자리예요? 아~ 그럼 이쪽 경계를 넘어가는거네?) 아녀. 거기까지는 전주땅이여. 터널 막 지나자면서 이쪽 냇가 쪽으로 그 자리가 쏘 자리여. 현재 구철 있잖아. 구철 옆에가 현재 쏘 자리여. (그 철 지나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생가터라고 그러더라구요.) 말은 그렇게 혀.

_ 은석마을 유성희氏

[구술] 파수봉

윗동네 가서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봉화 말하자면 그 바로 이 앞에 하나 있고, 파수 철길 옆에 밭 옆에 그게 기다고 하더라, 불을 켜면 불 켜주고 연락하고.... 궁게 봉화 거시기가 파수다고 하더라고, 파수에서 불을 켜가지고 저쪽에서 연락받고, 같이 불을 켜주고 연락, 연락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 어른들한테 이 얘기는 들어봤어.

_ 원색장마을 이완근氏

□ 거두리 참봉 묘소

기인으로 널리 알려진 거두리 참봉의 묘소가 원색장마을 뒷산에 있다. 전주이씨 선산으로, 지금 광양기는 고속도로가 나고 있는 길 아래쪽이다.

거두리 참봉으로 불리는 이보한(李普漢, 1872~1931)은 전주태생이다. 그의 본관은 전주이씨로 부친은 이경호이다. 모친은 김해김씨이다. 그는 서자로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시절을 외롭게 자랐으며, 홍역을 앓으면서 심한 신열로 왼쪽 눈을 실명하여 평생 검정 안경을 쓰고 다녔다.

그의 백모는 서울 할머니(이주상의 조모)라는 분이었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아침 저녁으로 거두리란 찬송가를 불렀다. 보한은 백모를 따라다니며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마침내 그는 독실한 신자로서 박애정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 때부터 그는 거두리라는 별명으로 자처했으며 세상사람들도 그렇게 불렀다.

그는 거것으로 미친척하며 일제를 조롱하고 아세(阿世)하는 무리들을

해학으로 조롱하였으며, 굶주린 가난한 자들과 절인들을 구호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일화를 남겼다. 한두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가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거짓으로 미친척하여 풀려나왔으며, 금구 회갑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수십명의 절인들을 데리고 가서 포식을 시켜준 일도 있었다.

상관 죽림(上關竹林) 마을 길가에 그의 아름다운 자취를 기리는 ‘이공 거두리 애인비(愛人碑)’라는 빗돌이 세워져 있었다. 비면 좌측에는 작은 글자로 ‘평생 성질이 온후하고 인자하였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주고, 밥을 주었네!’라고 쓰여 있었다. 비록 조잡한 석질에 치졸한 글씨로 신작로 먼지로 부영게 뒤덮여져 볼품은 없고, 녀자 밖에 안되었지만 값진 비석이는데 광복 무렵 사라졌다고 한다.

[구술] 거두리 참봉

거가 전주이씨 선산인디 거들이 전부 그전에는 저 우로 옮겨 갔어. 저 학생들이 와서 별초도 해주고 그랬는디. 묘 많은 데로 갔어요. 그 때 어느 학교 학생들이 왔나?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한번 왔었어. 별초랑 한번 했었어. 벼슬이 참봉인디. 거두리 참봉이라고 자기는 못 살아도 그냥 모시고 있으면 그냥 없는 사람을 막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이름이 거두리 참봉이라고 해갔고 대학생들이 와서 별초도 해주고 그랬어. 여기는 그런 것 없어요. 유적지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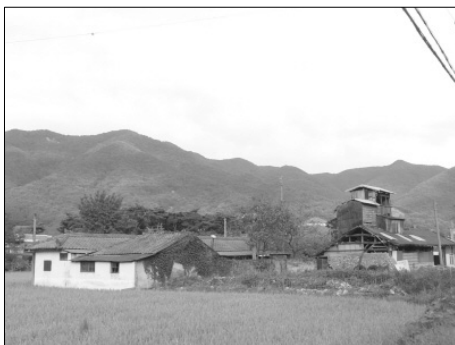
— 원색장마을 이완근氏

□ 안적마을 지소

전주에서 남원가는 대로를 따라 가면 좌편으로 원색장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이 길로 들어서서 바로 우편으로 지금은 운영되지 않는 폐가가 다 된 정미소가 있다. 남원가는 대로 변으로 행정구역상 색장동 안적마을에 속한다. 이 정미소 뒤편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 그 뒤에 원

색장마음이 있다. 이 정미소가 한지를 뜨던 지소가 있던 곳이다. 여기에서 한지를 뜨다가, 정미소로 바뀌었고 지금은 정미소마저 문을 닫은지 오래이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소는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광복 후 폐지되었다. 매우 큰 규모여서 현 정미소에서 원색장가는 길 쪽으로, 8집이 살 수 있는 줄방이 있었다. 줄방이란 줄지어 지은 방이라는 뜻으로, 방 한칸에 부엌 한칸으로 되어 있는



안적마을 지소터

한지 초지공들이 살았던 숙소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창호지를 뒀다.

공장 소유자는 부남마을에 살았던 백남용씨로 부자로 잘살았다고 한다. 이 지소의 종이생산 방식은 공장 소유자가 있고, 작자들이 있었다. 작자란 종이뜨는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한지를 뜨고, 공장 사용료로 생산량의 6%를 공장 소유자에게 주었다. 이런 작자들이 이 한지공장에 20여명 있었다.

정미소 옆, 원색장으로 가는 길가에 사는 박재천 할아버지도 젊어서 이곳에서 작자로 한지를 뒀다고 한다. 여기에서 종이를 떠서, 기차로 탁송해 서울 북아현동 종이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의 증언에 의하면 왜정 때 이곳보다도 상관면 신흥리와 남원대로 건너 백산바우에서 종이를 많이 뒀고, 이곳들이 오래된 지소들이라고 한다.

3. 색장동의 생활민속

□ 원색장 마을 당산제와 두레



색장마을 당산수와 당산제

원색장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고 마을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있어, 멀리에서 보면 마을의 상징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음력 정월 열나흘날 자시경에 당산제를 지냈다. 제관은 주로 이장이 맡았으며, 제수비는 마을 부녀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걷어 마련하였다. 당산제는 당산나무 앞의 냇가에 제물을 헌식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원색장마을 당산

제는 남원가는 도로가 뚫리면서 모시지 않다가, 지금은 칠월 백중날 ‘술맥이’ 동네잔치를 하면서 간단히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원색장 마을은 음력 6월 중순이면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일을 같이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두레를 ‘두레난다’고 하였다. 두레가 나면 각 집에서 남자 한명씩 나온다. 마을 회에서 두레날짜가 정해지면 마을에 보관되어 있는 ‘큰 기’를 끌어내어 동네 앞 공터에 세워놓는다. 기는 두세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컸다고 한다. 두레가 끝나면 농사도 끝나는데 칠월 백중날 술맥이 잔치를 하고 걸판지게 놀았다.

□ 땀나무 장사

상관면 구이면 등 전주 주변 동네에서 겨울이면 땀나무를 해 전주로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듯이, 색장동도 그러했다.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동네여서 땀나무 장수가 아니면 살지를 못했다고 한다. 겨울이면 나무짐을 지고 전주로 가서 팔아 쌀 한 되를 사와 연명하는 것이 일상사였다.

[구술] 땀나무 장사

지금은 사방이 가든이네 산장이 생겨버렸지. 주막, 주점이 생겨가지고, 그러가지고서는 옛날이는 과거를 보러 가도 이 길로 이렇게 한양에 올라고 전부 걸어댕기지 않았어? 사람이. 지금은 가스 때고 석유 때고 그러지만 옛날이는 전부 나무를 땀거든. 그래 상관면이 여그가 옛날이는 여기도 상관면이었어. 지금은 전주시로 떨어졌지만. 옛날이는 저 나무장사 아니면은 여기가 살들 못했어. 나무 혀가지고 가서는 그놈 팔어가지고선. 일정때 나무 한 짐 팔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쌀 한 되 판다니까 얼마나 돼? 쌀 한되 판다. 한 짐 혀가지고 가면 한 되를 팔아. 지금 이맘때쯤 되면 나무짐 지고 시내로 들어가겠고만. 이리 철로로 옛날에 철로가 이리 있었거든. 글면 글로 가서 그놈을 팔고 밤 12시 1시 되지. 이태까지 안 사가면 이때까지 팔고서는 쌀 한 되 팔어서 나무 판 돈으로 그러가지고서는, 지게다 지게 꼬쟁이라고 앞이 보재기가 이렇게 있어. 거기다 쌀을 묶어가지고 오면은 식구들은 인자 그놈 가꼬 가서 밥을 해 먹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쌀 한 되 팔어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고 그랬어. 일정 때 농사진 것을 일본놈들이 다 뺏어 가버리고 농사 이렇게 있지만 몇몇 사람이나 농사 많이 짓지. 그 전이는 농사 쪼깨씩 저가꼬 물도 없어가꼬 흉년들어버리지. 지금은 다 지하수가 있어가지고 양수기로 품고 그러지만은 옛날이는 옛날 같으면 모 하나도 못 심었어. 그러가지고 시내서 그놈 팔어가지고 지금 서학동이나 교동, 그 전이는 거그다 청수정이 있었거든. 거그 주점이 가서 특특한 막걸리 한 대접 먹고 오는 거여. 와가지고서는 갔다주면 식구들이 밥혀

서 먹고, 그 이튿날 또 올라가서 나무허고 그렸었어. 여그가 아주 빈촌이었어. 빈촌.

_ 색장동, 이완근,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도깨비제

원색장 마을 논에는 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도깨비한테 잘못하면 돌을 가져다 놓고, 잘하면 돌을 치워준다고 해서 도깨비에게 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구술] 도깨비제

여기는 논이 전부 돌이 많거든. 자갈. 여기는 저쪽 저 김만경(김제만경) 저쪽일처럼 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맨독여. 아다시피 독인데, 도깨비한테 잘못 거시기 하면 돌을 어디서 가따 논이다 썩 버린다. 도깨비가 심술나면 궁게. 도깨비제를 지내주고 그러잖어. 그러면 썩 돌을 가져다가 없애 버리고. 그런게 도깨비제를, 인자 도깨비제를 지내주고 그랬어. 그 전에. 글 안허면 그것이 심술부리고, 그러면 독을 갖다가 붓어버리고 근다고.

_ 색장동, 이완근, 『우리전주 전주설화』에서 재인용

□ 6·25와 좌우익

색장동에도 6·25 때 빨치산들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객사마을이 좌익의 본산이었음에도 마을 사람들 간에 좌우익의 갈등은 없었다고 한다. 아래의 구술은 6·25때 대한 청년단 상관 책임자를 지낸 박재천씨의 경험을 구술한 것이다.

[구술] 6·25

인공매를 지금, 인민군이 여기 점령했을때는 인공매라고 허는디, 나 같은 부류는 지긋지긋해. 그때 반동이라는 것은 해방되고 좌익이 우익

람 다치고 살고 하는데는,

(조사자 : 요 근방이 그게 심했다고... 객사동, 오씨네 집안 인공때는...) 오씨네 집안은 어떻게 해서 아는가? 그게, 그 동네가 상관 좌익의 근본이고 완주군 수도여 수도. 그 동네가. 오씨들...

(조사자 : 그때 전주에 대한청년단원들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건 몰라. 그 저 거시기 진미반점 자리가, 지금 중화요리, 진미반점자리. 거기 벽돌집이 코너에 있지? 그게 한청 본부여. 손권대라고 해서, 단장이 나보다 조금 더 먹은 사람인디 우리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며. 손권대라고 있었어. 그 전주 단장. 나는 상관 책임자.

(조사자 : 상관에는 청년단원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상관에? 그제들쪽날쪽하니 통계도 없어. (조사자 : 대략 한 몇 십명 정도?) 몇 십명은 아니지, 몇 백 되지. 그게 뿔을 허는 가면, 우익운동도 허지만 거시기 수복 후에는 그 빨갱이하고 전쟁을 했지. 그 반대는 자들도, 인민군.

(조사자 : 피난은 산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부산쪽으로?) 첫 번째 달밤에 임실 어느 골짜기에 가서 숨었었지. 그때 바로 몽둥이로 맞아 죽는디. 수복 후에는 그러고도 집에서 못갔어. 밤에 와서 죽여. (조사자 : 임실 산골에 숨어 계시다가 수복되서 집에는 오셨는데...) 집이, 내 집서는 안갔어. 넘 집에서 어디서 잤는지 몰라. 옛날 역사 참 무서웠어.

젤 많이, 내가 젤 많이 죽는 것을 어서 봤다면, 풍남동 고목 은행나무 있지? 지금?(조사자 : 최씨종대 있는데?) 어, 그 옆에 가서 완주군 내무서가 있었어. 그 완주군 경찰서여. 그 옆에 가서 전주시 경찰서여. 고 속에서도 죽는거 그냥 비밀비재하게 많았네. 마을서 그냥 뽕 소리나면 거기서 죽는거여. 완주군 내무서, 전주시 내무서. 경찰서여. 우리내 경찰서, 우리나라 경찰서.

(조사자 : 듣자하니 수복 후에도 흑석골, 남고산성 있는데, 거기는 밤에는 인공들이, 빨치산들이 많이.) 여그도 똑같애, 거그는 덜 해. 남고사거 근방에는 빨갱이들 없어. 그 동네는. 본래 그 동네 출신들이 이거 있어야 혀. 거기는 없어. 조용헌데여. 그래가지고 그게 상관면 관내였었는데, 시로 편입되었지.

(조사자 : 그러면 그때는 전주에 어디가 빨치산들이 많았어요?) 객사동, 아 거그가 본부고 발치산들이 뿔이 뿔고는 인민군 의용군 잤잖아.

의용군 갔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수를 해가지고 얼른 잊어버리면
괜찮은디 언젠간 죽일것이다 생각을 하게 자수를 안하고, 그 사람들 들
고 인자 숨는거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자 나중에 경찰서에 잡히
면 그때 형을 받아야지 조금. 죽든 안했어. 그렇게 그거 안할라고 들고,
빨치산에 들고 낮에는 산으로 들어가고 저녁에는 나와서

_ 안적마을, 박재천氏

[구술] 마을 주민간의 좌익과 우익의 협력

(조사자 : 생각을 해 보면, 오씨 맥이랑, 어르신은 우익단체활동을 하
셨는데 마찰은?) 그건 없고, 그건 없고 다정히들 지냈어. 암면, 서로 죽
이고 그런 일은 없어. 내가 그 집에, 오씨들한테 해 준 일도 없고 내가
정치보위부. 아까 말하자면 완주군 정치보위부 거기 들어갔을적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완주군수, 인민군 위원장 군수지, 그 집에 가서 우리 재
천이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도 애원해싸서 그 양반이, 군 인민위원장
이 완주군 정치보위부에다가 거 박재천이 가 뭐 별것도 뭇이야 그 반역
한 것은 없으니깐 좀 내보내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알아. 그래
서 내가 안죽고 살아난 것은 그 양반 때문이여. 내가 우익이라고 해도,
그쪽은 좌익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피해를 안봤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았고. 사상만 달랐지.

_ 안적마을, 박재천氏